

ISSN 2288-4386

지역경제보고서

2025. 7



한국은행
BANK OF KOREA

BANK OF KOREA

지역경제보고서

2025. 7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비전 및 조직가치

설립목적

-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

비전 및 전략방향

- 비전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
- 전략방향 Agility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Collaboration 협업과 시너지, 대내외 협력
 Expertise 전문성, 준비된 정책역량

조직가치

- 공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함
- 중립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 책임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책무를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음
- 소통 임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함
- 전문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어 책무 수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함

I. 권역별 경제 동향

1. 수도권	9
2. 동남권	16
3. 충청권	23
4. 호남권	31
5. 대경권	38
6. 강원권	45
7. 제주권	52

II. 지역경제포커스 59

III. 지역경제 연구

1.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01
2. 청주공항 항공 물류 기지화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118
3. 美 신정부 관세정책이 충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37
4.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157
5.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영향 분석	179

부록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자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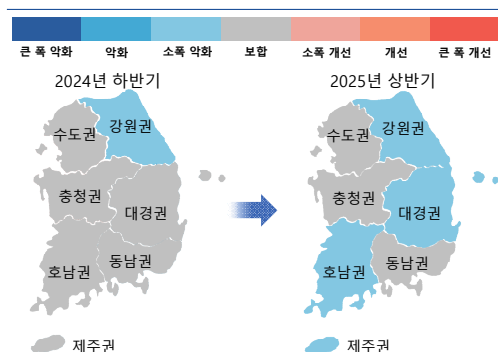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지역경제 동향은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향후 발표되는 공식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경기 개황

2025년 상반기 중 권역별 생산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지난해 하반기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서비스업이, 강원권은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대경권과 제주권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 경기¹⁾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과 분기 GDP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이 대부분 권역에서 보험세를 보였고 건설업은 모든 권역에서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은 수도권만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분기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2/4분기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였다.

제조업은 반도체(수도, 충청)가 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갔고, 하이브리드 완성차 및 부품(충청, 호남)은 수출 확대로, 조선(동남, 호남)은 충분한 수주물량 확보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정제 및 화학(동남, 충청, 호남), 철강(동남, 충청, 호남) 등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수도)이 증시 호조, 대출 확대 등으로 생산이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은 주택, 전월세 거래가 늘어난 일부 권역

(수도, 강원)을 제외하고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은 권역별로 증가(동남, 충청, 대경), 보험(수도, 강원), 감소(호남, 제주)가 엇갈렸다.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의 경우 연초 정치 불확실성 고조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생산이 감소하였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비 부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누적 등으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하반기에는 추경 및 내수진작 정책,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모든 권역에서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 또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생 산

제조업 생산 대부분 권역 보험세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에서 전년 하반기 대비 보험세를 보였으나 대경권, 강원권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반도체 생산이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나, 자동차와 디스플레이가 소폭 감소하면서 보험세를 보였다. 충청권은 반도체가, 동남권과 호남권은 조선 등이 생산 호조를 이어갔으나 철강, 석유화학 등이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감소하면서 전체로는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대경권은 휴대폰 및 부품, 철강을 중심으로, 강원권은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제주권의 경우 반도체 생산 호조와 비금속광물, 식음료의 부진이 상쇄되면서 보험세를 나타냈다.

권역별 제조업 생산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험,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동남권은 조선 및 기계장비, 대경권은 휴대폰, 강원권은 의료기기, 제주권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남권은 자동차 및 철강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상반기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생산 수도권만 소폭 증가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수도권에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동남권, 충청권, 강원권에서는 보합세를 이어갔고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증시 호조, 주택매매거래 확대 등에 따라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동남권과 충청권은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이 각각 정치적 불확실성, 주택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도소매업이 증가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강원권은 숙박·음식점업이 부진하였으나 부동산업이 전월세 거래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하반기 수준을 이어갔다. 그러나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은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 서비스업 생산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대부분 권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생산 모든 권역 감소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건설공사비 부담, 누적된 주택미분양, 대내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그간 착공 감소가 이어진 데다 신규 수주도 부진하면서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였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큰 폭 감소하고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제주권은 감소하였으며, 충청권과 대경권은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 건설업 생산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금융여건 완화, 추경 및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의 경우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호남권과 대경권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남권과 제주권의 경우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중 권역별 생산 동향¹⁾

	제조업	서비스업
수 도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도 체(◇): AI용 고성능 반도체 수출 호조 자 동 차(▼):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우려 디스플레이(▼): IT 수요 불확실성 증대 및 수출 부진 의 약 품(▼): 전년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 융 보 험(▲): 은행 대출 증가세 및 국내 증시 호조 부 동 산(▲): 가격상승 기대심리 따른 거래 증가 도 소 매(◇): 소비심리 느린 회복 숙박음식점(▼): 연초 정치 불확실성 확대 이후 일부 회복 운 수(▼): 해운·항공 화물 운송 감소
동 남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선(▲): 양호한 수주잔량 및 인력부족 완화 기 계 장 비(▲):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자 동 차(◇): 선수요 수출 증가, 미국 공장 가동 본격화 철 강(▼): 건설경기 부진 및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석유 정 제(▼): 업황 부진으로 인한 낮은 정제마진 석유 화 학(▼): 글로벌 공급과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소 매(▲): 소비심리 개선 숙박음식점(▼): 높은 외식물가 수준 및 소비심리 위축 부 동 산(▼): 주택거래 둔화 운 수(▼): 항공 여객 수송 증가세 둔화 및 내륙 물동량 감소세
충 청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도 체(▲): AI 서버용 수요 지속, 선구매 수요 증가 자 동 차(◇): 관세 부과,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 및 하이브리드차 부품 생산 본격화 디스플레이(◇): 고성능 IT용 OLED 패널 수요 증가, 중국 업체 시장점유율 확대 석유 화 학(▼): 글로벌 공급과잉, 제품 수익성 악화 철 강(▼): 건설경기 부진, 관세부과에 따른 생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소 매(▲): 소비심리 개선 운 수(◇): 항만·항공 수요 감소, 철도 여객수송 증가 숙박음식점(▼): 축제·단체행사 등의 취소 및 연기 부 동 산(▼): 상업용 부동산 부진 지속
호 남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 선(▲): 고선이 선박 인도 및 신규 수주 회복 자 동 차(▲): 하이브리드차 수출 증가 석유 정 제(◇): 정제마진 개선으로 수출 증가, 공장 정비 석유 화 학(◇):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 생산라인 가동 중단 철 강(▼): 건설경기 부진 및 생산설비 수리 반 도 체(▼): 자동차 부문 물량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동 산(◇): 주택 거래량 증가, 미분양 아파트 증가 숙박음식점(▼): 높은 외식물가 운 수(▼): 항공 및 수상운송 소폭 감소 도 소 매(▼): 소비심리 회복 지연
대 경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스플레이(▲): 차량용 OLED 패널 생산 증가 자동차부품(▲):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 휴대폰부품(▼): 전년도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철 강(▼): 건설경기 부진, 관세부과에 따른 생산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소 매(▲): 승용차 판매 증가 숙박음식점(▼): 호텔 숙박객수 감소 운 수(▼): 육상·수상운송 감소, 항공 화물 운송 둔화 부 동 산(▼): 상업용 부동산·주택 및 토지 거래량 감소
강 원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기기(▲): ICT 기반 의료기기 성장 음 식 료 품(◇): 주류 수요 감소, 면류 수출 증가 의 약 품(▼): 경쟁심화 및 재고조정 시 멘 트(▼): 건설경기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동 산(▲): 전월세 거래 증가 문화서비스(◇): 골프장 이용객 감소, 문화취미 소비 증가 도 소 매(◇): 대형소매점 판매 둔화 숙박음식점(▼): 1/4분기 침체후 2/4분기 방문객 수 증가
제 주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 도 체(▲): 중화권 수출 증가 비금속광물(▼): 아파트 신규 착공 부진 음 식 료 품(▼): 신제품 판매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보 통 신(◇): 게임 업데이트 흥행 후 둔화 도 소 매(▼):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소비 부진 숙박음식점(▼): 관광객 감소 문화서비스(▼): 여가·체험형 상품, 골프장 수요 부진 운 수(▼): 항공편 운항 축소 사업서비스(▼): 단체 관광 연기, 내국인 개별 관광객 감소

주: 1) () 내는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감소, 보합을 나타냄

3. 소비 및 투자

민간소비 대부분 권역 보험세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1/4분기 중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단체행사 취소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2/4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반등하여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충청권,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다.

권역별 민간소비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설비투자 동남권만 소폭 증가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대부분 권역에서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보수적인 투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년 하반기 수준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경권, 강원권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그 외 권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 설비투자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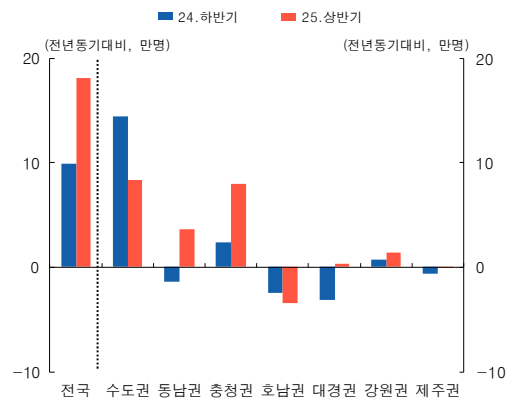
주: 1)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4. 고용

취업자수 호남권만 감소

상반기 중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충청권, 강원권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수도권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동남권과 대경권의 경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호남권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수 증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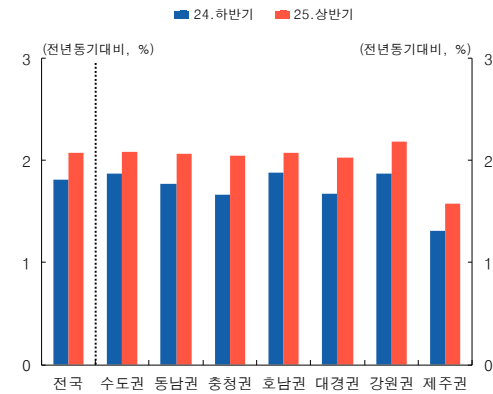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모든 권역 오름폭 확대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는 농축수산물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석유류가 상승 전환되고 가공식품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모든 권역에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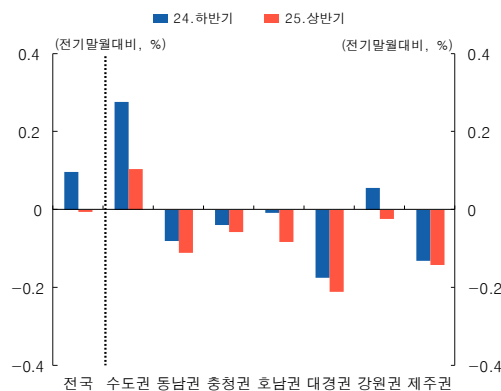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6.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 수도권 제외 모든 권역 하락

상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전기말월대비)은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에서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원권이 하락 전환되었고 수도권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7. 인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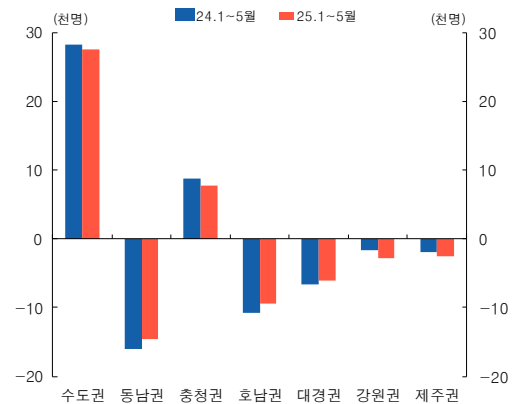
출생아수 대부분 증가, 권역간 인구이동 축소

상반기 말 인구수(전년동기대비)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증가하였으나,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은 감소하였다.

1~4월 중 출생아수(전년동기대비)는 강원권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 증가하였다.

1~5월 중 권역간 인구이동(전년동기대비)은 수도권과 충청권으로의 인구 유입폭이 소폭 축소됨과 함께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의 유출폭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강원권과 제주권은 유출폭이 확대되었다.

인구 순이동¹⁾



주: 1) 기간중 전입 - 전출의 합
자료: 통계청

I

권역별 경제 동향

1. 수도권	9
2. 동남권	16
3. 충청권	23
4. 호남권	31
5. 대경권	38
6. 강원권	45
7. 제주권	52

1.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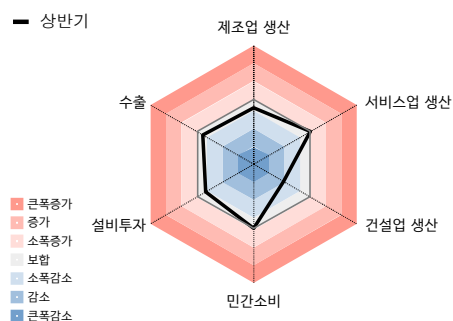
(1) 개 황

수도권 경기 보합

2025년 상반기 중 수도권 경기는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이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 건설업 생산은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상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전년 하반기 대비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소폭 확대되고,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하였다. 인구수 및 출생아수(1~4월)는 증가하였고, 인구 순유입(1~5월) 폭은 축소되었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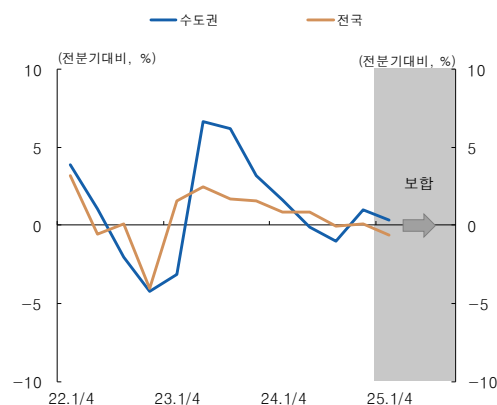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R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보합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도체 생산이 견조한 AI 투자 수요에 따라 전년 하반기의 높은 수준을 이어간 가운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는 미국 관세 부과¹⁾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 감소하였다.

광제조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반도체는 AI 서버투자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의 수출 호조가 지속²⁾되면서 고성능 D램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가동률³⁾을 유지하였다. 범용 반도체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부과 전 재고 비축을 위한 IT 전방기업의 선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업체들은 생산 확대보다는 재고 소진을 통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1) 미국은 2025년 4월 3일부터 수입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5월 3일부터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2) 다만, 미국의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HBM3E 개선제품 출시를 앞둔 고객사의 수요 지연 등에 따라 삼성전자의 HBM 판매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1/4분기 수출이 큰 폭 감소하였다.

3) 업계에 따르면, 고사양 D램 가동률은 100% 수준이며, 낸드플래시 가동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생산은 연초 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우려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출의 경우 對미국 수출⁶⁾은 관세부과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소형 전기차(EV3 등)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호조, 중고차 수출의 큰 폭 증가⁷⁾ 등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디스플레이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IT 전방 산업 수요 불확실성 증대,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의약품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한 전년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하반기대비 생산이 감소하였다.

수출(일평균)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2/4
수출	-0.9	10.7	-2.4	1.5	-2.5	7.3
반도체	5.6	15.1	4.8	2.7	-10.0	13.7
자동차	-8.5	14.5	-19.8	13.3	5.7	8.2
디스플레이	-1.7	3.4	4.2	-10.5	-16.7	-7.0
의약품	24.5	12.3	1.1	-5.8	19.4	0.8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상반기의 높은 생산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⁸⁾ 업체들은 수요가 견조한 AI 관련 고성능 제품(HBM, GDDR7 등) 중심의 생산을 유지하면서, 하반기 중 업황 개선이 예상⁹⁾ 되는 낸드플래시(eSSD 등) 생산을 소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부과, 한미 관세협상 전개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리스크도 잠재하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 더딘 내수 회복세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업체들이 연초의 생산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면서 큰 폭의 생산 수준 변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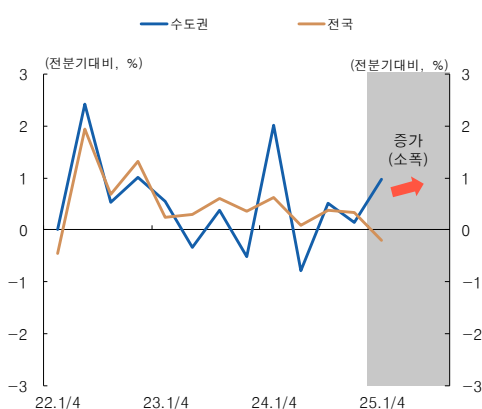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아이폰 신제품 모든 기종에 고성능 OLED가 탑재¹⁰⁾되는 데다, 미국의 對중국 고율 관세부과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국내 업체 생산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업계에 따르면 PC 조립 업체들의 D램 재고수준은 2025년 1/4분기 말 9~13주분에서 2/4분기 초 12~15주분으로 높아졌다. 반면 D램 공급업체들의 재고수준은 같은 기간 10~16주분에서 6~13주분으로 낮아졌다. 통상적으로 D램 고객사 및 공급사의 적정 재고수준은 5~8주분으로 알려져 있다.
- 5) 선수요 및 그간 감소에 따른 재고소진 등으로 2025년 상반기 범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DRAMExchange)
[D램(DDR4 8Gb)] (24.3/4분기) 1.70 → (4/4분기) 1.35 → (25.1/4분기) 1.35 → (2/4분기) 2.60
[낸드(MLC 128Gb)] (24.3/4분기) 4.34 → (4/4분기) 2.08 → (25.1/4분기) 2.51 → (2/4분기) 3.12
- 6)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인천지역의 대미수출 현황 및 이슈」 참조
- 7) 2025년 1/4분기 중과 승용차(기술란디젤 합산) 수출금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61% 급증하면서 14억9800만달러(약 2조1500억원)로 1/4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한경에이셀)
- 8)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최근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참조
- 9) 2025년 하반기 낸드플래시 시장 수급 균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Trendforce) 국내 주요 업체들도 2/4분기부터 낸드 플래시 수요 회복세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0) 기존 아이폰 시리즈 일반 모델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플러스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프로와 프로맥스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했다. 기존 아이폰 시리즈 일반 모델에는 단가가 저렴한 LTPS OLED를 탑재했으나, 아이폰17 시리즈의 경우 최초로 모든 기종에 LTPO OLED 패널을 탑재하기로 결정하면서 BOE가 아이폰17 시리즈 공급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증시 호조, 은행 대출 증가 등으로 금융·보험업이 증가한 가운데, 수출 둔화 등으로 운수업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금융·보험업은 미국 관세부와 유예, 신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국내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 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증가하였다.¹¹⁾ 부동산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¹²⁾ 도소매업의 경우 소비심리의 느린 회복으로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연초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¹³⁾

되면서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운수업은 수출 둔화에 따른 해운·항공 화물 운송 감소¹⁴⁾ 등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¹²⁾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도소매	[17.2]	2.3	-2.1	-0.8	0.0	0.4
부동산	[11.6]	1.4	1.4	-0.5	-1.0	-0.4
금융·보험	[11.0]	4.1	1.8	3.5	-0.2	1.6
운수	[5.7]	3.5	1.1	1.2	0.8	-0.4
숙박·음식점	[3.9]	0.4	-0.5	-1.0	-0.6	-1.5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3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은 추경, 신정부의 적극적인 내수진작 정책, 금융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업은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등에 따른 교역 위축 등에 영향받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험업은 신정부의 주주친화정책, 외국인 순매수세 등에 따른 낙관적 증시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택 관련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은 금융여건 완화,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주택매수 심리 강화 등 상방요인과 대출규제 강화, 일부 지역 미분양 적체 등에 따른 하방요인이 상존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1) 증시 투자자 예약금 및 신용융자 증가율(% 전기 말잔 대비) : '24년 하반기 -8.6 → 25.5월말 +7.9
예금은행 대출금 증감(조원) : 24.3/4분기 42.3 → 4/4분기 8.6 → 25.1/4분기 22.2 → 4~5월 30.5

12)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 '24년 하반기 +34.9 → 25.1~5월 +26.0

13) 소비자심리지수(CCSI) : '24년 말 88.2 → 25.3월 93.4 → 6월 108.7

14) 1~5월 중 인천공항의 화물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24년 하반기 +4.9%)하였으며, 같은 기간 인천 및 평택당진항의 해운 컨테이너 물동량도 전년동기대비 4.5% 감소('24년 하반기 +0.4%)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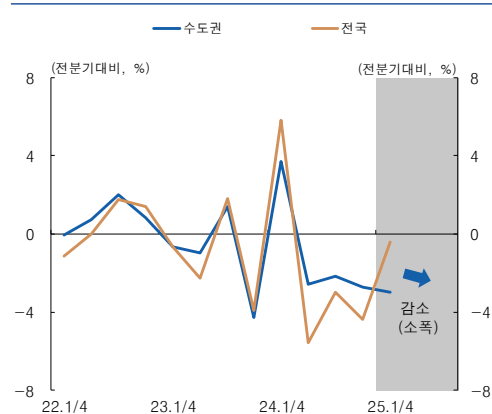
건설업 생산 감소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간의 신규 수주 위축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건설기성액 감소폭(-20.6%, 전년동기대비)이 전년 하반기(-8.3%) 대비 확대되었다. 높은 건설공사비¹⁵⁾, 정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신규 수주액의 증가세가 둔화(+29.8% → +10.5%)된 가운데, 특히 공공 및 SOC 수주액 감소(-3.3% → -19.0%)가 두드러졌다.

향후 건설업 생산은 신정부 출범에 따라 상반기 중 이연된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3) 소비 및 투자

민간소비 보험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비스 소비가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험 수준을 나타냈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비내구재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증가¹⁶⁾하였으나, 준내구재는 의복 및 잡화 중심으로 감소¹⁷⁾하였다. 내구재는 통신기기가 증가한 가운데 가구 등이 감소하면서 보험세를 보였다.¹⁸⁾

서비스 소비의 경우, 여객 운송을 중심으로 운수업이 소폭 감소¹⁹⁾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설비투자 보험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는 HBM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전년 하반기의 높은 투자 수준을 지속하였다. 기존 라인의 설비전환을 지속하는 한편, 설비증설

15) 1~5월 중 평균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5로 사상 최고치(전년 상반기 130.04 → 전년 하반기 130.12)를 갱신했다.
16) 상반기 중 수도권 음식료품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 이하 동일)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1.4%)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17) 상반기 중 수도권 의복 및 직물 카드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5%, 6.4%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0.5%, -3.7%)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18) 상반기 중 수도권 사무통신 부문 카드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0.6%)대비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가구 카드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하면서 전년 하반기(+0.1%)에서 감소 전환되었다.
19) 상반기 중 수도권 운수 및 창고업 카드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9.8%)대비 감소로 전환하였다.

및 신규 공장 인프라 투자도 병행하고 있는 모습이다.²⁰⁾

자동차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업황 불확실성이 높아 설비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비는 일부 업체의 신규 제품 개발 등에 따라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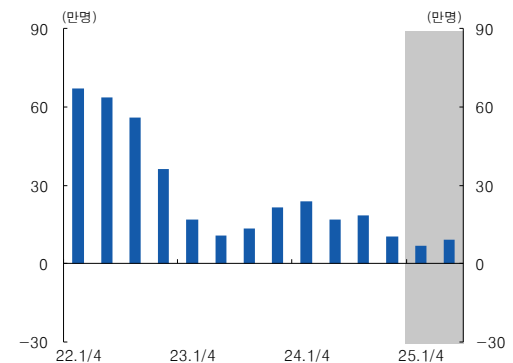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상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8.3만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14.5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서울지역에서는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²¹⁾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그 중 도소매·음식숙박업²²⁾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한편,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²³⁾의 취업자수는 감소 전환하였으며, 임금근로자²⁴⁾의 경우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취업자수 증감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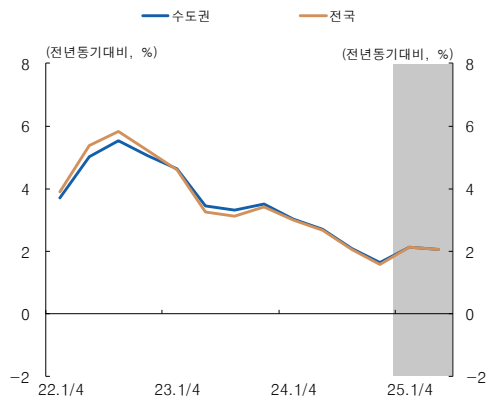
- 20) 상반기 중 SK하이닉스는 기존 라인의 설비전환, M16 공장 설비증설 및 M15X 공장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전자는 평택 P4 공장에 대한 설비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K하이닉스, 삼성전자)
- 21) 상반기 중 제조업 및 건설업의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4.8만명 및 9.0만명 감소하면서 전년 하반기 월평균 감소폭(제조업 -11.5만명, 건설업 -4.5만명)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 22) 상반기 중 서비스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35.9만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월평균 +30.0만명)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감소로 전환되었다.(전년 하반기 +2.8만명 → 상반기 -0.5명)
- 23) 상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4.1만명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월평균 +0.9만명)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전년 하반기 +2.0명 → 상반기 -0.6만명)
- 24) 상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12.4만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월평균 13.6만명)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상용근로자 취업자수 전년 하반기 +6.1만명 → 상반기 +15.5만명)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1% 상승하여 전년 하반기(1.9%)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이는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석유류 가격 상승률²⁵⁾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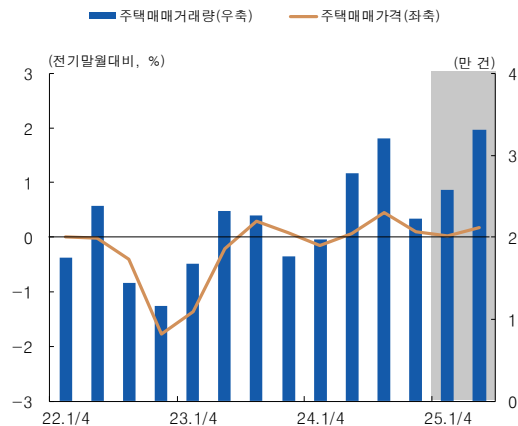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6)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상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 대비 0.10% 상승하여 전년 하반기(+0.28%)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매매거래량(25.1~5월)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0.6만건 증가(+26.0%)하고 미분양주택 수는 꾸준히 감소²⁶⁾하였다.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7.1)²⁷⁾을 앞두고 주택매수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²⁸⁾하였다.²⁹⁾

주택매매가격¹⁾과 거래량²⁾



주: 1) 전기말월 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2/4분기는 4-5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25) 상반기 중 수도권 석유류 가격(월평균)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0%로 전년 하반기(-2.9%)대비 상승 전환되었다.

26) 5월 말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는 1.5만호로 상반기 동안(1월 2.0만 → 2월 1.8만 → 3월 1.7만 → 4월 1.6만)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27)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가 보수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28) 상반기 중 서울 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 대비 1.08% 상승하였다. 이는 동기간 전국(-0.01%), 수도권(+0.10%) 및 서울(+0.39%) 지역의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다.

29) 다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금융위원회, 6.27) 발표 후 주택가격은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다.

(7) 인 구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입 축소

상반기 말 기준 인구수는 2,608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8만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1만명)은 감소하였으나, 경기와 인천은 각각 5.0만명 및 2.8만명 증가했다. 1~4월 중 출생아수는 4.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1천명(9.7%) 늘어나며 전년 하반기(+12.4%)보다 증가세가 축소되었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1~5월 중 2.8만명으로 순유입이 지속되었으나 그 폭은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1.7만명), 경기(1.2만명), 서울(-0.1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¹⁾

(천명)

	2023		2024		2025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만명) ²⁾	2,601	2,601	2,604	2,605	2,608	(3.8)
출생아수	63.9	58.0	62.8	65.2	46.6 ³⁾	(4.1)
순이동 ⁴⁾	29.6	17.3	30.4	14.8	27.5 ³⁾	(-0.8)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1~4월 중, 순이동은 1~5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통계청

2. 동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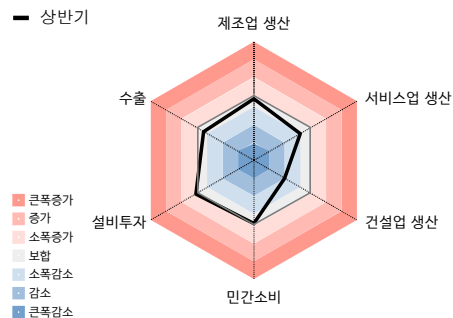
(1) 개 황

동남권 경기 보합

2025년 상반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건설업 생산은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수출이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하였다.

상반기 중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전년 하반기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고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인구수는 감소하였으나 출생아수(1~4월)는 증가하였고 인구순유출(1~5월) 폭도 축소되었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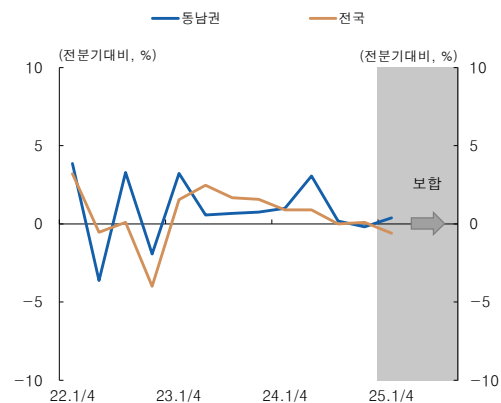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보합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과 기계장비는 각각 인력부족 완화와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는 전기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철강 및 금속가공은 전방산업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석유정제와 석유화학도 소폭 감소하였다.

광제조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조선은 양호한 수주잔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력부족 완화,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전년 하반기에 비해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6월 말 동남권 조선업체 수주잔량은 2,685.1만CGT로 전년 말 대비 2.3%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에 따른 인력부족 완화, 그간 충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생산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⁰⁾

기계장비는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에 힘입어 무기류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상반기 중 동남권 무기류 일평균 수출액은 17.6백만달러로 전년 하반기(7.2백만달러) 대비 144.6% 증가하였는데,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계약물량 납품이 계획보다 조기³¹⁾에 인도되는 등 수출 및 생산 호조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었으나 미국 내 판매가격 인상이 지연되고 선수요가 가세하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기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였다. 2025년 상반기 중 동남권 자동차 일평균 수출액은 1.2억달러로 전년 하반기(1.1억달러) 대비 2.8% 증가하였다. 다만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공장 가동 본격화 및 생산차종 확대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하반기 수준의 생산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³²⁾

반면 철강 및 금속가공,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에서는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한 모습이다. 철강 및 금속가공은 건설경기 위축 등 전방산업이 부진한 데다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며 감소하였다. 석유정제는 업황 부진으로 정제마진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라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일평균)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2/4
수출	-6.7	1.1	0.1	0.8	-0.9	1.3
선박	-28.2	-18.2	21.3	16.2	10.8	-13.3
무기류	-29.3	-62.6	353.9	-26.5	126.0	54.3
자동차	-8.0	14.3	-22.9	14.4	-5.5	3.8
철강금속	-6.8	17.9	-2.1	0.9	-8.4	7.1
석유제품	3.7	-12.3	1.8	-14.8	11.0	-9.3
석유화학	26.2	1.7	0.8	-5.9	-0.8	-7.5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교체 수요, 미 행정부의 중국 선박 제재³³⁾에 따른 반사이익 등에 따라 향후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과의 방산 부문 협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확대도 기대된다. 기계장비 또한 방산 부문 수주물량 확대에 대응하여 추진 중인 생산설비 증설이 점차 완료됨에 따라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 품목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중 미국 내 판매가격이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소형 SUV의 경우 중대형 승용차 대비 가격탄력성이 높아 수요 감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의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철강

30)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경남지역 조선업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 참조

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금년 중 폴란드에 천무(다연장로켓시스템)를 50대 납품할 계획이었으나 1/4분기 중 이미 24대를 인도하였다.

32)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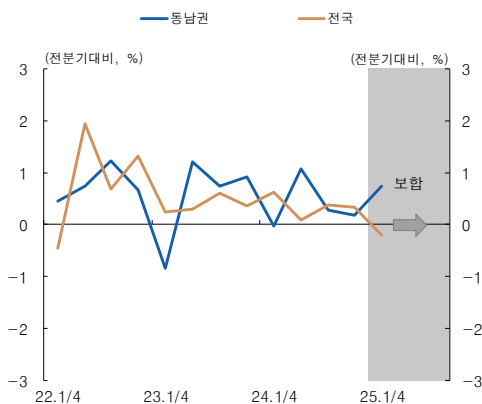
33)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조선업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부터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및 금속가공은 건설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생산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서비스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도소매업은 소비심리가 작년 12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4분기부터 큰 폭으로 개선³⁴⁾되며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높은 외식물가³⁵⁾ 등으로, 부동산업은 주택거래가 둔화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운수업도 항만 물동량³⁶⁾이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항공 여객 수송³⁷⁾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륙 물동량³⁸⁾이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¹⁾²⁾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부동산	[11.7]	-1.5	0.1	-1.2	-1.1	-0.1
도소매	[11.7]	2.0	-1.8	0.1	0.1	1.3
운수	[9.9]	-5.4	10.0	0.7	-1.2	-0.6
숙박·음식점	[5.2]	-0.5	-0.9	-0.2	0.6	-0.7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3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금융여건 완화 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정부의 대규모 소비 활성화 정책 시행³⁹⁾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⁴⁰⁾

운수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업은 미분양주택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상반

34) 부산, 울산, 경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4년 12월 연중 최저치(각각 93.0, 93.0, 90.8)를 기록한 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5년 2/4분기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며 6월에는 모두 지난 20여년간 장기평균을 의미하는 100을 초과(각각 110.5, 106.7, 107.1)하였다.(한국은행)

35) 상반기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 외식물가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3.2%, 2.5%, 2.9% 상승하여 전체 물가상승률(각각 2.2%, 1.9%, 2.0%)을 상회하였다.

36) 1~5월 중 부산·울산·마산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월평균)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4.9%) 수준을 유지하였다.(해양수산부)

37) 상반기 중 김해·울산·산천 공항의 여객 인원(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15.8%) 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한국공항공사)

38) 상반기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 영업소의 대형화물차(4, 5종) 통행량(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0.3%)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한국도로공사)

39)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7~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규모는 1인당 15~55만원으로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소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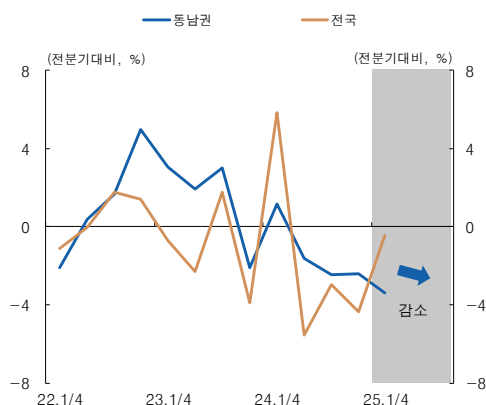
40)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최근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주요 특징 및 향후 과제」 참조

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생산 감소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감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미분양주택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 차질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부실화⁴¹⁾되는 등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아진 건설공사비와 분양시장 수요 위축으로 신규 수주도 부진한 모습이다. 동남권의 2025년 5월 기준 36개월 누적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여 전년 말 증가(4.7%)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건축허가면적 감소⁴²⁾,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 확대 시행⁴³⁾, 가덕도 신공항 착공 지연 등에 따라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⁴⁴⁾ 등은 부진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 부산지역 시공능력평가 7위 업체인 삼정기업은 반안트리 해운대 건설현장 화재 발생(2.14일)으로 경영난이 악화되어 법정관리를 신청(2.27일)하였으며, 경남지역 시공능력평가 2위 업체인 대저건설도 미수금 누적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1.16일)하였다.

42) 동남권의 36개월 누적 건축허가면적(전년동기대비)은 2024년 말 -0.4%에서 2025년 5월 -9.7%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국토교통부)

4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6.30일)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 신축시에도 적용되었다.

44)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2028년까지 지방 준공 전 미분양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계획이다.

(3) 소비 및 투자

민간소비 보험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 모두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비내구재는 차량용 연료,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준내구재는 계절의류 판매 부진 등으로 의류·잡화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문화취미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독감 유행 등으로 의료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 및 여행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설비투자 소폭 증가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⁴⁵⁾은 양호한 수주잔량 등 업황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계장비⁴⁶⁾는 글로벌 수요 확대로 향후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⁴⁷⁾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

정 후반부에 플랜트 설비투자가 집중되면서 전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2023년 말 착공한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⁴⁸⁾이, 철강·비철금속은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⁴⁹⁾가 전년 하반기 수준에서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45) 한화오션은 부유식 도크 1기를 2027년 3월까지, 6,500톤급 해상 크레인을 2027년 11월까지 도입하는 총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46) 현대로템은 주력 생산품목인 K2전차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중 709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생산능력 증대 등을 위해 작년(728억원) 보다 큰 폭 확대된 2,7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47) S-OIL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9.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사한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69%를 기록하였다.

48) 현대차는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을 건설 중이며, 공정률은 2024년 7월 44%→11월 68%→2025년 6월 95%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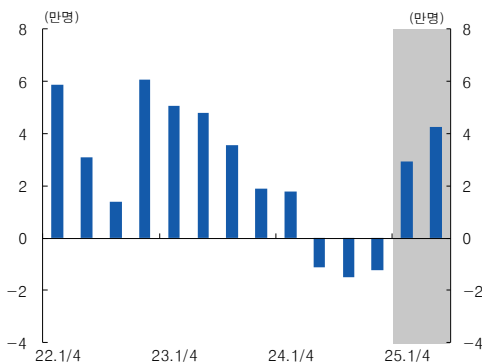
49) 고려아연은 1,241억원 규모의 동순환자원 처리공정 개발투자를 진행 중(건설공정은 2025.11월, 습식공정은 2026.1월 완료 예상)이며, 안정적인 폐기를 처리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544억원 규모의 K2 자기매립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2026.6월 준공 예정)이다.

(4) 고용

취업자수 증가 전환

상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6만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 감소(-1.4만명)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분기별로는 1/4분기에 증가 전환한 이후 2/4분기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하반기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⁵⁰⁾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한편,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⁵¹⁾의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며, 임금근로자⁵²⁾의 경우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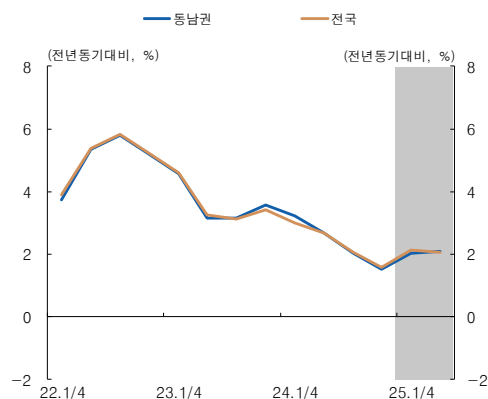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1% 상승하여 전년 하반기(1.8%)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공서비스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서비스 가격(2.8%→3.2%)과 공업제품 가격(1.0%→1.8%) 상승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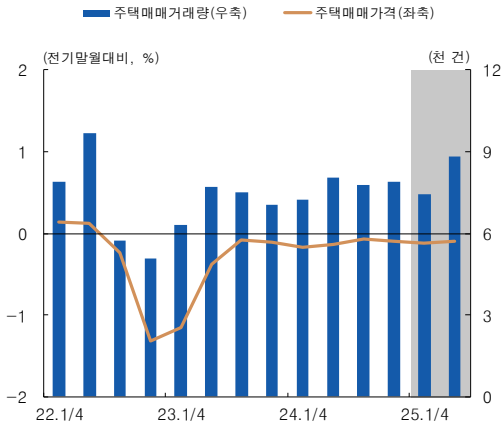
- 50) 상반기 중 서비스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2.1만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의 감소(월평균 -1.2만명)에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2024년 하반기 -4.3만명 → 2025년 상반기 -1.4만명)의 경우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 51) 상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1.9만명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월평균 -3.4만명)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2024년 하반기 -3.1명 → 2025년 상반기 -0.7만명)
- 52) 상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5.5만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월평균 2.0만명)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상용근로자 취업자수 2024년 하반기 +4.0만명 → 2025년 상반기 +6.5만명)

(6)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 하락폭 소폭 확대, 거래량 증가폭 축소

상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 대비 0.11% 하락하여 전년 하반기(-0.08%) 대비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매매거래량(월평균)의 경우 1~5월 중 전년동기대비 285건 늘어나며 전년 하반기(+550건)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미분양주택이 누적⁵³⁾되는 등 동남권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매수심리가 약화⁵⁴⁾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¹⁾과 거래량²⁾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2/4분기는 4-5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7) 인 구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출 축소

상반기 중 인구수(반기말)는 756.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5만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부산(-2.8만명), 경남(-2.0만명), 울산(-0.7만명)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1~4월 중 출생아수는 11.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6천명(5.8%) 늘어나며 전년 하반기(7.6%)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1~5월 중 -1.5만명으로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나 그 폭은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다. 지역별 순유출 폭은 부산(-0.6만명), 경남(-0.5만명), 울산(-0.4만명)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¹⁾

(만명)

	2023		2024		2025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 ²⁾	767.6	764.8	761.7	759.3	756.3	(-5.5)
출생아수(천명)	16.3	14.7	15.6	15.8	11.2 ³⁾	(0.6)
순이동 ⁴⁾	-2.1	-1.3	-1.8	-1.0	-1.5 ³⁾	(0.1)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1-4월 중, 순이동은 1-5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통계청

53) 2025년 5월 말 동남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6,635호로 전년 말(4,682호) 대비 41.7%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54) 동남권 월평균 주택매매수급지수(한국부동산원)는 2024년 하반기 87.1에서 2025년 1~5월 중 85.9로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국토연구원) 역시 106.7에서 101.0으로 하락하였다.

3. 충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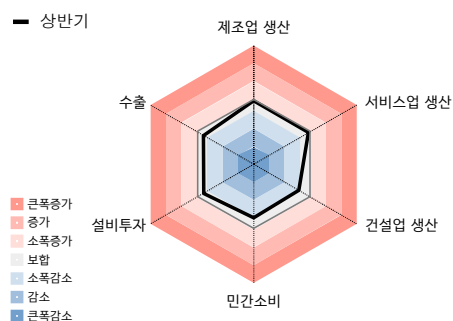
(1) 개 황

충청권 경기 보합

2025년 상반기 중 충청권 경기는 전년 하반기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보였고 건설업이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감소하고 설비투자와 수출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상반기 중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도 소폭 확대되었고,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인구수 및 출생아수(1~4월)는 증가하였고, 인구 순유입(1~5월) 규모는 축소되었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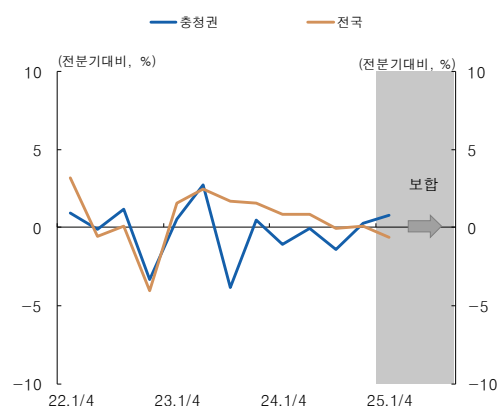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R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보합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건조한 수요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는 고성능 IT제품의 OLED 패널 탑재로 수요가 늘어났으나, 중국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 등으로 보합 수준을 보였다.

광제조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반도체는 AI 서버용 수요가 지속되고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선구매 수요가 1/4분기 중에 집중되었다. 4월 들어 반도체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중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2/4분기 중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으며 수출 또한 전기대비 증가하였다.⁵⁵⁾

디스플레이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조기선적 요청, 고성능 IT제품의 OLED 패널 탑재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중국 업체들이 정부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수출은 1/4분기 중 가전제품 수요 부진⁵⁵⁾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으나 2/4분기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⁵⁷⁾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⁵⁸⁾으로 기업 구조조정⁵⁹⁾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품 수익성 악화, 일부 플랜트 가동중단⁶⁰⁾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출 또한 중국·중동의 생산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지속과 환경 규제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었다.

자동차 및 부품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⁶¹⁾,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생산 본격화⁶²⁾ 등으로 보합 수준을 보였다.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 현지 재고를 소진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철강은 중국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라 조선용 후판 등 일부 제품에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

였으나 전방산업인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이 심화된 가운데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⁶³⁾ 등으로 생산물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철강업체들은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생산공장을 일시 폐쇄⁶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일평균)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2/4
수출	-1.1	8.7	-0.2	3.6	-7.8	11.4
반도체	7.9	10.3	0.8	17.1	-13.5	22.5
디스플레이	-40.2	37.9	7.7	-13.5	-14.0	-1.9
석유화학	2.7	6.3	-7.4	-6.2	6.0	-13.0
자동차 및 부품	7.2	3.3	-2.4	-1.8	10.7	13.9
철강제품	14.1	-1.1	-12.6	11.7	0.0	-3.5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확산, 윈도우 10 지원 종료 및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상반기 중 선수요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보합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미국 행

55) 2025년 상반기 중 충청권의 對대만, 對베트남 반도체 수출(일평균)은 전기대비 각각 22.1%, 19.6% 증가하였으나, 對중국 수출이 30.0% 감소하며 전체적으로는 3.9%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56) 2025년 1/4분기 대형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가전제품의 수요는 전분기대비 2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Omdia)

57)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동향 및 전망」 참조

58)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대산석유화학단지 기업들(LG화학, 롯데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과 '석유화학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6.10일)

59) 롯데케미칼은 2025년 2월중 파키스탄 자회사를 매각하였으며, HD현대그룹과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가동 중인 나프타 분해설비(NCO)를 통합할 예정이다. 통합 이후 점진적으로 일부 시설은 폐쇄하여 생산량을 줄이고 중북 인력 등의 업무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60) 2025년 2월 중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정전으로 롯데케미칼(9일), LG화학(13일)의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된 바 있다.

61)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플래그십 SUV 모델인 아이오닉9을 2025년 2월 13일 공식 출시하였으며 아이오닉9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아산공장에서 생산된다.

62) 현대트랜시스(충남 서산공장)는 2025년 2월 28일 전기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2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TMED-2) 생산라인 가동을 시작하였다. TMED-2는 금년 2/4분기 중 출고되는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처음 탑재될 예정이다.

63) 미국 행정부는 철강제품에 대해 3.12일부터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6.4일부터는 동 관세율을 50%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64) 동국제강은 건설업 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7월부터 한달간 인천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신형 스마트폰 출시⁶⁵⁾ 등으로 중소형 OLED 패널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OLED 패널도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중심으로 OLED 패널 탑재 비중이 높아지면서⁶⁶⁾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업황 개선이 제약되어 보험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향후 바이오 연료 등 생산 다각화를 통해 위기에 대응해 나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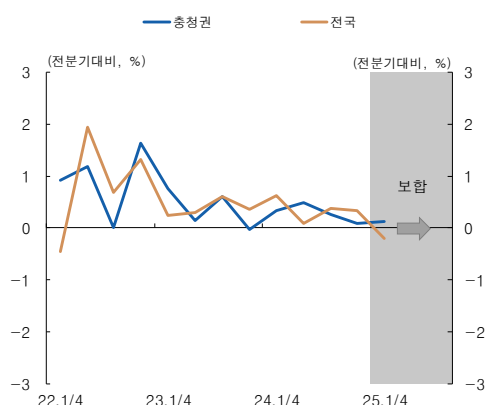
자동차 및 부품은 완성차 업체가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미국 현지를 중심으로 생산⁶⁷⁾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⁶⁸⁾이 열려있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 효과가 3/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추경으로 2.7조원 투자 예정) 등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완화되면서 철강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생산 보험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숙박·음식업이 1/4분기 중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은 소폭 증가하였다. 운수·창고업은 보험 수준을 보였고, 부동산업은 임대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며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숙박·음식점업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충청권 방문객 수⁶⁹⁾가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1/4분기 중 취소되거나 연기된 축제와 전시, 단체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소비심리⁷⁰⁾가 작년

65) 2025년 하반기 중 애플의 아이폰17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중인 LTPO OLED 패널이 동 시리즈의 모든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66) OLED 패널을 탑재한 노트북PC 시장 규모는 2025년 상반기 485만대에서 하반기 817만대로 68.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OLED 태블릿은 동 기간 중 457만대에서 655만대로 4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Omdia)

67)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아이오닉5, 2025년 3월부터 아이오닉9를 양산중이며 내년부터는 기아자동차 모델과 제네시스 차량으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현대자동차그룹)

68) 자동차 부품은 2025년 6월 말 현재 엔진, 변속기, 전자부품 등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은 그외 새로운 부품을 관세부과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6.24일)

69) 2025년 상반기 중 충청권 방문자 수(월평균)는 전기대비 0.5% 증가하였다.(한국관광데이터랩)

70)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4년 12월 연중 최저치(85.1)를 기록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5년 2/4분기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4월 90.6 → 5월 99.8 → 6월 107.0)

12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완만히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운수·창고업은 항만 물동량⁷¹⁾과 항공 수요⁷²⁾가 부진하였으나, 철도 여객수송 수요가 소폭 증가⁷³⁾하며 보험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업은 주택거래량이 2/4분기부터 회복세⁷⁴⁾를 보이고 있으나, 중대형 상가에서 높은 공실률⁷⁵⁾이 이어지는 등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⁷⁶⁾이 지속되며 소폭 감소하였다.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숙박할인쿠폰 등을 하반기 중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운수·창고업은 중동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운송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매수심리⁷⁷⁾가 지역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은 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주거용 부동산은 거래가 회복됨에 따라 보험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¹⁾²⁾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도소매	[9.8]	3.5	-2.6	0.4	-0.6	0.8
운수·창고	[5.8]	-0.2	1.3	1.0	-0.3	0.6
숙박·음식	[4.9]	0.0	-0.2	0.1	-1.7	-0.3
부동산	[10.3]	5.9	-0.6	-1.5	-1.4	-1.1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3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은 축제와 국제컨벤션 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가 재개되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내수경기

71) 2025년 1~5월 중 충청권 항만(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기준)의 화물처리실적(월평균)은 총 18.7백만톤(R/T)으로 전기대비 8.2% 감소하였다.(국가물류종합정보센터)

72) 2025년 상반기 중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월평균)는 각각 2,203편, 34.4만명으로 전기대비 각각 5.4%, 8.8% 감소하였다.(한국공항공사)

73) 2025년 상반기 중 충청권 주요 철도역(대전, 서대전, 오송, 청주, 충주)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총 92,920명으로, 전기대비 1.0%(956명) 증가하였다.(한국철도공사)

74) 2025년 1~5월 중 충청권 주택매매거래량(월평균)은 7,1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전기대비 4.7% 증가하였다.(한국부동산원)

75) 2025년 1/4분기 중 충청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평균 18.6%를 기록하며, 전기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세종과 충북 지역은 각각 25.2%, 1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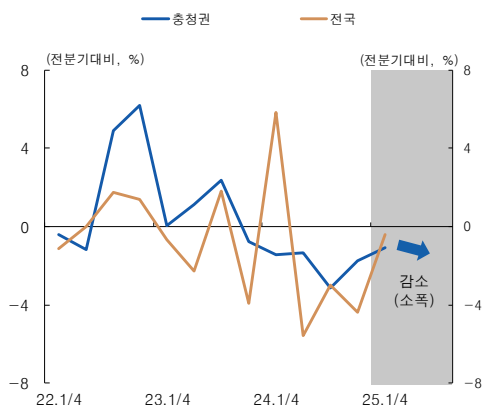
76) 2025년 1/4분기 중 충청권 집합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기대비 하락(대전 -0.3%, 세종 -3.5%, 충북 -0.5%, 충남 -0.2%)하였다.(한국부동산원)

77) 2025년 상반기 중 충청권 부동산소비심리지수는 세종, 충북이 전기대비 상승(세종 99.2→108.8, 충북 102.1→103.9)한 반면, 대전, 충남은 하락(대전 99.7→96.9, 충남 101.0→100.1)하였다.(국토연구원)

건설업 생산 소폭 감소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다소 완화되었다.

건설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민간부문은 1~5월 중 건설공사비지수(월평균)가 전년 하반기 대비 0.7% 증가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우려로 착공⁷⁸⁾이 지연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건설수주액이 소폭 증가⁷⁹⁾하였으나 지자체 발주 공사 등이 늦춰지면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에

비해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의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기대감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출규제 발표(6.27) 등으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 하반기 중 2호선 트램의 전구간이 착공될 예정이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H가 대전과 충남에 공공주택을 착공(5,700세대, 1.4조원)하기로 발표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 소비 및 투자

민간소비 소폭 감소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하며 소폭 감소하였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의료기기⁸⁰⁾ 등의 소비가 증가하며 소폭 증가하였고, 준내구재는 스포츠 및 취미용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편의점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제과점⁸¹⁾, 정육점 등에서 소비가 증가하며 소폭 증가하였다.

78) 2025년 1~5월 중 충청권 누적(12분기) 착공면적(월평균)은 전기대비 4.5% 감소하였으며 주거용이 4.5% 비주거용이 4.4% 각각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79) 2025년 1~5월 중 충청권 공공부문 누적(12분기) 건설수주액(월평균)은 전기대비 6.3% 증가하였다.(통계청)

80) 2025년 상반기 중 충청권 의료기기 판매점 카드 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하며 전년 하반기 감소(-6.2%)에서 증가 전환되었다.

81) 2025년 상반기 중 충청권 제과점 카드 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하며 전년 하반기(+7.0%)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숙박·음식업⁸²⁾은 외식물가 부담,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단체행사 취소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레저업종도 골프장 이용고객이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설비투자 포함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 철강이 기존 설비 유지보수에 그치거나 신규투자 감소 등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 및 부품은 소폭 증가하였다.

반도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⁸³⁾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OLED 설비 반입이 마무리되면서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존 설비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친환경 연료 개발⁸⁴⁾ 등의 영향으로 포함 수준을 보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부품 업체의 공장 증설⁸⁵⁾이 진행되는 등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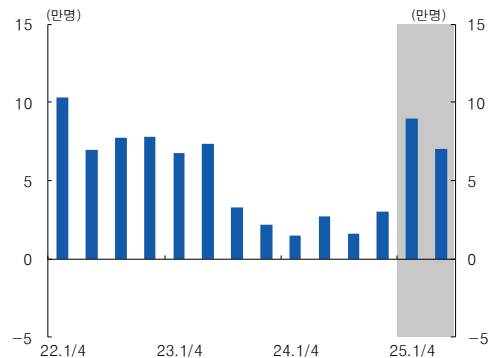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2025년 상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 동기대비 8.0만명 늘어나며 전기(+2.4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농림어업에서 증가 전환되었으나,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비임금근로자 또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충북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대전이 증가 전환한 가운데 세종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취업자수 증감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82) 2025년 상반기 중 충청권 외식업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며 전년 하반기 증가(+1.4%)에서 감소 전환되었다.

83) SK하이닉스는 HBM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청주 M15X 공장 건설을 진행중이며(25.11월 완공 목표), 청주 M8X 공장에서도 HBM 생산라인 증설에 착수하였고 국내 7번째 반도체 후공정 팹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84) 2025년 1월부터 LG화학과 ENI(이탈리아) 합작 투자로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생산 사업이 개시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SAF(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통합 실증 설비 구축' 공모에서 서산 대산단지가 최종 선정(25.2월)되어 2031년까지 총 3,11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충남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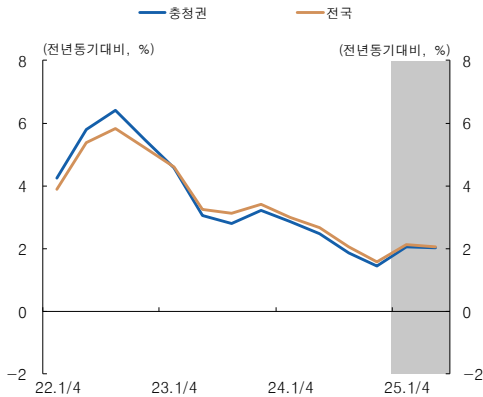
85) 네오모토는 충남 예산일반산업단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부품(PHEV)용 기어를 생산하는 4공장(7,425㎡ 규모)을 25.3월부터 증설중이며 준공 예정일은 10월 31일이다.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하여 전기(1.7%)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상품 물가(1.2% → 1.6%)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물가(2.1% → 2.4%)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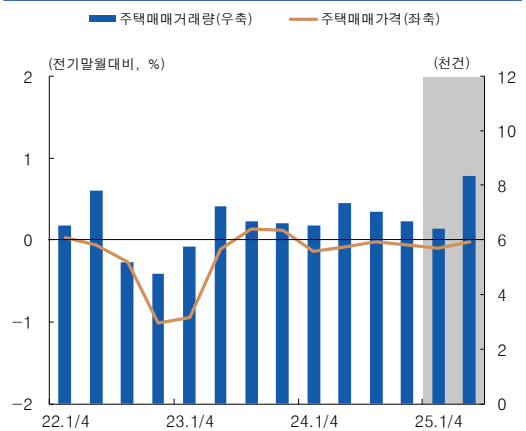
(6)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 하락폭 확대, 거래량 증가폭 확대

2025년 상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 말월 대비 0.06% 하락하여 전년 하반기(-0.04%)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0.25% → +0.16%)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대전(-0.08% → -0.16%)과 충남(-0.02% → -0.09%)은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충북(+0.01% → +0.01%)은 보합 수준을 이어갔다.

매매거래량(월평균)의 경우 1~5월 중 전년동기대비 0.3천건 증가하며 전년 하반기(+0.2천건)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0.1천건 → +0.3천건)된 반면, 충남은 미분양주택이 누적⁸⁶⁾되는 등 주택매수심리가 약화되면서 감소 전환(+0.1천건 → -0.1천건)되었다.

주택매매가격¹⁾과 거래량²⁾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2/4분기는 4-5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86) 2025년 1~5월 중 충남 미분양주택(월평균)은 4.7천건으로 전년 하반기(4.1천건) 대비 0.6천건 증가하였다.

(7) 인 구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입 축소

30

상반기 중 인구수(반기말)는 556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천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4.2천명), 충남(1.1천명)은 증가하였으나, 대전과 충북은 각각 0.8천명, 0.5천명 감소했다. 1~4월 중 출생아수는 9.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6천명(6.7%) 늘어나며 전년 하반기(+9.9%)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1~5월 중 7.7천명으로 순유입이 지속되었으나 그 폭은 전년동기대비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3.1천명), 충북(2.5천명), 대전(1.2천명), 세종(1.0천명)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¹⁾

(천명)

	2023		2024		2025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 ²⁾	5,552	5,552	5,555	5,558	5,559	(4.0)
출생아수	14.1	12.9	13.5	14.0	9.8 ³⁾	(0.6)
순이동 ⁴⁾	10.1	8.8	9.8	9.3	7.7 ³⁾	(-1.1)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1~4월 중, 순이동은 1~5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통계청

4. 호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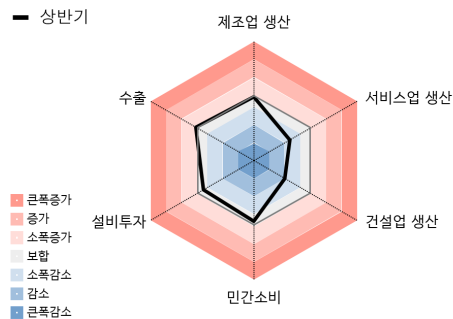
(1) 개 황

호남권 경기 소폭 악화

2025년 상반기 중 호남권 경기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이어갔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하고 건설업 생산은 부진을 지속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포함 수준을 나타냈다.

상반기 중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감소폭이 전년 하반기 대비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고, 주택매매 가격은 하락하였다. 인구수(5월 말)는 감소하였으나 출생아수(1~4월)는 증가하였다. 인구 순유출(1~5월) 폭은 확대되었다.

경기 레이더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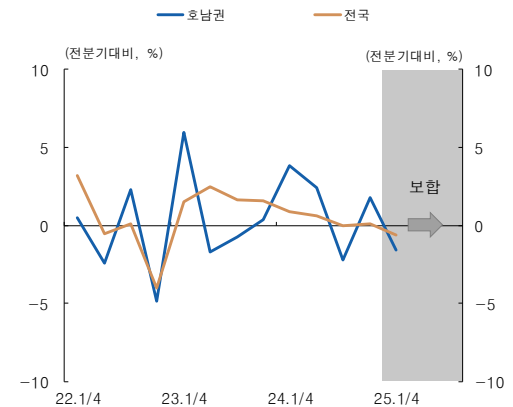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R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포함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조선은 양호한 수주실적을 기반으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수출 호조로 생산이 늘어났으나 석유화학, 석유정제 및 철강은 글로벌 경기부진, 미국의 관세정책, 일부 업체의 정기보수 등으로 생산이 부진하였다.

광제조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조선은 고선가 선박 인도에 따라 1/4분기 중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유보되었던 신규 발주 수요가 2/4분기 중 점진적으로 회복⁸⁷⁾되면서 양호한 업황을 지속하였다.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SUV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수출이 늘어난 데다 전년 4/4분기 중 협력업체 파업⁸⁸⁾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87) HD현대삼호의 경우, 2025년 초 일시 중단되었던 신규 발주가 4월부터 재개되어 5월 말 기준으로 2025년 수주목표(45억 달러)의 약 40%를 달성하였다.

철강은 전방산업인 건설업⁸⁹⁾의 부진 및 일부 업체의 생산설비 수리⁹⁰⁾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도체는 1/4분기 중 스마트폰과 자동차 부문 물량이 줄어들어 생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중 고사양 스마트폰 전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정제는 1/4분기 중 일부 공장의 대규모 정비작업⁹¹⁾ 등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2/4분기 중 국제유가 하락⁹²⁾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하반기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석유화학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글로벌 경기 개선 지연, 일부 생산라인 가동중단⁹³⁾ 및 대규모 정기보수⁹⁴⁾ 등으로 전년 하반기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⁹⁵⁾

수출(일평균)

	2024				2025	
	1/4	2/4	3/4	4/4	1/4	2/4
수출	6.8	-3.6	-10.9	-5.6	8.5	2.3
자동차	12.6	-6.8	-17.0	2.5	34.3	5.4
석유화학	13.5	6.2	-27.0	-4.6	11.0	-7.8
석유정제	-6.3	-6.5	-2.2	-11.8	-10.0	9.5
철강	3.1	-3.7	-0.8	-4.2	2.9	-3.2
조선	68.1	-23.8	16.0	-2.2	15.1	-26.8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은 신조선가 상승세가 지속⁹⁶⁾되고 있으며 LNG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대되면서 상반기보다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며 국내 생산물량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감소 및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은 대외 불확실성 및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의 지속으로 상반기 수준과 비슷한 전망이다. 석유정제는 지정학적 위기⁹⁷⁾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정 및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교역 감소가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 협상 기대 및 중국 내수 촉진 영향 등에 따라 상반기의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하반기 중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거나 자동차 부문의 수요가 부진하면서 상반기와 비슷한 전망이다.

88)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현대트랜시스가 2024년 10.11~11.9일 중 총 파업을 진행하였다.

89) 건설업 업황BSI(전국 기준, 기간 중 실적치 평균): 2024년 3/4분기 51 → 4/4분기 50 → 2025년 1/4분기 47 → 2/4분기 48

90)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25년 1/4분기 중 후판공장(1월, 약 10일), 열연공장(2월, 약 15일), 냉연공장(2월, 약 30일) 정기보수를 실시하였다.

91) GS칼텍스 여수공장은 2025년 2월 말부터 약 40여 일간 '2025년 상반기 대정비 작업(Turn Around)'을 실시하였다.

92) 국제유가(배럴당)(두바이유 기준, 기간 중 평균, USD): 2024년 3/4분기 78.6 → 4/4분기 73.6 → 2025년 1/4분기 75.8 → 2/4분기 66.2

93) 롯데케미칼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2024년 12월 여수 제2공장 생산라인의 일부 가동을 중단한 이래 현재(2025년 7월)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대형화재(5.17일)로 인해 2공장의 가동이 멈췄으며, 인근 합평 및 빛그린산단으로의 공장 이전 추진 등 조업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4) 여천NCC는 1/4분기(2.10일~4.4일) 중 2사업장 정기보수를 실시하였다.

95)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전남지역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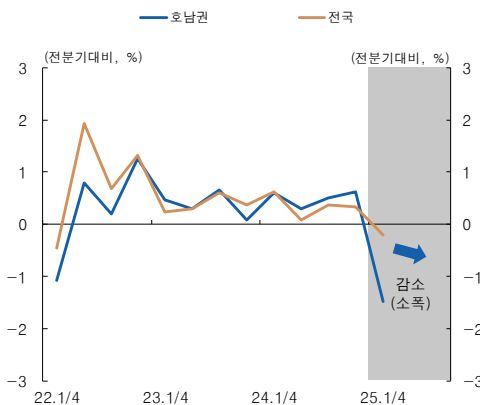
96) 조선사들이 높은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가격 협상 우위를 확보하면서 신조선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기간 중 평균 신조선가지수: 2022년 159.6 → 2023년 171.1 → 2024년 186.5 → 2025년 상반기 187.7)

97)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6.13일)한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하였고 양국이 휴전에 합의(6.23일)한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였다(국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1/4분기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감소하였고 2/4분기 들어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숙박·음식점업은 높은 외식물가⁹⁸⁾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운수업은 항공운송⁹⁹⁾의 경우, 2/4분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지역축제 본격개시 등의 긍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주항

공 여객기 사고 등으로 인한 업황 부진이 반영되어 전년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수산물¹⁰⁰⁾은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공휴일 효과¹⁰¹⁾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 부진¹⁰²⁾, 일부 매장의 리뉴얼¹⁰³⁾ 등으로 전년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¹⁰⁴⁾이 증가하였으나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미분양 아파트¹⁰⁵⁾가 늘어나면서 보험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¹⁾²⁾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보건·사회복지	[13.1]	4.3	-2.5	0.0	-0.3	-0.1
부동산	[10.0]	3.3	2.1	2.8	1.4	-0.6
도소매	[9.9]	-1.3	-0.6	-0.7	-1.0	-2.7
운수	[7.4]	1.1	3.0	-0.6	-0.2	-0.8
숙박·음식점	[4.5]	0.4	-0.5	1.1	1.0	-0.1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3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¹⁰⁶⁾과 소비심리 회

제유가(배럴당)(두바이유 기준, 기간 중 평균, USD): 6.1~12월 65.9 → 6.13~23일 73.9 → 6.24~30일 65.5) 한편 양국은 현재(25.7월)까지 휴전 중이다.

98) 상반기 중 호남권 외식물가지수는 123.7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2024년 상반기 119.7 → 하반기 121.5)

99) 상반기 중 호남권 공항(광주, 여수, 군산)의 월평균 운항 편수는 1,581편으로 전년 하반기(1,956편, 월평균) 대비 19.2%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여객 수는 21.7만 명으로 전년 하반기(27.7만 명, 월평균) 대비 21.6% 감소하였다. 운송화물은 1.0천 톤으로 전년 하반기(1.5천 톤, 월평균) 대비 32.3% 감소하였다.

100) 1~5월 중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월평균 16.8만 TEU으로 전년 하반기(17.3만 TEU, 월평균) 대비 2.7% 감소하였다.

101) 임시공휴일 지정(1.27일), 설 연휴(1.28~30일), 대체공휴일(3.3일, 5.6일), 조기 대선일(6.3일)

102) 상반기 중 광주전남과 전북의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89.5, 91.5로 전년 하반기 대비 광주전남은 2.2p, 전북은 1.3p 하락하였다.

103) 1/4분기 중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일부 층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였다.

104) 1~5월 중 호남권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월평균 18.9천 호로, 전년 하반기(17.0천 호, 월평균) 대비 11.4% 증가하였다.

105) 1~5월 중 호남권 미분양 아파트는 월평균 8.3천 호로, 전년 하반기(7.8천 호, 월평균) 대비 5.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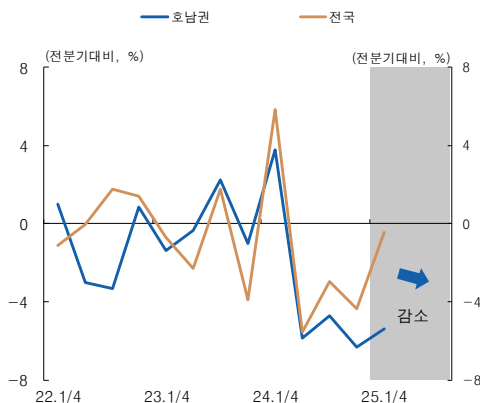
복¹⁰⁷⁾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운수업도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은 매수심리 약세를 이어가면서¹⁰⁸⁾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업 생산 감소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GRDP¹⁰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민간부문은 착공면적이 줄어들고 분양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하였다. 4월 말 기준 호남권 12분기 누적 착공면적은 전년 하반기 대비 17.0% 감소하였다. 1~4월 중 호남권의 분양실적(월평균)은 1.6천 호로 전년 하반기(3.7

천 호) 대비 55.7%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SOC 예산 집행액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상반기 중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예산액(월평균)은 6.4천억 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9.9%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감소¹⁰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부문에서는 공사 원가 상승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¹¹⁰⁾ 등으로 건설경기가 부진하며 감소할 전망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상반기에 재정 예산이 조기 집행된 여파로 건설 수주액이 줄어들며 감소할 전망이다.

106)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107) 4~6월 중 호남권 생활형편전망 소비자심리지수: 광주전남 83 → 93 → 98, 전북 85 → 91 → 96

108) 상반기 중 호남권 주택매매수급동향지수(100미만시 공급>수요)는 월평균 93.9로 전년 하반기(94.6, 월평균)에 이어 100을 하회하였다.

109) 4월 중 호남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12분기 누적 건설수주액은 전년 하반기 대비 각각 6.3%, 11.0% 감소하였다.

110) 부동산 경기 부진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새천년종합건설(24.2월), 남양건설(24.6월), 영무토건(25.5월) 등 지역 주요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3) 소비 및 투자

민간소비 보호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중 국내 정치 불확실성 및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2/4분기 들어 신정부 출범, 지역축제¹¹¹⁾, 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하면서 민간소비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자동차¹¹²⁾, 가전, 가구 등이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준내구재는 의복 및 레저용품¹¹³⁾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비내구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용 연료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숙박¹¹⁴⁾은 감소하였으나 의료소비¹¹⁵⁾가 증가하고 여행 관련 지출도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설비투자 보호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유지보수 위주의 투자 기조를 이어갔다.

자동차는 신형 모델 출시에 대비하여 설비공사를 실시하는 등 전년 하반기 대비 투자를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가스업은 LNG 관련 인프라 투자¹¹⁶⁾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장비는 이차전지 관련 투자¹¹⁷⁾가 진행되면서 전년 하반기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였다. 철강은 탄소 저감 강제의 적기 공급을 위한 전기로 신설¹¹⁸⁾, 노후설비 교체 및 성능복원을 진행하여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석유화학은 일부 업체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전년 하반기에 종료¹¹⁹⁾되고 상반기 중에는 노후화 설비 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유지보수 위주의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전년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111) 2/4분기 중 함평 나비축제(4.25~5.6일, 22만 명(전년대비 +4만 명)), 남원 춘향제(4.30~5.6일, 145만 명(전년대비 +27만 명)), 곡성 세계장미축제(5.16~25일, 25만 명(전년대비 +1만 명)) 등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다.

112) 상반기 중 호남권 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2.5%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17.0%)에 이어 감소 흐름이 지속되었다.

113) 상반기 중 호남권 레저용품 구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7.1%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 증가(+0.5%)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114) 상반기 중 호남권 숙박 관련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11.8%)에 이어 감소 흐름이 지속되었다.

115) 상반기 중 호남권 의료기관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8.0%)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116)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지분: ㈜한양 60%, GS에너지 40% / 위치: 여수 모도 / 착공: 2024년 9월 / 완공: 2027년 말)은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저장탱크, 수송관 등 LNG 유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며 광양만권 산단에 연간 300만 톤 규모의 LNG를 공급할 계획이다.

117) 포스코퓨처엠 광양공장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까지 6,800억 원을 투자하여 5만여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118)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저탄소 제품 양산을 위해 2024년 2월부터 전기로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5월경 준공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 그룹은 2025년 중 3.8조 원의 철강 부문 내 투자를 계획 중이다.

119) LG화학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재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404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22만 톤 규모의 ABS 생산공장을 건설하였다. 롯데지예스화학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50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중 페놀/BPA 공장을 준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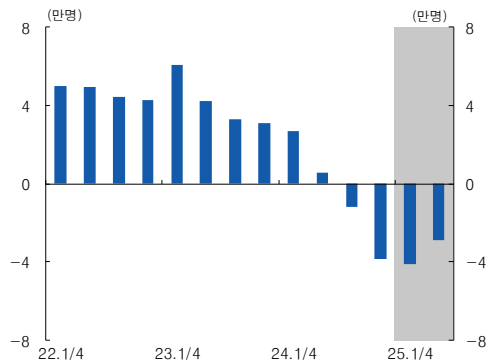
(4) 고용

취업자수 감소폭 확대

36

상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5만 명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2.5만 명) 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¹²⁰⁾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농림어업¹²¹⁾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서비스업은 보험수준을 보였다. 임금근로자¹²²⁾는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일용근로자의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비임금근로자¹²³⁾는 자영업자¹²⁴⁾를 중심으로 전년 하반기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 전북 모두 각각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취업자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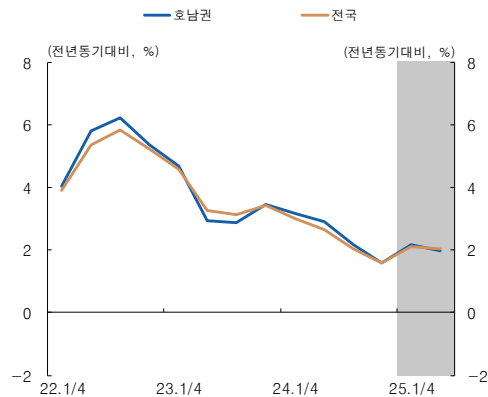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폭 확대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월평균)은 2.1%를 기록하여 전년 하반기(1.9%)보다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상품 물가는 가공식품 및 석유류¹²⁵⁾ 등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120) 상반기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6만 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0.3만 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121) 상반기 중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3만 명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2.1만 명)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122) 상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1.0만 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 감소(월평균 -0.3만 명)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일용근로자 취업자수 24.하반기 -1.5만 명 → 25.상반기 -0.6만 명)

123) 상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4.4만 명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월평균 -2.2만 명) 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24.하반기 -1.4만 명 → 25.상반기 -4.0만 명)

124)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과제」 참조

125) 상반기 중 석유류는 전년동기대비 1.7% 상승하여 전년 하반기 하락(-2.5%)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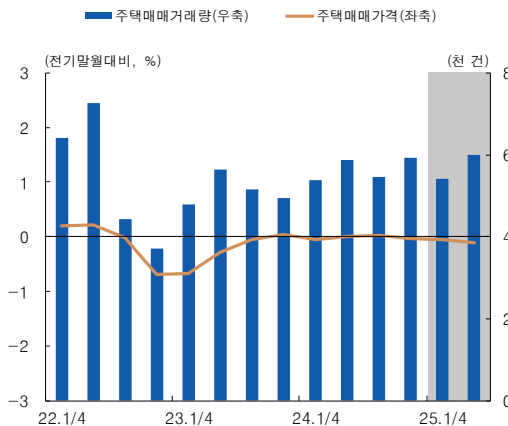
(6)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 하락, 거래량 소폭 감소

상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 대비 0.27% 하락하여 전년 하반기 상승(+0.03%)에서 하락으로 전환하였다. 1~5월 중 주택매매거래량(월평균 5.6천 건)은 전년 하반기 대비 1.0% 감소하였다.

이는 미분양주택이 누적되며 주택 매수심리를 약화시킨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주택 수(월평균)는 1~5월 중 8.3천 호로 전년 하반기(7.9천 호) 대비 4.8% 증가하였다.

주택매매가격¹⁾과 거래량²⁾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2/4분기는 4-5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7) 인 구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출 지속

상반기 중 인구수는 491.3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2만 명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1.5만 명)와 전남(-1.6만 명), 전북(-1.1만 명) 모두 감소하였다. 1~4월 중 출생아수는 7.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4천 명 늘어나며 전년 하반기(+0.8천 명)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1~5월 중 -9.4천 명으로 순유출 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4.7천 명), 전북(-2.8천 명), 전남(-1.9천 명) 모두 순유출¹²⁶⁾이 발생하였다.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¹⁾

(천 명)

	2023		2024		2025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만 명) ²⁾	499.8	497.8	495.4	493.6	491.3	(-4.2)
출생아수	10.8	9.8	10.5	10.6	7.5 ³⁾	(0.4)
순이동 ⁴⁾	-8.5	-6.8	-11.6	-6.4	-9.4 ³⁾	(1.4)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1-4월 중, 순이동은 1-5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통계청

126) 호남권 역내 이동을 제외한 타권역으로의 순유출 기준

5. 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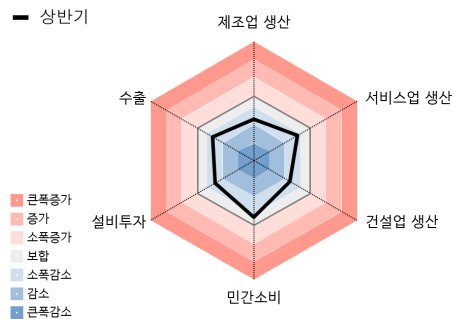
(1) 개 황

대경권 경기 소폭 악화

2025년 상반기 중 대경권 경기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소폭 감소하였고, 민간소비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상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3만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 감소(-3.1만명)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커졌다. 인구수가 감소한 가운데 출생아수(1~4월)는 증가하였고, 인구 순유출(1~5월) 폭은 축소되었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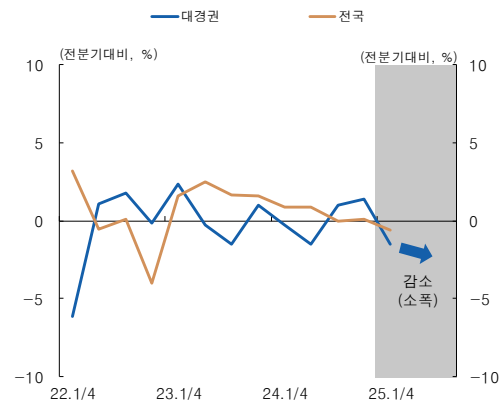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R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 생산이 차량용 OLED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부품 생산도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휴대폰 및 부품 생산은 갤럭시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크게 늘었던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의 실적을 하회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 생산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감소하였다.

광제조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확실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디스플레이는 SDV¹²⁷⁾ 차량 수요 증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¹²⁸⁾, 디지털 계기판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차량용 OLED를

127) SDV는 Software Defined Vehicle의 약자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드웨어 기능이 제어되고 관리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의 SDV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8)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는 정보를 의미하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다양한 오락거리를 일컫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합성한 용어로서,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기능 이외에도 자동차에 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지칭한다.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부품은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 관세 부과 전 조기 선적에 따른 일시적 수출 증가¹²⁹⁾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휴대폰 및 부품은 갤럭시S25 시리즈 신제품 출시, 관세 부과 전 미국내 재고비축 수요¹³⁰⁾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크게 늘었던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의 실적을 하회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다.¹³¹⁾

철강은 미 관세 부과¹³²⁾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전방 산업인 국내 건설업 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

휴대폰 및 부품은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군(아이폰17 시리즈, 갤럭시 폴더블폰7 시리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수요가 확대¹³³⁾ 되는 가운데 미 관세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용 OLED¹³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하이브리드 차량 부품 수출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내 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저가 철강재 수입 대응조치¹³⁵⁾와 중국 철강 감산 정책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증대, 건설업 부진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¹³⁶⁾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객실 리모델링 공사 진행으로 숙박객

수출(일평균)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2/4
수출	-9.9	1.0	7.5	-1.2	-8.1	0.4
휴대폰 및 부품	-37.5	-2.2	83.4	4.9	-32.9	-2.8
철강	3.0	-3.7	10.3	-1.3	-5.4	-10.9
자동차부품	0.0	-1.1	-5.5	-0.6	2.6	5.1
디스플레이	-14.1	-1.7	4.6	-22.1	39.8	-9.9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129)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액 추이(% 전년동월대비) : (25.1월) -12.0 → (2월) 1.8 → (3월) 3.1 → (4월) 9.8 → (5월) 4.8 → (6월) 14.4

130) 휴대폰 대미 수출액 추이(% 전년동월대비) : (25.1월) -12.1 → (2월) 683.9 → (3월) 535.7 → (4월) 3,144.0 → (5월) 18,831.4 → (6월) 36,818.5

131)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최근 대경권 휴대폰 수출 동향과 주요 요인 점검」 참조

132) 미국 정부는 3.12일 모든 수입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6.4일부터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다. 한편 6.23일부터는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철강이 포함된 8종류의 가전제품에도 철강 함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33) 유비리서치(국내 OLED 전문 시장조사업체)는 차량용 OLED 출하량이 2025년에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300만대에 이를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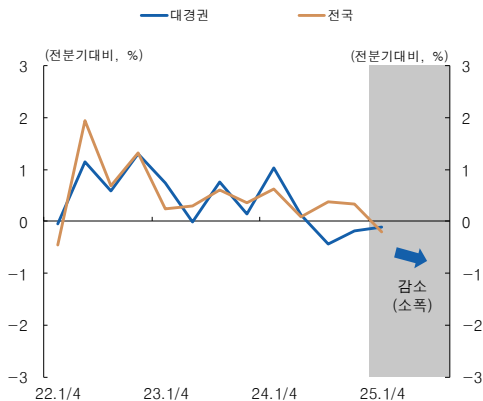
134) 차량용 OLED는 미국 수출 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35) 2.7월 현대제철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이어 12월에는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국씨엠은 업계 공동으로 중국산 도금강판과 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준비 중이다.

136)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포항지역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 참조

수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운수·창고업은 제조업 업황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부동산업도 매수심리 부진 지속 등으로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도소매업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승용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APEC 개최(2025.10월)를 앞두고 진행한 객실 리모델링 공사로 호텔 숙박객수¹³⁷⁾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운수·창고업은 제조업 업황 부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육상¹³⁸⁾과 수

상¹³⁹⁾ 화물 운송이 줄어들고 항공¹⁴⁰⁾ 화물 운송도 둔화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매수심리 위축¹⁴¹⁾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주택 및 토지 거래량이 모두 줄어들면서¹⁴²⁾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¹²⁾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부동산	[11.4]	-1.0	-0.3	-2.8	-1.0	-1.2
도소매	[11.0]	3.2	-2.1	-1.1	-0.3	-0.8
운수·창고	[7.0]	-0.3	3.2	1.6	2.5	-7.4
숙박·음식점	[5.2]	0.8	-1.8	-1.8	-1.0	-0.3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3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APEC 개최, 경주월드 신규 놀이기구 도입, 주요 호텔·리조트의 리모델링 공사 완료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¹⁴³⁾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창고업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7) 1~5월 중 경주 보문관광단지 숙박객수는 전년동기대비 26.0%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6.3%)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138) 2025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한 대형화물차(4, 5종)수는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5.7%) 대비 감소 전환하였다.(한국도로공사)

139) 1~5월 중 포항지역 해상 화물수송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0.0%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6.8%) 대비 감소 전환하였다.(해양수산부)

140) 2025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의 공항(대구, 포항경주)의 월평균 화물 처리량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6.5%)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한국공항공사)

141) 1~5월 중 대구와 경북의 주택 매매수급동향지수(월평균 기준)는 각각 79.3, 90.7로 전년 하반기(81.0, 93.4)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한국부동산원)

142) 1~5월 중 대구경북의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 거래량(월평균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0.0%, 17.5%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2.4%, +4.3%) 대비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토지는 감소폭이 확대(-1.3% → -15.2%)되었다.(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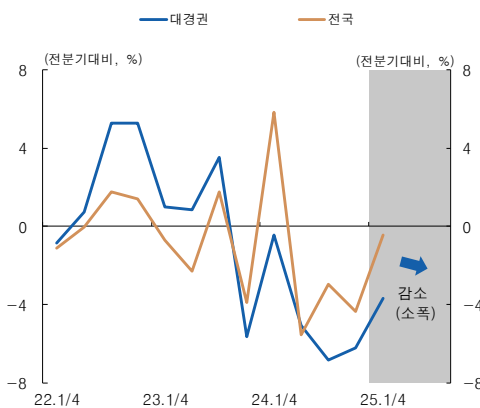
143) 정부는 7~10월 중 1인당 최대 5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¹⁴⁴⁾ 시행, 매수심리 부진 지속 등으로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생산 소폭 감소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GRDP¹⁴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주체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SOC 예산 집행액 확대로 건축 착공이 소폭 증가¹⁴⁵⁾한 반면 민간부문은 건설비용 상승¹⁴⁶⁾과 분양시장 부

진¹⁴⁷⁾ 지속으로 건축 착공이 감소하였다.¹⁴⁸⁾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모두 건축 착공이 감소¹⁴⁹⁾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민간부문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신규수주액 감소¹⁵⁰⁾가 이어지고 있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건설업 생산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분양 물량 적체도 크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144) 금융위원회는 6.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 감축(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과 정책대출 감축(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145) 상반기 SOC 예산 집행액이 전년 하반기(월평균) 대비 24.4% 상승한 가운데, 1~5월 중 공공부문의 건축 착공면적(36개월 누적 착공면적)은 2.0%(9.0%) 증가하였다.

146) 1~5월 중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하반기(월평균) 대비 0.7% 상승하여 전년 하반기(0.1%)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147) 2025년 5월 대경권 미분양주택 물량은 14,318호(대구 8,586호, 경북 5,732호)로 전국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7,201호로 전년 말월(4,911호)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148) 1~5월 중 민간부문의 건축 착공면적(36개월 누적 착공면적)은 전년 하반기(월평균)대비 38.3%(16.2%) 감소하였다.

149) 1~5월 중 건축착공은 전년 하반기(월평균)대비 40.5% 감소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각각 68.1%, 15.5%, 18.3% 줄었다.

150) 1~5월 중 공공부문 건설수주액(36개월 누적 수주액)과 민간부문 건설수주액(36개월 누적 수주액)은 전년 하반기(월평균) 대비 각각 48.2%(0.4%), 0.5%(18.6%) 감소하였다.

(3) 소비 및 투자

민간소비 포함

42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소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비내구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및 현금 등 정부의 소비 촉진 행사로 음료식품 소비가 호전되면서 증가하였다. 내구재는 신형 게임기 출시¹⁵¹⁾에 따른 가전 판매 증가, 승용차 수요 확대¹⁵²⁾ 등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준내구재는 레저용품, 의류 등에서 소폭 감소¹⁵³⁾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경북 산불¹⁵⁴⁾, 이상기후¹⁵⁵⁾ 영향 등으로 여행과 레저업¹⁵⁶⁾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설비투자 소폭 감소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업과 방산업 이외 부문에서는 기업들이 국내 정치 및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를 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은 2025년 10월 경주 APEC 행사 준비를 위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방산¹⁵⁷⁾에서는 수출 확대가 계속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이 이어지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이차전지소재는 전방산업의 수요 정체 장기화, 주요국의 친환경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부품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¹⁵⁸⁾에 따른 생산 현지화 추진 등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소재·부품, 섬유 등에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51) 25.6.5일 닌텐도사가 출시한 신형 콘솔 게임기 '스위치 2'는 출시 4일 만에 전 세계 누적 판매수가 350만대를 돌파하며 닌텐도 게임기 중 동일기간 역대 최대 판매기록을 세웠다. 국내에서도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여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152) 2025년 상반기 중 대경권 월평균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9,511대로 전년동기(9,123대, 월평균)대비 4.3%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1.5%) 대비 증가 전환되었다.

153) 2025년 상반기 중 대경권 레저용품과 의류의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5%, 6.6% 감소하였다.

154) 3월중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 산불 여파로 3~4월중 산불피해지역(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의 여행과 레저업 관련 신용카드 결제액(하나농협 카드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0.1%, 13.1% 감소하며 경북지역 전체(-8.8%, -4.1%) 대비 큰 감소폭을 보였다.

155) 3~5월 중 대경권 기온은 높은 변동폭을 보였는데(15.5°C, 15.6°C, 14.1°C), 5월 변동폭은 역대 동월 최대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대구지방기상청)

156) 2025년 상반기 중 대경권 여행 관련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23.6%)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레저업소 신용카드 결제액의 감소폭이 확대(-0.4% → -6.9%)되었다.

157) 2025년 중 LG넥스원은 구미와 김천 사업장에 93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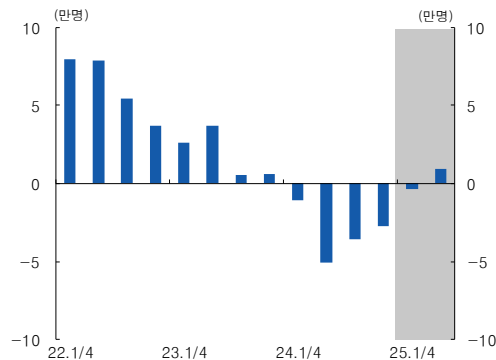
158) 미국 행정부는 25.5.3일부터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4) 고용

취업자수 증가 전환

상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3만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 감소(-3.1만명)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감소폭은 축소되었다. 반면,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감소 전환되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수가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 전환하였다.

취업자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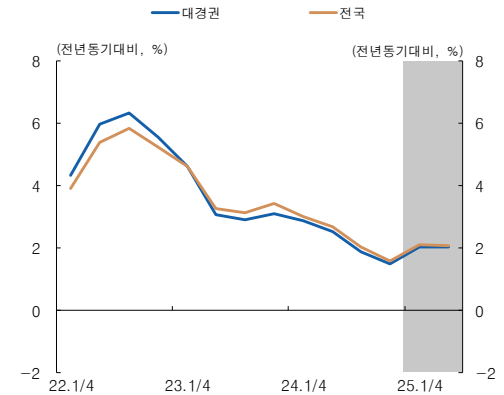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하여 전년 하반기(1.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외식과 가공식품의 상승폭이 확대¹⁵⁹⁾되었고 석유류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농축수산물물은 상승폭이 둔화되었는데, 이는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의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 전환한 데 기인한다.¹⁶⁰⁾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159) 2025년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의 가공식품 물가는 4.0% 상승하여 2024년 하반기(2.0%)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160) 품목별 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변화(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 축산물(0.0% → 5.2%), 수산물(1.5% → 5.1%), 농산물(2.7% → -1.7%)

(6) 주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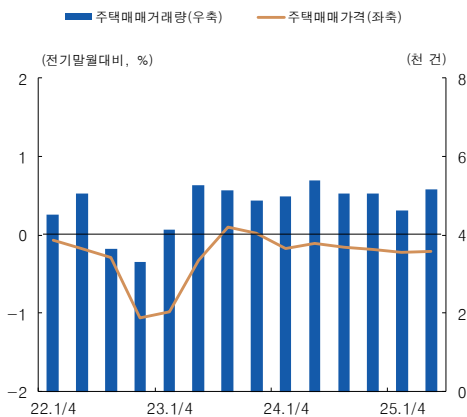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

44

상반기 중 대구경북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0.21% 하락하여 전년 하반기(-0.18%)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0.34%)가 경북(-0.11%)보다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지역의 심각한 미분양주택 적체¹⁶¹⁾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5월 중 매매거래량(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367건 줄어들며 전년 하반기 증가(+45건)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주택매매가격¹⁾과 거래량²⁾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2/4분기는 4~5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7) 인 구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출 폭 축소

인구수는 487.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5만명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1.0만명, 2.5만명 감소하였다.

1~4월 중 출생아수는 7.3천명이었으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0.4천명 늘어났다.

1~5월 중 인구 순이동을 살펴보면 6천명 순유출 되었는데 순유출 폭은 전년동기(7.2천명) 대비 축소되었다. 지역별 순유출을 원인별로 나누어 보면 대구는 청년층의 취업을 위한 이주가 대부분인 반면 경북은 이 외에도 타 지역 주택 매입, 자녀 교육 등으로 다양하였다.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¹⁾

	2023		2024		2025	(천명)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만명) ²⁾	495	493	491	490	488	(-3.5)
출생아수	10.3	9.3	10.1	10.4	7.3 ³⁾	(0.4)
순이동 ⁴⁾	-9.0	-4.5	-7.2	-5.5	-6.0 ³⁾	(0.7)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1~4월 중, 순이동은 1~5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통계청

161) 5월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주택수는 8,586호로 지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국토교통부)

음식료품은 주류와 식료품이 서로 상쇄되며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이트진로 등 주류는 내수 침체로 매출이 소폭 둔화되며 감소하였으나, 불닭볶음면 등 면류는 수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

의약품은 일본(-62.3%)에서 보툴리눔독소¹⁶³⁾ 경쟁 심화 및 재고 조정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수출이 둔화되면서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은 필리핀(51.3%)과 방글라데시(11.9%)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생산이 감소하였다.¹⁶⁴⁾

수출(일평균)

	2024				2025	
	1/4	2/4	3/4	4/4	1/4	2/4
수출	18.8	-3.9	-12.2	2.0	25.8	-7.7 ¹⁾
면류	6.2	27.3	-10.2	12.3	11.6	11.3
의료기기	6.3	-2.1	-11.4	8.8	12.6	3.4
비금속광물	-17.8	1.8	17.6	11.5	-2.0	29.0
의약품	-24.2	4.8	36.3	-4.1	1.6	7.6

주: 1) 2/4분기 수출 하락은 전년의 1/4분기 대만 해저케이블 납품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전년 수출 1/4분기 1,115.5%, 2/4분기 -71.0%)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기는 EU의 중국 입찰 자격 제한 정책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점유율이 더욱 확대되면서 생산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은 하반기 호흡기 바이러스 신규 백신 출시와 공공부문에서의 장티푸스·수막구균¹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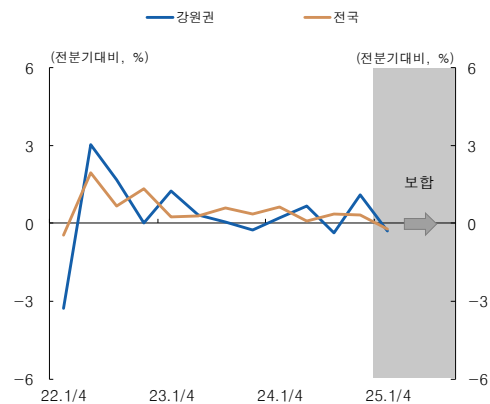
백신 접종 확대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품은 주류를 중심으로 물류센터 준공 및 마케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생산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멘트는 건설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생산 감소가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소비심리 위축¹⁶⁶⁾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숙박·음식점업은 다소 감소하였다.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도소매업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서비스업 GRDP¹⁶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감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확실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 추산

163) 흔히 '보톡스'라는 상품명으로 부르며 미용 및 치료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164) 1~5월 중 강원지역 비금속광물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7.0% 감소하며 전년 하반기(-10.7%)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165) 뇌를 감싸는 막을 감염시키는 '뇌수막염'이나 혈액 감염인 '패혈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세균이다.

166) 상반기 중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7.5(월평균)으로 장기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전년 하반기 대비 3.8% 하락하였다.

부동산업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전월세 거래가 1/4분기 중 증가¹⁶⁷⁾하여 임대공급업이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은 경기 부진으로 골프장 이용객이 일부 줄어들었으나¹⁶⁸⁾ 회원 등 문화취미 소비가 늘어 보험세를 나타내었다.

도소매업은 1/4분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2/4분기 들어 다시 감소하며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1/4분기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분기대비 0.2% 증가했으나, 1~5월 누계로는 전년 하반기 대비 1.0%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을 중심으로 다소 부진하였다. 다만 음식점업은 1/4분기 침체 후 2/4분기 중 강원지역 방문객 수가 늘어나며¹⁶⁹⁾ 일부 회복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소비심리 회복, 중국인 단체 관광객 증가¹⁷⁰⁾ 등에 힘입어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서비스업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이연되었던 국내 관광수요가 회복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소매업 역시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지역 서비스업 생산의 31.8%(2023년 기준, 명목)을 차지¹⁷¹⁾하는 공공행정 및 국방은 하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공공 지출이 늘어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은 DSR 3단계 일부 시행 등 대출규제로 거래 감소세가 예상되나 예정된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¹⁷²⁾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¹⁷²⁾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도소매	[7.4]	3.7	-2.3	0.1	-0.2	0.4
숙박·음식점	[6.6]	-2.8	-3.1	1.1	4.6	-4.5
부동산	[7.8]	-0.4	-1.0	-2.6	1.5	5.8
문화서비스	[6.7]	2.5	1.5	-3.3	-2.7	0.5
공공행정	[31.8]	0.2	0.8	0.2	1.0	0.3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3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 추산

167) 1~5월 중 강원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하반기 대비 39.4%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168) 상반기 중 강원지역 평균 골프장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였다.

169) 1/4분기 중 강원지역 월평균 방문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는 3.3% 증가하였다(한국관광데이터랩)

170) 기존 제주도에만 한정됐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2025년 3/4분기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되어 관광 소비 증진과 이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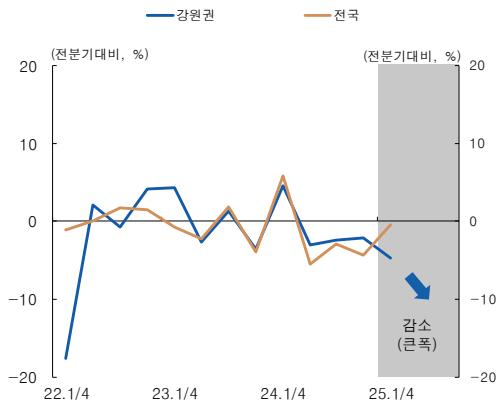
171) 전국에서 세종(45.2%) 다음으로 서비스업 생산 내 비중이 크며, 지출측면(2023년, 명목)으로는 정부최종소비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이또한 세종(61.1%) 다음으로 높다.

172) 2025년 하반기 중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5,949세대로 상반기(3,122세대) 대비 2,827세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부동산원)

건설업 생산 큰 폭 감소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큰 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GRDP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 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여러 제약 요인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새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과 주택공급 확대 기조는 위축된 건설경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강원지역은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우며,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모두 부진하며 주요 지표들이 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였다. 민간부문은 주택 매수심리 위축과 PF시장 경색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연초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가운데 1~5월 중 공공부문 발주 건설수주액 또한 전년동기대비 33.3%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멘트, 레미콘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자금난 심화는 건설경기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⁷³⁾

173) 강원지역 건설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원권 지역경제포커스 「강원지역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에 기술되어 있다.

(3) 소비 및 투자

민간소비 포함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 소비가 다소 늘어나면서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상반기 중 주택 분양 감소에 따른 가구 판매 부진¹⁷⁴⁾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준내구재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의복과 잡화를 중심으로 둔화¹⁷⁵⁾되었다. 한편, 비내구재는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관광업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의료서비스 지출이 늘어나며 포함 수준을 나타냈다.

증설 등 기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를 지속하였다.

한편, 의료기기는 수출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¹⁷⁷⁾

설비투자 소폭 감소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의료기기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멘트는 건설경기 부진과 기저효과¹⁷⁶⁾로 전년 하반기 대비 상반기 투자가 감소하였다. 숙박업 및 레저시설은 경기 악화로 투자를 감축했다. 전선은 하반기 완공 예정인 동해 해저5동

174) 상반기 중 강원지역 평균 가구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5.0% 감소하였다.

175) 상반기 중 강원지역 평균 의복 직물잡화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하였다.

176) 한일현대시멘트는 전년 하반기에 환경 설비투자를 완료하였다.

177) 삼성메디슨은 기존 공장을 스마트공장¹⁷⁶⁾으로 전환해 초음파 진단기기 생산능력을 1만9400대에서 3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축 공장도 3/4분기 중 착공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연간 4만대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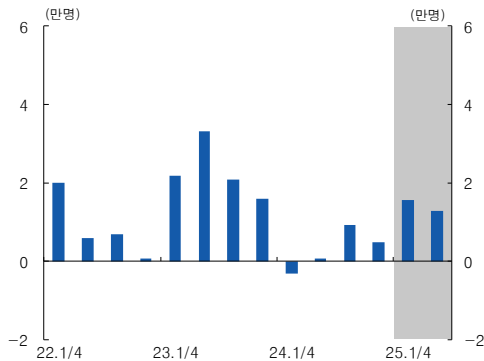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50

상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4만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0.7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중 1.6만명 증가하였고 2/4분기 중 1.2만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감소 전환하였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¹⁷⁸⁾ 등 서비스업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종사자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¹⁷⁹⁾의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되었으나, 임금근로자¹⁸⁰⁾의 경우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어났다.

취업자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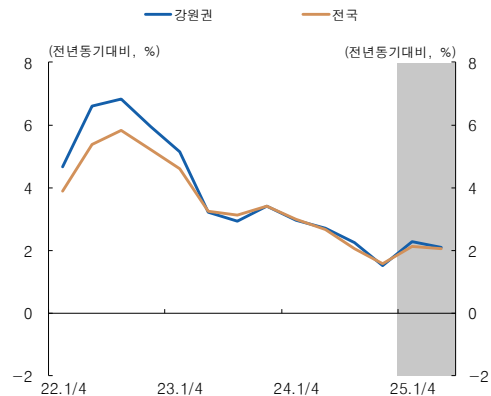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하여 전년 하반기(1.9%) 대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1/4분기(2.3%) 중 환율 및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2/4분기(2.1%)에는 해당 요인들이 일부 해소되고 농축수산물 등 중심으로 상품가격이 하락하며 오름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178) 상반기 중 서비스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1.0만명 증가하여 작년 하반기(월평균 +0.1만명)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증가 전환하였다.(작년 하반기 -1.0만명 → 금년 상반기 +0.7만명)

179) 상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2.0만명 증가하여 작년 하반기(월평균 +0.3만명)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작년 하반기 +0.3명 → 금년 상반기 +1.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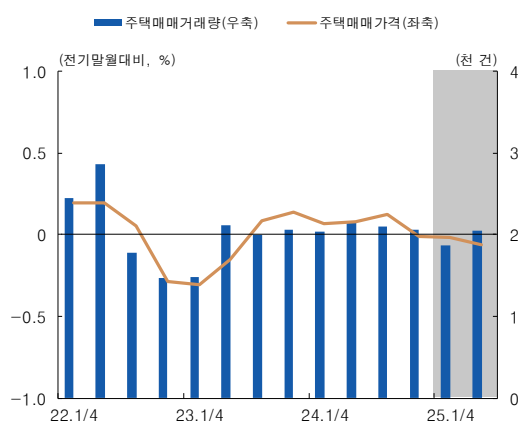
180) 상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0.6만명 감소하여 작년 하반기(월평균 +0.4만명)대비 감소 전환하였다.(상용근로자 취업자수 작년 하반기 +1.6만명 → 금년 상반기 -0.8만명)

(6)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 하락 전환, 거래량 감소 지속

상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확대(전년 하반기 -0.02% → 금년 상반기 -0.10%, 말월대비 월평균 기준)되었다. 매매거래량(월평균)의 경우 1~5월 중 전년동기대비 198건 줄어들며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미분양주택 물량이 크게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¹⁸¹⁾ 상반기 중 정책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약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¹⁾과 거래량²⁾



주: 1) 전반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2/4분기는 4~5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7) 인 구

출생아수 감소, 인구 순유출 확대

상반기 중 인구수(반기말)는 151.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만명(-0.7%)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강릉시(-0.14만명), 속초시(-0.13만명), 춘천시(-0.11만명) 순으로 감소한 반면, 원주시(0.08만명)는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0.58만명)과 여성(-0.54만명)이 비슷하게 줄어들었다.

1~4월 중 출생아수는 2.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1~5월 중 -2.8천명으로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며, 그 폭도 전년동기(-1.8천명)보다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0.47천명)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특히 속초시(-0.63천명), 동해시(-0.54천명), 인제군(-0.43천명)에서 유출폭이 크게 나타났다.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¹⁾

	2023		2024		2025	(천명)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만명) ²⁾	153.3	152.8	152.3	151.8	151.1	(-1.1)
출생아수	3.6	3.1	3.3	3.2	2.3 ³⁾	(-0.1)
순이동 ⁴⁾	-0.6	-0.8	-1.6	-0.9	-2.8 ³⁾	(-1.1)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1~4월 중, 순이동은 1~5월 중 합계

4) 전입 - 전출

자료: 통계청

181) 1~5월 중 강원지역 미분양주택수는 3,967호로 작년 상반기(3,947호, 월평균)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7. 제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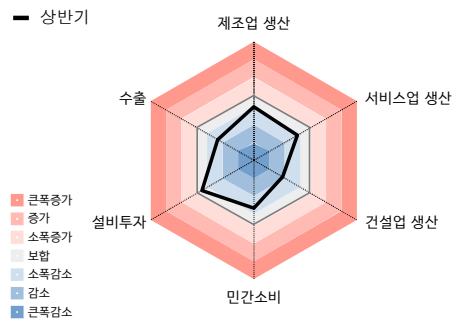
(1) 개 황

제주권 경기 소폭 악화

2025년 상반기 중 제주권 경기는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은 보합세를 보였으나 서비스업은 전년 하반기보다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건설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상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이 전년 하반기보다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소폭 확대되었고,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흐름을 지속하였다. 출생아수(1~4월)는 증가하였으나 인구 순유출(1~5월) 폭이 확대되면서 인구수는 감소하였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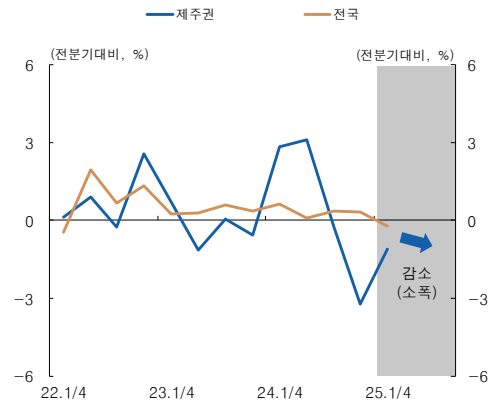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 및 분기 GDP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항공기 사고 여파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관광객 수가 크게 줄면서 관광 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레저업 등)을 중심으로 1/4분기 중 감소하였다. 이후 2/4분기 들어서서는 이러한 일시적 요인의 완화로 관광객 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진 흐름이 소폭 개선되었다.¹⁸²⁾

서비스업 GRDP¹⁸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확실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도소매업은 도내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소비 부진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면세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¹⁸³⁾가 이어지고 소상공인 위주의 전문소매업 업황도 부진¹⁸⁴⁾하였다.

182) 관광객 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4분기 -12.9 → 2/4분기 -2.5(4월 -7.4 → 5월 -1.0 → 6월 +1.0)

183) 1~5월 중 제주지역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1.7% 줄어 전년 하반기(-20.5%)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내국인 매출액 2024년 하반기 -16.6% → 1~5월 -30.0%, 외국인 매출액 -22.3% → -30.5%). 외국인 매출 감소는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고 객단가가 크게 하락(24년 1~5월 454달러 → 25년 1~5월 274달러, △39.6%)한 데 기인하였다.

숙박업은 관광객 수 부진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내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서귀포 지역 대형호텔,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도심 지역 호텔과 주요 관광지(애월, 함덕 등) 인근 업소 등 일부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특히 구도심 지역 중소형 숙박업소 및 농어촌 민박 등에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음식점업도 관광객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폐업체 수가 증가¹⁸⁵⁾하는 등 부진하였다.

레저업도 관광객 여가·체험형 상품 판매 부진, 골프장 수요 부진¹⁸⁶⁾, 도민여가 지출 감소¹⁸⁷⁾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운수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항공 운수는 항공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지역 항공사의 항공편 운항이 축소되었고 전세버스도 수학여행¹⁸⁸⁾ 이외 단체 관광이 부진하면서 가동률이 하락¹⁸⁹⁾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은 여행업과 임대업(렌트카)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여행업은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국내 MICE, 기업 인센티브 여행 등 단체 관광이 연기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임대업은 내국인 개별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렌트카 가동률이 하락¹⁹⁰⁾하는 등 소폭 감소하였다.

카지노업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세 둔화로 1/4분기 중 소폭 감소하였으나 2/4분기 중 관광객 수 회복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도내 주요 업체의 경우 일본·동남아·대만 등 방문객 다변화를 통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⁹¹⁾

정보통신업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지역 게임사가 중국내 출시한 모바일 게임의 연초 업데이트 흥행으로 1/4분기 매출이 증가¹⁹²⁾하였으나 2/4분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되면서 둔화되었다.

서비스업 업종별 GRDP¹⁹²⁾

(전분기대비, %)

		2024				2025
		1/4	2/4	3/4	4/4	1/4
도소매	[10.8]	6.2	-3.0	-2.5	-1.6	1.9
숙박·음식점	[10.2]	5.1	-0.1	0.0	-5.9	-5.7
사업서비스	[8.1]	-0.2	-0.4	3.9	-4.4	-2.3
운수	[6.9]	10.3	5.0	2.5	-3.0	-4.1
문화·기타	[6.8]	2.0	-1.6	0.5	-3.5	-5.0

주: 1)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 내는 2023년 서비스업 GRDP 대비 비중(명목 기준, %)

자료: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184) 1/4분기 중 제주지역 전문소매점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9.2% 줄어 전년 하반기(-5.4%)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185) 상반기 중 제주지역 음식점업(일반, 휴게음식점) 폐업체 수는 942개로, 전년동기대비 135개 증가하였으며 전년 하반기(898개) 대비로도 44개 늘었다.

186) 제주지역 골프장은 도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이용객 감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체 체육행사 유치 부진 등으로 이용객 수 감소세가 지속된(24.4분기 -9.1% → 25.1/4분기 -16.6%, 전년동기대비) 것으로 조사되었다.

187) 상반기 중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CSI) 교양·오락 지출전망 지수(월평균)는 83으로, 전년동기대비 5p 하락하였으며 전년 하반기 대비 4p 하락하였다.

188) 1~5월 중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객은 14.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하였다.

189) 1~5월 중 전세버스 가동률은 24.0%로 전년동기(25.6%)대비 1.6%p, 전년 하반기 월평균(24.6%) 대비 0.6%p 하락하였다.

190) 1~5월 중 렌트카 가동률은 64.7%로 전년동기(72.0%)대비 7.3%p, 전년 하반기 월평균(71.7%) 대비 7.0%p 하락하였다.

191) 제주 카지노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드림타워 카지노는 1~5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317.6억으로 전년 하반기 월평균 매출액(263.5억) 대비 20.5%, 전년동기 대비 35.1% 증가하였다.

192) 네오플의 모회사인 NEXON(일본 상장)의 중국 매출액은 2024년 3/4분기 572억엔에서 4/4분기 214억엔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연초 업데이트 등 영향으로 2025년 1/4분기 373억엔(+60% YoY)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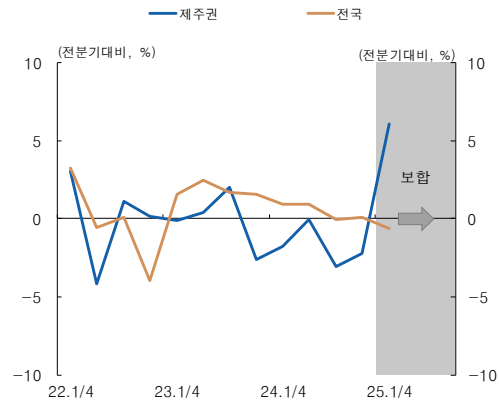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관광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국내여행 수요 회복¹⁹³⁾,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사업¹⁹⁴⁾, 상반기 연기된 각종 국내 단체 행사¹⁹⁵⁾ 실시 등으로 부진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은 탑승률 개선에 따른 항공기 증편, 크루즈 운항 편 수 증가¹⁹⁶⁾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 중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여행 수요가 타 지역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조업 생산 보합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소폭 증가하였다. 미중 관세 이슈에 따른 중화권 수요 증가, 원화 약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 제품은 2/4분기 중 제주시 도심 지역 대단지 아파트 공사 진척에도 불구하고 신규 착공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식음료는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주요 기업 신제품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광제조업 GRDP¹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금속 광물, 식음료 제품은 건설경기 및 소비 부진으로 수요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여 소폭의 부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일평균)

	2024				2025	
	1/4	2/4	3/4	4/4	1/4	2/4
수출	-28.9	-9.0	-5.5	36.3	29.9	-17.6
전자제품	-21.1	5.9	-9.6	-2.5	41.8	-1.9
농림수산물	-27.3	-30.6	5.0	80.6	-16.7	-31.3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93) 여행비 지출전망 CSI(전국): 4월 92 → 5월 95 → 6월 99

국내숙박여행계획률(컨슈머인사이트): 4월 67.9 → 5월 69.3 → 6월 70.4

제주여행 관심도(컨슈머인사이트): 4월 35.7 → 5월 34.1 → 6월 36.5

194) 제주도는 6월부터 단체관광객(15인 이상)에 대해 인당 3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고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이벤트 및 디지털 관광증(관광지 할인 멤버십)을 운영하는 등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통한 수요 회복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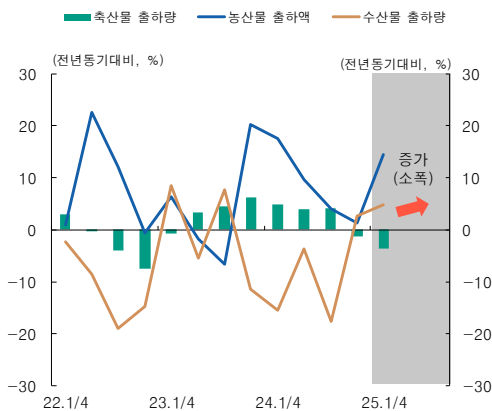
195) 모니터링 조사 결과 5~6월이 단체 여행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월 대선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업 인센티브, 각종 행사 등 단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6) 하반기 예정 크루즈 편 수는 166편으로, 전년 하반기(154편) 대비 12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 생산 소폭 증가

상반기 중 농축수산물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은 노지 감귤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카라향 등 만감류 생산 증가, 마늘 등 주요 밭작물 가격 상승¹⁹⁷⁾ 등으로 출하액이 증가하였다. 축산물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수산물에는 양식 넙치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갈치, 참조기 등 주요 어종 어획량 감소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 출하¹⁾



주: 1) 읍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농축수산물 출하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농축수산물 생산은 상반기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생산은 하우스감귤 재배면적 증가와 노지감귤 생산량 감소(해거리)가 상쇄되며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밭작물 및 감귤류 가격 호조세가 유지됨에 따라 출하액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은 평년 대비 이른 수온 상승으로 인한 내륙지역의 양식 넙치 생산 차질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온 및 고수온¹⁹⁸⁾ 현상은 작물의 생육 부진, 가축 및 양식수산물 폐사 가능성 증가 등 농축수산업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생산 감소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은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제주도의 SOC 투자 확대¹⁹⁹⁾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²⁰⁰⁾ 다만 미분양 주택 해소 지연²⁰¹⁾ 등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²⁰²⁾이 이어져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²⁰³⁾

197) 2025년 제주지역 마늘 수매 단가는 4,300원으로, 2024년 3,800원 대비 500원 인상되었다.

198) 2025년 제주지역 고수온 예비특보(해역 수온이 25도에 도달했거나 도달이 예상될 때 발표)는 7.4일 발표되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 빨라진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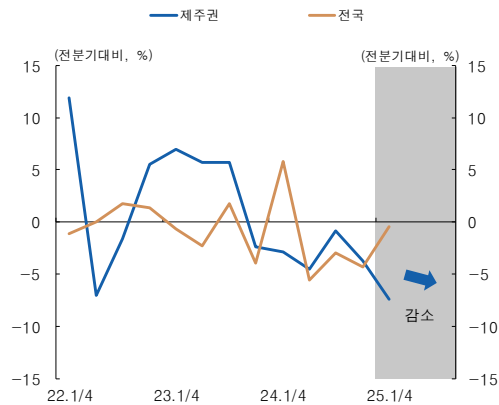
199) 상반기 중 제주지역 SOC 관련(국도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예산지출액은 약 5,657억 원으로 전년 하반기(3,935억 원) 대비 43.7% 증가하였다.

200) 1~5월 중 제주지역 공공부문 누적건설수주액(36개월)은 전년 하반기(월평균)에 비해 6.8% 증가하였다.

201) 5월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22호(준공 후 미분양 1,621호)로, 전년 하반기말 대비 285호(준공 후 미분양 125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 1/4분기 제주지역 집합 상가 공실률은 17.6%로, 전국(10.3%)보다 7.3%p 높았다.

203) 1~5월 중 제주지역 착공면적(월평균)은 전년 하반기보다 46.0% 감소하였으며(주거용 -62.6%, 비주거용 -30.5%), 누적착공 면적(36개월)도 전년 하반기(월평균)에 비해 9.6% 감소하였다(주거용 -13.4%, 비주거용 -5.9%).



주: 1) 전분기대비 증가는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상반기 중 건설업 생산의 전년 하반기 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반기 건설수주액 등 선행지표 부진²⁰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²⁰⁵⁾, 제주도의 SOC 예산 확대²⁰⁶⁾에 힘입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 소비 및 투자

민간소비 소폭 감소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면서 전년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1/4분기에는 관광객 소비가 큰 업종

을 중심으로 부진하였으나, 2/4분기 중 관광객 수 회복 흐름 및 제주도의 소비 진작 정책²⁰⁷⁾ 등에 힘입어 일부 개선되었다.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가구²⁰⁸⁾를 중심으로, 비내구재는 의복, 서적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경기 부진에 따른 도내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숙박, 여행, 레저업, 음식점업 소비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설비투자 보합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운수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갔다.

운수업은 지역 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도입²⁰⁹⁾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숙박, 면세점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는 관광객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4) 1~5월 건설수주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전체 -62.9, 공공 -47.4, 민간 -71.4

205) 국토교통부는 토지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엔지니어링에 2,000억원 출자, 인허가 후 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 공적 보증(본PF 2조원 규모) 지원,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 판매조건부로 매입(2,500억원) 등을 주 골자로 하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였다.

206) 제주도는 1차 추경 편성(4월23일) 2,194억 원 중 건설 부문에 668억 원(건설경기 활성화, 시설 사업 등)을 배정했고, 하반기 중 2차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207) 제주도는 4월부터 6월까지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탐나는전 월평균 사용액은 1/4분기 280억 원에서 2/4분기 618억 원으로 120.7% 증가했다.

208) 상반기 중 제주지역 가구 신용카드 사용액(신한-농협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4.3% 감소했으며 전년 하반기(-12.6%)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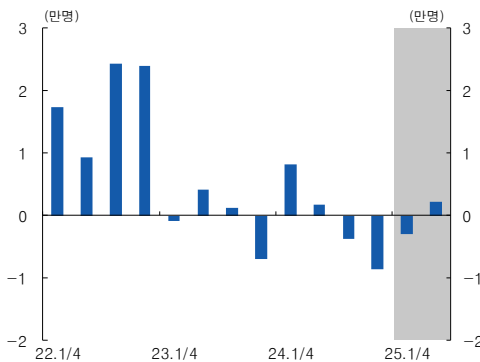
209) 제주항공은 2025년 1월과 5월에 B737-8 항공기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동 기종 3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4) 고 용

취업자수 감소폭 축소

상반기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04만명 감소하였으나 전년 하반기(-0.61만명) 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이 도소매·음식숙박업²¹⁰⁾의 감소폭 축소 등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²¹¹⁾의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임금근로자²¹²⁾의 경우 상용 및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감소세가 지속²¹³⁾된 반면 고령층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취업자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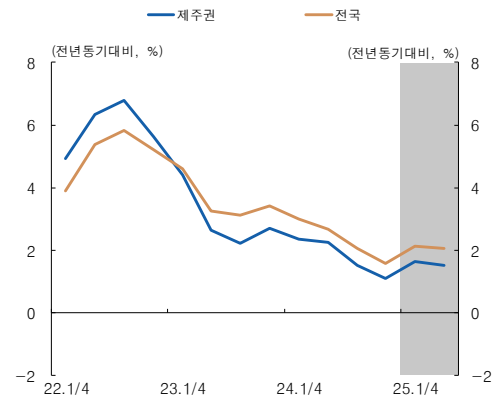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6% 상승하여 전년 하반기(1.3%)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 물가는 채소·과실류 오름세가 안정되었으나 석유류 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가공식품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년 하반기의 상승폭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210) 상반기 중 서비스업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8.7천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월평균 -0.1천명)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2024년 하반기 -7.6천명 → 2025년 상반기 -2.0천명)

211) 상반기 중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6.0천명 감소하여 전년 하반기(월평균 -2.5천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2024년 하반기 -1.6천명 → 2025년 상반기 -2.7천명)

212) 상반기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5.6천명 증가하여 전년 하반기 감소(월평균 -3.6천명)에서 증가 전환하였다.(상용근로자 취업자수 2024년 하반기 -2.5천명 → 2025년 상반기 +2.9천명)

213)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포커스 「최근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 부진 요인과 과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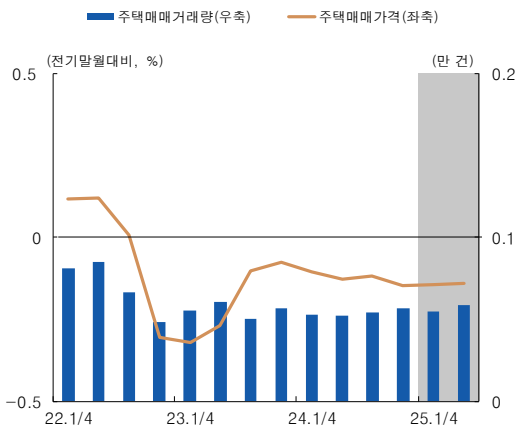
(6)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지속, 거래량 보합

58

상반기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 말월 대비 0.14% 내려 전년 하반기(-0.13%) 하락폭을 유지하였다. 매매거래량(월평균)은 1~5월 중 564.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7.2건 늘어 전년 하반기(+18.3건)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부진한 수준이다. 이는 미분양 주택 해소 지연 등으로 주택매수심리 개선폭²¹⁴⁾이 제한적인 가운데, 인구 유출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하방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매매가격¹⁾과 거래량²⁾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월평균 기준, 2025.2/4분기는 4-5월 평균

자료: 한국부동산원

(7) 인 구

출생아수 증가, 인구 순유출 확대

상반기 중 제주지역 인구수(반기말)는 66.7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6천명 감소하였다. 1~4월 중 출생아수는 1.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명(2.8%) 늘어나며 전년 하반기(-1.6%)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인구 순이동(전입-전출)은 1~5월 중 -2.5천명으로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며 그 폭도 전년동기(-2.0천명)보다 확대되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이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되거나, 유출폭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20대의 순유출이 가장 컸다.²¹⁵⁾

인구수, 출생아수 및 인구이동¹⁾

(천명)

	2023		2024		2025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인구수(만명) ²⁾	67.7	67.5	67.2	67.0	66.7	(-0.6)
출생아수(백명)	16.8	15.5	16.5	15.2	11.2 ³⁾	(0.3)
순이동 ⁴⁾	-0.8	-0.9	-2.2	-1.2	-2.5 ³⁾	(-0.6)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2) 반기말 기준

3) 출생아수는 1-4월 중, 순이동은 1-5월 중

4) 전입 - 전출

자료: 통계청

214) 제주지역 주택매매수급지수(한국부동산원은 상반기 중 90.9로, 기준치 100을 하회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전국 93.5, 8개 도지역 93.2, 서울 99.6).

215) 연령별 순이동 증감(24년 → 25년, 1~5월 기준, 천 명): 20대 -1.29 → -1.30, 30대 +0.02 → -0.13, 40대 -0.09 → -0.13, 50대 +0.04 → -0.10, 60대 -0.02 → -0.08, 70대 이상 -0.01 →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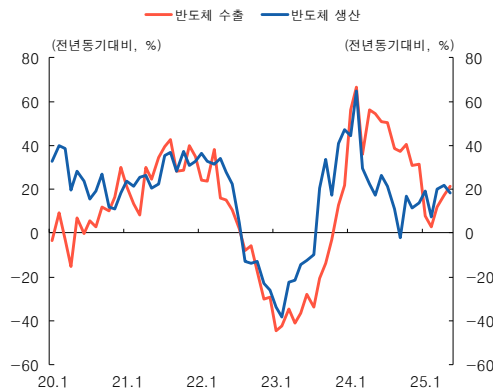
II

지역경제포커스

수도권	1. 경기본부	최근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61
	2. 인천본부	인천지역의 대미수출 현황 및 이슈	64
동남권	3. 부산본부	최근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주요 특징 및 향후 과제	67
	4. 울산본부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69
	5. 경남본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경남지역 조선업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	72
충청권	6. 대전세종충남본부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동향 및 전망	74
	7. 충북본부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전망	76
호남권	8. 광주전남본부	전남지역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79
	9. 전북본부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과제	81
	10. 목포본부	전남지역 어업 현황 및 과제	84
대경권	11. 대구경북본부	최근 대경권 휴대폰 수출 동향과 주요 요인 점검	87
	12. 포항본부	포항지역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	90
강원권	13. 강원본부	강원지역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92
	14. 강릉본부	강원 영동지역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94
제주권	15. 제주본부	최근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 부진 요인과 과제	96

2025년 상반기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전년 4/4분기(+37.4%) 대비 둔화되었다. 메모리반도체(24년 하반기 59.9% → 25년 상반기 17.7%)와 시스템반도체(8.2% → 0.1%) 모두 수출 증가율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IT기기 수요부진 지속, 수출단가 하락¹⁾, 전년의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상반기 중(25.1~5월) 반도체 생산은 AI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고성능 D램을 중심으로 증가세(+17.5%)가 전년 하반기(+11.6%)대비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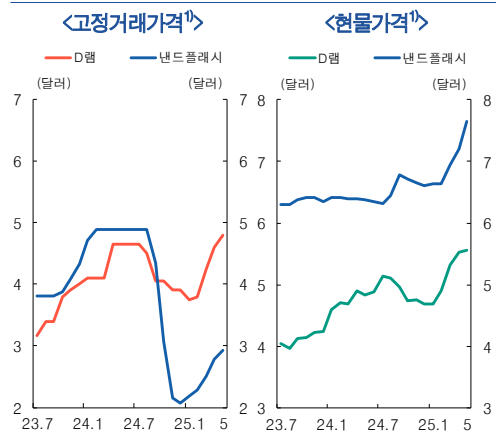
반도체 생산 및 수출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

메모리반도체(D램 및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 및 현물가격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중국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요 증가²⁾, 미국 관세 부과에 대비한 선수요³⁾ 등에 따라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 및 현물가격



주: 1) D램은 DDR5 16Gb, 낸드플래시는 MLC 128Gb
자료: DRAmEXchange

상반기 중 국내 반도체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AI 반도체 실적에 따라 업체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초 HBM 수요 이연⁴⁾, 미국의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⁵⁾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고부가가치 제품(HBM3E, DDR5 등) 출하량 확대⁶⁾

- 1) 2025년 상반기 중 반도체 수출물가지수(계약가격기준)는 전년 하반기대비 7.8% 하락(전년동기대비 -2.5%)하였다.
- 2) 중국 정부가 2025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소비 보조금 대상(이구환신)에 추가하면서 5월 중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6%, 전월대비 21% 증가한 2,282만대를 기록하였다.(하나증권)
- 3)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에 대비하여 글로벌 IT 전방업체들이 2025년 1/4분기 중 선출하를 실시하면서 메모리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재고가 감소하였다. 전방업체들은 공급 리스크 대응을 위해 DRAM과 낸드플래시 재고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따라 2/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Trendforce)
- 4) 삼성전자에 따르면, HBM3E 개선제품 출시를 앞두고 고객사의 수요 이연 등에 따라 HBM 판매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D램 판매량을 전분기대비 10% 중반 수준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BM 판매 비중 감소에 따라 평균판매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2025년 1/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5)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7.8일)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AI칩 수출통제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된 중국 AI칩에 대한 대중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관련 재고 충당이 발생했으며 해당 생산라인 가동률이 저하되었다.

에 힘입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전년에 이어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¹⁾

(단위 : 조원, %)

분류		2024			2025	
		2/4	3/4	4/4	1/4	
삼성전자 ²⁾	매출액	28.6	29.3	30.1	25.1	(8.5)
	영업이익	6.5	3.9	2.9	1.1	(-42.4)
	영업이익률	22.7	13.2	9.6	4.4	
SK하이닉스	매출액	16.4	17.6	19.8	17.6	(41.9)
	영업이익	5.5	7.0	8.1	7.4	(157.8)
	영업이익률	33.3	40.0	40.9	42.2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반도체 부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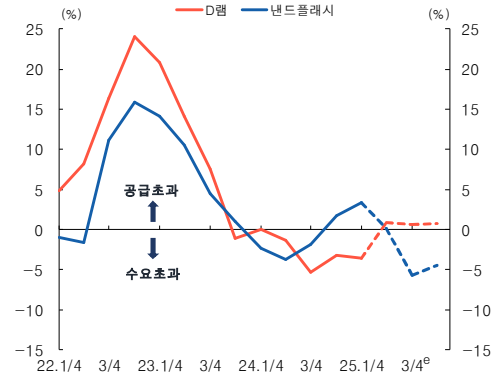
자료: 각사 홈페이지

향후 반도체 수출은 AI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 기저효과 등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은 선단제품 중심⁷⁾의 생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반도체는 고사양 AI 반도체의 업황 호조 지속, 중국의 정책적 노력 등에 따른 IT기기 판매 증가, 기기당 D램 탑재량 증가 추세 등에 따라 범용 D램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반도체 자급

률 향상, 전년도 높은 수출실적 대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업체들의 실적 상승 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낸드플래시는 당분간 초과공급⁸⁾ 상황이 이어지다가 업체들의 가동률 조정 등에 힘입어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반도체 품목별 관세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업황의 하방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 전망¹⁾



주: 1) 점선은 전망치

자료: Gartner(25.4월)

파운드리에는 글로벌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모든 공정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성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단 공정에서 대만 TSMC와 격차가 확대⁹⁾되고 성숙 공정에서는 중국 SMIC가 추격

6)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협의중이던 메모리 수요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고객들의 경우 단기적인 공급 pull-in(선구매)을 요청하면서 수요를 앞당기는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서버는 상대적으로 관세로 인한 수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2025년 1/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7) 중국 업체의 구형 D램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DDR5, HBM 등 첨단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DDR4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5세대 HBM3E 12단의 엔비디아 공급이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HBM3E 12단 출하 비중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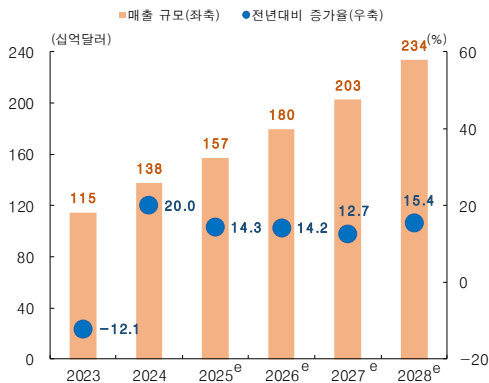
8) 낸드플래시 공급률(Gartner, 25.4월) : (24.3/4분기) 98.1% → (4/4분기) 101.7% → (25.1/4분기) 103.3% → (2/4분기) 100.2% → (3/4분기) 94.2%

9) 업계에 따르면 선단공정인 2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의 수율은 40% 수준으로 60%를 넘긴 TSMC에 뒤처져 있다. 통상적으로 수율이 70~80%에 도달하면 대량생산에 돌입하는데, 양사 모두 연내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면서¹⁰⁾ 국내 업체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¹¹⁾된다. 이에 국내 업체는 선단 공정의 대형 고객 수주, 성숙 공정의 원가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책 강도 및 전개 양상에 따라 첨단 AI 반도체 수출 위축¹⁶⁾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책 영향평가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세계 파운드리 매출 전망



자료: Gartner(25.4월)

최근 미국 정부가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¹²⁾하고 있어 향후 국내 반도체산업은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저사양 AI칩(엔비디아 H20 포함)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¹³⁾하면서 중국 수출용 저사양 AI칩에 탑재되는 국내 업체들의 반도체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⁴⁾¹⁵⁾ 한편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 품목, 수준, 시행 속도 등

10) 2024년 4/4분기 기준 SMIC 파운드리 매출액은 삼성전자의 67.7%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에서 2.6%p 차이를 보였으나, 2025년 1/4분기 매출액은 77.7% 수준으로, 시장점유율은 1.7%p 차이로 격차가 좁혀졌다.(Trendforce) SMIC는 강력한 내수(25년 1/4분기 기준 81.6%)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11) 국내 업체 파운드리 점유율 전망(Gartner): 9.8%(24년) → 9.3%(25년) → 8.9%(26년) → 8.4%(27년) → 8.1%(28년)

12) 미국 행정부(78일)는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면세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관세부과 의지를 보인 만큼 반도체 추가 관세부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3) 중국의 추론형 AI 모델인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H20, AMD의 MI308 등을 포함하는 저사양 AI칩, 인텔 AI프로세서(가우디시리즈) 등에 대해 중국 수출제한을 통보하였다.(업체별 자체 공시)

14)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17%(로이타)에 달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H20 수출 제한으로 인한 추정 손실이 7.8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15)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수출통제의 영향으로 HBM 판매가 감소했다고 밝혔다.(2025년 1/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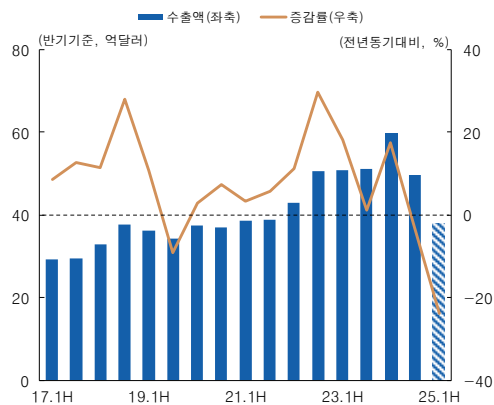
16) 국내 업체의 HBM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95%(2024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수출통제 및 관세부과로 인한 HBM 공급망 위축은 국내 업체의 출하 감소 및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본부

인천지역의 대미수출 현황 및 이슈

2025년 1~5월 중 인천지역 대미(對美)수출액은 37.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하였다.¹⁷⁾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으로, 전국 평균(-4.3%)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인천은 타지역대비 대미 수출품목 집중도(HHI지수)¹⁸⁾가 높고,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미 행정부가 품목관세를 부과하였거나 예고한 품목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앞으로의 관세정책 변화 등에 따라 수출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에 최근 인천지역의 대미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관세정책이 품목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이슈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인천지역 대미수출액¹⁾ 및 증감률



주: 1)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은 1-5월기준(증감률은 전년 1-5월중 대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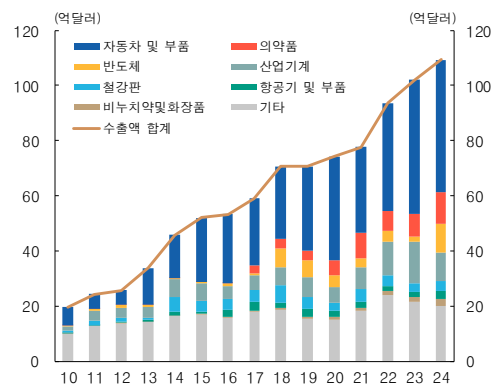
2024년 기준 인천 총수출액 중 대미 비중은 18.4%로, 대중수출액(28.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¹⁹⁾ 인천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등 수송기계 비중이 높으며, 의약품과 화장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산업기계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 주요 대미 수출품목¹⁾ 및 수출액²⁾

품목명 (MTI 3단위)	수출액 (억달러)	비중 (%)	주요 세부품목 (MTI 6단위)
자동차	41.0	37.5	소형자동차(1500cc이하)
농약및의약품	11.5	10.5	의약품
반도체	10.4	9.5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건설광산기계	5.3	4.9	지게차,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3.8	3.5	-
철강판	3.3	3.0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항공기및부품	3.2	2.9	항공기엔진, 기타항공기부품
원동기및펌프	2.9	2.6	압축점화식내연기관
비누치약및화장품	2.4	2.2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산업용 전기기기	2.2	2.1	전력변환장치, 직류전동기

주: 1) 2024년 대미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2) 2024년 기준(비중은 인천 총 대미수출액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인천지역 주요 품목별 대미수출액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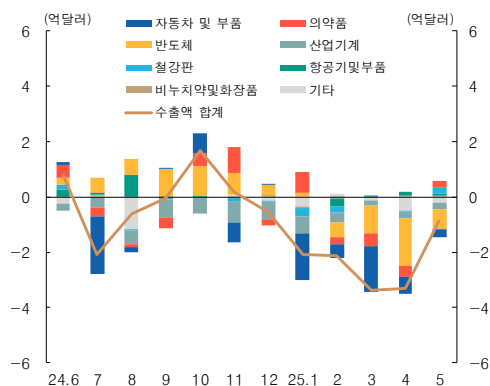


주: 1) 산업기계는 건설광산기계, 원동기및펌프, 산업용 전기기기 포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7) 2025년 5월 인천지역 대미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9.0% 감소한 8.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6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18) 허핀달-하쉬만 지수(Herfindal-Hirschman Index)를 이용하여 대미 수출품목(MTI 2단위 기준, 2024년)별 비중을 제곱한 값을 합계하여 지역별로 지수화하였으며, 인천(0.23)은 전국 17개 시도중 울산, 광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19) 2024년 기준 인천지역 대미수출액은 109.4억달러로 인천 총수출액의 18.4%, 전국 대미수출액(1,277.6억달러)의 8.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인천 대중수출액은 169.5억달러로 인천 총수출액의 28.5%를 차지한다.

인천지역의 대미수출액은 2010년대 중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늘어나고, 이후 반도체 및 의약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 이후 인천 대미수출액은 미국 내 수요 감소, 관세정책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2025년 1~5월중 자동차는 전년동기대비 4.8억달러(-26.5%), 의약품은 0.1억달러(-1.8%), 반도체는 3.9억달러(-79.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지역 품목별 대미수출¹⁾ 증감액²⁾



주: 1) 산업기계는 건설광산기계, 원동기및펌프, 산업용 전기기기 포함

2) 전년동월대비 증감액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5년 1~5월 중 인천의 대미 자동차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한국GM이 인천 부평공장에서 북미 수출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소형SUV 차종의 미국 내 수요가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로 파악된다.²⁰⁾ 한편 최근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 부과(2025.4월)로 한국 수출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국 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이 확대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미수출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²¹⁾ 2024년 기준 인천의 대미 자동차수출액²²⁾은 인천 전체 자동차수출액의 57.6%, 중고차²³⁾를 제외한 신차 기준으로는 88.1%를 차지하는 등 인천 자동차수출의 대미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소재·부품·장비 등 인천 내 전후방 연관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한국GM이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희부지 매각계획을 발표(2025.5월)하면서 일각에서는 GM의 국내 생산라인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²⁴⁾ 만약 한국GM의 미국 리쇼어링까지 진행될 경우 인천 대미 자동차 수출물량은 크게 감소하고, 직접 고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역내 협력업체 및 그 종사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GM의 로열티비용 및 영업이익 창출규모가 크고²⁵⁾, 부평공장이 대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1만여 대를 증산하는 등 가동률을 높이고 있어 단기간 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0) 일부 수출 차종(트레일블레이저)의 노후화 등으로 올해 한국GM 수출물량(25.1~5월)은 전년동기대비 1.2만대(-5.9%) 감소하였다.

21) GM은 미국 내 공장에 향후 2년간 약 40억달러를 투자하여 현지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2025.6월)하였다. 현재 GM은 미국 내 판매 물량의 64%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약 15%를 한국GM으로부터, 21%를 멕시코, 캐나다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22) 2024년 인천지역 대미 자동차수출액(41.0억달러)은 전국 대미 자동차수출액(347.4억 달러)의 11.8%를 차지한다.

23) 중고차 수출은 2024년 기준 인천 자동차 수출액의 34.3%를 차지하나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및 인접 국가들이며, 대미 비중은 0.2%이다.

24) 한국GM의 국내 전기차 개발·생산 계획이 무산(2024.3월)된 이후 신규 차종이 배정되지 않고 있어, 2018년 산업은행 출자를 받기 위해 합의한 한국시장 의무채류기간(10년)이 종료된 이후 한국GM의 사업지속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5) 한국GM은 2022년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GM본사에 0.6조원의 로열티비용을 납부한 이후에도 1.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15.4%의 높은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2025년 1~5월 중 인천의 대미 반도체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앞서 AI 서버투자 등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와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선수요 효과 등으로 2024년 대미수출액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추정된다.²⁶⁾ 인천은 주로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테스트 등)을 담당하며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²⁷⁾ 반도체 후공정의 경우 아시아 의존도가 높고, 미국 기업이 단기간에 내재화하기 어려워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대미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된다면 주요 산업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출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⁸⁾

26) 2024년 인천지역 대미 반도체수출액은 10.4억달러로, 2023년 1.8억달러의 약 6배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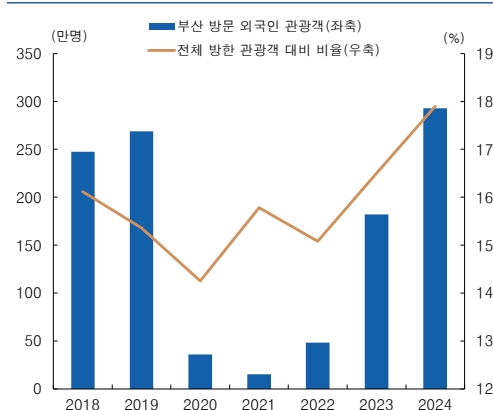
27) 인천에는 복수의 다양한 기능 칩을 한 단위로 패키징하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의 한국법인인 앰코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인천 총 반도체 수출액 중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비중은 99.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MTI 6단위)의 비중은 95.8%이다.

28) 인천시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TF'(2025.5월)를 통해 관세 관련 정보를 관내 기업에 제공하고 관세 피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주요 특징 및 향후 과제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방문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관광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중 부산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182.0만명)대비 60.9% 증가한 292.9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중 268.8만명)을 넘어섰다.²⁹⁾ 전체 방한 관광객 대비 비중 또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도 1~4월 중 외국인 관광객이 106.1만명을 기록하여 부산시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인 300만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 방문 추이



자료: 부산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비짓부산패스(Visit Busan Pass)³⁰⁾ 활성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과정에서의 홍보 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급증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주도한 것이 특징이다. 대만 관광객은 2024년 중 전년대비 94.7% 증가한 50.0만명을 기록해 일본(45.6만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올해 1~4월 중에도 19.2만명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이후 부산과 대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노선의 빠른 회복³¹⁾, 일부 관광 콘텐츠에 대한 높은 호응³²⁾ 등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방문 목적별로는 미식관광의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의료관광 또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부산은 2024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블로그와 식당리뷰 등의 언급량이 급증하는 등 미식관광이 부산 방문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³³⁾ 의료관광의 경우 아직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2024년 중 의료관광객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3위(2023년 중 5위)를 달성하는 등 높은 증가세³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증가는 부산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외국인 관광객은 내국인 관광객보다

29) 부산지역 방문 내국인 관광객(외지인 방문객 기준)은 2024년 중 전년대비 1.5% 증가하며 전국 평균(0.4%) 수준을 상회하였다.

30) 부산지역 주요 관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 상품으로, 2024년 중 약 22만장이 발행되었다.

31) 부산-대만 노선 항공편 운항횟수(편, 한국공항공사): 2019년 6,109 → 2022년 74 → 2023년 4,004 → 2024년 6,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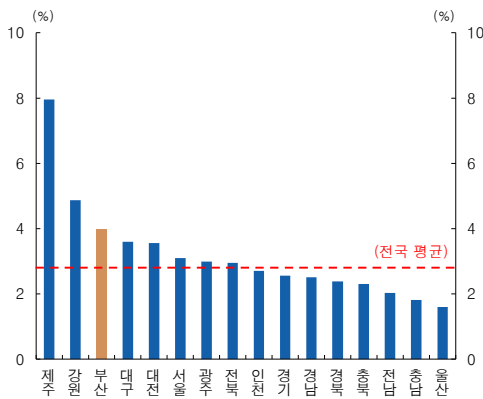
32) 모니터링 결과 비짓부산패스의 비용절감 효과가 대만 내에서 큰 호응을 얻어 발행량의 70% 이상이 대만 관광객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돼지국밥 부산어묵 등 부산지역 음식 역시 대만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부산관광공사)

33) 2024년 미쉐린 가이드 선정 직후 관련 게시물(블로그 및 리뷰 데이터)의 수는 전년동기대비 96.9% 급증하였으며, 부산여행 선택 사유로 '맛집 탐방'을 선택한 비율 역시 81.7%로 전년(55.7%)대비 크게 증가하였다.(부산관광공사)

34) 2024년 중 부산지역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전년(12,912명)대비 133.6% 증가한 30,165명으로 비수도권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부산시의 2026년도 목표치(3만명)를 조기에 달성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청)

1인당 평균 관광지출액이 더 높다. 2024년 중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은 내국인의 약 3.8배로 나타났다.³⁵⁾ 또한 부산지역 경제에서 관광 관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구체적으로 GRDP 대비 관광 관련산업 비중이 2023년 중 4.0%로 제주(8.0%), 강원(4.9%)에 이어 전국 3위이며, 지역 내 취업자 중 관광 사업체 종사자 비중³⁶⁾과 지역 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³⁷⁾ 또한 높다.

지역별 관광 관련산업 비중¹⁾



주: 1) 2023년 지역별 GRDP 부가가치 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
자료: 통계청

향후에도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크루즈 항차 증가, 위챗페이 연계 등 디지털 편의성 증대³⁸⁾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나,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 역시 상존하고 있다. 먼저 고부가가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MICE관광³⁹⁾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지역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인력 확충 및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BEXCO 제3전시장 신축(2028년 예정) 추진 등 전시·회의시설 인프라는 확충되고 있는 만큼 여타 애로사항 개선을 통해 MICE관광에서도 크게 성장한다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지역만의 관광산업 호조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광역관광권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산지역 방문 관광객들은 타 지역과의 연계관광 경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⁴¹⁾되었는데, 경남과 울산 등 부산 인근 지역은 천혜의 산악·해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문화 자원 역시 풍부한 만큼 연계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동남권 광역관광권으로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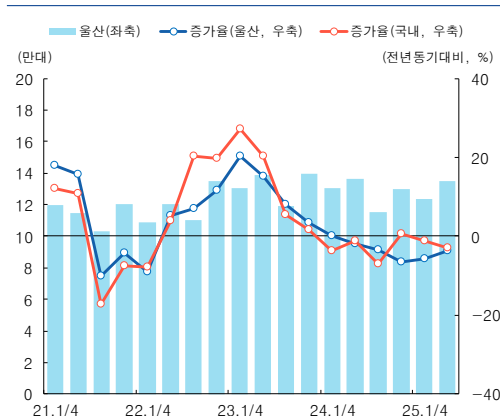
- 35) 부산지역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총지출비용은 내국인이 30.0만원, 외국인이 828.4달러(2024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 1364.0원으로 환산시 113.0만원)로 조사되었다.(부산관광공사, 「2024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 36) 2023년 중 부산지역 취업자수(169.1만명) 대비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1.6만명) 비율은 0.92로 제주(4.30), 강원(2.47), 서울(1.33)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국 평균(0.7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3 관광산업조사」)
- 37)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 부산지역 숙박서비스업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1.33으로 경기(1.46), 서울(1.41), 경남(1.34)에 이어 네 번째이며,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60으로 서울(0.65), 경기(0.63), 경남(0.60)에 이어 네 번째이다.
- 38) 중국의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 '위챗페이'를 부산 도시철도와 연계하여 별도의 승차권 구매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39)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의 약자로 일반 관광객에 비해 지출수준이 높고 광범위한 산업유발효과가 있어 '골목 없는 황금 산업'이라고 불리며, 2022년 중 생산유발효과 5.9조원, 취업유발효과 5.4만명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한국관광공사, 「2022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40) 국제회의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부산지역에서는 '전문인력 관련 부족'과 '회의시설 외 숙박, 쇼핑, 교통 등 부차적인 인프라 관련 문제'가 각각 66.4%, 56.3%로 전국(52.1%, 49.1%)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회의시설 인프라 관련 문제'는 32.3%로 전국(50.2%)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관광공사, 「2023 국제회의의 현황조사」)
- 41) 2024년 중 부산지역 방문 내국인 관광객 6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부산과 타 지역 연계 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박경옥·김은진·오래은, 2024, 부산연구원)

울산본부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1. 상반기 동향

2025년 상반기 울산지역 자동차 생산⁴²⁾(-4.9%, 대수기준, 전년동기대비)은 내수판매 증가(+3.2%)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10.3%), 공장 가동중단⁴³⁾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생산(-1.9%)도 내수가 소폭 증가(+1.0%)하였으나 수출이 줄어들면서(-3.9%) 감소하였다.

국내 및 울산지역 자동차 생산¹²⁾

주: 1) 월평균 생산 (2025년 2/4분기는 4-5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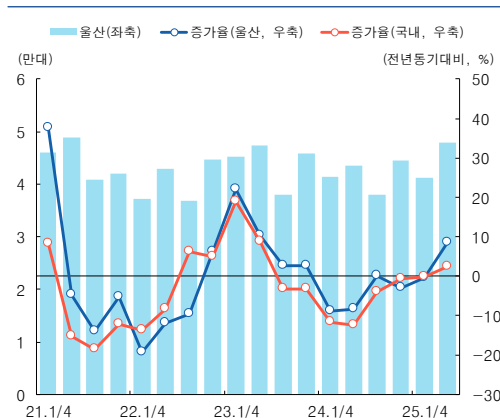
2)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 한국은행 울산본부 시산

내수판매는 신차효과, 인기모델 생산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 지원⁴⁴⁾, 전기차 보조금 조기집행 등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뒷받침되며 증가(+3.2%)하였다. 1/4분기(-0.4%)에는 공급이 확대된 소형 승용차(+70.3%)⁴⁵⁾를 중심으로 내수판매가 개선⁴⁶⁾되었다. 2/4분기에는 소형 승용차 판매 호조가 지속(+16.7%)되는 가운데 신차판매가 본격화된 일부 모델⁴⁷⁾을 중심으로 SUV(+22.8%) 판매도 크게 늘면서 내수판매 증가세가 확대(+8.4%)되었다.

한편 전기차(+10.7%) 내수판매는 전기차 보조금 조기집행에 힘입어 1/4분기 들어 10분기 만에 증가(+14.7%)로 전환한 후, 2/4분기에도 증가세를 지속(+6.4%)하였다.

국내 및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내수판매¹²⁾

주: 1) 월평균 내수판매 (2025년 2/4분기는 4-5월 평균)

2)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 한국은행 울산본부 시산

42) 현대차의 차종별 생산실적과 공장별 생산차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울산공장의 생산, 내수판매 및 수출대수를 추산하였다.

43)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1.25~2.2일 및 3.1~3일 중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 등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공사를 진행하였다.

44)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였으며, 3.14일부터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교체하는 경우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5) 아반떼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출고 대기기간이 줄어들면서 내수판매가 증가하였다.(아반떼 출고 대기기간: 가솔린 2024.12월 3개월 → 2025.6월 1.5개월, 하이브리드 2024.12월 10개월 이상 → 2025.6월 1.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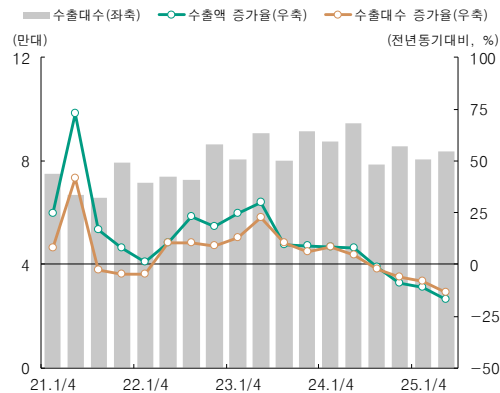
46)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 내수판매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2024.4/4 -3.0 → 2025.1/4 -0.4 → 2/4 +8.4

47) 2025년 1월 중 공개된 신형 팰리세이드가 큰 인기를 끌며 판매량(2025.1~5월)이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하였다.

수출은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해외생산 확대 및 전기차 캐즘 등의 영향으로 감소(-10.3%)하였다. 1/4분기 울산지역 자동차 수출(-8.0%)은 미국 현지생산 확대⁴⁸⁾의 영향이 집중되며 감소하였다. 2/4분기에도 현지생산 확대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년동기 수출 호조⁴⁹⁾에 따른 기저효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중단⁵⁰⁾, 인기차종(신형 팰리세이드)의 내수 판매 집중 등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13.5%)하였다.

국가별 수출금액(-16.7%)을 보면, 미국(-21.3%)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유럽(-7.0%)도 경기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수출¹²⁾



주: 1) 월평균 수출 (2025년 2/4분기 수출대수는 4~5월 평균)

2)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 한국은행 울산본부 시산

2. 하반기 전망

2025년 하반기 울산지역 자동차 생산은 미국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미국 현지생산 확대, 전기차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년 하반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감소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기차종의 신차판매가 본격화⁵¹⁾되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현지생산 생산 확대, 전기차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1~5월 중 월평균 약 5,600대의 전기차를 출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산차종 확대⁵²⁾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협상이 7월을 넘겨 장기화될 경우,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2/4분기 월평균 수출대수는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3.8%)하는 모습을 보여, 아직까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전략적으

48)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공장(HMGMA)에서 2024년 12월부터 아이오닉5를 출고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부터 출고물량을 확대 (2024년 12월 1,006대 → 2025년 1/4분기 11,033대 → 4~5월 14,366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월 중 아이오닉5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7.3% 감소(26,503대 감소)하였다.

49) 울산지역 자동차 수출은 2024년 2/4분기에 월평균 9.4만대로 2015년 이후 역대 2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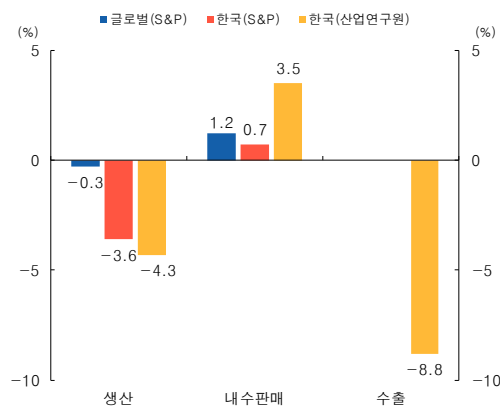
50) 글로벌 전기차 판매 부진 및 재고 누적 등의 영향으로 올해 2.24~28일, 4.24~30일, 5.27~30일 중 아이오닉5와 코나 일렉트릭을 생산하는 울산 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었다.

51) 신형 팰리세이드의 사전예약대수는 4.5만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1~5월 중 2.5만대가 판매되었다. 이러한 판매 호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현대차의 올해 신형 팰리세이드 판매 목표량: 5.8만대)

52) 현대차 조지아공장은 2025년 4월부터 기존 아이오닉5에 더하여 아이오닉9도 출고하고 있다.(조지아공장 월평균 출고량 추이(대): 2024.12월 1,006 → 2025.1/4 3,678 → 4~5월 8,375)

로 중요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를 위해 미국내 판매가격 인상, 미국향 수출물량의 인위적 감축 등의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수익성 높은 차종(SUV, 하이브리드차 등)의 미국 수출 확대, 미국 이외 국가로의 수출물량 이전 및 백오더(back-order) 물량 해소⁵³⁾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관세부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 내 재고가 대부분 소진(25.6월)⁵⁴⁾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만약 향후 관세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완성차업체들이 판매가격 인상, 미국내 생산거점을 활용한 현지판매 확대 등을 포함하여 생산 및 판매계획을 재수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울산지역 자동차 수출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판매·수출 전망¹⁾



주: 1) S&P 전망은 25.6월 기준
자료: S&P Global Mobility,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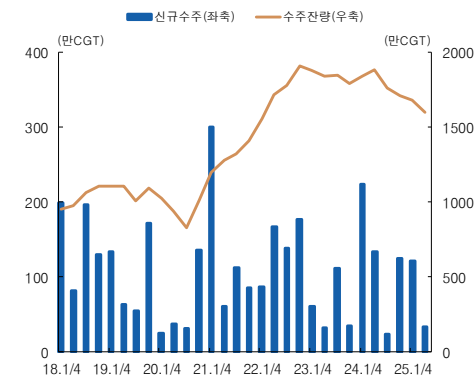
53) 계약 이후 아직 출고되지 않은 주문대기 물량으로, 현대차는 미국 이외 지역의 백오더 물량을 우선적으로 소화하는 등 국가별 수출물량 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관세충격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4) 현대차의 미국 시장 평균 재고일수는 약 90일 정도로, 관세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의 대부분이 소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경남지역 조선업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

최근 경남지역 조선업은 수주잔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 및 수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중국 견제를 위한 해군력 확충 노력 등이 가시화되고 경남지역 조선업체가 주요 협력 파트너로 부상⁵⁵⁾함에 따라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회요인이 대형 조선사에 집중된 만큼 중소형 조선사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남지역 주요 조선사¹⁾ 신규수주 및 수주잔량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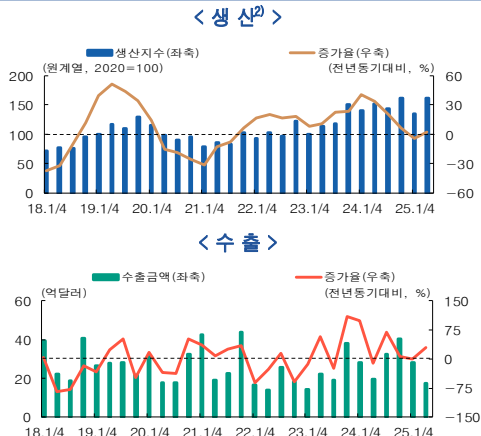


주: 1)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합계
2) 25.2/4분기의 경우 신규수주는 4-5월, 수주잔량은 5월말 기준
자료: Clarksons

2025년 5월말 경남지역 조선사의 수주잔량을 보면, 1,602.5만CGT로 작년말(1,711.3만CGT) 대비 6.4% 감소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5년 1~5월 중 신규수주는 155.0만CGT로 전년동기대비 41.9% 감소하였으나, 기

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가 이어지며 경쟁국 대비 감소폭이 작게 나타났다.⁵⁶⁾ 2025년 1~4월 중 선박(기타운송장비 기준)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5년 1~5월 중 선박 수출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인도량이 늘면서⁵⁷⁾ 9.9%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였다.

경남지역 조선업 생산 및 수출¹⁾



주: 1) 25.2/4분기의 경우 생산은 4월, 수출은 4-5월 기준
2) 기타운송장비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편 미국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대중 견제 강화 등 국가전략 변화는 경남지역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화석연료 개발이 재개⁵⁸⁾됨에 따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되고 LNG 운반선 및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의 발주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 미국 걸프만과 알래스카 지역의 LNG 개발 계획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주요 우방

55)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조선업 재건을 위해 우리나라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56) 2025년 1~5월 중 글로벌 신규수주는 전년동기대비 45.4%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34.4% 전국 기준)의 경우 중국(-57.7%), 일본(-48.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게 나타났다.
57) 경남지역 주요 2개 대형조선사의 선박 인도량은 2025년 1~5월 238.1만CGT로 전년동기대비 31.8% 증가하였다.(Clarksons)
58)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그간 중단되었던 신규 액화천연가스 수출을 재개하였다.(25.1월)

국 간에 진행 중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산 LNG 수출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발주 수요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주요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건조 관련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LNG의 경우 유일한 경쟁업체인 중국의 Wison이 미국의 제재⁵⁹⁾로 수주가 제한됨에 따라 경남지역 조선사가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지역	생산량	(백만톤/년) 최종투자결정 예상 시점
Louisiana LNG	루이지애나	16.5	25.4월 완료
CP2 LNG	루이지애나	28	25년
Commonwealth LNG	루이지애나	9.5	25년
Delfin FLNG	루이지애나	13.2	25-26년
Corpus Christi Stage 4	텍사스	3	25-26년
Texas LNG	텍사스	4	25년
Alaska LNG	알래스카	20	25년

자료: 언론보도 종합

또한 조선업 기반이 취약한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경남지역 대형 조선업체는 미 해군 비전투함 대상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을 이미 두 건 수행하는 등 방산부문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도 사업영역을 전투함 대상 MRO 사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로 확대할 수 있도록 미국 내 법령 개정 동향⁶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국 내 조선소 인수, 해외 방산업체 경영권 획득⁶¹⁾ 등 신사업 기회 모색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다.

정비 후 출항하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슈라호 (USNS Wally Schirra)



자료: 한화오션

다만 미국발 기회요인이 주로 대형 조선사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형 조선사로의 파급은 다소 제한적이다. 우선 미국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받는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대형 조선소에서 주로 건조함에 따라 중소형 조선소의 업황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부문 협력의 경우에도 사업 수행을 위해 미군 측에서 요구하는 별도 면허 등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호조세가 지역 조선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형 조선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업은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적⁶²⁾인 만큼 중소형 조선사의 생산시설을 연계하여 활용⁶³⁾하는 경우 생산 유연성과 수주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9) 중국의 Wison 조선사는 러시아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비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선적 경로를 숨기려는 시도가 포착되어 미국의 러시아 관련 제재 리스트에 등재되었다.(25.1월)

60) 미국 현행 법령상 미군 함정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다.(25.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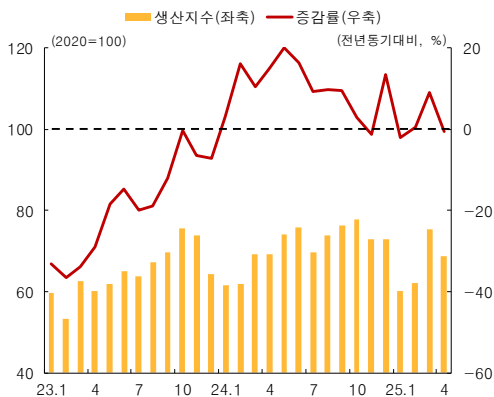
61)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미국 내 군함 생산 조선소를 보유한 호주 방산업체 오스탈의 경영권 획득을 위한 지분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6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능력지수는 2014년(190.1, 전국 기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92.3) 최저를 기록한 이후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황(24년, 97.9)이다.

63) 한화오션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USNS Yukon)호의 MRO 사업을 경남지역 중소 조선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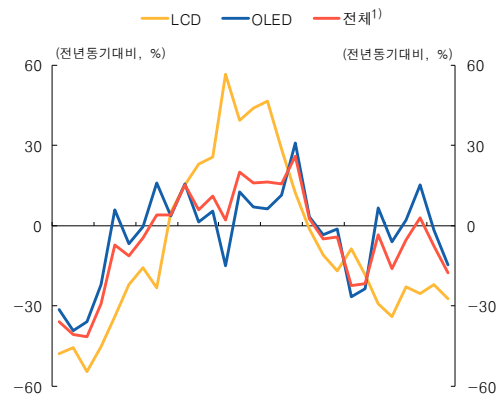
2025년 1~4월 중 디스플레이 생산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패널가격 상승을 우려한 고객사들이 선제적 재고비축을 위한 주문을 확대하고, 하이엔드 IT제품에 OLED 패널 탑재가 늘어나면서⁶⁴⁾ 증가세(전년 동기대비 1.8%)를 지속하였다. 다만 LCD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⁶⁵⁾되는 가운데 OLED 패널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⁶⁶⁾되면서 증가폭은 둔화되었다.

디스플레이 생산지수¹⁾

주: 1) 전자 부품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2025년 1~5월 중 디스플레이 수출은 OLED 패널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LCD 패널

이 큰 폭 감소하면서 부진을 지속(전년동기대비 -8.9%)하였다. LCD 패널은 구조조정과 함께 지난해 상반기 올림픽 특수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 감소한 반면, OLED 패널은 스마트폰용 패널을 중심으로 중소형 OLED 패널의 수요가 확대⁶⁷⁾된 데다 노트북, 모니터 등에 탑재되는 대형 OLED 패널도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⁶⁸⁾ 부진이 완화되었다.

디스플레이 패널별 수출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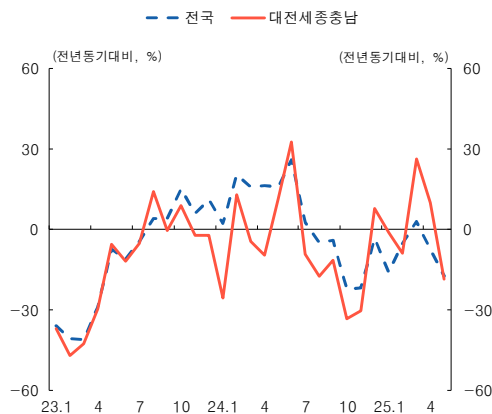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MTI 836)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5년 1~5월 중 대전세종충남지역 디스플레이 수출도 전국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감소폭(전년동기대비 -0.1%)은 전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세종충남지역 디스플레이 수출의 대부분이 OLED 패널(2024년 기준 99.0%)로 구성되어 있어 LCD 패널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저효과의 영향을

- 64)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QD-OLED 모니터 신제품 출시, IT제품의 OLED 탑재 확대 등으로 2025년 1/4분기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 65) LG디스플레이는 2025년 4월 1일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대형 LCD 패널 및 모듈 공장 매각절차를 마무리하며 LCD 패널 시장에서 철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TFT-LCD 패널 생산능력은 2024년 491만장(중국의 약 11% 수준)에서 2028년 132만장까지 감소할 전망이다.(Omdia)
- 66)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량 기준으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2023년 상반기 41.1%에서 2025년 상반기 53.6%로 확대된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동 기간 57.6%에서 46.0%로 축소되었다.(Omdia)
- 67) 글로벌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비중은 2023년 42.9%에서 2024년 50.6%, 2025년 상반기 51.7%로 꾸준히 확대되었다.(Omdia)
- 68) 모니터용 OLED 패널의 전 세계 출하량이 2024년 중 200만장으로 급증(전년대비 +144%)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 중 모니터용 QD-OLED 패널 출하량을 전년대비 5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받지 않은 데다 지역 내 대표 디스플레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고급형 IT제품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의 주문을 확대⁶⁹⁾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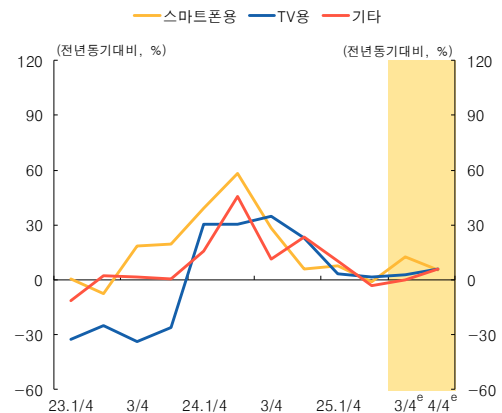
대전세종충남지역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¹⁾



주: 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MTI 836)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하반기 중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은 신형 스마트폰 출시효과, IT제품 OLED 패널 수요 확대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능을 탑재한 IT제품 확대에 교체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스마트폰용 OLED 패널 또한 고성능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진행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⁷⁰⁾과 이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OLED 패널 출하¹⁾ 전망²⁾



주: 1) 수량 기준
2) 음영 부분은 전망치 기준
자료: Omdia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OLED 패널 시장에서 당분간 입지를 유지⁷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스마트폰에 주로 적용됐던 OLED 패널이 태블릿, 노트북 프리미엄 모델에도 확대 적용⁷²⁾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업체의 OLED 패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8.6세대 OLED 패널 생산설비 구축과 폴더블⁷³⁾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격차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LCD 패널에 이어 OLED 패널 시장에서도 거세지고 있는 중국 업체의 추격⁷⁴⁾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69) 모니터링 결과 애플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의 OLED 패널 품질 이슈 등으로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되는 삼성디스플레이 패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디스플레이 수출 대상국 중 애플 아이폰이 주로 생산되는 중국으로의 디스플레이 수출이 2025년 1~5월 중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0)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듈과 PC,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제품은 일시적으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발표될 품목별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정책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라 글로벌 IT제품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한국수출입은행)

71) 하반기 중 애플의 아이폰17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중인 LTPO OLED 패널이 동 시리즈의 모든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72) OLED 패널을 탑재한 노트북PC 시장 규모는 2025년 1,076만대에서 2029년 4,406만대로 연평균 4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OLED 태블릿은 동 기간 1,151만대에서 2,588만대로 연평균 2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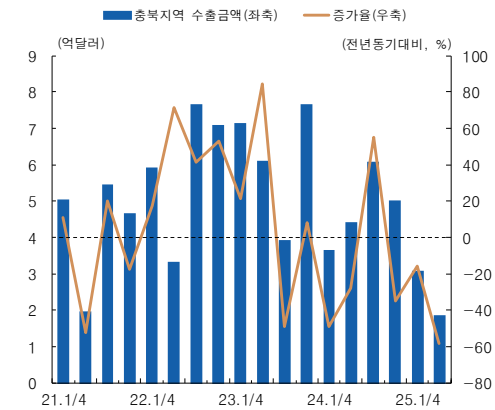
73) 내년 중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의 시장진입 등으로 두 자릿수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Counterpoint, 3.28일)

74) 한국과 중국의 OLED 패널 생산능력은 2024년에 각각 833만장, 446만장이었으며 2029년까지 연평균 2.4%, 7.4% 증가하면서 생산능력 차이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Om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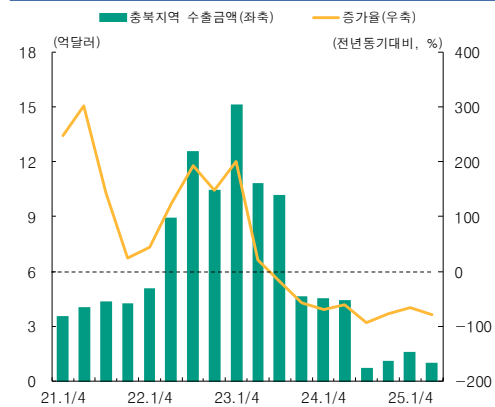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전망

최근 충북지역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차전지 수출은 2024년 하반기 중 4.4% 줄어든 데 이어 2025년 상반기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39.3% 감소하였다. 동 기간 중 양극재 수출(-88.3% → -72.2%)은 더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충북지역 이차전지 및 양극재 생산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을 보면, 금년 들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 금년 1/4분기 중 LG에너지솔루션(전사기준⁷⁵⁾)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2% 늘어나며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매출 증가율 -17.8%)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미국의 ESS 시장 성장⁷⁶⁾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용 전지 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청주사업장은 ESS용 전지 생산 비중이 낮아 동 효과가 지역 내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비엠(전사기준)의 매출은 35.1% 줄어들며 지난해 하반기(-66.9%)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충북지역 이차전지¹⁾ 수출

주: 1) 리튬이온 축전지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충북지역 양극재¹⁾ 수출

주: 1) 리튬화합물로 이루어진 양극재, 양극활물질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내 주요 기업의 매출액¹⁾ 증가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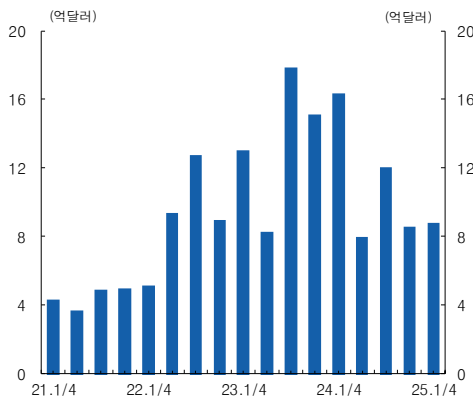
	24.하반기		25.1/4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LG에너지솔루션	-17.8%	62.7천억원	+2.2%	
에코프로비엠	-66.9%	6.3천억원	-35.1%	

주: 1) 전사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발표

75) LG에너지솔루션(청주)과 에코프로비엠(청주, 포항)의 국내 사업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장에서의 매출도 포함된 내역이다.
76)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전방산업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된 데다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 충전시설 부족 등의 불편요인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국제통상무역연구원, 2024). 둘째,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해외 현지생산을 확대하였다.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2021년 17.6억달러에서 2022년 35.9억달러, 2023년 54.0억달러, 2024년 44.6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이차전지 3사의 해외 현지생산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이차전지 산업¹⁾의 해외 직접 투자액



주: 1)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과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을 합산하여 산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향후에도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실적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지역이 당초 계획했던 환경 규제를 완화⁷⁸⁾하였으며, 미국도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 선언(1.20일)에 이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다.⁷⁹⁾ 또한 양극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이 청주 오창 생산시설을 다품종의 소량생산 체제(포항은 소품종 대량생산)로 운영함에 따른 영향도 생산 및 수출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내 이차전지 산업은 R&D 기능 중심의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4월 정부는 청주 오창에 국내 최대의 이차전지 종합시험·연구시설인 BST(Battery Solution Testbed) ZONE을 구축하였으며, LG에너지솔루션 청주 오창사업장은 차세대 제품을 테스트하고 양산성을 검증하는 마더 팩토리⁸⁰⁾로서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77)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4)은 국내 이차전지 3사의 국내 생산 비중이 미국 미시건, 중국 난징시안,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건설 등으로 2011년 100%에서 2023년 7.6%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78) 3월 EU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차에 대한 환경 규제 기준(CO₂ 배출량 기준을 연간에서 3년 평균으로 변경)을 완화하였다.(European Commission)

79) 또한 7.4일 미국의 대규모 감세 법안(One Big Beautiful Act-OBBA)이 통과되면서 전기차 신차 구매시 적용되던 세액공제 인센티브(7,500달러/대)가 9.30일 종료될 예정이다.

80)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란 제품의 연구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으로, 샘플 생산 중심의 파일럿 라인과 다르게 양산급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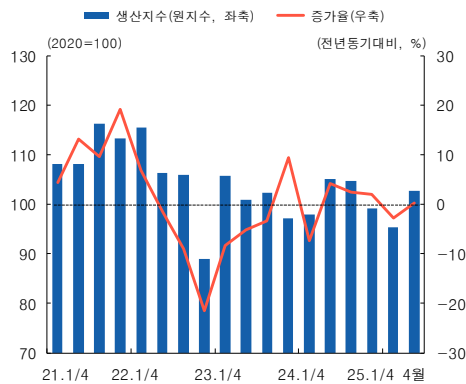
참고 1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 현황

충북지역 이차전지 산업은 2024년 기준 이차전지, 양극재 등의 수출이 지역 내 총 수출의 11.1%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다. 충북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관련 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으며, 이들이 국내 이차전지 산업(수출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5%에 달한다. 또한 충북은 2021년 청주 오창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2023년에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 중이다.

최근 전남지역 석유화학산업⁸¹⁾은 美행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공급과잉 및 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일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⁸²⁾, 정기보수⁸³⁾ 등으로 가동률이 하락⁸⁴⁾하면서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1/4분기 석유화학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석유화학 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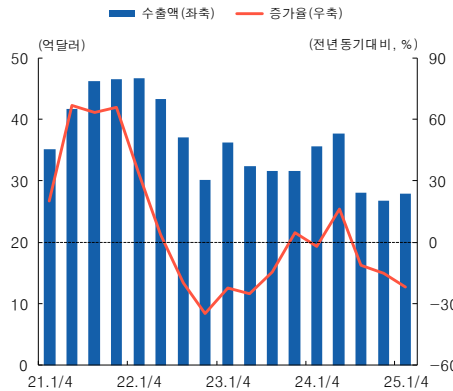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남지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⁸⁵⁾은 2021년 1/4분기에서 2022년 2/4분기까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큰 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감소하였다. 2025년 1/4분기에는 수출단가가 하락(-4.0%)하고, 수출물량도 감소(-18.4%)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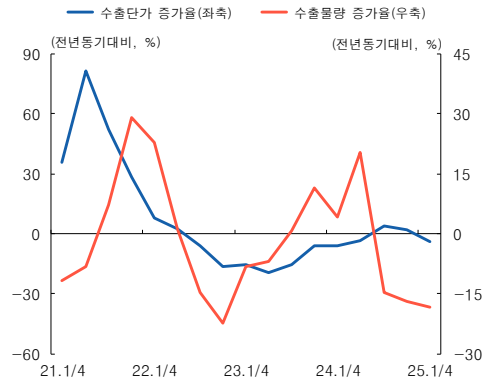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1.7% 감소하였다.

전남지역 석유화학제품 수출¹⁾



주: 1) 통관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남지역 석유화학제품 수출 단위¹⁾ 및 물량



주: 1) (수출액)/(수출물량)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5년 1/4분기 중 중국(-3.5%), 동남아(-37.2%) 등 아시아(-15.9%)와 유

81) 전남지역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29.5%(2023년 GRDP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며,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능력(전국 49%)을 보유하고 있다.

82) 롯데케미칼은 2024년 12월 여수 제2공장 생산라인의 일부 가동을 중단한 이래 현재(2025년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83) 여천NCC는 2025년 1분기(2.10~4.4) 중 2사업장 정기보수를 실시하였다.

84)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업체 가동률(해당기간 생산액/최대생산능력*100) 추이: 21.12월 94.3% → 22.12월 88.3% → 23.12월 87.6% → 24.4분기 87% → 25.1분기 81.2%

85) 2024년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전남지역 수출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럽(-33.3%), 북미(-11.0%)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하였다.

지역별 석유화학제품 수출¹²⁾

(억달러, %)

		2024년		2025.1/4	
	[비중]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전체	[100.0]	128.0	(-2.8)	27.8	(-21.7)
아시아	[63.3]	81.1	(2.8)	17.5	(-15.9)
(중국)	[32.5]	41.6	(9.7)	9.6	(-3.5)
(동남아)	[15.6]	19.9	(-3.7)	3.6	(-37.2)
유럽	[18.5]	23.7	(-12.8)	4.9	(-33.3)
북미	[8.7]	11.2	(8.9)	3.0	(-11.0)
중남미	[4.7]	6.0	(-21.4)	1.2	(-36.3)
중동	[2.7]	3.5	(-8.9)	0.7	(-41.5)
기타	[2.0]	2.6	(-35.6)	0.6	(-43.7)

주: 1) MTI 2단위 21(석유화학제품) 기준

2)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내는 2024년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최근 전남지역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나프타를 기반으로 하는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⁸⁶⁾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⁸⁷⁾는 2022년부터 손익분기점을 하회하여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글로벌 에틸렌 신규 증설 규모가 축소⁸⁸⁾되고 중국·유럽의 소비진작 재정정책으로 인해 에틸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

산 및 수출이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다만, 행정부 관세정책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대외 여건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익성이 낮은 범용제품 생산라인의 구조조정⁸⁹⁾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지출이 필요한 만큼 기업별 재무여력이 투자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지역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남 여수시 일대를 2년간(2025.5월 ~ 2027.4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따른 첫 번째 사례로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⁹⁰⁾ 및 긴급경영안정자금⁹¹⁾ 지원 확대와 함께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2년간 여수시는 통상 보통교부세에 약 622억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되며, 전라남도도 여수시는 총 3,707억 원 규모의 위기대응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86) 전남지역 주요 석유화학업체는 2025년 1/4분기 중 영업이익 적자(LG화학 석유화학 부문 565억 원 롯데케미칼 기초화학 부문 1,077억 원, 여천NCC 498억 원)을 기록하였다.

87) 에틸렌 가격에서 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차액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손익분기점은 300달러/톤이다.
에틸렌 스프레드(기간중 평균): 2022년 \$221.9 → 2023년 \$205.5 → 2024년 \$204.7 → 2025년 1/4분기 \$215.5

88) 전 세계 에틸렌 순증설규모(적정 판단 기준 600만 톤/년): 2019~2022년 연평균 1,100만 톤 → 2023년 823만 톤 → 2024년 628만 톤 → 2025년(예상) 280만 톤

89) LG화학은 여수 NCC 2공장 매각 및 스티렌모노메(스티로폼 등 원료) 생산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며, 향후 전지소재친환경소재신약 비중을 57%로 확대하고 자동차용 ABS 등 스페셜티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추진 중이다. 롯데케미칼도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였고, 첨단소재정밀화학 등의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며 LEM동박, 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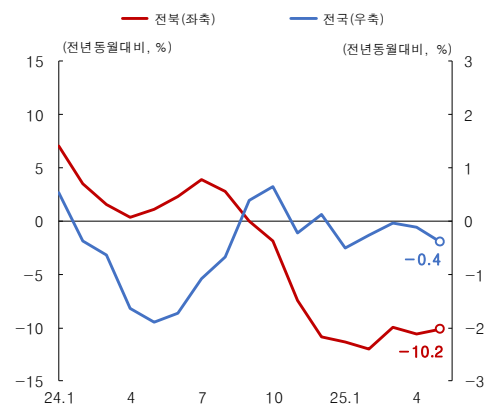
90) 산업위기지역 내 수도권기업의 이전 또는 신규 투자 시 기업의 입지와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대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의 11%, 중견기업 설비투자금의 19%, 입지 25%,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의 24%, 입지 50% 이내이다.

91)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 및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과제

2025년 5월말 전북지역의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23.9만명을 기록하였다. 전북 자영업자 수는 2024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같은 기간 등락을 반복한 전국과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이후부터는 매월 전년동월대비 10~12% 수준의 감소 폭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전북 및 전국의 자영업자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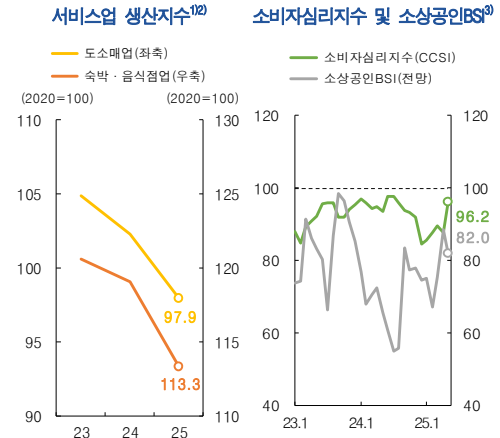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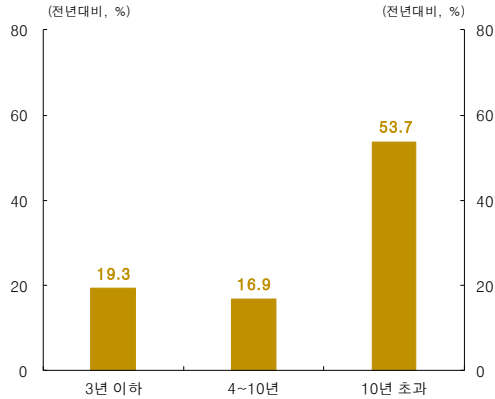
이러한 흐름은 전북지역의 자영업 업황 악화와 이에 따른 폐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북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각각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경제 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CCSI)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는 올해 들어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100을 하회하고 있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서비스업 생산지수 및 경제심리 관련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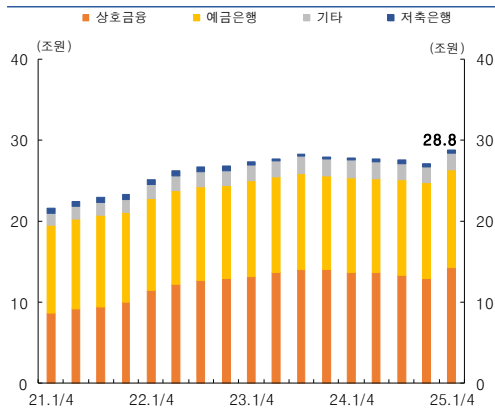
전북지역 영업기간별 폐업업체 수 증가율⁹⁵⁾



주: 1) 2024년 기준, 숙박·음식점업만 집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행정통계

자영업 부문의 어려움은 금융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온 전북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2024년 차주 수가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잠시 둔화되었으나, 2025년 1/4분기 들어 28.8조원까지 다시 확대되었다. 이 중 상호금융으로부터의 대출이 14.3조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예금은행(12.0조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대출에서 상호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분기 40.1%에서 2025년 1/4분기 49.7%까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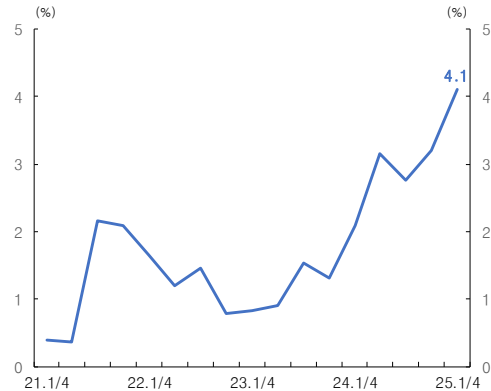
전북지역 업권별 자영업자 대출잔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전북지역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2025년 1/4분기말 전북지역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p 상승한 4.1%를 기록하였다. 또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2년말 1.6%에서 2024년말 4.6%로 상승하였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같은 기간 150.3%에서 65.9%로 하락하였다.

전북지역 상호금융 연체율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DB)

전북은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⁹⁵⁾을 지니고 있어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는 여타 지역에 비해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영세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⁹⁶⁾ 업황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물·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5년 6월 신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자영업 매출 회복에 단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

95) 2025년 5월 기준 전북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4.1%로 전국 평균인 19.4%를 상회하였다.

96) 전북의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비율은 36.3%로 전국(34.6%)보다 높았으며(2022년 기준),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81.6%로 전국(74.8%)을 상회하였다(2025.5월 기준).

기에 금융비용 부담 완화⁹⁷⁾,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자영업 위기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전북 자영업은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 내 소비 기반이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2025년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광역교통 환경이 개선된다면 상권 접근성과 소비유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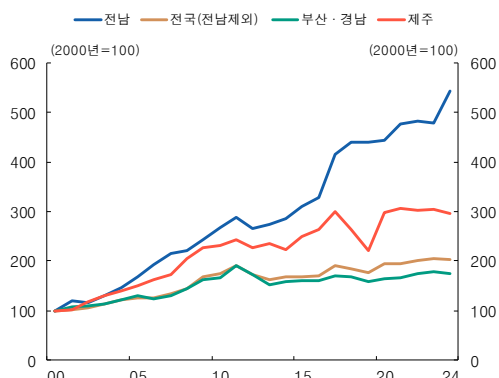
아울러 창업교육 강화 및 자발적 폐업 지원을 통한 자영업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다. 사전준비가 부족한 창업은 조기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권 분석, 사업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한편 비자발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폐업 이후 재취업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하고 임금근로자 또는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로의 재진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97)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5년 6월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총 3,112개 업체에 4,129억원을 공급하였다. 이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 비중은 75.5%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지역 어업 현황 및 과제

전남지역은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지로서 2000년~2024년중 어업 생산액이 연평균 7.3% (제주 4.6%, 경남 3.7%, 부산 0.3%)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의 전국 대비 어업 생산액 비중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지역별 어업 생산액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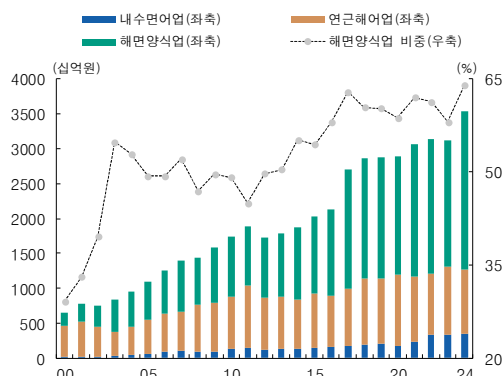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이렇듯 전남지역 어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는 2000년대 이후의 양식업 생산성 향상이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지역의 수산물 생산방식을 살펴보면, 해면양식이 전체 어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는데(2000년 29.2% → 2024년 64.0%),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식의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개선되었다. 2000년 이후 양식장 소유 면적이 30ha 미만인 가구 수는 절반 이상 감소한 반면, 30ha 이상인 가구 수는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울러 동 기간 중 양식 허가 면적(ha) 당 생산량은 5.2t(00~04년중)에서 14.3t(20~24년중)으로 확대되었다.

전남지역 어업구조 및 양식 생산성 추이

<생산방식별 생산액 및 해면양식업 비중>



<양식 허가 면적(ha) 당 생산량 및 양식여가수>

구분	00-04	05-09	10-14	15-19	20-24
ha 당 생산량(t) ¹⁾	5.2	8.2	9.5	13.1	14.3
양식여가수 ²⁾	15,404	13,923	10,594	8,434	6,693
30ha 미만	15,354	13,285	9,877	7,979	6,430
30ha 이상	51	88	161	243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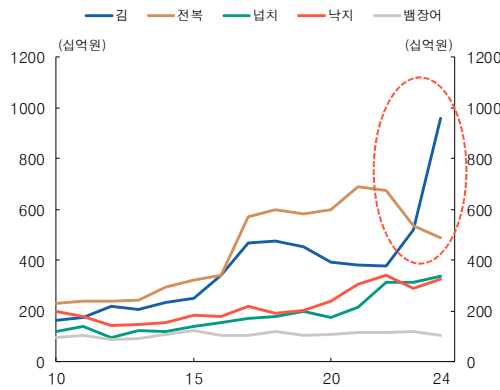
주: 1) 기간 중 평균

2) 기간 초 기준

자료: 통계청

한편, 최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전남지역의 수산물 생산 및 수출을 주도한 품목은 김, 미역 등 해조류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해조류는 전남지역 전체 생산량의 84.0%, 생산금액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K-푸드의 대표 품목으로 부상한 김은 2024년 생산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이후부터 생산금액 1위를 유지해온 전복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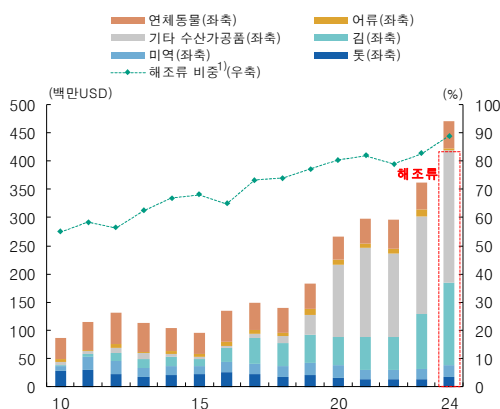
전남지역 수산물의 주요 품목별 생산액 추이



자료: 통계청

수출 부문에서도 김 등 해조류가 전남지역 수산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남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김 관련 제품⁹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역·툰 등 기타 해조류 품목까지 포함할 경우 해조류가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전남지역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 실적 추이



주: 1) 해조류 및 기타 수산가공품 합산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러한 생산 및 수출 호조세는 정부의 정책지원(‘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24.10월), K-푸드 선호도 상승에 따른 전남지역의 수산물 수출 대상 국가 확대(2000년 18개국 → 2024년 62개국) 등에 힘입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남 수산물 수출의 24%(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가 향후 수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자국 수산물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였다. 해당 명령은 윤리성 및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수산물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수산물 생산 과정 전반에서 윤리성 및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 차원의 노력과 중소 수출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수입 수산물 규제 강화 행정명령(Executive 14276)

구분	주요 내용
무역질서 확립	■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대응 강화
	■ 불공정 무역 관행 차단
	■ 투명한 공급망 확보 촉진
산업지원	■ 미국 수산물 활성화 계획 수립 지시
	■ 미 연방정부의 미국산 수산물 확대 조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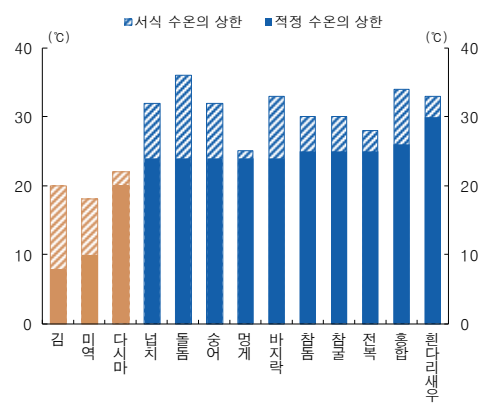
자료: 미국 백악관

아울러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전남지역의 수산물 생산 및 수출 구조가 해조류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해조류는 적정 수온 및 서식 수온의 상한이 타 품목에 비해

98) 기타수산가공품(MTI 046900)을 김 관련 제품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기준이다. 기타수산가공품의 80%가 김 가공품으로 추정된다.

낮아 고수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전남지역 생산금액 2위 품종인 전복 역시 다시마 등 해조류를 주요 먹이로 삼고 있어 고수온에 따른 간접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 연안의 표층 수온(1968~2024년 +1.58℃)이 전 세계 평균(+0.74℃)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수온에 대응 가능한 품종 개량과 수산물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주요 양식품종의 적정·서식 수온 상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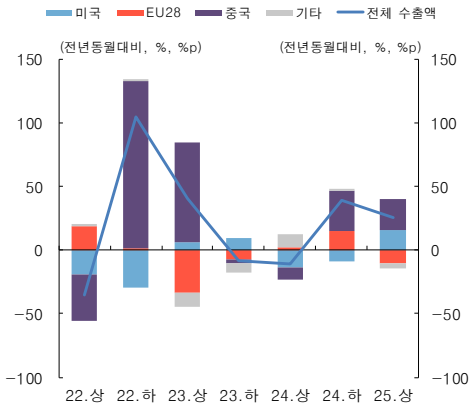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

최근 대경권 휴대폰 수출 동향과 주요 요인 점검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대구·경북지역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 휴대폰 수출의 최근 동향과 향후 흐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 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2025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 휴대폰 수출은 부품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3.2% 증가하였으며, 전년 하반기(38.8%)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부품은 애플의 신제품 출시⁹⁹⁾에 따른 카메라 모듈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완제품은 재고비축 수요 증가에도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대구·경북지역 25년 상반기 휴대폰 완제품·부품 수출 증가율 국가별 기여도 분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유로지역으로는 감소 전

환하였다. 미국의 경우 관세정책에 대응한 비축수요 강화로 증가 전환하였다. 중국은 애플 신제품 출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부품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완제품이 주로 수출되는 EU에서는 수요 둔화¹⁰⁰⁾로 감소 전환하였다.

대구·경북지역 휴대폰 완제품·부품 수출 증가율¹⁾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품목별	완제품	-5.7	+26.2	+1.1
	부품	-14.0	+43.2	+38.8
국가별	미국	-83.6	-67.9	+509.1
	EU	+9.0	+145.7	-35.4
	중국	-15.3	+44.7	+38.0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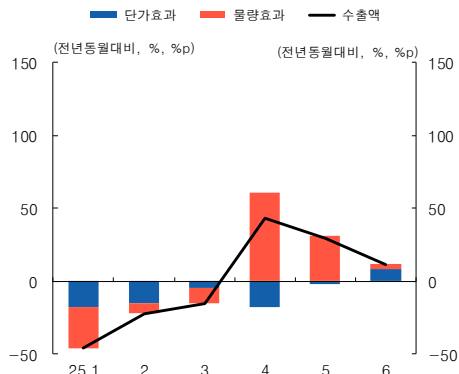
단가효과와 물량효과로 분해해 보면, 2025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 지역의 휴대폰 수출 증감에는 물량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품의 경우 1/4분기 중에 EU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물량이 축소되다가, 4~6월에는 조기선적 효과 등으로 인해 물량이 확대되었다. 반면, 부품은 고성능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확대로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99) 애플은 통상 매년 3/4분기에 신제품을 출시해왔으나, 금년에는 신제품인 아이폰 16e를 1/4분기(2.28일)에 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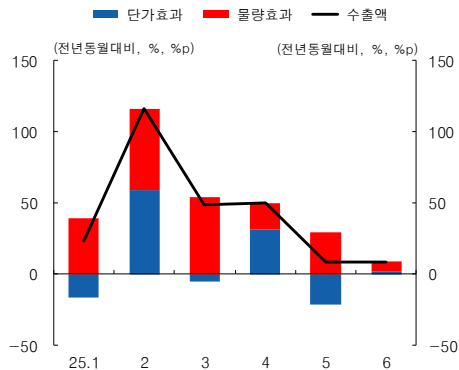
100) 유로지역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상품의 기능과 혁신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이 높아 신규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수요 창출이 제한되는 현상 등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

대구·경북지역 휴대폰 완제품·부품 수출 분해¹⁾

<휴대폰 완제품>



<휴대폰 부품>



주: 1) 대구경북본부 자체시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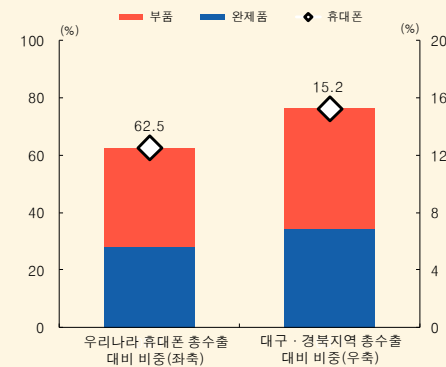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수출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탑재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과 애플의 신제품 출시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 행정부의 스마트폰 관세 부과¹⁰¹⁾ 가능성, 미·중 무역갈등 재심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1

전국과 대구·경북지역 휴대폰 수출 비중

대구·경북지역 휴대폰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기준으로 우리나라 휴대폰 총수출의 62.5%, 대구·경북지역 총수출의 15.2%를 차지하는 지역 핵심 수출 품목이다. 대표적인 생산업체로는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마트폰(완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경북 구미시)이, 고부가가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부품)을 생산하는 LG 이노텍(경북 구미시) 등이 있다. 휴대폰 수출을 완제품과 부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완제품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88.5%, 부품은 50.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휴대폰 완제품·부품 수출 비중¹⁾

주: 1) 2020-2024년 기준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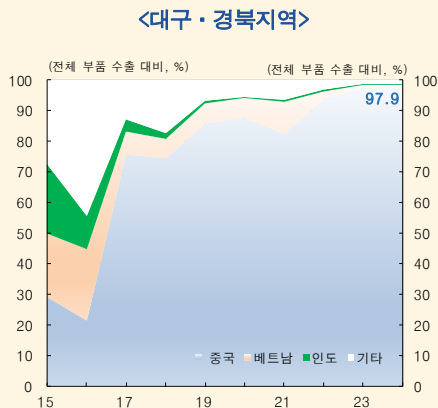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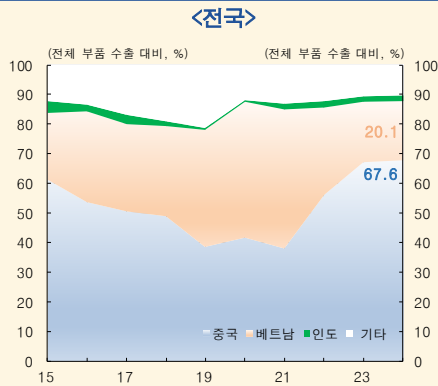
101) 미 정부는 스마트폰, 반도체, 컴퓨터 등을 기본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4.11일)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5.23일)하면서 향후 미국 외에서 제조된 모든 스마트폰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2

전국과 대구·경북지역 휴대폰 부품 수출 추이

휴대폰 부품 수출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대구·경북지역은 전국과 상이한 모습이다. 전국 단위로는 중국 수출 비중이 가장 높지만,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비교적 활발한 모습이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중국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에는 97.9%에 이르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대구·경북지역 휴대폰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전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애플의 카메라 모듈에 대한 품목 집중도가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휴대폰 부품 국가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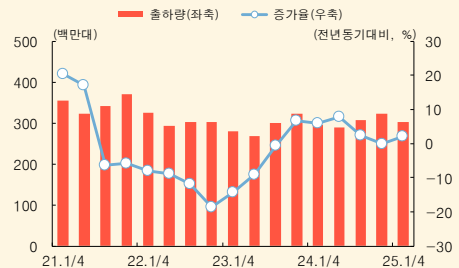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참고 3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 추이

2025년 1/4분기 중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2.0%)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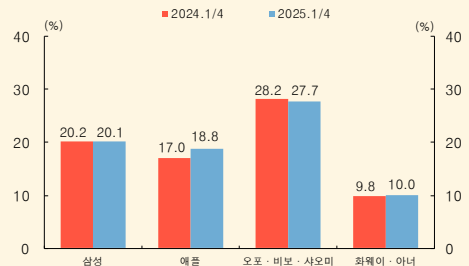
글로벌 휴대폰 출하량 추이



자료: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제조사별 출하량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부진으로 인해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애플의 경우,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 업체는 중국 내 견고한 수요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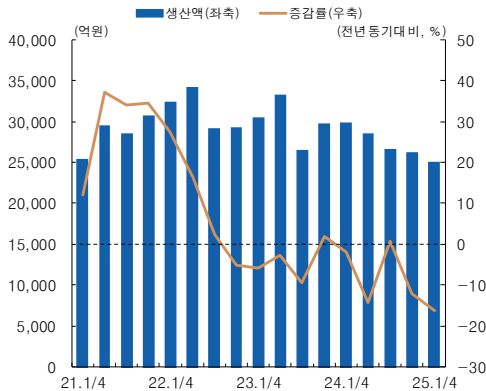
주요 업체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자료: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국내 철강산업 부진 장기화로 포항지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포항철강산업단지¹⁰²⁾ 내 1차금속 생산액은 2024년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2.1% 감소한 데 이어, 2025년 1/4분기중에도 16.2% 감소하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美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¹⁰³⁾하는 등 철강업을 둘러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¹⁰⁴⁾되는 가운데 주요 전방산업인 건설·가전 등의 부진¹⁰⁵⁾, 후발국으로부터의 저가 철강재 수입 지속에 따른 경쟁심화 등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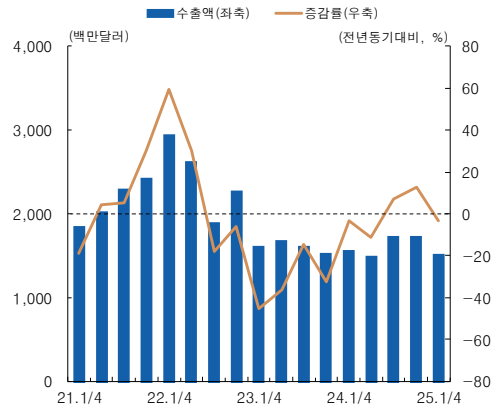
포항 철강산업단지 1차금속¹⁾ 생산액 및 증감률



주: 1) 철강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자료: 포항철강산업관리공단

한편, 포항지역 철강제품 수출 또한 2025.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한 15.0억달러로 2023년 이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철강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의 과잉공급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철강재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한국산 철강재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한 데 기인한다.

포항지역 철강제품 수출액 및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부진에 따라 주요 철강업체들은 최근 ① 감산정책 및 주요 생산공장 전면폐쇄(Shut-down) ② 반덤핑 제소 ③ 현지투자 확대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감산정책 및 공장폐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제강공장 가동을 중단('24.7월)한 데 이어, 45년간 가동된 1선재공장¹⁰⁶⁾을 폐쇄한 것이 대표적이다('24.11월). 또한, 주요 철근

102) 포항철강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철강산업(약 54km² 면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약 1,000여개의 협력·연관 중소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103) 美 행정부는 3.12일부터 모든 수입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6.4일부터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다. 나아가 6.23일부터는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철강이 포함된 가전제품 8종류에 대해서도 철강함량 가치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104)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강화(3.19일발표), 인도의 세이프가드 도입(3.18일 발표) 등 주요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美 행정부의 철강관세 도입으로, 기존 대미 수출물량이 제 3국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려는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유인이 확대되고 있다.
 105) 2025.1/4분기 건설기성액은 전년동기대비 20.7% 감소하여 2024.4/4분기(-9.7%)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2025.1/4분기 가전제품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하여 2024.4/4분기(-9.9%)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06) 선재는 철강을 가늘고 긴 와이어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제강공정에서 생산된 빌릿을 가공하여 다양한 두께의 선재로 만들어진다.

제조업체들이 생산라인 축소를 적극 단행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 부진으로 누적된 철근, 형강류 등의 재고가 소진되기를 기다리며 고 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철강업체 섀다운 현황

업체	시기	섀다운 공장
포스코	2024.7월	포항 1제강공장
	2024.11월	포항 1선재공장 인천
현대제철	2025.4월	철근공장
동국제강	2025.7-8월	인천공장

자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편,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저가 철강재 수입이 지속되고 자국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각국의 철강업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우리 정부에 반덤핑 제소를 적극 제기¹⁰⁷⁾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후판의 경우 작년 7월 반덤핑 제소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에 따라 올해 4.24일부터 최대 38.0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추후 관련 제품의 시장질서 회복 및 국내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일부 업체들은 관세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투자 확대¹⁰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고 현지 시장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설비투자 감소, 고용 축소 등 국내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포항지역 철강산업 업황은 우리 정부의 저가 철강재 수입 대응조치에 따른 내수시장 판매 및 수익성 개선, 중국 철강감산정책 기대¹⁰⁹⁾에 따라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단기간 내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철강산업 업황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특히 봉형강 및 철근 부문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구조적 수요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포항지역 철강산업이 부진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대미 철강수출 관련 관세협상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 친환경 전환 투자 확대 등 구조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美 행정부가 주요국과 체결한 관세협정¹¹⁰⁾에서 일정조건을 전제로 철강제품에 대해 저율관세를 적용키로 한 내용을 관세 대응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107) 2024.7월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데 이어 2024.12월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 강판에 대해 추가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또한, 동국씨엠은 2025.6월 중국산 도금강판 및 컬러강판에 대해 업계공동으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08) 포스코는 인도 JSW Steel과 연간 500만톤 규모의 제철소를 구축하는 MOU를 체결하였다.(2024.10월) 또한, 현대제철은 美 루이지애나주에 연 270만톤 생산규모의 전기로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포스코그룹도 동 프로젝트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109)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철강산업 감산 및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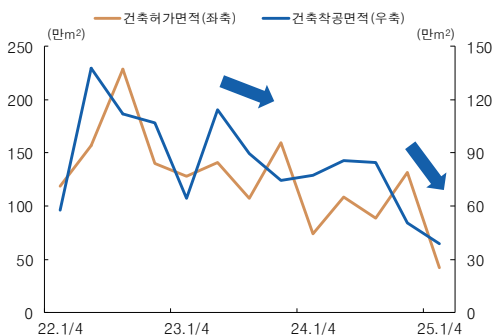
110) 미국은 6.10일 영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영국이 공급망 보안요건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철강 쿼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멕시코와의 무역협상에서도 일정 수준 이하의 철강수입량이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본부

강원지역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2022년 하반기부터 둔화된 강원지역 건설 활동은 최근 위축세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과 건설수주액의 감소율이 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등 더욱 두드러진 침체를 겪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¹¹¹⁾ 이에 본고에서는 강원지역 건설산업의 부진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강원지역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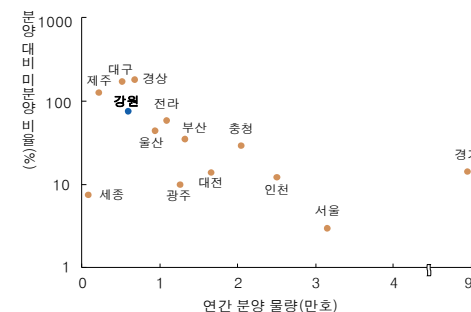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강원지역 건설경기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는 우선 민간과 공공부문의 동반 투자 위축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매수 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 적체가 지속되며¹¹²⁾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지역은 연간 분양 물량이 약 6천 호에 불과함에도 미분양 비율은 대구, 경상 등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며 신규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 또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매 등으로 매각이 진행되는 PF 사업장이 연초 대비 두 배 늘어나는 등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¹¹³⁾

지역별 분양대비 미분양 비율¹¹²⁾



주: 1) 2024년 연간 아파트 분양물량

2) 2024년 12월 말 기준

자료: 부동산114, 국토교통부

공공부문 역시 올해 1~4월 중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26.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강원지역 건설업은 비중이 높은 공공부문¹¹⁴⁾에 큰 영향을 받는데, 올해 강원지역 지자체의 공사비 연초 예산은 전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⁵⁾

건설 비용의 급격한 증가 또한 건설업계의 부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시멘트, 레미콘 등의 원자재 가격¹¹⁶⁾은 공사비 부담에 직접적으로 가중되어 건설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111) 2025년 1/4분기 중 강원도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43.0%(전국 -23.4%), 건축 착공면적은 -50.0%(전국 -29.8%)를 기록했으며, 건설수주액 또한 -19.0%(전국 -7.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12) 2024년 말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은 4,408호로 장기 평균(14~23년, 3,248호)을 큰 폭으로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1~4월 중에는 원주를 중심으로 553호 감소하는 등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지역 내 수요 대비 과다한 분양 물량 공급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3) 2025년 5월 29일 기준 금융감독원 'PF 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에 따르면 부도 등으로 매각이 진행 중인 도내 PF 사업장은 12곳으로 연초 6곳에서 두 배 증가했으며, 이들 사업장의 감정평가액은 3,628억원에 달한다.

114) 강원지역 건설수주액 기준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8.9%로 전국에서 경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115) 지자체의 공사비 예산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기준이며,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낮은 증감률을 나타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 또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2025년 강원 지역 건설업 평균 업황 BSI는 35로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는 등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¹¹⁷⁾ 주요 업체들의 재무지표를 보면 시공능력 도내 상위 8개 주요 기업¹¹⁸⁾ 중 6곳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유동비율은 4곳이 악화되는 등 재무 건전성과 단기 유동성 측면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작년에는 시공능력 도내 7위의 에스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신동아건설(25.1월), 삼부토건(25.2월) 등 중견 건설사들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 소식은 도내 건설사들의 자금난 심화와 현장 공사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강원지역 주요 건설업체 재무상황¹⁾

업체	부채비율	(전년대비)	유동비율	(전년대비)
A건설	43.1	+2.9	323.9	+11.3
B건설	86.5	+1.6	80.6	-29.8
C건설	350.1	-200.2	124.9	+19.2
D건설	235.7	+71.3	230.8	+71.2
E건설	38.6	-7.4	299.0	+38.9
F건설	62.8	+37.5	167.9	-147.3
G건설	14.3	+1.4	695.3	-23.6
H건설	자본잠식	-	7.7	-21.4

주: 1) 2024년 감사보고서 기준, 괄호는 전년대비
자료: 금융감독원

향후 강원지역 건설경기는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7월 중 DSR 3단계 실행에 따른 대출 문턱 상승, PF 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¹¹⁹⁾ 다만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추경은 공공부문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고속도로¹²⁰⁾ 등 SOC사업 관련 예산의 규모와 집행 속도에 따라 하반기 건설경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민간부문 건설경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위축된 건설경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강원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중소 규모의 민간 주택 건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선폭이 전국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재추진,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의 가능성도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면밀한 수요 분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건설 현장에 대한 대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이것이 향후 지역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건설업체 스스로도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업체 간 기술 교류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대형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공사 경험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116) 시멘트, 레미콘, 건축용 금속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0년 대비 '23년 이후 평균적으로 56.6%, 38.2%, 63.4% 상승하였으며, 전국 건설공사비지수는 '20년 대비 '23년 이후 평균적으로 29.3% 상승하였다.

117) 건설업 업황 BSI는 '23년 47, '24년 46에 이어 '25년 1~5월 평균 35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18) 시공능력평가액 전체 상위 300위 내에 포함되는 도내 8개사(2024년 기준)로, 감사보고서 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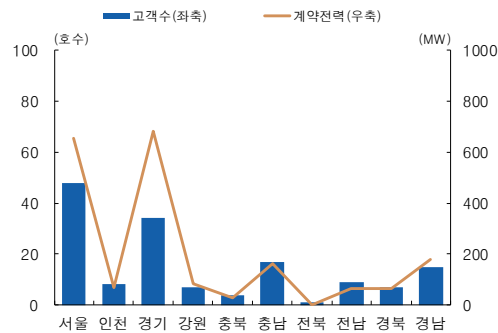
119) 강원본부 모니터링 결과, 내년까지는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0) 영월·삼척을 잇는 도내 역대 최대 SOC 사업으로 생산유발효과 11조 6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 7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4만 7000명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강원연구원)

강원 영동지역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관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산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간 국내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서 떨어질수록 통신 회선 요금이 증가¹²¹⁾하고, 유지보수 및 인력확보에 제약이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약 70%(전력 소비량 기준)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송·배전 등 전력계통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데이터센터 현황(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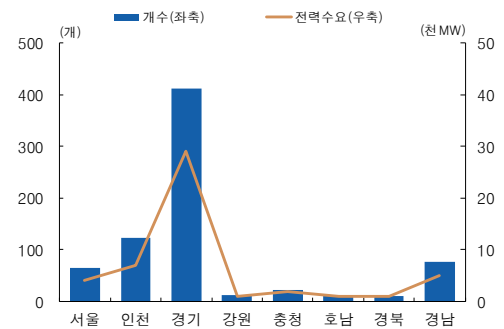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공사

또한 수도권 AI 연구센터 등에서는 전력 부족 문제를 겪는 반면,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발전설비 가동률을 제한¹²²⁾하는 등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한 동해안-수도

권 간 송전망 연결 사업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예정보다 완공 시점¹²³⁾이 늦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망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23년 약 70% → '29년 약 80%)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이 강조되는 가운데 강원 영동 및 인접지역의 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 데이터센터 전망(2029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강원도에는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총 7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150개, 2023년 기준) 대비 5% 수준으로 강원지역의 데이터센터 인프라는 미미한 상황이다. 강원지역 데이터센터 7개 중 4개는 춘천에 위치해 있는데 네이버, 더존비즈온, 삼성SDS 등 민간기업이 설립한 3개 센터와 강원도청이 운영하는 1개 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나머지 3

121)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40MW 규모) 1개동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100km 기준)할 경우 통신 요금이 연간 5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22) 약 16G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나 전력계통의 제약으로 인해 약 11GW만 생산한다.

123)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 준공 시점이 인근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약 7년 지연('19.12월 → '26.10월)된 상황이다.

개는 원주에 위치해 있으며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혁신도시 이전 이후 설립된 2개 센터와 강원교육청 관할 1개 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강원지역 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소재지	운영기관	구분	사용 현황
춘천 (4개)	강원도청	공공	- 공공데이터 관리
	네이버	민간	- 자사 인터넷 서비스
	더존비즈온	민간	- 효율적 에너지관리 시스템
	삼성SDS	민간	- 금융사 대상 IT인프라 및 통신서비스
원주 (3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	- 공공데이터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	- 공공데이터 관리
	강원교육청	공공	- 공공데이터 관리

한편 데이터센터는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도로 및 기반시설 등 인프라 개발,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여건 마련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데이터센터 유치에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지자체별 데이터센터 추진 현황

소재지	추진현황
울산 (SK그룹, AWS)	- SK그룹은 2025.6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AWS와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 - 울산 미포국가산단 내 3.6만m ² 부지에 전력량 103MW 규모로 건설
부산 (Microsoft)	- Microsoft는 16년에 부산시와 데이터센터 6개를 건설하기로 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 2개를 운영 중이며 추가 건설을 위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입주 계약 등을 추진 중
충북 (Microsoft)	- Microsoft와 협력하여 충북 지역의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
전남 (카카오)	-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전남 장성에 연구기관에서 발생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전남 (BS그룹)	- BS그룹은 전남 해남에 개발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AIDC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예정

강원 영동지역 지자체들도 잉여 전력 공급 여력 등 다양한 강점을 기반으로 관련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척시는 남부발전과 '2025년 3월 '아시아-태평양 클라우드 파크 데이터 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남부발전이 보유한 유휴 부지는 바다에 인접하여 해수를 이용한 냉각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인근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하여 데이터센터 인프라 조성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태백시는 낮은 연평균 기온과 폐광도 활용 시 외부의 물리적 공격 및 자연재해로부터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내세워 데이터센터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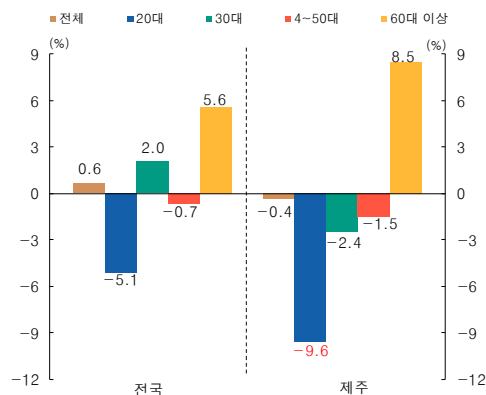
향후 영동지역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¹²⁴⁾을 활용하여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발전사업자와 전력수요자 간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근거리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 이전·신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2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 법안이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10M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력계통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에너지 당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 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를 유발하는 신규사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본부

최근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 부진 요인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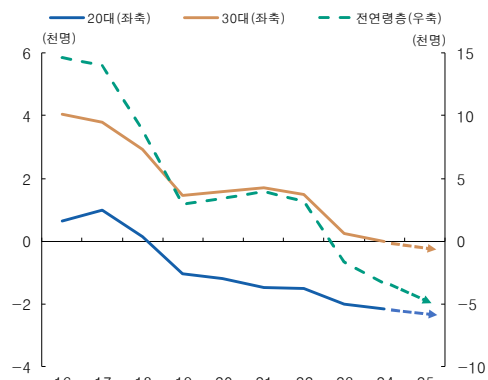
최근 제주지역 고용은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2025년 1~5월 중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0.4% 감소¹²⁵⁾하며 전국적으로 0.6% 증가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감소세를 주도한 가운데 20대의 경우 9.6% 감소하여 17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부진했다.

제주지역 연령별 취업자 증가율¹⁾

주: 1) 2025년 1~5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금년 중 제주지역 고용 부진이 심화된 요인으로서는 우선 인구 유출 문제를 들 수 있다. 제주지역 청년층 이동은 20대는 2019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었고, 30대는 2022년부터 순유입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2025년 들어서도 청년층 순유출 규모가 2024년보다 확대되면서 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²⁶⁾ 인구 감소로 인한 2025년 1~5월 중 20, 3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을 시산¹²⁷⁾해보면 각각 0.1, 0.2만 명으로 각 연령대별 취업자 수 감소폭의 28.8%, 49.5%를 차지하였다.

제주지역 청년 순유입¹⁾ 추이

주: 1) 각 연령대별 인구 전입 - 전출
자료: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

아울러 인구증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이 2025년 1/4분기중 20대는 58.8%, 30대는 82.6%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9%p, 1.1%p 하락하여 타 연령층에 비해 부진하였다. 특히 20대 고용률¹²⁸⁾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폭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커 전국(-1.5%p)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구 유출 외에 경기적 요인으로 청년층 구인수요가 약화된 점이 고용 부진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125)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126) 2025년 1~5월중 제주지역 20대, 30대 인구 순유출 규모는 각각 1,307명, 129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6명, 147명 확대되었다.

127) 감소한 인구가 모두 취업자는 아니므로, 인구감소분에 연령별 고용률(2024년 기준)을 적용하여 시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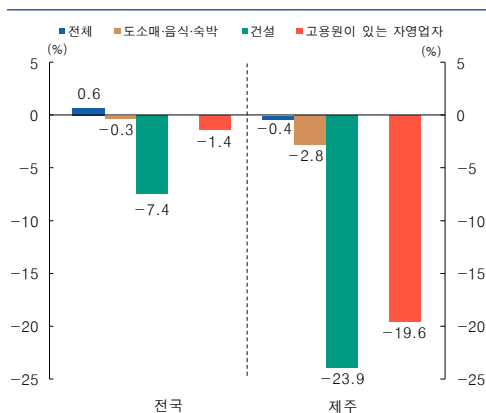
128) 제주지역 전체 고용률은 주력산업인 관광서비스업 및 농림어업의 노동집약도가 높아 2025년 1/4분기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20대(58.8%, 17개 시도 중 8위)의 경우 전국 수준(59.4%)을 하회하였다.

제주지역 연령별 고용률 변화¹⁾

	(만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고용률 증감(%p)	-4.9	-1.1	-0.1	0.3	2.4
인구증감	-0.3	-0.2	-0.3	0.1	0.6
(인구증감x고용률)	-0.1	-0.2	-0.3	0.1	0.3
취업자 증감	-0.5	-0.3	-0.5	0.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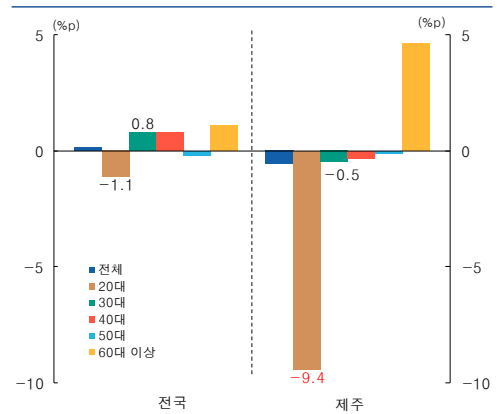
주: 1) 2025년 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실제 최근 제주지역 업종별 취업자 수를 보면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¹²⁹⁾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건설업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금년 중 관광객 수 감소¹³⁰⁾, 건설경기 침체¹³¹⁾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2.8%, 건설업에서 23.9% 감소하여 타지역에 비해서도 부진하였다. 또한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9.6% 감소하여 전국(-1.4%)에 비해 부진하였는데 이들 사업체가 1인 자영업자로 전환되거나 폐업이 늘면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청년층 감소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업종별 취업자 및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²⁾ 증감율²⁾

주: 1) 전산업 기준 2) 2025.1~5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한편 앞서 살펴본 경기적 요인에 의한 구인 수요 약화 이외에도 구조적 요인에 의한 노동 공급 감소도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도 눈에 띄게 하락하였다. 2025년 1/4분기 제주지역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기대비 9.4%p 낮아져 타 연령층보다 크게 하락했고, 전국(-1.1%p)과 비교해도 감소폭이 컸다. 30대의 경우도 타지역에서 상승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¹⁾

주: 1) 2025년 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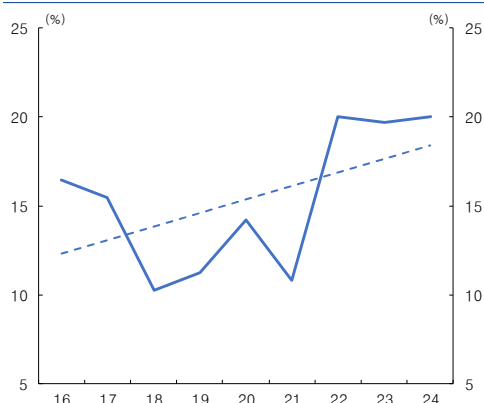
이는 육아, 가사, 통학, 취업준비 등의 비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제주지역 청년층의 경우 “쉬었음”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쉬었음 인구는 특별한 사유나 교육훈련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하며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추세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숙련·고임금 일자리 부족,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129) 2024년 하반기 기준 청년층의 업종별 취업자 비중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 35.4%, 건설업이 3.5%였다.

130) 지난해 말 비상계엄 항공기 사고 등 영향으로 2025년 1~5월 중 제주지역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50.9만 명 감소(-9.0%)하였다.

131) 2025년 1~4월 중 제주지역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6.7% 감소하였으며, 건축허가면적은 42.2%, 건축착공면적은 31.9% 감소하였다.

제주지역 청년 쉬었음 비중¹⁾ 추이



주: 1) 20-29세 “쉬었음” 인구/비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문화·교육·생활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¹³²⁾의 신속한 집행 및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큰 관광 서비스업 등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을 강화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 체험형 인턴십 등을 확충하여 청년 구직자가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구직활동을 쉬고 있거나 포기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담, 코칭, 훈련, 취업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 등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육성, 기업 유치·이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비 지원,

132) 이에 제주도는 「제주지역 고용상황 개선방안」(2025.05.29.)을 통해 ‘청년 취업지원 특화패키지’,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III

지역경제 연구

1.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01
2. 청주공항 항공 물류 기지화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118
3. 美 신정부 관세정책이 충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37
4.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157
5.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영향 분석	179

1.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¹⁾

요약

경기도는 꾸준한 청년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화가 심화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이 진행되는 등 도내 지역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청년층의 “계속거주”를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최근 청년층 내에서도 거주지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제 청년층의 다양한 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경기도 청년층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소멸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 및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청년들을 사회·경제적 여건(소득, 교육수준, 근무여건 등)을 기준으로 ‘A타입’, ‘B타입’, ‘O타입’ 등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A타입’은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고 근무 여건도 양호한 유형이다. ‘B타입’은 교육 수준이 낮지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유형이다. ‘O타입’은 교육 수준은 높지만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유형이다. 경기도 내 지역별로 보면, 과밀지역이나 서울 인접지역(과천, 성남, 수원, 광명 등)에서는 주로 A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한 반면, 지역소멸 우려 지역(동두천, 가평, 포천, 여주, 연천 등)에서는 주로 B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타입의 경우 전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유형은 아니지만, 상당수(14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청년 유형별 계속거주 결정요인 모형을 추정한 결과, A타입 청년의 경우 여러 요인 가운데 특히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B타입 청년의 경우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내 여가시설이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타입의 경우 소득 및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일자리와 대중교통 환경이 계속거주의 중요한 고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거주지 소속감과 기반시설은 모든 청년 유형의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택, 교육환경, 소비(A타입)와 충분한 일자리(O타입) 등은 일부 유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소멸 우려 지역은 ‘B타입’ 및 ‘O타입’ 청년에 초점을 맞춘 여가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환경 개선 등의 정책에, 과밀지역은 ‘A타입’과 ‘O타입’에 타게팅한 교육환경 개선 및 일자리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거주지 소속감과 기반시설이 모든 유형의 청년들의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김예진 과장 kimyejin@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I.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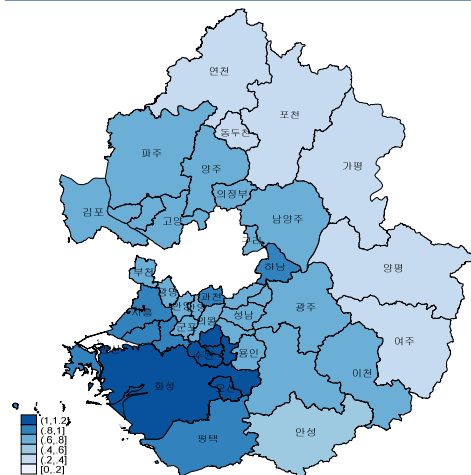
경기도는 풍부한 일자리, 편리한 교통망, 서울보다 저렴한 주거비용 등으로 청년인구²⁾가 꾸준히 유입(11~23년중 64.1만명)되면서 청년인구 비중(26.9%, 지방평균 23.4%)이 높다. 그러나 도내 기초 지자체 단위로 보면, 성남·수원·화성 등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화가, 연천·가평 등에서는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소멸³⁾이 진행되는 등 도내 지역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청년인구는 지역 내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성장(growth)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공급 증가를 통한 생산능력 및 소비수요 확대로 지역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다른 연령보다 출산율이 높고 향후 상당 기간 가임기간을 유지하기 때문에 청년인구의 유입은 향후 지역 자연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청년층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⁴⁾”를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최근 청년층 내에서도 거주지에 대한 선호의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이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

근 들어 주거, 복지, 교육, 환경 등 지역사회
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엄창
옥 외, 2021).⁵⁾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지자체
의 거주정책이 일자리 마련, 임금격차 해소,
대기업 유치 등 경제적 요인에만 집중될 경우
서울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 및 예산 집행 측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제 지자체는
청년층의 다양한 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경기도 기초 지자체별 지방소멸위험지수¹⁾²⁾



주: 1) 마스다 히로야의 방법론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수로 측정. 지역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지방소멸 리스크는 낮고, 지수가 0.5보다 낮으면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해석

2) 2024.12월 기준

자료: 통계청, 저자 시산

- 1) 각종 법률과 통계자료에 따라 청년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고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만19~39세로 정의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
- 2) 행정안전부(21.10월)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및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연천과 가평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포천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3) 기존의 연구에서 ‘계속거주’는 고령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상태를 의미(김용진·김성희, 2016) 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역 인구정책 측면에서 노년층뿐 아니라 전 연령대의 계속거주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계속거주’는 개인이 특정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정주’ 상태를 의미한다.
- 4) 특히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경기도의 청년은 단일 집단이지만 지역보다는 성별, 학력, 소득 등에 따라 집단 내에서도 이질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정기용·이성욱·민효상,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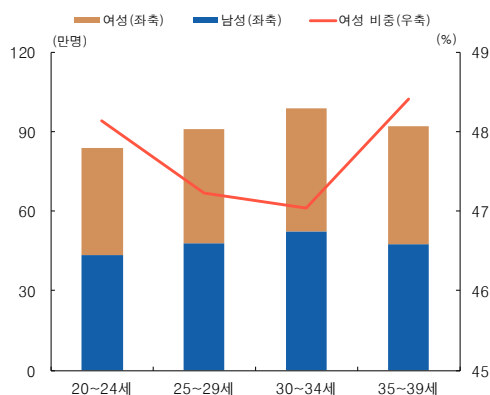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경기도 청년층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소멸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청년 특성에 따라 청년층을 유형화한 후 각 청년 유형별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년층의 “계속거주”를 장려하기 위한 기초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경기도 청년의 삶 현황

1. 청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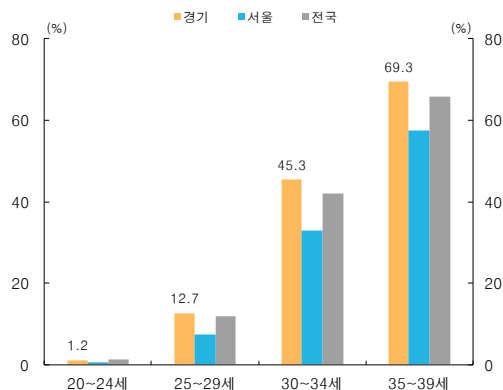
경기도 청년인구는 20~30대 모든 구간에 걸쳐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편이다. 이들의 평균 기혼율은 33.7%로 서울 및 지방(각각 24.7%, 32.0%)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녀가 있는 청년 비중(기혼여성 수 대비)은 75.4%로 서울(67.4%)보다 높으나 지방(79.2%)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림 2. 경기도 청년인구 연령별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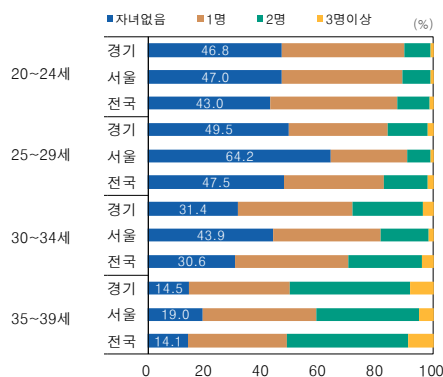
주: 1) 2024년말 기준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저자 시산

그림 3. 연령별 기혼율¹⁾



주: 1) 기혼율 = 해당연령 배우자가 있는 인구 수 / 해당연령 인구 수 * 100
2) 2020년말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저자 시산

그림 4. 연령별 자녀 수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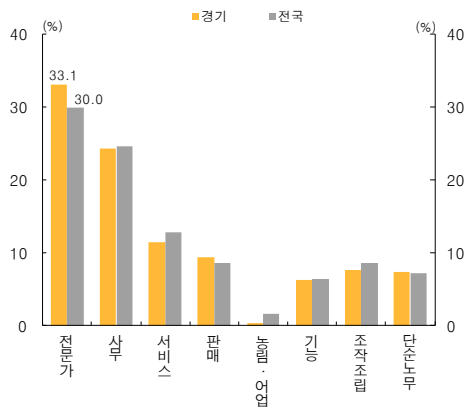
주: 1) 자녀가 있는 여성 수 / 해당연령 기혼 여성 수 * 100
2) 2020년말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저자 시산

2. 고용

청년 고용의 경우 양적으로는 양호하나, 질적 측면에서는 청년층 내 격차가 큰 편이다. 2023년 경기도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73.1% 및 75.9%로 전국평균(각각 70.4% 및 73.3%)을 상회한다. 상용근로자 비중(73.3%)과 전문직 비중(33.1%)도 타지역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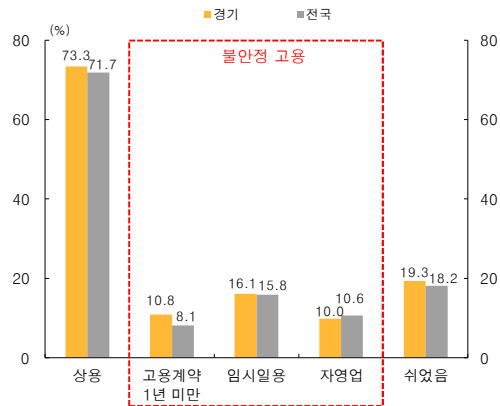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상용근로자중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기간 1년 미만 비종과 임시·일용직 비중이 각각 10.8%, 16.1%(전국 8.1% 및 15.8%)로 높고, 대기업·정규직 선호에 따른 미스매치 현상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청년 비중(19.3%, 전국 18.2%)⁶⁾ 또한 높아 청년층 내에서도 임금⁷⁾, 근로조건⁸⁾ 및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크다.

그림 5. 경기지역 청년층 직업별 비중¹⁾²³⁾



주: 1) 2023년 하반기(10월) 청년 취업자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그림 6. 경기지역 청년층 고용형태¹⁾²³⁾



주: 1) 청년 상용근로자 중 고용계약 1년 미만인 근로자 / 전체 청년 상용근로자
2) 청년 쉬었음 /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3) 2023년 하반기(10월) 청년 취업자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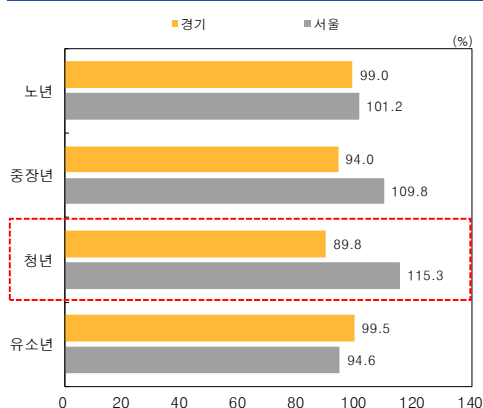
3. 주간 이동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근무와 학업을 위해 낮에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인구가 많다. 주간 인구유출입을 의미하는 주간인구지수(주간 인구/상주인구)⁹⁾를 보면, 경기도 청년층의 경우 89.9로 100¹⁰⁾을 하회하고 전체 연령대(경기도 전체 평균 94.5) 안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낮에는 서울로 통근·통학¹¹⁾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 6)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된 활동에 따라 육아가사, 교육기관 통학, 취업·진학 준비, 연로·심신장애, 쉬었음 등으로 분류한다. “쉬었음” 비중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 7) 2022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75.9%로 경기도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타지역(전국 80.2%)보다 큰 편이다(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또한 2023년 기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163만원으로 타 지역(전국 151만원)보다 크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8)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시간 격차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은 대기를 상회(2022년 기준, 5.7시간)한다(상용총근로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9) 상주인구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인구로 주민등록인구, 추계인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간인구는 체류인구(등록지 외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월 1회 이상 방문자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생활인구와는 다른 개념이다.
- 10)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인 지역은 직장, 학교 등이 밀집되어 낮 시간에 인구가 외부로부터 순유입되는 지역이며, 100 이하인 인구가 외부로 순유출되는 지역으로 주로 주거지역이 해당된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주간인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108.8로 가장 높고 경북(103.5), 충남(103.1), 전남(102.2), 충북(101.6) 순으로 나타난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93.4)이며, 인천(94.2), 경기(94.5) 순이다.
- 11) 경기지역 통근·통학인구 중 통근·통학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는 22.4%로 전국 평균(14.5%)을 크게 상회하였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2020년 전 연령층 기준)

특히 청년층 주간인구지수가 매우 낮은 광명, 군포, 의왕, 고양, 하남, 구리, 남양주 등의 경우 서울에서 근무와 학업을 하는 청년들의 주거지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연천, 포천, 안성, 이천은 외곽지역이지만 주간인구지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 주간인구 유입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간 유출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¹²⁾

그림 7. 경기지역 연령별 주간인구지수¹⁾



주: 1) 주간인구: 상주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
주간인구지수: 주간인구/상주인구*1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20년 기준)

표 1. 경기지역 청년층의 통근통학 이동 유형

구분	경기	서울
통근통학	72.1	76.0
경기도	동일 시군구 내 이동	52.7
	다른 시군구로 이동	21.7
다른 시도로 이동	25.5	11.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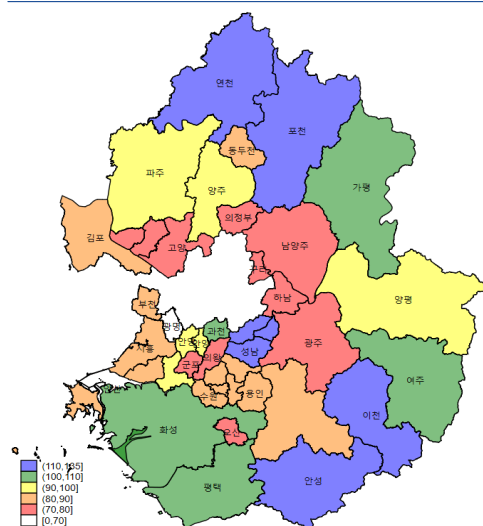
12) 주간인구지수가 110을 초과한 지역들의 유입 및 유출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이천, 안성, 포천, 연천 지역의 유출인구 비중은 10%대로 성남시에 비해 크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상주인구 대비 유입 및 유출인구 비중

구분	성남	이천	안성	포천	연천
유입	47.3	34.3	32.9	44.9	22.8
유출	34.9	11.5	14.6	13.4	12.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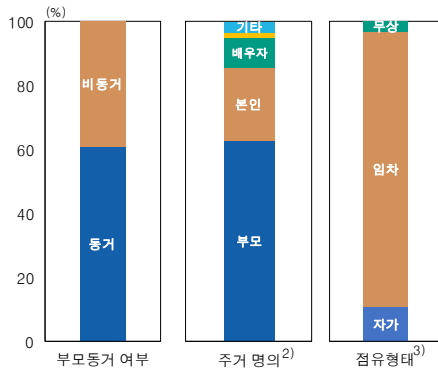
그림 8. 경기도 기초 지자체별 청년층 주간인구지수¹⁾



주: 1) 주간인구: 상주인구+유입인구-유출인구,
주간인구지수: 주간인구/상주인구*1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2020년 기준)

4. 주거환경

경기도 청년의 상당수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며, 독립한 경우에는 대체로 임차로 거주하면서 높은 수준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청년인구의 61%(22년 기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63%가 부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어 부모에 대한 주거 의존도가 높다. 독립한 청년가구(수도권 기준)의 경우 86.1%가 임차로 거주하는데, RIR(임대료/소득, 19.7%)이 일반가구(18.3%)대비 높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9. 경기지역 청년층 주거환경¹⁾

주: 1) 만19~34세 청년 기준(경기지역기준)

2) 주거 명의자(혹은 계약당사자)

3) 가구주의 연령이 만19~34세인 청년 가구(수도권 기준)

자료: 통계청 「주거실태조사」

표 2. 수도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¹⁾

구분	청년가구	일반가구
주택가격(천만원)	57.3	65.6
전세보증금(천만원)	19.1	24.3
월세(만원)	33.0	32.3
PIR ²⁾ (%)	9.6	9.3
RIR ³⁾ (%)	19.7	18.3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 ⁴⁾ (%)	79.6	66.6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만19~34세인 청년 가구(수도권 기준)

2) 중위수 기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3) 중위수 기준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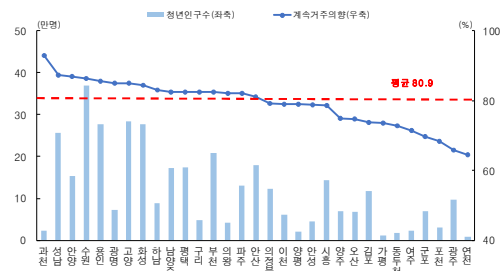
4)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의 부담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매우 부담됨'과 '조금 부담됨'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 (2022년)

5. 거주지역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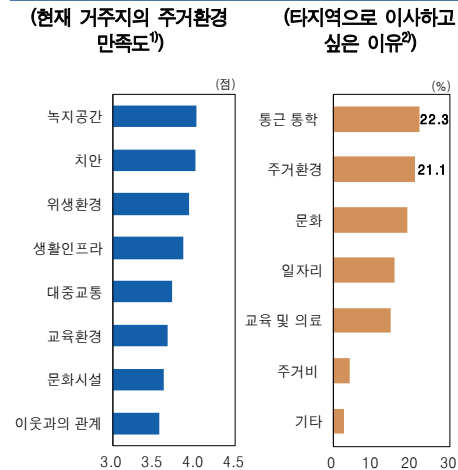
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 서울과 가깝고 청년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청년들의 “계속거주” 의향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과천, 성남, 안양, 수원, 용인, 광명, 고양, 화성 등에 사는 청년의 80% 이상이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역의 녹지공간, 치안, 위생 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이웃과의 관계,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속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청년들은 주로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감(22.3%)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청년의 삶 실태조사」, 2022).

그림 10.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청년인구 및 “계속거주” 희망 비율¹⁾

주: 1) 경기도 사회조사 응답자(19~39세 청년) 중 향후 경기도 계속거주 의향을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년(3점 이상의 답변) 비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그림 11. 주거환경 만족도



주: 1) 살고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응답. 숫자가 클수록 만족을 의미

2) 현재 살고 있는 사도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의향을 묻는 문항에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삶 실태조사」 (2022년)

Ⅲ. 경기도 지역별 청년 이질성

최근 청년 연령기준 변경(24.5월 만34세 → 만39세)으로 청년층 범위가 확대되었다. 청년층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이질성이 커진 가운데, 청년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계속거주” 결정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IV)에 앞서 경기도 거주 청년층의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Baker, 2014 등)¹³⁾에 따라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¹⁴⁾」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 및 K-평균 군집분석¹⁵⁾을 실시하고, 청년들을 사회·경제적 여건(소득, 교육 수준, 근무여건 등)을 기준으로 ‘A타입’, ‘B타입’, ‘O타입’ 등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A타입’은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고 근무 여건도 양호한 유형이다. ‘B타입’은 교육 수준이 낮지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유형이다. ‘O타입’은 교육 수준은 높지만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유형¹⁶⁾이다(민효상, 2022).

표 3. 청년 유형화를 위한 기준 변수

(단위: %p)

기준	구분			이용자료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지난 3개월간 평균소득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최종학력
근무 여건	상용직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	무직 ¹⁾	종사상 지위

주 : 1)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분석 결과, A타입이 경기도 전체 청년의 4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B타입 청년 비중은 28.6%, O타입은 22.0%로 나타났다. A타입은 대체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월평균 475만원의 소득을 벌면서 대부분(83.4%)이 상용근로자로 고용 안정성이 높다. B타입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4년제 미만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균적으로 월 367만원의 소득을 벌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75.0%로 높다. O타입은 대부분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교육 수준은 높으나 자영업자(50.1%), 임시일용직(19.1%), 무직(25.6%) 비중이 높고 월평균 소득도 23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3) 채병주·황선재(2021)는 청년 1인가구를 소득, 교육, 종사상 지위, 소득 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내년 가구 재정 예측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김용화·한창근(2019)은 청년 세대 내 인식의 차이, 주희진·주효진(2017)은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청년을 유형화하였다.

14) 「경기도 사회조사」는 매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사, 삶의 질과 관련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 도내 표본 31,740가구 내 만 15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매년 9월 실시된다.

15) 계층적 군집분석은 연구대상을 개별군집으로 가정하고 최대거리 또는 최소거리를 갖는 대상을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군집(cluster)을 형성하는 분석방법으로 사전에 연구대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최종적인 군집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상 간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또는 코사인 유사성(cosine similarity)을 활용하며 유사한 집단일수록 낮은 높이에서 결합되어 전체 연구대상의 군집을 평가할 수 있다(채병주·황선재, 2021). 또한 K-평균 군집분석은 군집의 초기 군집값을 무작위로 지정하고 군집의 중심값 중 가까운 값을 할당하여 군집을 형성한다. 이후, 군집의 중심값을 반복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군집을 확인한다. K-평균 군집분석은 군집의 수를 사전에 결정하여 군집 간 거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계산과정이 간단하며, 표본이 100개 이상일 경우 유리한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적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적절한 군집의 수를 파악하고,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청년집단을 3개로 유형화하였다.

16) 한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모두 낮은 청년의 경우 군집분석을 통해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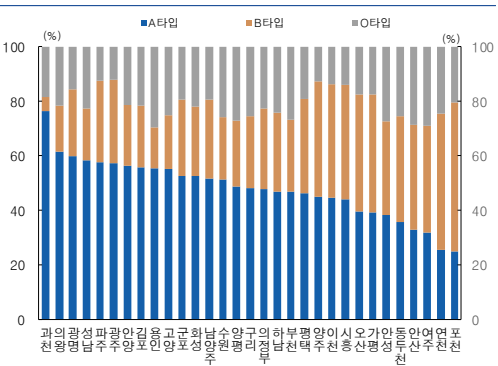
표 4. 경기도 청년 유형별 특성

		(단위, %, 만원)		
기준변수		A타입	B타입	O타입
구성 비율 ¹⁾		49.4	28.6	22.0
월평균 소득		475	367	238
중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83.4	75.0	50.3
	자영업자	12.9	14.7	50.1
	임시일용	2.6	7.8	19.1
	무직	1.1	2.5	25.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0.0	58.3	7.9
	대학교 (4년제미만)	20.1	41.7	16.3
	대학교 (4년제)	67.4	0.0	69.4
	대학원 이상	12.5	0.0	6.5

주: 1) 「경기도 사회조사」 응답자 중 청년(만19~39세) 응답 결과(15,116) 중 청년 유형화를 위해 필요한 기준변수에 불성실한 답변(각 지표마다 동일한 숫자로 응답하였거나 공란으로 비어있는 경우)을 제외하고 총 5,03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사용
자료: 저자 시산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A타입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울에 인접할수록 A타입 청년 비중이 높고 외곽지역일수록 B타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타입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과천, 의왕, 광명, 성남 등이며 포천, 연천, 양주, 오산, 가평 등에서는 B타입 청년 비중이 더 높았다. O타입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대적 비중은 낮으나, 용인, 안산, 여주, 안성 등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과천, 의왕, 성남, 용인의 경우 A타입과 O타입 비중이 모두 높으면서 B타입 비율은 낮은 비대칭적인 모습이 보였다. 청년 유형에 따라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향후 시군별 청년정책 수립의 방향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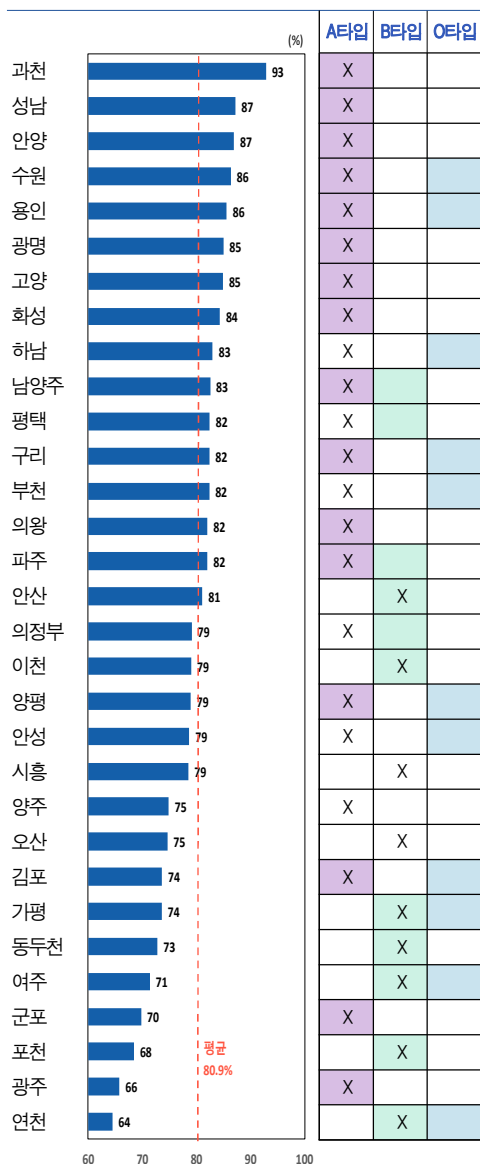
그림 12.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청년 유형 비중



자료: 저자 시산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우려 지역(동두천, 가평, 포천, 여주, 연천 등)에서는 주로 B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과천, 성남, 수원, 광명 등 과밀지역이나 서울 인접지역에서는 주로 A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타입의 경우 전 지역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수원, 용인, 고양, 하남, 구리, 부천, 안산, 의정부, 양평, 안성 등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상대우위(경기도 계속거주 희망 청년 중 O타입 비중인 21.0%를 상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균형 발전 및 효율적 예산집행 측면에서 볼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구감소 또는 소멸 우려 지역은 B타입 및 O타입 청년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에, 과밀지역은 A타입과 O타입에 타게팅한 청년 지원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림 13. 경기도 기초 지자체별 청년층의 계속거주 희망 비율¹⁾ 및 주요 청년 유형²⁾



주: 1) 「경기도 사회조사」 응답자 중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청년층(총 5,038명) 중 향후 경기도 계속거주 의향을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년(3점 이상의 답변) 비율
 2) X 표시의 유형은 각 기초 지자체 내 계속거주 희망 청년들 중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고, 색칠한 유형은 상대적 비중이 큰 유형을 의미. 각 기초 지자체의 유형별 비중이 경기도 계속거주 희망 청년 중 각 유형별 비중(B타입 29.3%, A타입 49.7%, O타입 21.0%)을 상회할 경우 상대적 비중이 높다고 판단
 자료: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저자 시산

IV. 청년 이질성을 고려한 지역별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주거환경은 주관적 거주만족도(residential satisfaction)를 통해 개인의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Amerigo & Aragones, 1997). 청년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 주거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다르기 때문에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청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청년의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층의 계속거주 의사결정 모형의 종속변수는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에서 ‘계속거주 의사’에 대한 응답¹⁷⁾으로, 설명변수는 환경 요인(주거환경, 교통수단, 교육환경, 일자리, 여가시설) 및 개인 요인(소득, 소비, 거주지 소속감 등)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였으며 개인 특성 변수(성별, 혼인상태, 거주기간, 주택 형태 등)를 통해 개인별 고유 특성을 통제하였다.¹⁸⁾

청년 유형에 따라 변수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¹⁹⁾을 실시한 결과, 현재 거주지에서의 계속거주 의사는 A타입과 B타입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O타입은 계속거주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여건 변동시 지역이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타입의 경우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 개인의 소득 및 소비, 거주지 소속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

17)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현재 살고 계신 (경기도) 시군에서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문항에 대한 응답이며, 1~5점 Likert 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계속거주 의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고1> 청년층 “계속거주” 결정요인 모형 변수”를 참조 바란다.

타입의 경우 현재 거주지역의 교통수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청년층 유형별 ANOVA 분석 결과

유형	변수 ¹⁾	평균				
		A타입 (a)	B타입 (b)	C타입 (c)	Scheffe ²⁾	
종속변수	계속거주의향	3.43	3.47	3.26	a,b>c	
설명 변수	환경 요인	주택	3.55	3.35	3.42	a>b,c
		주거환경 만족도				
		기반시설	3.58	3.44	3.52	a>b,c
		주차장이용	3.00	2.79	2.89	a>b,c
		교통수단 만족도	3.03	3.12	3.22	c>b>a
		일자리 충분도	2.73	2.77	2.75	
		여가시설 충분도	2.90	2.91	2.97	
		교육환경 만족도	2.17	2.16	2.08	
	개인적 요인	여가생활 만족도	2.94	2.91	2.96	
		소득 만족도	2.91	2.63	2.21	a>b>c
		소비 만족도	3.20	2.96	2.80	a>b,c
		거주지 소속감	3.62	3.54	3.52	a>b>c

주: 1) 일자리 충분도, 여가시설 충분도, 교육환경 만족도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F값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

2) ANOVA 검정 이후 표본의 크기와 분산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사후검정 방법을 결정하며, 이 경우 청년집단 유형별로 표본의 크기가 상이함에 따라 Scheffe 검정을 실시

자료: 저자 사산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²⁰⁾을 통해 청년 유형별 “계속거주” 결정요인 모형을 추정한 결과, 청년 유형별로 현재 거주지에서의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타입은 주택, 교통수단, 여가시설, 교육환경, 소비 등 비교적 다양한 요인들이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거주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타입의 경우 기반시설과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계속거주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타입은 기반시설, 교통수단과 더불어 충분한 일자리가 계속거주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기반시설과 거주지 소속감과 기반시설은 모든 청년 유형의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택, 교육환경, 소비(A타입)와 충분한 일자리(O타입) 등은 일부 유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설명변수가 계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승산비(odds ratio)²¹⁾²²⁾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승산비는 해당 설명변수 값이 1단위 증가(다른 설명변수는 불변)함에 따라 계속거주 의사²³⁾가 1점 상승(하락)할 확률을 의미한다.

A타입의 경우 교육환경 만족도가 1단위 높아지면 계속거주 의향이 증가할 확률이 40.3% 상승하면서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환경에 뒤를 이어 소비(28.3%), 기반시설(26.8%), 대중교통 환경(24.0%) 순으로 계속거주 의사 결정시 중요한

19) 분산분석(ANOVA)은 여러 개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는 분석방법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할 수 있다. 사후검정은 분산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표본의 특성에 따라 Scheffe, Turkey, Duncan 및 LSD 검정법 등이 실시된다.

20) 종속변수(계속거주 의향)가 간격이 일정한 범주형 변수(1~5점)임에 따라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자세한 설명은 “<참고2>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참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설명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21) 요인별 증가(감소) 확률 (%) = (odds ratio - 1) * 100

22) 계수가 0인 경우 승산비는 1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계수 부호가 (-)이면 승산비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해당 설명변수에 의한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면 승산비는 1보다 큰 범위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승산비의 절대값을 통해 각 설명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23) 종속변수인 “계속거주 의사”는 1~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형태의 이산형 데이터이다.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 B타입의 경우 여가 시설 충분도가 1단위 상승할 경우 향후 계속 거주 의사가 상승할 확률이 35.1% 증가하는데,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O타입의 경우 소득 및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일자리(63.8%)와 대중교통 환경(49.4%)이 향후 계속거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6. Ordered Logistic Regression의 주요 결과

유형	변수	A타입		B타입		C타입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coef. (SE)	Odds Ratio
주거 환경 요인	주거 환경 만족도						
	주택	0.12** (0.05)	1.13	0.12 (0.08)	1.13	0.04 (0.09)	1.04
	기본 시설	0.24*** (0.05)	1.27	0.17** (0.08)	1.19	0.22** (0.09)	1.245
	주차장 이용	0.01 (0.04)	1.01	0.05 (0.05)	1.05	0.08 (0.06)	1.083
환경 요인	교통수단 만족도	0.22*** (0.06)	1.02	0.09 (0.08)	1.10	0.11*** (0.10)	1.494
	일자리 충분도	0.18 (0.05)	1.11	0.24 (0.08)	1.27	0.49*** (0.09)	1.639
	여가시설 충분도	0.14*** (0.07)	1.15	0.30** (0.11)	1.35	0.12 (0.12)	1.123
	교육환경 만족도	0.30*** (0.03)	1.40	0.06 (0.04)	1.07	0.00 (0.05)	1.025
	여가생활 만족도	0.17 (0.08)	1.11	0.09 (0.11)	1.10	0.03 (0.12)	1.030
	소득 만족도	0.01 (0.05)	0.99	0.09 (0.07)	1.62	0.03 (0.07)	1.026
	소비 만족도	0.12** (0.06)	1.28	0.12 (0.09)	1.13	0.09 (0.10)	1.109
	개인적 요인						
	거주지 소속감	1.24*** (0.06)	3.44	1.05*** (0.09)	2.87	1.28*** (0.11)	3.597

주: 1)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추정

한편 거주지 소속감은 청년 유형과 상관없이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거주지

소속감이 1단위 올라감에 따라 계속거주 의향이 1점 상승할 확률이 청년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100%를 상회(B타입, A타입, O타입 각각 187.1%, 243.9%, 259.7%)하는 높은 수준으로 계속거주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기반시설(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만족도가 1단위 높아질 때 계속거주 의향이 올라갈 확률은 A타입, B타입, O타입 각각 18.8%, 26.8%, 24.5%로 높다.

표 7.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증가(감소) 확률¹⁾

		(단위: %p)		
유형	변수	A타입	B타입	C타입
사회적 물·환경 요인	주거환경 만족도	13.1		
	기반시설	26.8	18.8	24.5
	교통수단 만족도	24.0		49.4
	일자리 충분도			63.8
	여가시설 충분도	15.4	35.1	
개인적 요인	교육환경 만족도	40.3		
	소비 만족도	28.3		
	거주지 소속감	243.9	187.1	259.7
개인 특성 ²⁾	성별		32.7	
	혼인상태			30.2
	시도 거주기간	21.0	22.0	
	점유 형태	무상		
	주택 형태	아파트	-0.7	
	기타 ³⁾	-24.5		

주: 1) 독립변수에 대한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경우 계속거주 의사가 1점 높은 수준에 속하게 될 확률(승산비(odds ratio)를 이용하여 계산)

2) 혼인상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준, 성별: 남성 기준, 점유형태: 자가 기준, 주택유형: 단독주택 기준

3) 오피스텔 등

자료: 저자 추정

앞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초 지자체별로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전략²⁴⁾을 제안할 수 있다. A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인 과천, 성남,

24)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 상당수의 기초 지자체에서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A타입 청년이나, 도내 지역균형 발전 및 효율적인 거주정책 측면에서 볼 때 각 기초 지자체는 타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 유형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별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주요 청년 유형을 식별하였다.

안양, 광명, 화성, 의왕, 광주, 군포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²⁵⁾할 필요가 있다.

주로 A타입과 O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인 고양, 구리, 김포, 수원, 양평, 용인의 경우 A타입 청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O타입 청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주로 B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동두천, 시흥, 양주, 오산, 이천, 평택, 포천의 경우 지역 내 여가시설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평, 안산, 안성, 여주, 연천, 의정부의 경우 주로 B타입과 O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만큼, 다양한 여가시설과 함께 O타입 청년을 위한 일자리 마련,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천과 하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O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함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표 8. 경기도 기초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¹⁾

지역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주요 청년유형	고려사항						
		주택	기반 시설	교통 수단	일자리	여가 시설	교육 환경	소비 환경
가평	B타입 O타입		√	√	√	√		√
고양	A타입 O타입	√	√	√	√	√	√	√
과천	A타입	√	√	√		√	√	√
광명	A타입	√	√	√		√	√	√
광주	A타입	√	√	√		√	√	√
구리	A타입 O타입	√	√	√	√	√	√	√
군포	A타입	√	√	√		√	√	√
김포	A타입 O타입	√	√	√	√	√	√	√
남양주	A타입 B타입	√	√	√		√	√	√
동두천	B타입		√			√		√
부천	O타입		√	√	√			√
성남	A타입	√	√	√		√	√	√
수원	A타입 O타입	√	√	√	√	√	√	√
시흥	B타입		√			√		√
안산	B타입 O타입		√	√	√	√		√
안성	B타입 O타입		√	√	√	√		√
안양	A타입	√	√	√		√	√	√
양주	B타입		√			√		√
양평	A타입 O타입	√	√	√	√	√	√	√
여주	B타입 O타입		√	√	√	√		√
연천	B타입 O타입		√	√	√	√		√
오산	B타입		√			√		√
용인	A타입 O타입	√	√	√	√	√	√	√
의왕	A타입	√	√	√		√	√	√
의정부	B타입 O타입		√	√	√	√		√
이천	B타입		√			√		√
파주	A타입 B타입	√	√	√		√	√	√
평택	B타입		√			√		√
포천	B타입		√			√		√
하남	O타입		√	√	√			√
화성	A타입	√	√	√		√	√	√

주: 1) 각 지자체별 주요 청년유형(상대적 비중 기준)이 계속거주 의사 결정시 유의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로 표시(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의 경우 굵은 글씨로 표시)

25) 다만 A타입 청년의 경우 계속거주 의사결정시 교육환경, 주택, 기반시설, 교통수단, 여가시설, 소비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기초 지자체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본고에서는 경기도 청년층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청년의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밀지역이나 서울 인접지역(과천, 성남, 수원, 광명 등)에서는 주로 A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한다. 반면 지역소멸 우려지역(동두천, 가평, 포천, 여주, 연천 등)에서는 주로 B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고 있다.

청년 유형별로 보면, A타입 청년의 경우 다양한 요인이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B타입 청년의 경우 안정적 소득을 기반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내 여가시설이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타입의 경우 소득 및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일자리와 대중교통 환경이 향후 계속거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요인별로 보면, 거주지 소속감과 기반시설은 모든 청년 유형의 계속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택, 교육환경, 소비(A타입)과 충분한 일자리(O타입) 등은 일부 유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초 지자체별 정책제안

도내 지역 균형발전과 소멸지역의 효과적인 거주정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는 맞춤형 청년

거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앞의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소멸 우려 지역은 B타입 및 O타입 청년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에, 과밀지역은 A타입과 O타입에 타겟팅한 청년 지원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가. 과천·성남·안양·광명·화성·의왕·광주·군포

A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환경, 취학 아동의 공교육·사교육 환경 및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포괄하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나. 고양·구리·김포·수원·양평·용인

주로 A타입과 O타입 청년이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이므로 A타입 청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O타입 청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O타입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취업 등 일자리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의 경우 교통비 보조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동두천·시흥·양주·오산·이천·평택·포천

B타입 청년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축제·공연·전시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동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가평·안산·안성·여주·연천·의정부

B타입 청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O타입 청년을 위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들은 주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질적(쾌적성 등) 개선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 남양주·파주

A타입 청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B타입 청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 시설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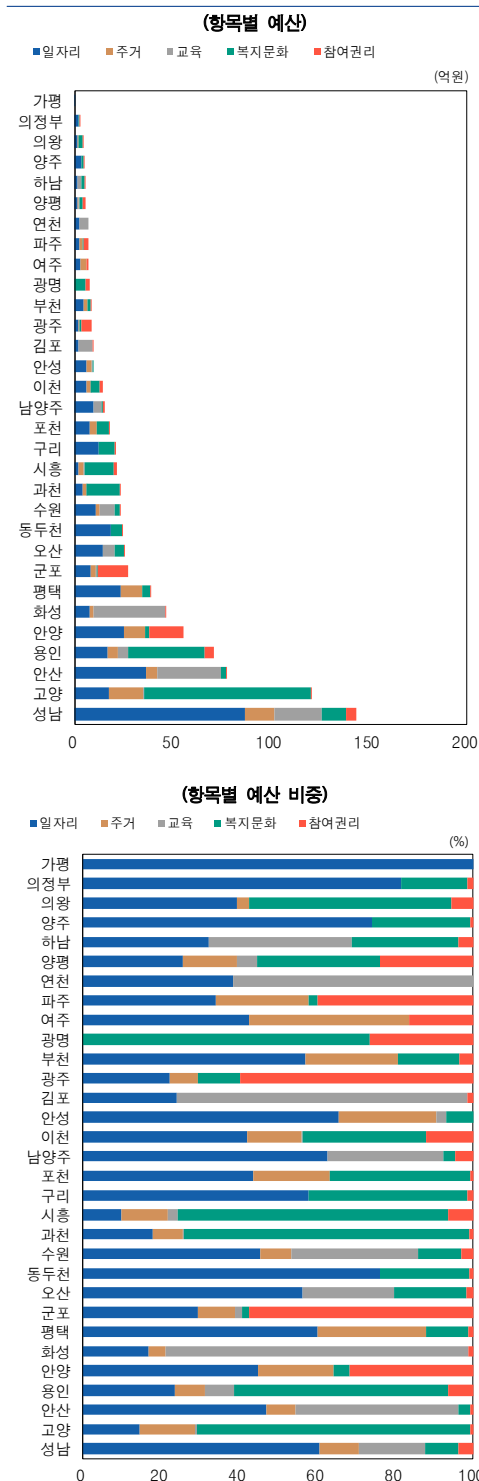
바. 부천·하남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의 O타입 청년이 계속 거주를 희망함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거주지 소속감과 기반시설의 경우 모든 유형의 청년들의 계속거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축제, 지역 고유의 청년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 공동체와 청년 간 협력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 고의 방법론에 따라 비수도권 소멸지역에 대해 맞춤형 청년 거주정책을 제시한다면 소멸지역의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4. 2024년 경기도 기초 지자체 자체 추진 청년정책 사업 현황



참고 1

청년층 “계속거주” 결정요인 모형의 변수

표 9. 모형의 변수 및 측정¹⁾²⁾

유형	변수	측정
종속변수	계속거주의사	향후 10년 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시설, 면적, 구조 등에 대한 만족도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에 대한 만족도
		주차장 이용: 공간, 시설, 접근성 등에 대한 만족도
	교통수단 만족도	지하철, 택시, 기차,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에 대한 만족도
	일자리 충분도	거주 지역에서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
	여가시설 충분도	거주 지역에서 문화여가시설의 접근성과 충분도
	교육환경 만족도	거주 지역에서 교육 기회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여가생활 만족도	평소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소득 만족도	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본인의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
통제변수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만족도
	소비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
	거주지 소속감	성별
	개입특성	남성, 여성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기혼), 배우자 없음(미혼, 사별, 이혼)
	개입특성	시도 거주기간
		경기도 총 거주기간
		통근·통학 소요시간
통제변수	개입특성	통근·통학시 편도기준 평균 소요시간
		점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개입특성	주택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기타
통제변수	개입특성	청년 유형
		AE타입, BE타입, OE타입

주 : 1) 비경제활동인구 포함

2) 각 항목별 1-5점(일부 항목의 경우 1-4점 및 1-6점)을 부여

참고 2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Model) 개요

특성변수간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통계적 추론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 중 종속변수가 순위형인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Model)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리커트형(Likert-Type Scale)일 때가 많기 때문에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위형 로지스틱 모형은 다항의 종속변수에 대한 선택확률을 구한다는 점에서 다항로지스틱모형과 유사하지만 다항 로지스틱 모형이 명목형 변수를 다루는 반면 순위형 로지스틱 모형은 순위형 종속변수에 대한 선택확률을 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의 설명변수를 Y_i 로, 영향변수를 X_i 로 정의할 때, 관측되지 않은 잠재변수 Y_i^* 는 식 (1)과 같이 정의되고 이를 통해 회귀분석에 부적합한 기존 종속변수의 형태를 변환한다. 식(2)는 실제 응답(Y_i)과 분석을 통해 범주화된 기준(Y_i^*)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μ 는 경계값을 의미하는데, μ_{k-1} 과 μ_k 사이의 Y_i^* 값을 가지는 경우 k 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한다.

$$Y_i^* = B_1X_1 + B_2X_2 + \dots + B_kX_k + \epsilon = \sum_{n=1}^k B_nX_n + \epsilon \quad (1)$$

$$\begin{aligned}
Y &= 1 \text{ if } Y_i^* \leq \mu_1 \\
Y &= 2 \text{ if } \mu_1 \leq Y_i^* \leq \mu_2 \\
&\vdots \\
Y &= j \text{ if } \mu_{j-1} \leq Y_i^* \leq \mu_j
\end{aligned} \tag{2}$$

X_i 값이 주어졌을 때, 설명변수가 j 에 속할 확률은 식 (3)과 같다. 이때 $F(z)$ 는 로지스틱 분포의 누적 확률 함수를 의미한다. 식 (3)을 기반으로 누적분포함수의 성질에 따라 확률식을 구하면 다음의 식 (4)가 도출된다.

$$\begin{aligned}
\text{Prob}(Y_i^* = j) &= \text{Prob}(\mu_{j-1} < Y_i^* < \mu_j) \\
&= \text{Prob}(\mu_{j-1} < \sum_{n=1}^k B_k X_k + \epsilon < \mu_j) \\
&= F(\mu_j - \sum_{n=1}^k B_k X_k + \epsilon) - F(\mu_{j-1} - \sum_{n=1}^k B_k X_k + \epsilon)
\end{aligned} \tag{3}$$

$$\text{Prob}(Y_i^* \leq j) = F(\mu_j - \sum_{n=1}^k B_k X_k + \epsilon) \tag{4}$$

위의 식 (4)를 누적 로지스틱 분포함수로 변환 후, 역함수로 치환하면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식 (5)를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Prob}(Y_i^* \leq j | X) &= F(\mu_j - \sum_{n=1}^k B_k X_k) = L(\mu_j - \sum_{n=1}^k B_k X_k) \\
&= \frac{e^{\mu_j - \sum_{n=1}^k B_k X_k}}{1 + e^{\mu_j - \sum_{n=1}^k B_k X_k}} \\
\log \frac{\text{Prob}(Y_i^* \leq j | X)}{1 - \text{Prob}(Y_i^* \leq j | X)} &= \mu_j - \sum_{n=1}^k B_k X_k
\end{aligned} \tag{5}$$

참고문헌

- 경기도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2023
- 경기도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4
-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2
- 국토교통부 “2022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특성가구)”, 2023
- 김화연·이대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2호 pp.261-288
- 민보경 “청년의 지역 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2024, 국회미래연구원
- 민호상 “2023년 경기도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2: 경기도 청년실태분석”, 2022, 경기복지재단
- 이지은·이경은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2호 pp.57-86
- 정기용·이성욱·민호상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18,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제26권 제3호 pp.259-283
- 조광래·최재혁 “충남지역 지방소멸의 주요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2024,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 채병주·황선재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 영역 선호”,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3호 pp.248-268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2023
- 홍성호·임준홍 “주거환경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202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 제7권 제2호 pp.133-153
- Amerigo, M. & Aragonés, J.I.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Residential Satisfaction.”, 1997,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 Chen, Y., & Rosenthal, S. S. “Local amenities and life-cycle migration: Do people move for jobs or fun?”, 2008, Journal of Urban Economics
- Davies, P. S., Greenwood, M. J., & Li, H. “A conditional logit approach to US state-to-state migration.”, 2001, Journal of Regional Science
- Pissarides, C. A. “Human capital and growth: a synthesis report”, “Development Centre working papers”, 2000, OECD

2. 청주공항 항공 물류 기지화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²⁶⁾

요약

우리나라 항공 물류 기능은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유사시에 대비한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항공 물류 기능의 분산화 필요성을 살펴보고 청주국제공항의 중부내륙 물류 기지화 가능성을 점검해보았다.

(현황) 2023년 우리나라 항공화물 운송실적(3.6천억달러)은 수출입액(12.7천억달러)의 28.2%에 달하는데, 이 중 99.5%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 물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이에 따른 항공물류 인프라 집중 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에는 8개의 국제공항이 있으나, 인천공항과 여타 공항 간의 인프라 격차는 매우 크다. 인천공항의 계류장 면적은 나머지 7개 공항의 2.4배, 화물터미널 면적은 7.1배 넓다. 이에 여타 국제공항의 연간 화물 처리능력(199만t)은 인천국제공항(630만t)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필요성) 국내 항공 물류의 집중화로 인해 지방공항의 화물운송 기능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내륙 물류비 및 운송기간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자연재해, 테러, 기술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공항 운영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공항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 바이오·의약품 등의 신선화물과 반도체 수요증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항공화물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인천공항의 화물 처리능력이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 점검) 청주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대형화물기의 운항이 어렵고 화물처리 시설도 미흡하나, 운항제한시간 없이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공항 주변에 에어로폴리스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물류센터나 배후지역 개발에 유리하다. 청주공항은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가운데 공항과 연계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충청권 지자체들도 활주로 신설, 재정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공항보다 청주공항에 더 근접한 지역의 항공 수출입 물류 수요는 전체 항공운송 물량의 최소 8.7%에서 최대 3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해당 물량이 인천공항 대신 청주공항을 이용할 경우 내륙 운송비는 44.5% 절감되고, 운송시간은 41.2%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청주공항은 중부 내륙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전 국토의 물류 수요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데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지자체들의 강한 의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의 물류 기능 일부를 성공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된다. 다만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활주로, 화물터미널 등)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26)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김광민 팀장 kimkwangmin@bok.or.kr, 김상미 과장 sangmi@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I. 검토배경

항공 물류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 이용하는 주요 운송 수단이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2023년 국내 전체 수출입 화물 중 항공운송 비중은 교역액 기준 28.2%에 달하며, 항공 관련 국제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가 연평균 3~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 글로벌 항공 물류 시장 전망

	전망기간	연평균 성장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18 ~ 2032	3.5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018 ~ 2023	4.4
국제공항협회(ACI)	2023 ~ 2042	3.3
유럽연합 에어버스(Airbus)	2023 ~ 2043	3.9
미국 보잉(Boeing)	2024 ~ 2043	4.0
미국 연방항공청(FAA)	2024 ~ 2044	3.9

자료: 각 기관

우리나라의 항공 물류는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항공화물을 이용한 국내 수출입액의 99.5%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었다. 항공 물류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유사시에 대비한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제공항이 소재한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공 물류를 이용한 지방공항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8개 국제공항을 포함하여 가덕도, 대구경북 신공항 등 신

규 건설이 예정된 공항들은 향후 성장전략으로 항공 물류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최근 청주국제공항은 여객 수가 급증²⁷⁾하고 있으나 항공화물 이용 수요가 미미해 국제공항으로서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항공 물류 중심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항공 물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항공 물류 기능의 분산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 청주국제공항의 중부내륙 물류 기지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II. 국내 항공 물류 현황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운송실적은 전세계적으로 상위권 수준이다. 2022년 우리나라 화물운송 실적²⁸⁾은 세계 4위,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중 6위,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사 중 5위이다.

표 2. 항공화물 운송실적(2022년)¹⁾²⁾

순위	국가별 (CTK)	공항별 (만t)	항공사별 (CTK)
1	미국 (27,507)	홍콩 (419.9)	Federal Express (19,547)
2	중국 (14,232)	옌커리지 (346.2)	United Parcel Service (15,889)
3	카타르 (14,087)	상하이 (311.7)	Qatar Airways (14,267)
4	한국 (13,712)	루이스빌 (306.7)	Emirates (10,153)
5	아랍에미리트 (12,995)	인천공항 (294.6)	대한항공 (9,518)
6	독일 (12,824)		Atlas Air (8,675)

주: 1) () 내는 운송실적

2) 화물톤킬로미터(CTK) = 화물 중량(t) × 운송거리(km)

자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23), 국제공항협회(ACI, 2023),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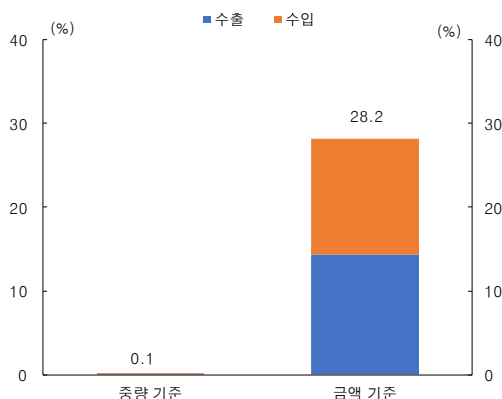
27)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2022년 317만명에서 2023년 370만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4년 450만명을 넘어섰다.(한국공항공사)

28) 화물운송 실적을 표시하는 단위로는 화물톤킬로미터(CTK, Cargo Tonne-Kilometres), 유임톤킬로미터(RTK, Revenue Tonne-Kilometres), 유임톤마일(RTM, Revenue Ton-Miles)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항공운송 화물의 중량(t)과 운송 거리(km 또는 mile)를 곱한 값이다.

1. 항공화물 수출입

2023년 우리나라 항공화물 운송실적(3.6천억 달러)은 수출입액(12.7천억달러)의 28.2%를 차지한다. 다만 중량 기준 항공화물(108.5만t) 비중은 전체 수출입 중량(7.4억t)의 0.1%에 불과하다.

그림 1. 우리나라 항공 물류 이용 비중(2023년)¹⁾



주: 1) 전체 수출입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는 항공 물류가 주로 소형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27.1%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항공화물 비중은 72.1%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기타 집적회로는 교역의 대부분이 항공 물류를 이용한다(각각 99.6%, 99.3%, 98.0%). 한편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계류(교역 규모 21.1%)와 화학공업제품(13.1%)의 경우에도 항공 물류 이용 비중(각각 18.9%, 16.2%)이 높은 편이다.

표 3. 품목별 항공 물류 이용 비중(2023년 금액 기준)¹⁾

(백만달러, %)

	수출입액(A)	항공(B)	(B/A)
전자전기제품	345,892	249,396	72.1
메모리 반도체	69,343	69,054	99.6
프로세서 등	59,316	58,879	99.3
기타집적회로	19,864	19,460	98.0
OLED	14,934	11,012	73.7
기계류	269,406	50,820	18.9
화학공업제품	166,608	27,070	16.2
그 외	492,892	32,664	4.9
전체	1,274,798	359,950	28.2

주: 1) 항공 수출입액 상위 품목(MTI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항공 물류를 이용한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에는 반도체, OLED, 무선통신기기,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전량 항공 물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상위 10개 품목은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수출액 상위 품목과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엔진 등이 수입액 상위 품목에 포함된다.

표 4. 품목별 항공 물류 이용 비중(2023년 금액 기준)¹⁾

(백만달러, %)

수출 상위 10개	비중	수입 상위 10개	비중
메모리 반도체	100.0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99.8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98.8	메모리 반도체	98.5
기타 집적회로반도체	97.3	반도체 제조용장비	78.4
OLED	73.5	의약품	59.7
무선통신기기부품	92.8	기타 집적회로반도체	98.9
의약품	78.7	스마트폰	99.5
전산기록매체	99.7	반도체 제조용장비부품	94.3
인쇄회로	89.4	기타 개별소자반도체	90.8
스마트폰	100.0	전산기록매체	97.7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85.1	항공기 엔진	97.4

주: 1) 항공 수출입액 상위 10개 품목(MTI 6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국내 항공 물류의 집중화

우리나라 항공 물류는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우리나라 항공 물류를 이용한 교역액 중 인천공항이 처리하는 비중은 수출액이 99.6%, 수입액이 99.3%에 달한다. 이외에 김포, 김해 공항 등에서 항공 물류를 이용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비중은 공항별로 0.5%에도 못 미친다.

표 5. 인천공항 품목별 수출입 실적¹⁾²⁾

	수출액				(백만달러, %)
	2020	2021	2022	2023	
인천	182,511	228,850	229,010	182,822	(99.63)
김포	211	16	40	147	(0.08)
김해	274	159	262	520	(0.28)
대구	4	2	2	2	(0.00)
계	183,004	229,027	229,352	183,492	(100.00)

	수입액				(백만달러, %)
	2020	2021	2022	2023	
인천	146,465	185,987	195,858	175,221	(99.30)
김포	250	16	655	655	(0.33)
김해	145	67	334	615	(0.35)
제주	4	4	2	5	(0.00)
대구	1	-	1	6	(0.00)
청주 ³⁾	1,101	1,201	400	3	(0.00)
계	148,147	187,285	197,251	176,45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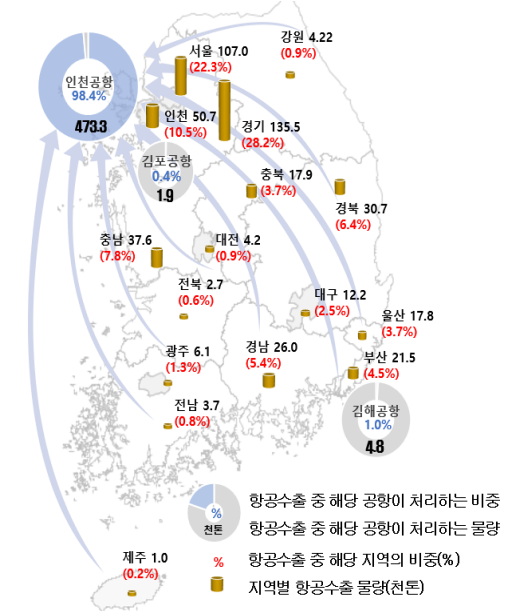
주: 1) () 내는 비중

2) 울산, 포항, 군산, 양양 공항은 수출입액이 미미

3) 2020-2023년 중 비행기(MT 6단위)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물량 기준으로도 국내 항공 수출의 98.4%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된다. 부산, 경남에서 권역 내 소재한 김해공항을 이용한 수출 물량은 각각 2% 정도에 불과하며, 충북은 청주공항을 이용한 수출 물량이 없다.

그림 2. 지역별 항공 물류(수출 물량) 이용 현황(2023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는 인천공항을 항공 물류 시스템의 한 형태인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식의 허브(hub)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²⁹⁾과 이에 따른 항공 물류 인프라 집중³⁰⁾ 등에 기인한다. 허브 앤 스포크는 각각의 출발지(spoke)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중심 거점(hub)에 집중한 후 이를 분류하여 다시 각각의 도착지(spoke)로 배송하는 형태이다. 국제 항공노선에서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항공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항공 물류 수요가 인천공항으로 집중하게 된다.

29) 자세한 내용은 <참고1> 「우리나라 항공 물류 육성 정책」을 참고하길 바란다.

30) 자세한 내용은 <참고2>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인프라 현황」을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 1

우리나라 항공 물류 육성 정책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항공 물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항공 정책 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의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항공 물류 발전방안(2011.6), 동북아 항공 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2015.11), 인천공항 항공 물류 경쟁력 강화방안(2016.12)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항공 물류의 허브로 개발하고 있다.

표 6. 인천국제공항 개발 정책

■ 항공 물류 발전방안(2011)

- 2단계 공항 배후 물류단지(533천㎡) 조성(2012년), 물류단지 투자 기업 임대료 감면, 항공 물류정보시스템(AIRCIS) 고도화를 통한 RFID 기반의 물류 프로세스 구축 등

* 500만달러 이상 5년간 50%, 1,000만달러 이상 5년간 100% 감면

■ 국제 항공 물류 강화방안(2013)

- 항공사, 화물터미널, 공항단지 입주업체 지원(토지 임대료, 차량주차료, 항공기 착륙료 감면 등) 확대, 저온 유통시스템을 갖춘 복합물류센터 건립(배후단지 2단계 지역 33천㎡), 항공 물류와 통관 시스템 통합 등

* 특송화물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수입 특송화물의 검사와 집배송을 공항 내에서 처리하고, 화물 세관신고 및 공항시설 사용신고를 통합하여 효율성 및 신속성을 확대

■ 동북아 항공 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2015)

- 물류단지 내 건폐율(50%→70%), 용적률(100%→350%) 상향 조정, 2단계 부지 개발 추진, 해외 법인의 부가세 환급 확대, 물류단지 입주 절차 간소화 등

■ 인천공항 항공 물류 경쟁력 강화방안(2016)

- 2020년까지 항공화물 물동량 300만t 달성을 위해 지원체계 강화(4개 분야 9개 과제)
- 기업 수요에 맞춘 3단계 물류단지 개발·공급,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공급 기준 개정 및 인센티브 제공, 여객터미널 연계 신선 화물 전용 처리시설 건설 등

최근에는 제3 물류단지와 산업물류기능을 갖춘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12,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제1·2 물류단지의 처리용량 포화에 대비하여 인천공항 내 미계획 부지(356,773만㎡)에 글로벌 특송사 및 항공화물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제3 물류단지를 조성(2027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화물터미널 테스트베드, 콜드체인 등 특화설비, 화물 복합운송센터 등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2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인프라 현황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대형화물기 운항이 가능한 3,000m 이상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공항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공항은 계류장(여객 승하기, 화물 적재·적하, 급유, 점검·정비 목적의 구역), 화물터미널 등 항공 물류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표 7. 우리나라 국제공항별 활주로 길이

(m, 길이×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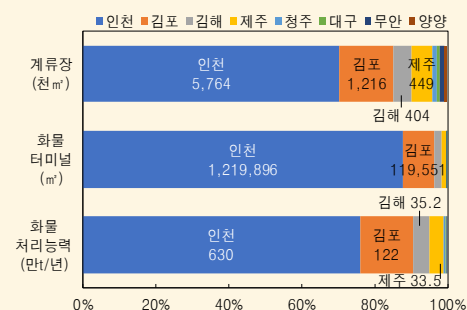
인천	김포	김해 (군 공용)	제주
3,750×60			
3,750×60	3,200×60	2,743×46	3,180×45
4,000×60	3,600×45	3,200×60	1,900×45
3,750×60			
청주 (군 공용)	대구 (군 공용)	무안	양양
2,744×60	2,755×45		
2,744×45	2,743×45	2,800×45	2,500×45

자료: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과 여타 국제공항 간 인프라 격차는 매우 크다. 인천국제공항은 나머지 7개 국제공항보다 계류장 면적(각각 5,764천㎡,

2,425천㎡)은 2.4배, 화물터미널 면적(1,219,896㎡, 171,657㎡)은 7.1배 넓다. 이에 따라 여타 국제공항(199만t)의 연간 전체 화물 처리능력은 인천국제공항(630만t)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림 3. 국내 국제공항별 인프라 및 화물 처리능력



자료: 한국항공협회

운항 시간에 제한(Curfew)*이 없는 공항은 인천공항 이외에 청주와 양양 공항 2곳이다.

*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Noise) 문제 등으로 야간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시간

표 8. 우리나라 국제공항별 운항 제한시간

김포	김해 (군 공항)	제주	대구 (군 공항)	무안
23:00~ 06:00	23:00~ 06:00	23:00~ 06:00	00:00~ 05:00	21:00~ 08:00

자료: 한국항공협회

III. 국내 항공 물류 기능의 분산화 필요성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항공 물류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항공화물 운송실적을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만들었으나, 이에 따른 국내 항공 물류의 집중화는 경

제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유사시에 대비한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경제적 비효율성)

우선 국내 항공 물류 기능의 집중화는 지방 공항, 기업 등의 입장에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지방 공항의 화물운송 기능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투자 대비 수익 악화를 초래하며, 장거리 이동으로 기업들의 내륙 물류비 및 운송 시간을 증가시킨다. 통계의(2020)는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약 20%를 차지(중량 기준)하는 동남권 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인천공항 집중에 따른 내륙 운송비 상승과 시간 낭비가 무역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유사시 대비)

또한 단일 허브 공항의 위기 발생에 따른 운영 중단 및 물류 대란 등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 테러, 기술적 문제, 사회적 불안 등 다양한 이유로 공항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한 유럽 전역의 항공편 운항 중단, 2016년 폭탄테러로 인한 브뤼셀(벨기에) 공항 폐쇄, 2018년 태풍 피해로 인한 간사이(일본) 공항 폐쇄 등으로 항공 운항의 위기 발생에 따른 대체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된 사례가 있다.

특히 인천공항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³¹⁾에 대한 우려도 큰 편이다.

31) 2024년 6월 1일~10월 3일 중 북한 오물 풍선으로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이 17차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150대의 항

표 9. 공항 운영 중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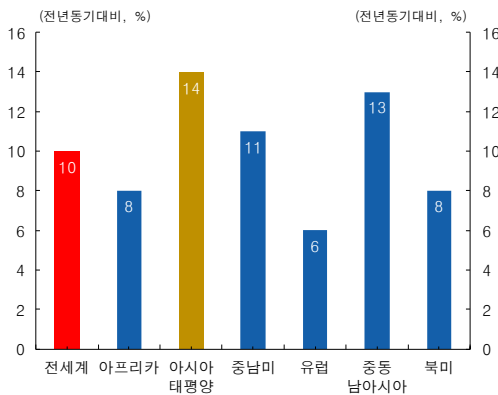
(백만달러, %)

시점	공항	주요내용
2010.4.14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약 1주일 동안 유럽 전역의 공항 운항 중단
2016.3.23	브뤼셀 자벤트(벨기에)	3.23일 자벤트 공항의 2차례 폭탄테러 발생으로 공항 운영 중단 완전 복구에 3~4개월 소요
2018.9.4	간사이(일본)	태풍에 따른 활주로 침수, 연결교 파손 등의 피해로 공항 운영 중단 연결교 복구에 7개월 소요

자료: 언론 보도

또한 해상 물류 시스템의 불안정한 상황 발생으로 항공이 해상 운송을 대신하면서 인천공항에 물류 수요가 단기적으로 집중될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대체공항이 필요할 수 있다. 최근 중동 갈등(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운항 선박 공격 지속)과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2024년 8.22일 공지 후 10.1~3일 중 파업 진행) 등으로 항공 물류가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글로벌 항공 운송량이 10% 이상 늘어난 사례가 있다.³²⁾

그림 4. 글로벌 항공 운송량 변화(2024.9월 마지막 2주간)



자료: WTO

공기 이착륙 지연 피해가 발생하였다.

32) 이외에도 2020년대 들어 수에즈 운하의 대형 선박 좌초 사고(2021.3월), 파나마 운하의 가뭄(2023.하반기), 볼티모어 항구의 교량 붕괴(2024.3월) 등 해상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킨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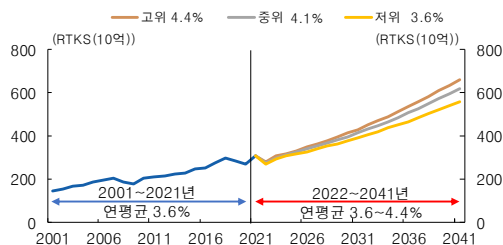
(2Hub 시스템의 장점)

해외 대형 항공사들은 경제적 효율성 향상, 항공 운송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한 국가 내에서도 2개 이상의 허브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뮌헨 공항을, 영국 브리티쉬 에어웨이는 히드로와 개트윅 공항을, 미국 델타항공은 애틀란타와 미네애폴리스 공항을, 중국 에어차이나는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을 허브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2Hub 시스템은 항공 운항 수요 분산을 통해 특정 공항의 혼잡도 완화 및 지역별 접근성 향상, 국토 균형 발전 등에 기여한다.

(항공 물류의 지속적 성장)

아울러 항공 물류의 성장 전망도 국내 항공 물류의 분산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항공 물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 등으로 크게 확대된 바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등의 신선 화물과 반도체 수요 증가³³⁾, 전자상거래 확대³⁴⁾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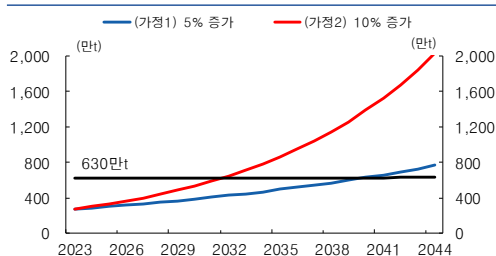
그림 5. 글로벌 항공 물류 전망



자료: Boeing

인천공항의 화물 처리능력(630만t/년³⁵)은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상반기 중 인천공항의 화물 운송실적(144.7만, 수화물 제외)은 전자상거래 및 환적화물 증가³⁶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늘어났다. 이러한 성장세를 가정할 경우 인천공항의 화물 운송실적은 2032년에 화물 처리능력을 넘어서게 되며, 가정을 약화하여 연평균 5% 성장만 가정해도 2040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림 6.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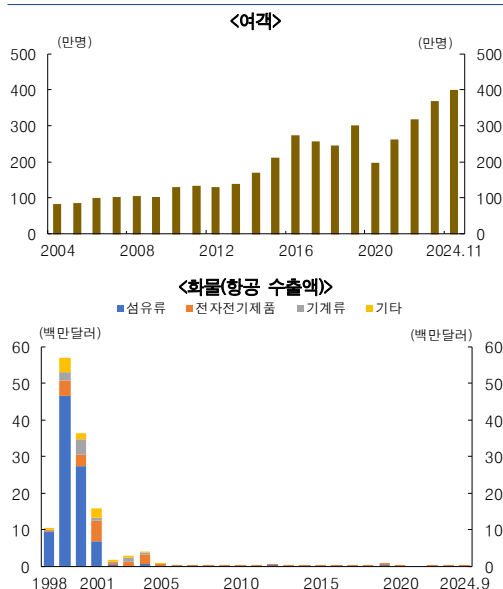
자료: 인천공항공사(2023년 실적)

IV. 청주공항 항공 물류 기지화 가능성 점검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 이후 여객 운송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물류 부문 성장은 미흡하였다. 여객 운송은 연간 이용객이 2007년 100만명, 2015년 200만명, 2019년 300만명을 넘어선 후 2024년 11월에는 400만명을 돌파하였다. 반면 화물운송은 개항 초기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등을 중심으로 항공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시점부터 운송실적이 큰 폭으로 줄어든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7. 청주공항 이용 추이



자료: 한국공항공사, 한국무역협회

1. 인프라 측면

청주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대형화물기의 원활한 운항이 어렵다. 청주공항 활주로는 2,744m로 대형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3,000m보다 길이가 짧다. 2010~2019년 중 청주공항은 화물기를 운항하였으나 활주로 길이 문제로 화물을 80% 정도만 적재해 운항하였

33)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지난 10년(2014~2023년)간 56.9% 증가하였으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사물인터넷(IoT) 등의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24년에는 6,11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34) 글로벌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은 2014년 1.3조달러에서 2023년 5.8조달러로 333%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6.3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eMarketer)

35) 2024년 12월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공사가 완료(4단계 사업)되면서 화물 처리능력이 기존 연간 500만에서 630만으로 확충되었다.

36)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인천공항의 해상-항공(Sea-Air) 복합운송 화물이 크게 증가하였다. 인천공항의 해상-항공 화물 실적은 2022년 6.8만에서 2023년 9.8만으로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상반기 중에만 5.1만을 기록하였다.

다. 운항 실적도 2011년 44편(1,687t), 2012년 125편(3,715t)으로 미미하였으며,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9년에 화물기 운항이 중단되었다.

화물처리 시설도 미흡하다. 청주공항의 국제 화물터미널 면적(637㎡)은 인천국제공항(1,219,896㎡)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며, 연간 국제 화물처리능력(0.5만t)도 인천공항(630만t)의 0.1%에 불과하다. 민·군 복합공항³⁷⁾으로의 한계도 있다. 군과 공용으로 활주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가 많은 시간대의 항공편 배정 및 증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청주공항은 운항제한시간(Curfew)에 제약을 받지 않아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청주공항은 에어로폴리스 조성으로 물류센터나 배후지역 개발에 유리하다. 에어로폴리스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구역이다. 현재 1, 2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3지구(2029년 준공 목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에어로폴리스는 향후 청주공항 확장 시 관련 시설 용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청주공항 인프라(2024.12월)

청주 (군 공용)		인천
면적 (천㎡)	부지 1,910 계류장 120	부지 56,668 계류장 5,764
활주로 (길이×폭, m)	2,744×60 2,744×45	3,750×60 3,750×60 4,000×60 3,750×60
운항횟수 (회/년)	전체 141,000 민항 60,000	전체 600,000
화물터미널 (㎡)	2,257	1,219,896 ¹⁾
화물처리능력 (만톤/년)	3.8	630.0

주: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2022-60호),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부지 전체
자료: 한국항공협회

표 11. 에어로폴리스 개발 계획

	면적	입주 및 공사 현황
1지구 (준공)	13.2만㎡ (4만평)	• 3개 필지 중 2개 필지 분양 (RH포커스 등 헬기 정비업체)
2지구 (24년 준공)	40.9만㎡ (12.4만평)	• 119항공정비실 건립(3.8㎡) • 항공부품 제조업체 입주 예정
3지구 (29년 목표)	112.4㎡ (34만평)	• 2024.3월 기본계획 승인

자료: 충청북도

그림 8. 에어로폴리스 지구별 위치도



자료: 언론보도(국토교통청)

37) 청주공항은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국방부가 통제·관리하고 있다. 2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 민간 항공기 슬롯(공항시설, 관제 등 수용 능력을 고려해 설정되는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은 시간당 7~8회에 그치며 인천국제공항(70회), 김포국제공항(41회), 김해국제공항(18~26회) 등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2. 정책적 측면

충청권 지자체들은 재정지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는 청주공항의 항공수요 예측, 민·군 복합공항의 슬롯 문제³⁸⁾, 활주로 신설의 필요성 및 신설 후보지, 공역³⁹⁾ 검토 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청주공항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선 충청권 각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대체로 국제 항공노선 신규 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이나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청주시는 청주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의 항공기 재산세 부과액의 20%(신규 등록 항공기는 5% 추가)를 지원한다.⁴⁰⁾

충청권 행정협의회(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지사)는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공동협력 추진 안건으로 의결(2024.10월)하고 국민 서명운동, 공동토론회, 민간단체 촉구대회 등 대국민 홍보와 정부 설득 작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11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 민간사회단체장, 항공대학 총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출범(2023.12월)한 바 있다.

특히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

용 활주로(길이 3,200m, 폭 60m) 건설을 위한 특별법(청주공항 활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표 12. 충청권 지자체의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내용

조례명	지원내용
청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장 등록 항공기 재정지원(21~23년, 38억원) · 거점 항공사 임차료 및 신규 취항 재정지원(22~24년, 4억원) · 청주국제공항 셔틀버스 운행 및 홍보지원(22~24년, 1.4억원)
충북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제 항공노선 운항 손실금(08~12년, 4억원) · 신규 국제 정기노선 지원(19~24년, 노선별 2~5억원)
대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제항공노선 운항 손실금(08~12년, 1.86억원)
충남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제항공노선 운항 손실금(08~12년, 3억원)

자료: 충청북도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청주공항과 연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청주공항에 대한 전국 각지의 접근성 개선은 인천공항의 항공운송 집중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충북에서는 도로④ 중부고속도로 확장(2030년 완공 예정), 도로⑦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신설(2030년 완공 예정), 청주~제천을

38) 슬롯(slot)은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공항당국은 시간당 운항 제한 횟수(인천공항 70회, 김포공항 41회, 청주공항 7~8회) 내에서 항공사들에게 슬롯을 배정하는데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국방부(공군)와 국토교통부가 매해 슬롯 협의회를 거쳐 배분한다.

39)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 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이다(공역관리규정). 청주공항 주변 공역은 비행금지구역과 군의 비행훈련 등으로 신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공역 확보에 제한이 있다.

40) 2024년 6월 기준으로 청주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53.7억원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31대) 46.9억원, 아시아나항공(4대) 4.2억원, 티웨이항공(6대) 1.3억원, 에어로케이(6대) 4,200만원, 이스타항공(5대) 7,900만원 등이다.

연결하는 도로⑩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신설 (2026년 완공 예정), 철도① 충청권 광역급행 철도(CTX, 2023년 개통 목표) 건설, 철도③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 연결 사업(2025년 상반기 착공 예정), 철도⑧ 청주공항~제천 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 등 각종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림 9. 충청북도 교통망 계획



자료: 박원태·임동균(2024)

3. 수요측면

청주공항의 항공 물류 수요는 전체 항공운송 물량의 최소 8%에서 최대 3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청주공항이 우리나라 제2의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여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이 우리나라 항공 운송량을 양분한다는

가정하에서 추산한 것이다. 2023년 수출입 기준으로, ① 항공 물류 수요를 충청권으로 한정할 경우 항공 수출입 물량은 우리나라 항공운송 물량 전체의 8.7%이고, 이는 금액 기준으로 18.3%에 해당한다. ② 권역을 확대하여 경기 남부(평택, 안성, 오산, 이천, 여주, 양평), 강원(강릉, 원주, 동해, 영월, 삼척, 정선, 평창, 태백, 횡성) 일부를 포함하면 수출입 물량은 12.4%, 금액은 27.0%로 늘어난다. ③ 여기에 광주·전라, 부산·대구·울산·경상 전체를 포함하여 청주공항의 항공 물류 이용 수요를 최대로 추산할 경우 수출입 물량은 32.4%, 금액은 38.7%로 크게 증가한다.

표 13. 권역별 항공 수출입 물량 및 금액(2023년)

	(천, 백만달러, %)			
	수출입			
	물량	비중	금액	비중
전국	1,085	100.0	359,950	100.0
수도권	755	69.6	250,419	69.6
서울·인천·경기 북부 ¹⁾	718	66.2	219,551	61.0
②경기 남부	37	3.4	30,869	8.6
강원권	7	0.6	1,016	0.3
③강릉·동해·원주 등 ²⁾	4	0.3	380	0.1
①충청권	94	8.7	65,982	18.3
④광주·전라권	24	2.2	13,131	3.6
④부산·대구·울산·경상권	192	17.7	28,942	8.0
①+②+③	12	1.1	460	0.1
①+②+③+④	135	12.4	97,230	27.0

주: 1) 남부는 평택, 안성, 오산, 이천, 여주, 양평, 북부는 이리 지역
2) 강릉, 원주, 동해, 영월, 삼척, 정선, 평창, 태백, 횡성
자료: 한국무역협회

실제로 항공 물류 기능이 활성화되면 청주공항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충북 기업 대상으로 항공운송 시 청주공항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모니터링⁴⁾한 결과, 응답업체의 대부분은 신속한 배송을 위해 항공 물류를 이용하고 있으며, 내륙 운송 시간 감축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청주공항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 부품, 반도체 특수가스, 태양광 패널 등을 제조하는 지역 내 일부 기업은 수출입 품목은 빠른 배송이 필수적이므로 청주공항의 항공 물류 기능이 확대되길 기대하였다.

다만 신속한 배송 이외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유가 노선이 다양⁴²⁾할 뿐만 아니라 특수 화물 처리시설 등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청주공항 시설 확충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4. 충북지역 기업 대상 항공 물류 활용 사례

업체	주요 제품	항공 물류 이용 사유	청주공항 이용의사
A사	컴퓨터 부품	· 신속한 배송 · 노선이 다양(인천공항)	· 시설 확충 시 이용 가능
B사	웨이퍼 등	· 내륙 운송업체 및 보세 창고 소재(인천공항)	· 고객사 지정 공항 이용
C사	반도체 특수가스	· 신속한 배송 필요 시 · 해운 물류 주로 이용 · 특수화물 운송 시설 구축(인천공항)	· 시설 확충 시 이용 가능
D사	태양광 패널	· 신속한 배송 필요 시 · 해운 물류 주로 이용 · 노선이 다양(인천공항)	· 시설 확충 시 이용 가능
E사	치과치료 장비 등	· 노선이 다양(인천공항) · 수출국 130여개 국가	· 시설 확충 시 이용 가능
F사	플라스틱	· 신속한 배송(불량대체품 신속 납품) · 해운 물류 주로 이용	· 비용 절감 시 이용 가능
G사	코팅 필름지	· 신속한 배송 · 해운 물류를 주로 이용	· 비용 절감 시 이용 가능
H사	터보 선풍기	· 신속한 배송 · 해운 물류를 주로 이용	· 시설 확충 시 이용 가능
I사	2차전지	· 신속한 배송(부품 수입) · 노선이 다양(인천공항)	· 시설 확충 시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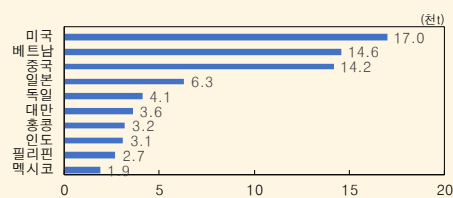
자료: 자체조사

참고 3

충청권 항공 수출입 대상국

충청권의 항공 수출입 대상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다양하다. 2023년 충청권의 항공 수출입 국가는 물량 기준으로 미국(17.0천t)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14.6천t), 중국(14.2천t), 일본(6.3천t), 독일(4.1천t), 대만(3.6천t), 홍콩(3.2천t), 인도(3.1천t) 순이다. 현재 청주공항은 여객 운송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항편은 주로 아시아 주요국 관광도시 위주이며, 충청권의 주요 항공 수출입 대상국인 미국, 독일, 인도 등에 대한 노선은 없는 상황이다.

그림 10. 충청권 항공 수출입 상위 10개국(2023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5. 청주공항 국제 항공편(2023~2024년)

국가	도시
일 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¹⁾
중 국	장가계, 연길, 상해 ¹⁾ , 하얼빈 ¹⁾ , 선양 ¹⁾ , 타이위안 ¹⁾
대 만	타이페이
캄보디아	프놈펜 ¹⁾
베트남	다낭, 나트랑, 푸꾸옥 ¹⁾
필리핀	클락필드, 세부 ¹⁾ , 마닐라 ¹⁾
태 국	방콕
몽 골	울란바토르 ¹⁾

주: 1) 2024년 신설 노선

자료: 한국공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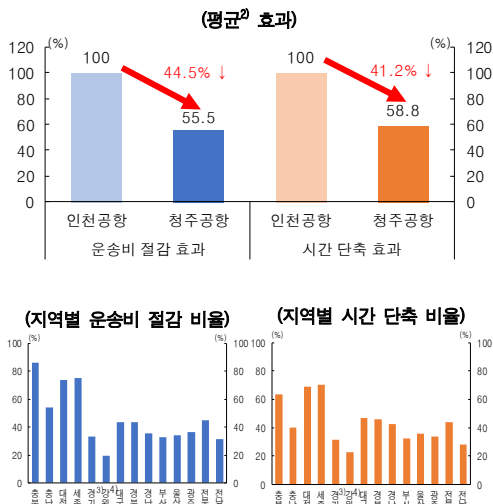
41) 항공화물 운송 실적이 있는 지역 내 일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42) 자세한 내용은 <참고3> 「충청권 항공 수출입 대상국」을 참고하길 바란다.

인천공항보다 청주공항이 가까운 수출입 기업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경우 내륙(도로) 운송비와 운송 시간은 시·도별 평균 4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시·군·구별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의 거리를 비교하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역을 선별한 후 해당 지역의 2023년도 항공 수출입 물량의 국내 운송비 및 운송 시간을 추산하였다.⁴³⁾

특히 충청권의 경우 운송비 절감 효과는 평균 70% 이상, 운송 시간 단축 효과는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북, 전북의 경우에도 40% 이상의 높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그림 11. 청주공항 이용에 따른 내륙 운송비¹⁾ 절감 및 운송 시간¹⁾ 단축 효과



주: 1) 인천공항까지의 운송 비용 및 시간을 100으로 계산
 2) 가중치(지역별 항공 수출입 물량) 적용
 3) 평택, 안성, 오산, 이천, 여주, 양평을 포함
 4) 강릉, 원주, 동해, 영월, 삼척, 정선, 평창, 태백, 횡성을 포함
 자료: 자체 추정

참고 4

청주공항 이용에 따른 내륙(도로) 물류비(시간) 절감 효과 추산 방법

1. 국내 항공 물류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공항의 운송량을 청주공항이 분할하여 담당할 경우 내륙(도로) 물류비와 운송 시간 절감 효과를 추산하였다. 인천공항보다 청주공항이 가까운 시·군·구를 선별(오상진(2022))하여 거리 및 시간상 인접한 공항을 이용(청주공항 이외의 공항은 제외)하는 것이 내륙 물류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가정하에 인천공항과 청주공항 이용에 따른 내륙 물류비와 운송 시간 차이를 절감 효과로 산정하였다.

① 청주공항 근접 지역 선별: 시·군·구별로 인천공항과 청주공항 간의 거리, 시간*을 비교(거리, 시간 모두 단축되는 경우)하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일부)을 제외하고 경기의 평택, 안성, 오산, 이천, 여주, 양평, 그리고 강원도의 강릉, 동해, 원주, 영월, 삼척, 태백과 이외의 모든 지역이 청주공항에 더 인접한 것으로 선별되었다.

*2개 공항으로의 지역별 이동시간은 시간 단축 효과 추산에도 이용

② 단위당(1t당 1km 운송 시) 물류비 산정: 국내 내륙(도로) 물류비는 운송 단위와 거리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단가를 단위(t)와 거리(km)로 나누어 1t당 1km 운송 시 물류비를 산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단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운임 자료(2023년 화물 운송 시장동향)를 이용하였다. 산정 결과

43) 자세한 내용은 <참고4> 「청주공항 이용에 따른 내륙(도로) 물류비(시간) 절감 효과 추산 방법」을 참고하길 바란다.

1t 화물을 1km 운송시 운임은 화물차의 크기별로 1t차는 737원, 2.5t차는 309원, 5t차는 311원을 추산에 적용하였다. 화물 단위가 클수록, 운행 거리가 길수록 단위당 운송 비용은 낮아진다.

③ 선별 지역의 2023년 항공화물 내륙(도로) 운송비 추산: 지역별 항공 화물량(t)에 지역에서 공항 간 거리와 단위당 운송비(1t당 1km 운송단가)를 곱하여 추산하였다.

2. 다만 동 추산 방법에 따른 효과는 거리, 중량만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므로 화물의 부피와 성질(화학품, 신선식품 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간 절감 효과에 대한 편익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V.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인천국제공항은 정부의 동북아 허브 육성 정책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항공 물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중화는 경제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와 유사시에 대비한 대체공항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아울러 향후 항공 물류 수요는 바이오·의약품 등의 신선 화물과 반도체 수요 증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및 환적화물 증가 등으로 화물 운송량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인천공항의 화물 처리능력은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주로 길이 등 인프라 측면에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정도가 항공 물류 기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항 위치와 기반시설 격차 등을 고려할 때 항공 물류 수요의 인천공항 집중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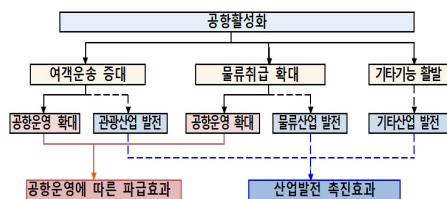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과의 기반시설 격차가 크지만 중부 내륙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전 국토의 물류 수요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데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지자체들의 강한 의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통망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의 물류 기능 일부를 성공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된다.

청주국제공항의 항공 물류 기능 확대 등으로 공항 운영이 활성화되면 시설 확충에 따른 규모 확대와 함께 물류산업 성장이 촉진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화물 운송량 증가로 공항의 운영 규모가 확대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투입이 늘어나는 데다 항공 물류업체 유입 등으로 항공 물류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총생산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⁴⁴⁾

특히 지역 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수출입 시 대부분 항공 물류를 이용하므로 운송 시간 단축을 통한 내륙 물류비 절감 등으로 관련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44) 관세청(2018)은 5천평 규모의 글로벌 배송센터(GDC) 1개 유치 시 관련 물량 처리(반입분류·보관·작업·통관·배송 등)에만 연간 300~400명의 일자리와 5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12. 공항 활성화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자료: 김태섭(2015)

2. 시사점

청주국제공항을 우리나라 항공 물류의 제2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및 노선 확대와 함께 수요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형화물기 운항이 가능한 민간 활주로 건설을 통해 민·군 공용공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화물터미널 시설을 기업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청주공항 이외에도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이 물류 기능을 포함한 국제공항으로 각각 2029년, 2030년에 개항을 앞두고 있어 항공 물류 수요의 빠른 선점이 중요하다.⁴⁵⁾ 또한 여객 수가 급증한 현시점이 청주국제공항을 제2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능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보여진다.

(인프라 확충)

대형화물기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특수화물 처리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 대부분이 항공화물 운송 시 거리가 먼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내륙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청주공항의 물류 기능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먼저, 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활주로 확보가 중요하다. 다양한 항공 물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에 적합한 대형항공기 운항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청주공항 활주로는 대형항공기 이륙⁴⁶⁾이 어렵다. 또한 민·군 공용공항으로 슬롯 배정 및 공역 문제 등으로 군과의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향후 항공노선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활주로 확보 노력⁴⁷⁾이 필요하다.

더불어 항공화물 처리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청주공항의 화물 처리능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 화물터미널의 대규모 확충⁴⁸⁾과 함께 충청지역의 주된 항공화물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바이오, 전기장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운송에 필수적인 시설을 먼저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5) 자세한 내용은 <참고> 「지자체별 지방 공항 활성화 전략」을 참고하길 바란다.

46) 항공기 등급별로 이륙을 위한 활주로 길이가 상이하다. C~D급 소형항공기(A321, B737 등)는 활주로 길이가 2,600m 이하이지만, E~F급 대형항공기(A380, B747 등)는 3,000~3,380m가 필요하다.

47) 청주공항 활주로는 노후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청주공항 활주로는 대한 포장 표면 불량 구간 평가 결과 2017년 671m에서 2021년 1,753m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향후 4년 내 불량 예상 면적이 5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태임 동균(2023)은 활주로 포장 노후화에 대한 재포장과 더불어 노선확충 및 대형항공기 운항을 위해 활주로 연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48)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전자상거래 물류 처리에 중점을 둔 글로벌 유통센터(GDC) 건설,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온도조절 물류 상품) 화물을 위한 콜카고 시설, 고위험 배터리 운송을 위한 인증 획득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 운송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노선 확대)

다양한 국가로의 물류 수요 충족을 위한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 현대의 국제 교역은 다양한 대륙과의 연결이 중요하므로 기업의 물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노선 확대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기업 대상 항공 물류 활용 사례 조사에서 다양한 노선⁴⁹⁾ 때문에 인천공항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물류 수요 확보)

인프라 확충 및 노선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항공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육상 운송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으로 항공화물 수요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배송의 신속성을 우선하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수요처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수요 확보 방안을 먼저 모색한 후 인프라 확충 등과 함께 점진적으로 물류 수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청주공항의 연간 국제 화물처리능력(0.5만t)을 활용할 수 있는 정기 화물기 운항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운항 중인 국제 항공편과 충청권의 수출입 수요를 고려할 때 일본(200t/월), 중국(300t/월)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600t/월)으로까지의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⁵⁰⁾

또한 물류 기능 유지를 위해 여객기 벨리칸고를 이용⁵¹⁾하고 동 서비스 이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⁵²⁾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박보미 외(2024)는 청주공항에서 운항하는 소형항공기 벨리칸고를 이용하면 항공기당 약 1t의 항공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1일 14t, 연 4,600t의 항공화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기타)

활주로 신설 및 연장, 화물터미널 확충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설득력 있는 논리 마련이 중요하다. 공항은 기간 산업으로 국비 투입으로 진행된다. 청주공항의 항공 물류 기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의 여객터미널, 주차장, 주기장 등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화물터미널, 활주로 신설 및 연장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두었다. 터미널 확장과 관련하여 국내선(2027년 완공 목표)은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국제선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차시설은 유희부지를 활용(597면 확충)하고 제2 주차빌딩(2027년 완공 목표로 4층 1,100면 규모의 타당성 평가 실시 예정)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기장(2025년 완공 목표로 3~4개 규모) 확충도 예정되어 있다.

49) 인천공항의 경우 25개 항공사가 43개국 107개 화물 전용 노선을 운영 중이며, 여객기를 포함하면 53개국 152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 청주공항은 아시아 지역의 8개국 노선만이 존재한다.

50) 자세한 내용은 <참고6> 「청주공항 정기 화물기 운항 수요 검토」를 참고하길 바란다.

51) 여객기의 화물 탑재 공간인 벨리칸고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는 여객 수화물의 양에 따라 off load(적재공간 부족으로 화물이 다음 항공편으로 이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52) 인천공항공사는 화주에게 국외 반출 신고처리 화물 1당 5만원(화주별 최초 1회 최대 3억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 비효율성, 유사시 대체 공항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시계에서 국내 공항의 1hub 육성 정책을 2hub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유연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5

지자체별 지방 공항 활성화 전략

지방 공항이 소재한 각 지자체는 항공 물류를 활용한 지방 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신공항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공항 활성화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산·경남은 가덕도 신공항(2029년 개항 예정)과 부산항을 연계한 해상-항공 복합운송(Sea-Air) 시스템을 계획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대형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길이의 활주로(3,500m)와 일정 규모의 화물터널(17,200㎡)을 건설할 예정이다. 다만 거점 항공사 부재,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 등의 한계도 있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신공항(2030년 개항 예정, 활주로 3,500m)과 구미국가산업단지 등의 항공 물류 수요를 연계한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물류기지(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 규모 16,000㎡) 조성 및 상용화주터미널*(스위스포트 코리아, 규모 9,900㎡)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4.3월)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다만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 갈등이 있다.

* 상용화주터미널이란 화물터미널과는 별개로 국가로부터 자체 보안 검색 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운영하는 터미널로, 이곳에서 보안 검색을 받으면 항공기로 직접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음(박보미 외(2024))

표 16. 신공항 건설 계획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활주로	3,500m × 45m	3,500m × 46m 2,744m × 46m
계류장	1,006,431㎡, 74대	296,000㎡, 26대
여객터미널	200,680㎡	102,078㎡
화물터미널	17,200㎡	9,865㎡ ¹⁾
접근 도로	연장 9.3km	연장 9.3km
교통 철도	16.5km	16.5km
주차장	10,718대	3,113대
항행안전시설 ILS(계기착륙시설) 등 ILS(계기착륙시설) 등		

주: 1) 최종 결정은 향후 전문가 검토기구 및 통합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통해 진행 예정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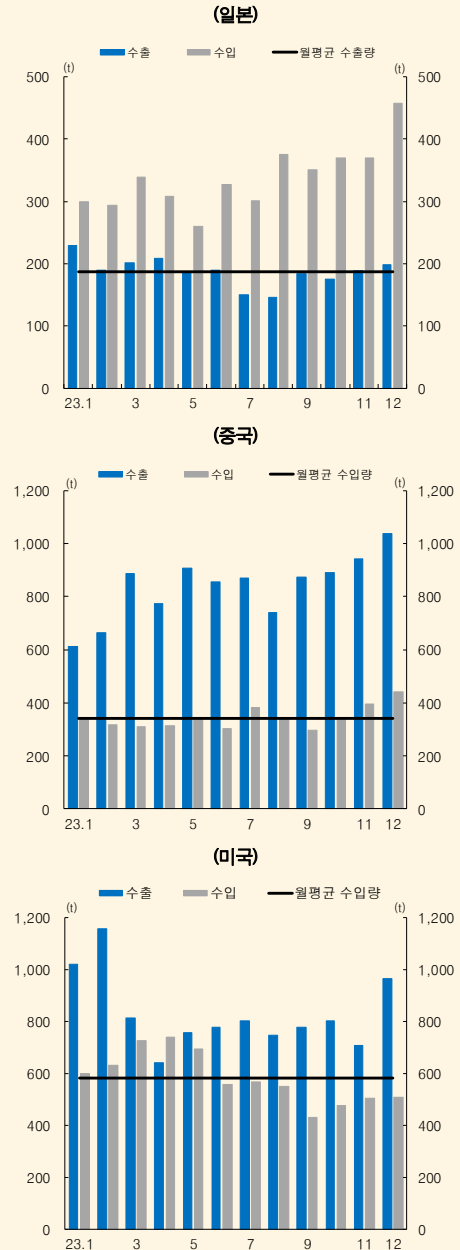
청주공항 정기 화물기 운항 수요 검토

정기 화물기 운항을 위해서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다. 항공사는 노선별로 수출 수요와 더불어 정기적인 수입 수요가 확보되어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 정기 화물기의 운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충청권의 항공 수출입 수요를 살펴보면, 일본, 중국, 미국 등의 경우 월별로 일정 규모의 수출입 규모가 있으므로 동 수요를 청주공항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정기 화물선 운항이 가능해 보인다. 2023년도 충청권 기업은 일본에 월평균 187t을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 330t을 수입하므로 매월 약 200t 규모가 항공사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하는 물량 수준이다. 중국은 300t 정도이다. 현재 청주공항은 일본과 중국으로의 노선이 있으므로 두 국가의 정기 화물선 운항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월평균 600t) 등으로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청주공항에 운항 중인 항공기(2023년 기준, 소형항공기(B738, A320, A321, A220)) 규모를 감안하여 이와 유사한 소형 화물전용기(B737 등) 운항을 유도할 경우 약 20t의 화물 적재가 가능하므로 주 1회 정기 화물기가 운항된다면 월 160t(왕복 40t*4주)의 정기적인 항공 물류 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13. 월별/국가별 충청권 항공 수출입
(2023년 물량기준)



주: 충청권(충북, 충남, 대전, 세종) 수출액 상위 10개국, 수입액 상위 10개국을 선별하고, 월별 수출입량이 동일하게 많은 상위 3개 국가를 선별
자료: 한국무역협회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국토부, 항공물류 활성화 추진” 보도자료, 2011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16
김태섭	“청주국제공항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방안”, 2015, 한국은행 충북본부
박보미 · 안덕배 · 박진서 · 민연주	“항공물류 공급망 전략적 확충방안”, 2024, 한국교통연구원
박원태 · 임동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연구: 공항시설, 접근교통 및 운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항공운항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4, 한국항공운항학회
송계의	“동남권 항공화물 활성화 요인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6권 제2호, 2020, 한국항만경제학회
오상진	“청주국제공항 항공화물 수요분석 및 국가 제2 화물거점공항 육성방안”, 2022, 충북연구원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전자상거래 See&Air 2분기 실적 및 국내 각 항만별 Sea&Air 운송시간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
충청북도	“2024년 청주국제공항 항공사 신규 국제정기노선 재정지원 계획” 보도자료, 2024
한국공항협회	“2024 포켓 항공현황”, 2024
한국교통연구원	“2023 화물운송시장동향 연간보고서”, 2024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24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World Airport Traffic Forecasts 2023-2052”, 2024
Boeing	“World Air Cargo Forecast 2022-2041”, 2024
Emarketer	“2024 Trends & Statistics”, 2024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erospace Forecasts FY 2024-2044”, 2024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World Air Transport Statistics”, 2023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Long-term Traffic Forecasts”, 2018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WSTS Blue Book Data”, 2024
World Trade Organization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2024

3. 美 신정부 관세정책이 충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⁵³⁾

요약

美 신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우선주의 기조 하에 대부분 국가와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최근 미·중 간 관세협상 등으로 무역갈등 상황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조치만으로도 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데다 향후 상호관세 유예 종료, 충남지역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 시행, 그리고 관세정책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싼 미국 사법부와 행정부 간 법적 공방 등이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충남지역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미국의 관세부과는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기본관세(세율: 10%)보다 높은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對美수출 비중도 높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美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충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세의 파급경로를 ①관세경로, ②가격경쟁력경로, ③불확실성경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美 신정부 관세정책으로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0.5~1.5%p 하락하고, 이에 따라 GRDP 성장률도 0.2~0.7%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이 감소하여 생산이 위축되고(관세경로)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 투자 등이 위축된 데(불확실성 경로)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충남 수출은 미·중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다소 개선되는 효과(가격경쟁력경로)가 있으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對美관세 부과 및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의한 부정적 효과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충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정부 및 기업이 협력하여 실효성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자체 주도로 관세 상담 및 문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세 정보, 금융지원, 대체시장 개척 등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충남지역 수출 기업들은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여 제조업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 정책당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

53)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남현우 과장 hwnam@bok.or.kr, 허인지 조사업 iheo@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I. 검토배경

美 신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기조 하에 강력한 관세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미국은 관세정책이 무역·재정 적자 축소 및 제조업 부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국가와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최근 美中 관세협상 등으로 무역갈등 상황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조치 만으로도 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데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표 1. 美 신정부 주요 관세정책

분류	대 상	관세율	시행일
상호관세	중국	125% → 10% ²⁾	4.9 → 5.14일
기본관세	전 세계 ¹⁾	10%	4.5일
품목별 관세	철강·알루미늄	25%→50% ³⁾	3.12일
	자동차(부품)	25%	4.3(5.3일)
	반도체·의약품 등	추후발표	
국가별 관세	캐나다·멕시코	25% ⁴⁾	3.4일
	중국	10% ²⁾	2.4일
		10% ²⁾	3.4일

주: 1) 캐나다·멕시코 등 일부 국가 및 품목별 관세 대상은 미적용

2) 미국의 對中수입 총 추가 관세율은 30%

3) 6.4일부터 50%로 상향

4) USMCA 규정을 준수하는 품목은 면제

자료: 美백악관

이와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에 따라 주요 국가들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제조업·수출 비중이 높은 충남지역 경제는 하방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충남지역 對美수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수출·제조업 위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충남기업 투자 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편 충남 수출에 대한 관세율은 미·중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

율보다 낮기 때문에 미국 및 중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수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충남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았다. 특히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정책이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정책이 충남 제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美 신정부 관세정책 동향 및 주요 특징

1.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 동향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관세정책은 ①상호·기본 관세, ②품목별 관세, ③국가별 관세와 같이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4월 초 對中 상호관세 시행과 이에 따른 美中 간 보복관세로 무역갈등이 정점에 달하여 양국간 관세율(美→中 145%, 中→美 125%)은 무역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최근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상당폭 완화되었다(美→中 30%, 中→美 10%). 여타 국가들은 상호관세 시행이 90일간 유예됨에 따라 10%의 기본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철강·자동차와 같은 일부 품목에는 기본관세보다 높은 2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표 2. 美 신정부 관세정책 현황 및 주요국 보복조치¹⁾

분류	국가	美관세		보복관세	
		품 목	관세율	품 목	관세율
상호 관세 ²⁾	중국	■ 전품목 ⁴⁾ (상호 및 보복관세 ^{125%} [4.9-5.13일] → 상호관세 ^{10%} [5.14일])	125% →10% ⁵⁾	■ 전품목 (보복관세 ^{125%} [4.10-5.13일] → 보복관세 ^{10%} [5.14일])	125% →10%
기본 관세	전 세계 (일부 국가 제외 ³⁾)	■ 전품목 ⁴⁾	10%	—	—
품목별 관세 ⁶⁾	전 세계	■ 철강·알루미늄[3.12일]	25% →50% ⁷⁾	■ (유럽) 철강·알루미늄, 가전, 위스키, 화장품 등 ^{45억EUR} [4.1일]	최대 50%
		■ 자동차 ⁸⁾ [4.3일] 및 부품 ⁹⁾ [5.3일]	25%	—	—
국가별 관세	중 국	■ 전품목 (펜타닐 관련 관세 ^{10%} [2.4일] + 펜타닐 관련 관세 ^{10%} [3.4일])	20% ⁴⁾	■ 석탄·LNG[2.10일]	15%
				■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픽업트럭[2.10일]	10%
				■ 농·축산물[3.10일]	10-15%
	캐나다 ¹⁰⁾	■ 에너지[3.4일] 및 천연 칼륨비료potash[3.6일]	10%	■ 오렌지주스·땅콩버터·와인 ·커피 등300억CAD[3.4일]	25%
		■ 에너지·칼륨비료 이외[3.4일]	25%	■ 철강·알루미늄, 컴퓨터·서버, 스포츠장비 등298억CAD [3.13일]	25%
		■ 단, USMCA 품목은 면제[3.6일]	—	■ 자동차부품·USMCA 품목 제외 [4.9일]	25%
	멕시코 ¹⁰⁾	■ 전품목[3.4일]	25%	—	—
		■ 단, USMCA 품목은 면제[3.6일]	—		

주: 1) []내는 시행 시기

2) 4.9일 EU 20%, 한국 25%, 일본 24%, 아시아인중국 17~49% 등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할 것으로 발표

3) 별도로 정한 국가별 관세의 적용을 받는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의 경제적 제재를 받는 일부 국가는 기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반도체·PC·스마트폰·의약품 등 추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품목과 에너지, 희귀광물, 백신제조용 화학물질 등은 상호·기본관세 대

상에서 제외

5) 미국의 對中수입 총 추가 관세율은 30%

6)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기본·상호관세를 추가적용하지 않음

7) 6.4일부터 50%로 상향

8) USMCA를 통한 수입 자동차의 경우 비미국산 부품의 비중만큼 관세 적용

9) USMCA 규정을 준수하는 수입 자동차부품의 경우 관련 프로세스 수입 시까지 무관세 유지

10) IEEPA 명령 효력이 종료되면, 非USMCA 품목에는 12% 관세 부과, USMCA 품목은 무관세 유지

자료: 각국 무역관련 정부부처, 한국은행

[상호·기본 관세]

상호⁵⁴⁾ 및 기본⁵⁵⁾ 관세는 모든 국가에 무역적자 규모에 비례하여 부과됐다. 동 조치는 美

신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출범 직후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⁵⁶⁾에 근거하여 장기간 지속된 미국의 무역적자가 美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 하에 도입되었다. 상호관세는 무역적자 상위국가를 대상으로 무역적자·수입

54)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55)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는 보편관세, 보편적 기본관세라고도 불리며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함을 뜻한다.

56) 美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고, 美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여 동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황이다.(2025.5.29일)

비율에 비례하여 부과되었고, 기본관세는 일부 국가⁵⁷⁾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되었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무역 상대국의 對美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상호·기본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표 3. 무역적자 상위국가 상호관세율

(억달러, %)				
	무역수지 (A)	수입금액 (B)	비중 (C = -B/A)	관세율 (D ≈ C/2)
중국	-2,954	4,389	67.3	34
EU	-2,356	6,058	38.9	20
ASEAN-5	-2,167	2,947	73.5	17~46 ¹⁾
멕시코	-1,718	5,059	34.0	면제 ²⁾
대만	-739	1,163	63.6	32
일본	-685	1,482	46.2	24
한국	-660	1,315	50.2	25
캐나다	-642	4,127	15.6	면제 ²⁾
인도	-457	874	52.2	26
스위스	-385	634	60.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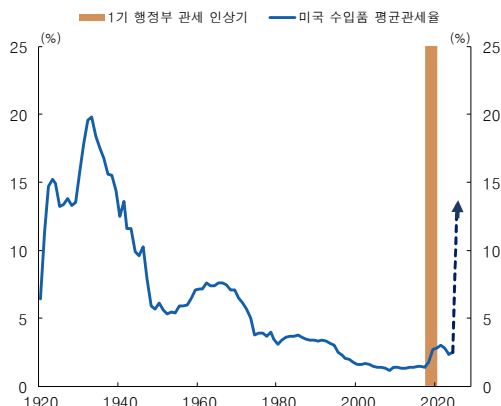
주: 1) 베트남 46%, 태국 36%, 말레이시아 24%, 인도네시아 32%, 필리핀 17%

2) 별도로 정한 국가별 관세 적용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백악관

다만 상호관세 시행 직전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시행이 90일간 유예되고美中 협상 결과 중국 상호관세도 90일간 유예되면서 당분간 모든 국가의 상호관세율이 기본관세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관세정책만으로도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미국 평균 관세율



자료: USITC, 한국은행

[품목별 관세]

품목별 관세는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품목 관세는 전 국가를 대상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다. 美 신정부가 도입 및 추진 중인 품목별 관세는 동 법에 근거하며, 美 신정부는 안보 위협에 가동물 저조, 고용 감소 등과 같은 경제적 현상도 포함되며 관세부과도 적절한 조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였다.⁵⁸⁾ 실제로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추진한 품목들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두 오랜 기간 부진한 모습이었다.

57)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쿠바 등 이미 높은 수준의 미국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 별도의 조치를 통해 관세율이 인상된 멕시코와 캐나다는 기본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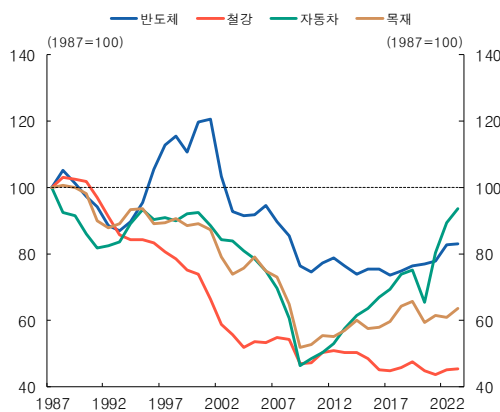
58)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무역법 201조에 근거해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법 201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해당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협정에서도 그 요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발동 시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무역 상대국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다. 2기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 대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국가에 차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품목별 관세 추진 현황

품 목	시 행	세 율	근 거 법
철강·알루미늄	3.12	25% ¹⁾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부품)	4.3(5.3)	25%	
구리·목재	검토중(3.13~)		
반도체·의약품	검토중(4.1~)		
중대형 트럭	검토중(4.22~)		
항공기·부품	검토중(5.1~)		

주: 1) 6.4일부터 관세율이 50%로 상향
자료: 美백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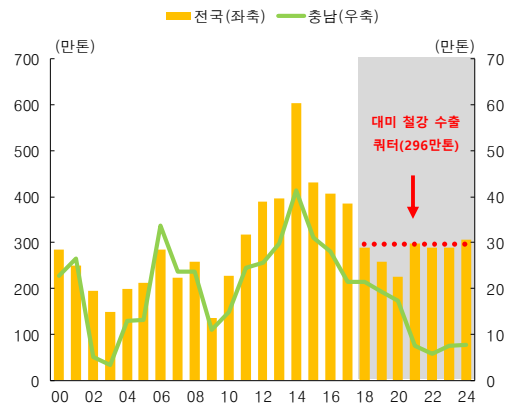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제조업 업종별 고용



자료: BLS

미국은 철강·알루미늄⁵⁹⁾,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해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2018년부터 시행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조치에서 국가별로 적용되었던 예외 조항을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수출 쿼터⁶⁰⁾ 합의로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이번 조치로 쿼터가 해제되고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그림 3. 철강 對美수출 쿼터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의약품 등은 품목별 관세 도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대부분 관세에서 면제된 상황이다. 미국은 품목별 관세가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품목은 상호·기본 관세와 후술할 멕시코·캐나다 국가별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미국은 관세 대상 품목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관세 조치로 중국 등에 생산기지를 둔 美 IT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자, 미국은 PC, 스마트폰 등 IT제품을 반도체로 분류하여 상호·기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국가별 관세]

국가별 관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였다.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멕시코·캐나다와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발표하였다. 멕

59) 美 백악관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을 6.4일부터 50%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다.

60) 미국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018.3.23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동 관세는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전일(3.22일) 관세부과가 유예되었고, 양국간 합의 결과 4.30일부터 직전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인 연 296만 톤의 무관세 쿼터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 정부가 펜타닐 유통과 불법 이민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하여 동 조치를 대통령 권한으로 신속하게 결정하였다. 멕시코와 캐나다 추가관세는 국경단속 강화에 합의함에 따라 1개월 유예를 거친 후 3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품목⁶¹⁾은 3월 6일부터 자동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세가 면제되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수직적 분업화에 따라 생산공정마다 국경을 넘을 일이 잦아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멕시코-캐나다는 상호·기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국도 20%의 국가별 관세가 부과되었다. 미국은 중국도 펜타닐 유통과 관련되었다고 판단,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하여 2월 4일과 3월 4일 각각 10%씩 관세율을 인상했다.⁶²⁾ 이에 더해 미국은 34%의 상호관세와 91%의 보복관세를 4월 9일과 10일에 각각 부과하며 중국의 추가관세율이 145%로 높아졌고, 중국도 1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처럼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관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양국은 제네바美中 경제·무역 회의 공동성명에 합의하며 5월 14일부터 상호·보복 관세율을 10%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추가 관세율은 국가별 관세 20%를 더한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2. 美 관세정책 주요 특징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을 수출대상국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하면서 1기 행정부보다 규모와 세율 측면에서 크게 강화되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부과한 관세 추이를 살펴보면, 1기 행정부(2018~2021년)에는 평균관세율이 출범 직전 2.2%에서 3.0%로 0.8%p 높아졌으나, 2기에는 불과 4개월 만에 평균관세율이 약 11.7%(+8.7%p)까지 상승하였다.

표 5. 1기 행정부 관세정책 주요 Timeline

시행일	내 용
18.2.7.	(무역법 201조-세이프가드) 세탁기 20%, 태양광 30%
3.23.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25%, 알루미늄 10%
	(이하 무역확장법 301조)
7.6.	연 \$34b 對中수입에 25% 관세 - 운송장비, 기계, 전기전자 등 중간재 위주(List 1)
8.23.	연 \$16b 對中수입에 25% 관세 - 화학, 전기전자, 금속 등 중간재 위주(List 2)
9.24.	연 \$200b 對中수입에 10% 관세 - 일부 최종재 제외(List 3)
19.5.10.	3차관세 세율 10% → 25% 인상
9.1.	연 \$101b 對中수입에 15% 관세 - 의류·원구 등 최종재 포함(List 4A)
20.2.14.	1단계 합의로 List 4A 품목 관세율 7.5%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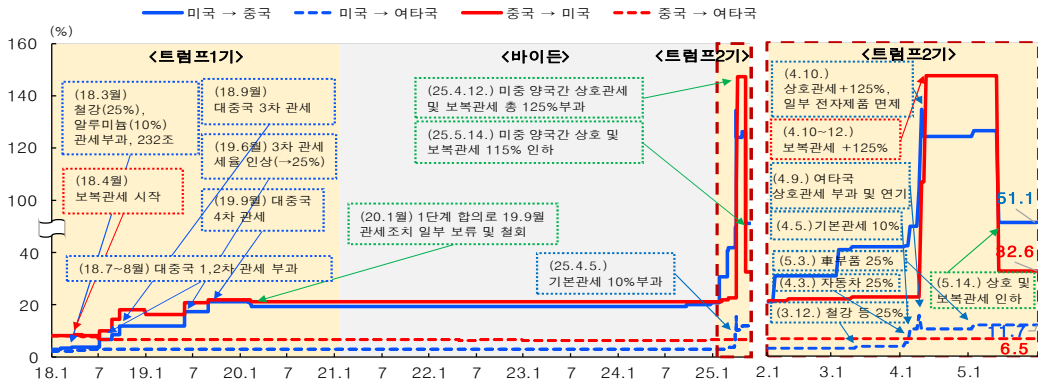
자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美 신정부는 對中 수입 관세도 크게 강화하였다. 미국의 對中 수입 평균관세율은 1기 행정부 4년간 16.2%p 상승하였으나, 2기에는 4개월만에 30.4%p 높아졌다. 상호·보복관세로 4월초 관세율이 124.1%(+103.3%p)까지 높아졌던 것에 비하면 무역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관세조치만으로도 관세율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61) 멕시코 수입의 49%, 캐나다 수입의 38% 규모로 추정된다.(한국무역협회)

62) 중국의 국가별 관세(20%)는 상호·기본관세, 품목별 관세와 중복 적용된다. 이는 상호·기본관세, 국가별 관세(멕시코·캐나다), 품목별 관세 중 하나만 적용되는 타 국가의 경우에 비해 강력한 조치이다.

그림 4. 무역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평균관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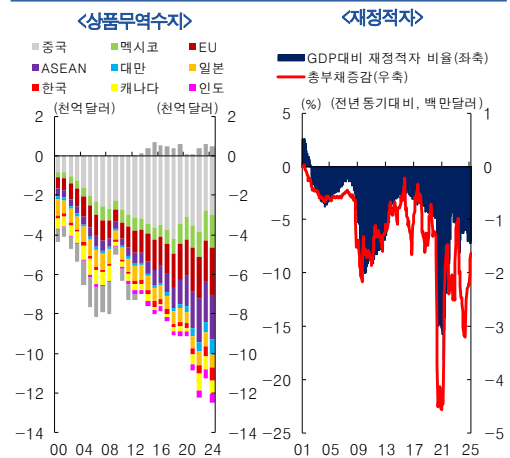
자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관세정책 예고·발표·시행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크게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는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인사들의 발언에 비추어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이로 인해 증시 부진에 따른 마진콜 압박 등으로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관세 부과 시행을 90일간 유예하였다. 이에 따라 EU 등 주요국도 상호관세에 따른 보복조치를 연기하였다. 또한 관세 관련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정책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빈번하였다.⁶³⁾

美 신정부가 관세정책을 도입한 배경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정책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를 도입한 직접적인 배경은 무역적자 누중이며, 최근 중국 이외 국가의 무역적자가 이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의 기본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세가

제조업 공장의 국내유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확보 및 부채 축소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美 행정부의 인식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자동차산업 공급망을 고려한 멕시코·캐나다 수입의 일부 품목 관세면제, 자국 빅테크 기업을 고려한 반도체·스마트폰 관세 유예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가·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美 상품무역수지 및 재정적자 추이



자료: 美 Census Bureau, Bloomberg

63) 이는 美 신정부가 관세정책을 단순한 보호무역 수단을 넘어 일종의 협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와도 관련이 높다.

Ⅲ. 충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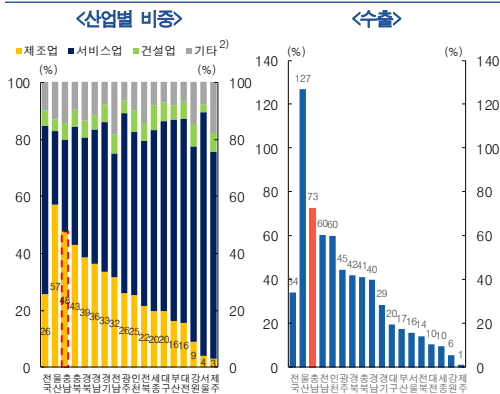
1.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현황

충남지역은 제조업과 수출의 비중이 높아 미국 관세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 충남지역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이며, 수출 규모는 지역내총생산의 73% 수준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9개 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부과는 對美수출 가격 상승에 따른 충남지역 수출 부진 및 제조업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남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관세정책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관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충남지역 제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16.0%)와 자동차(부품포함·13.6%), 정유(12.2%)·화학(14.3%), 1차금속(철강 등, 11.0%) 등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은 전자(63.1%)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對美수출은 전자(38.2%)와 함께 자동차(부품포함·29.5%)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충남지역의 제조업과 수출간 구조적 차이 등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은 업종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⁶⁴⁾는 對美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부과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차금속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6월 4일부터 관세율이 50%로 상향되었으나 수출 비중이 높지 않아 관세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림 6. 시도별 제조업 및 수출 비중¹⁾



주: 1) 2023년 GRDP 및 통관수출 기준

2)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업, 순생산물세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표 6. 충남지역 주요 제조업 생산¹⁾ 및 수출²⁾ 현황

산업명	생산 (조원)	비중 ³⁾ (%)	수출 (억달러)	비중 ³⁾ (%)	對美 수출 (억달러)	비중 ³⁾ (%)
석유정제품 등	30.4	(12.2)	90.7	(9.4)	13.3	(8.7)
화학물질·제품	35.5	(14.3)	84.8	(8.8)	6.9	(4.5)
1차금속	27.5	(11.0)	12.2	(1.3)	3.2	(2.1)
전자·컴퓨터 등	39.8	(16.0)	606.7	(63.1)	58.0	(38.2)
- 반도체	11.7	(4.7)	504.1	(52.4)	57.9	(38.1)
- 디스플레이 등	27.7	(11.1)	102.2	(10.6)	0.0	(0.0)
전기장비	15.3	(6.2)	19.2	(2.0)	4.4	(2.9)
기타기계·장비	17.1	(6.9)	31.9	(3.3)	8.1	(5.3)
자동차·트레일러 ⁴⁾	33.8	(13.6)	54.6	(5.7)	44.8	(29.5)

주: 1)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기준

2) 2024년 HS코드 6자리 수출자료를 KSIC와 매칭

3) 각각 충남 제조업 GRDP 대비 비중, 충남 전체 수출 대비 비중, 충남 對美수출 대비 비중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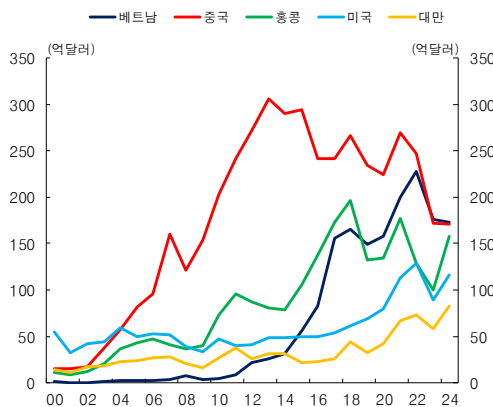
4) 충남지역 자동차 수출은 전국 자동차 수출금액과 차종별 수출대수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정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64) 충남지역 자동차 수출은 통관수출 통계에 작게 반영(2024년 4,414만달러, 총수출대비 0.05%)된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 시에는 전국 자동차 수출금액, 차종별 수출물량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충남지역 자동차 수출액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충남지역 수출은 그동안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되어 왔으며, 관세정책의 영향은 對美수출 이외 국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 수출은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對베트남 수출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주로 전자·전기제품이 동 성장세를 견인⁶⁵⁾하였다. 2025년 6월 현재 충남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모두 고율의 對美수출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다. 상호관세가 유예기간(中 ~8.13일, 中제외 ~7.9일) 이후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동 국가들의 對美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지역의 중간재 수출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주요 국가별 충남지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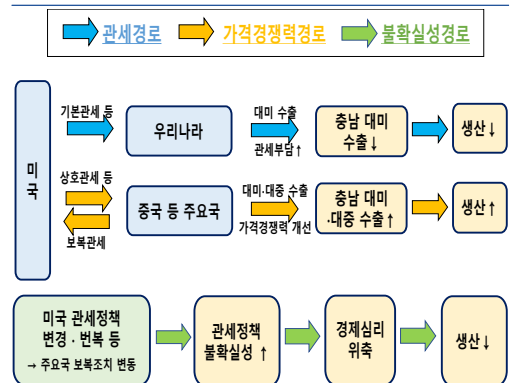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관세정책이 충남지역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은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충남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對美수출에 부과된 관세는 충남 제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이다(①관세경로). 반면 충남 수출은 미국 對中 국가별 관세와 중국 보복관세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두 국가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일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②가격경쟁력경로). 한편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경제주체의 심리를 악화시켜 투자·생산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③불확실성경로).

이하에서는 관세정책이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경로별 파급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⁶⁶⁾

그림 8. 관세정책이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 한국은행

65) 베트남 타이응우옌에 소재한 삼성전자 최대의 스마트폰 공장이 2014년부터 가동된 이후 충남지역 전자·전기제품의 對베트남 수출이 크게 성장하였다.

66) 美 관세정책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충남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범위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호관세 유예 종료 후에도 세율이 기본관세 수준으로 유지되고 품목별 관세도 협상을 통해 상당히 완화되는 상황과, 유예기간 후 상호관세가 일부 환원되고 품목별 관세도 예정대로 시행되는 상황 각각이 양 극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다만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美 통상법원의 판결과 이에 대한 美 행정부의 대응 등으로 향후 관세정책 전개양상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잠재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방법론 및 분석 모형 설명

美 신정부 관세정책이 관세경로, 가격경쟁력경로, 불확실성경로를 통해 제조업 업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Flaaen and Pierce(2019)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1기 행정부 시기 관세정책의 영향을 추정하고, 동 모형의 계수추정치와 2기 행정부 자료로 표본 외 예측(out-of-sample forecast)을 통해 2기 행정부 관세정책의 향후 충남지역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1기 행정부 관세정책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충남지역 각 산업별로 산출한 세 가지 경로에 대한 노출정도(exposure)를 설명변수로, 산업별 제조업생산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패널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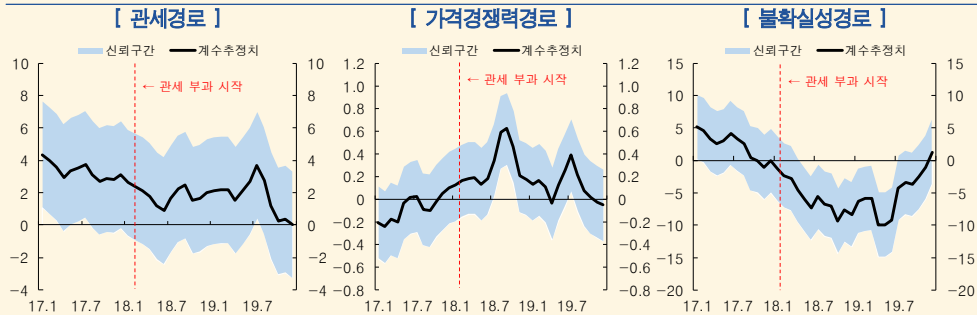
$$y_{i,t} = \alpha + \sum_t \gamma_t 1(\text{연월} = t) \times \text{관세경로}_i + \sum_t \theta_t 1(\text{연월} = t) \times \text{가격경쟁력경로}_i + \sum_t \lambda_t 1(\text{연월} = t) \times \text{불확실성경로}_i + \sum_t \omega_t 1(\text{연월} = t) \times \text{수입비중}_i + \delta_i + \delta_t + \epsilon_{i,t}$$

* 1(•)은 괄호 내의 논리값이 참일 경우 1, 거짓일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

동 모형은 산업 고정효과(δ_i)와 시점 고정효과(δ_t)를 포함하여 산업별 고유 특성과 전산업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aggregate shock을 통제하였고, 관세의 영향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를 시점별 더미변수와외의 교차항 형태로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대해 어떠한 사전적 제약을 두지 않고, 데이터에 의해 관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추정 결과 1기 행정부 관세정책은 가격경쟁력경로와 불확실성경로를 통해 충남 제조업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 시점 이후 두 경로에 대한 추정치가 유의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관세경로의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충남 수출 중 철강·태양광제품 등 극소수의 품목에만 관세가 부과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시점별 계수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향후 제조업 성장률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1기 행정부 시기의 시점별 계수추정치와 2기 행정부 시기의 세 경로에 대한 익스포저를 이용하여 표본 외 예측을 수행하였다. 가격경쟁력경로와 불확실성경로(θ , λ)는 1기 행정부 시기와 같은 양상을 보이도록 가정하였으나, 관세경로(γ)는 1기에 유의하지 않았으나 2기에는 관세의 영향이 확실시되었음을 감안하여 별도의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① 관세경로]

관세경로는 미국이 충남 수출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 내 시장에서 충남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위축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상대가격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미국 수입업자들은 우리나라 철강제품을 덜 수입하게 되고,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충남지역 對美수출 중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⁶⁷⁾, 자동차는 충남 對美수출의 약 31%를 차지한다. 기본관세 대상인 품목의 비중도 19%에 달한다. 반도체·의약품 등 한시적으로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조만간 품목 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비중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에너지, 희귀광물, 백신 제조용 화학물질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7. 美 관세정책별 충남지역 對美수출액¹⁾

[품목별 관세]

산 업	품목	수출액 (비중)
운수장비	자동차 및 부품 (세율: 25%)	447,893.7 (29.5)
철강금속	철강·알루미늄 (세율: 25% → 50%)	20,773.4 (1.4)
합 계		468,667.1 (30.9)

[관세 면제²⁾]

산 업	품 목	수출액 (비중)
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³⁾	7,644.0 (0.5)
운수장비	항공기 및 부품	0.1 (0.0)
의약품	의약품	750.5 (0.0)
전기전자	반도체 및 부품, 디스플레이 및 부품,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³⁾	579,445.9 (38.2)
종이목재	목재	165.6 (0.0)
철강금속	구리, 희귀광물 등	22,745.8 (1.5)
화학	에너지, 백신 제조용 화학물질 등	149,278.1 (9.8)
합 계		760,029.9 (50.0)

[기본 관세]

산 업	품목	수출액 (비중)
기계	나머지 품목 (세율: 10%)	73,261.6 (4.8)
비금속광물		4,146.7 (0.3)
섬유의복		872.9 (0.1)
운수장비		793.1 (0.1)
음식료품		8,913.2 (0.6)
의료정밀		14,442.5 (1.0)
의약품		-
전기전자		44,629.0 (2.9)
종이목재		18,134.9 (1.2)
철강금속		5,373.1 (0.4)
화학		114,811.2 (7.6)
합 계		285,378.2 (19.1)

주: 1) 2024년 수출액 기준, 괄호내 비중은 충남지역 對美수출에서 해당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밑줄로 표기한 품목은 품목별 관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상호·기본 관세에서 면제
3) 동 품목들은 반도체로 통합되어 추후 발표될 품목 관세가 적용될 예정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美백악관

관세경로의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⁶⁸⁾는 산업별 생산에서 관세가 부과된 품목의 수출금액이

67) 美 백악관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을 6월 4일부터 50%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하의 분석에서는 보고서 작성 시점의 관세율 2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68) Flaaen and Pierce(2019)는 이를 특정 경로에 대한 노출 정도(exposure)를 나타낸 지표(measure)라고 표현하였다.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동 지표가 큰 산업일수록 對美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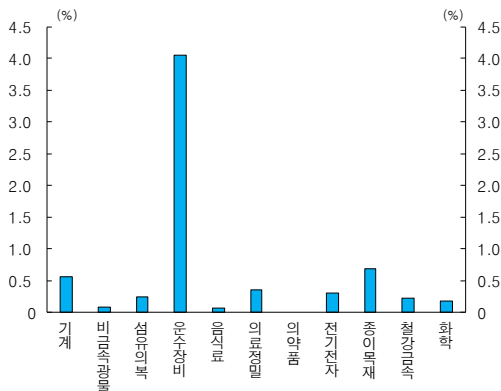
$$\text{관세경로}_i = \frac{\sum_{p \in \Omega^T} \exp_{i,p}^{\text{미국}} \times \tau_p^{\text{미국}}}{Q_i}$$

여기서 Q_i 는 i 산업 2023년 총생산, $\exp_{i,p}^{\text{미국}}$ 는 i 산업· p 품목의 2023년 對美수출액, $\tau_p^{\text{미국}}$ 는 p 품목의 對美수출 관세율, Ω^T 는 충남 對美수출 중 관세가 부과된 품목의 집합을 의미한다. 산업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 식을 아래와 같이 생산 대비 對美수출 비중과 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의 곱으로 나눌 수 있다.

$$\begin{aligned} \text{관세경로}_i &= \frac{\sum_{p \in \Omega^T} \exp_{i,p}^{\text{미국}}}{Q_i} \times \frac{\sum_{p \in \Omega^T} \exp_{i,p}^{\text{미국}} \times \tau_p^{\text{미국}}}{\sum_{p \in \Omega^T} \exp_{i,p}^{\text{미국}}} \\ &= \text{수출비중}_i \times \text{평균관세율}_i \end{aligned}$$

충남지역 산업별 관세경로 지표를 살펴보면, 對美수출 관세 부과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운수장비가 크게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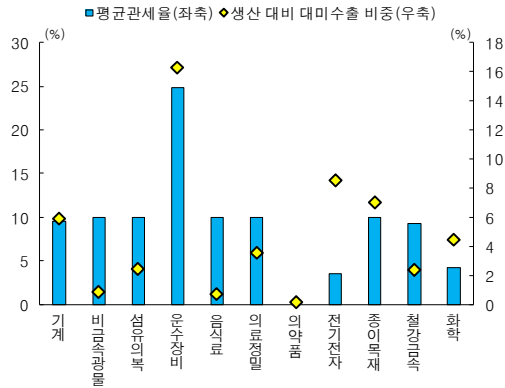
그림 10. 산업별 관세경로의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각국 무역 담당 정부부처, 한국은행

이는 운수장비의 對美 평균관세율과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모든 산업 중 가장 높은 데 기인하였다.

그림 11. 산업별 평균관세율 및 수출비중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각국 무역 담당 정부부처, 한국은행

관세경로의 영향으로 충남지역 제조업의 성장률은 약 0.6~1.3%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운수장비가 자동차관세에 크게 영향 받은 데 주로 기인하였다. 만약 충남지역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관세부과까지 현실화되면 관세경로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⁶⁹⁾

표 8. 관세경로에 의한 산업별 성장률 변화

성장률 변화 (%)		성장률 변화 (%)	
산업	성장률 변화	산업	성장률 변화
제조업 전체	-1.3 ~ -0.6	의약품	-0.6 ~ -0.5
기계	-1.0 ~ -0.8	의약품	0.0 ~ 0.0
비금속광물	-0.2 ~ -0.1	전기전자	-0.5 ~ -0.5
섬유의복	-0.4 ~ -0.4	종이목재	-1.2 ~ -1.0
운수장비	-7.0 ~ -2.3	철강금속	-0.4 ~ -0.2
음식료	-0.1 ~ -0.1	화학	-0.3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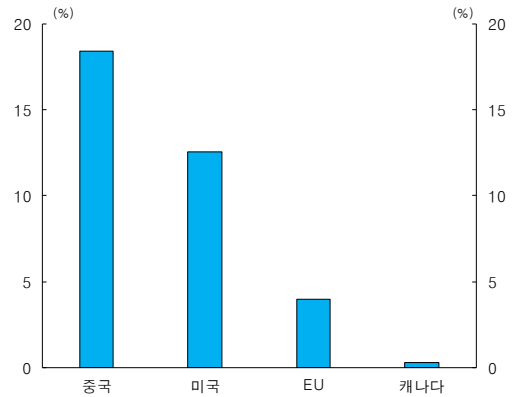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② 가격경쟁력경로]

가격경쟁력경로는 미국이 중국 등 여타 국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동 국가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우리나라 수출이 반사이익을 얻어 생산이 확대되는 경로를 의미한다. 가령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대비 우리나라 배터리의 상대가격이 낮아져 우리나라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美中 양국이 상호 부과한 관세는 충남지역 제조업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국가별 관세 20%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므로 충남 수출은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⁷⁶⁾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품목별로 국가간 경합 정도, 가격탄력성, 시장지배력 등이 상이하므로 가격경쟁력 개선 여부는 품목마다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와 캐나다도 미국의 조치에 보복관세로 대응하였으나 충남의 對캐나다, 對EU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부 품목에만 보복관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충남지역의 국가별 수출비중¹⁾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가격경쟁력경로의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는 산업별 생산에서 가격경쟁력이 개선된 품목들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가격경쟁력이 개선된 품목은 최근의 경쟁적인 관세 부과 이후,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의 관세율이 더 높아진 품목을 의미한다.

$$\text{가격경쟁력 경로}_i = \frac{\sum_{\text{국가}=1}^N \sum_{p \in \Omega^{\text{국가}}} \exp_{i,p}^{\text{국가}}}{Q_i}$$

여기서 $\Omega^{\text{국가}}$ 는 해당 국가로의 수출품목 중 가격경쟁력이 개선된 품목의 집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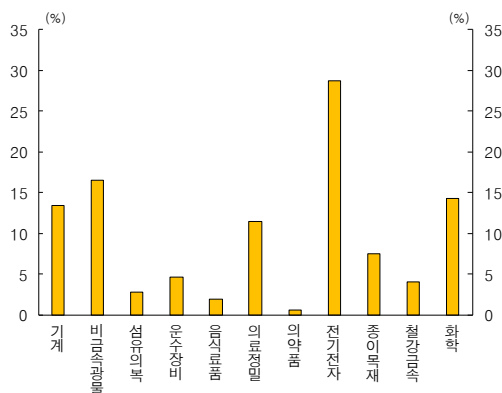
가격경쟁력경로가 충남지역 제조업에 미친 영향은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화학, 기계 산업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모든 품목에 걸친 미

69) 반도체 품목 관세 도입 시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 등 IT제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동 품목이 주로 생산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상당폭 영향받을 여지가 있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한계상 이와 같은 중간재 경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70) 품목별 관세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도 5.12일 美中 합의 이후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과 동일한 10%로 낮아졌다. 따라서 美 신정부 관세정책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중국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관세는 20%의 국가별 관세가 유일하다.

국의 對中관세와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충남 제조업의 가격경쟁력경로의 크기는 대체로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위주로 높게 추정되었다. 전기전자는 반도체 관세 유예로 對美수출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데 더해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여지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3. 산업별 가격경쟁력경로의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각국 무역 담당 정부부처, 한국은행

충남 제조업의 성장률은 가격경쟁력경로의 영향으로 약 0.4~0.9%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 효과 위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증분석 결과 對美수출 경쟁국 및 對中수출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 우위 여부에 따라 반사이익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화학 산업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표 8. 가격경쟁력경로에 의한 산업별 성장률 변화

(%p)			
산 업	성장률 변화	산 업	성장률 변화
제조업 전체	0.4~0.9	의료정밀	0.4~0.7
기계	0.4~0.9	의약품	0.0~0.0
비금속광물	0.5~1.1	전기전자	0.9~1.9
섬유의복	0.1~0.2	종이목재	0.2~0.5
운수장비	0.1~0.3	철강금속	0.1~0.3
음식료	0.1~0.1	화학	0.5~0.9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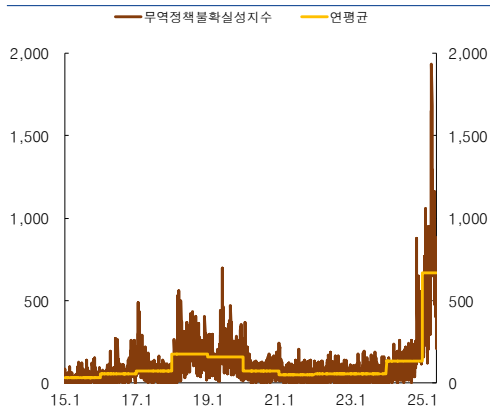
【 ③ 불확실성경로 】

불확실성경로는 미국의 무역정책과 주요국의 대응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로를 나타낸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⁷¹⁾에서 밝혀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투자·생산 등 경제활동 간 부(-)의 상관관계에서 착안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Caldara et al.(2020)에 따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해외시장 수요, 원자재 비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설비 확장과 같은 비가역적인 투자를 유보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美 대통령 당선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시기에 높아졌다가 2020년 1단계 합의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그간의 예상을 뛰어넘은 강경한 통상정책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전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71) Caldara et al.(2020), Handley and Limao(2017), Crowley et al.(2018)

그림 14. 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



자료: Caldara et al.(2020)

불확실성경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별 주가지수 변동성을 대응 지표로 삼았다.⁷²⁾ 불확실성과 주식시장 변동성의 상관관계는 여러 실증연구⁷³⁾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⁷⁴⁾ 구체적으로 산업별 주가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현 정부 당선 이후의 수익률 표준편차와 당선 직전 동일한 기간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차이를 불확실성경로의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text{불확실성 경로}_i = SD_i^{\text{당선이후}} - SD_i^{\text{당선이전}}$$

이러한 불확실성 지표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 운수장비, 기계, 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이는 美 신정부 출범 직후 철강,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반면

소비재 중심의 섬유·의복과 음식료 산업의 불확실성 지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산업별 불확실성경로의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



자료: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불확실성경로의 영향으로 충남 제조업의 성장률은 약 0.3~1.0%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화학, 운수장비, 철강금속 산업이 성장을 하락을 주도하였다. 이는 장치산업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신규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⁷⁵⁾

72) 앞서 제시한 관세경로와 가격경쟁력경로는 충남 제조업 생산 및 수출 데이터로 산출하였다. 다만 주가지수는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역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불확실성경로는 부득이하게 KOSPI에 상장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73) Baker et al.(2016), Bloom(2009)

74) 다만 주가지수 변동성은 무역정책 불확실성 이외에 다른 요인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018년의 주된 이슈가 무역정책이었기 때문에 주가지수 변동성에서 무역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 주가지수 이외에 산업별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대응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지표를 사용하였다.

75) 미국 산업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경기침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telnuovo et al., 2022)

표 9. 불확실성경로에 의한 산업별 성장률 변화

(%p)			
산 업	성장률 변화	산 업	성장률 변화
제조업 전체	-1.0 ~ -0.3	의료정밀	0.3 ~ 0.6
기계	-1.7 ~ -0.5	의약품	-0.2 ~ 0.1
비금속광물	-0.9 ~ -0.1	전기전자	-0.3 ~ -0.1
섬유의복	1.0 ~ 3.5	종이목재	-2.1 ~ -0.2
운수장비	-1.7 ~ -0.6	철강금속	-2.5 ~ -0.6
음식료	1.0 ~ 4.3	화학	-1.6 ~ -0.4

자료: 한국은행

【 종합 판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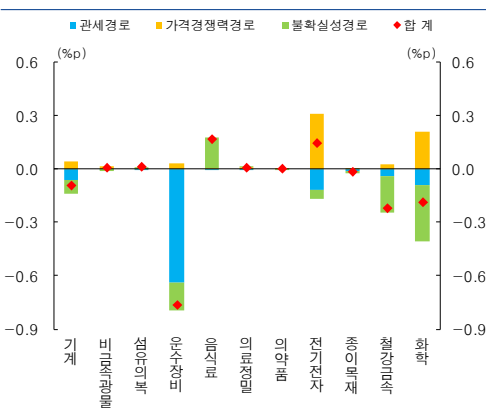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하면 관세정책으로 인해 충남 제조업의 성장률은 0.5~1.5%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운수장비 성장률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 측면에서는 운수장비, 화학, 철강금속이 제조업 성장률 하락에 주로 기여하였다.

표 10. 관세정책으로 인한 산업별 성장률 변화

(%p)			
산 업	성장률 변화	산 업	성장률 변화
제조업 전체	-1.5 ~ -0.5	의료정밀	0.2 ~ 0.7
기계	-1.9 ~ -0.8	의약품	-0.1 ~ 0.1
비금속광물	0.0 ~ 0.3	전기전자	0.3 ~ 1.0
섬유의복	0.7 ~ 3.2	종이목재	-2.9 ~ -1.0
운수장비	-8.4 ~ -2.7	철강금속	-2.6 ~ -0.6
음식료	0.9 ~ 4.3	화학	-1.0 ~ -0.2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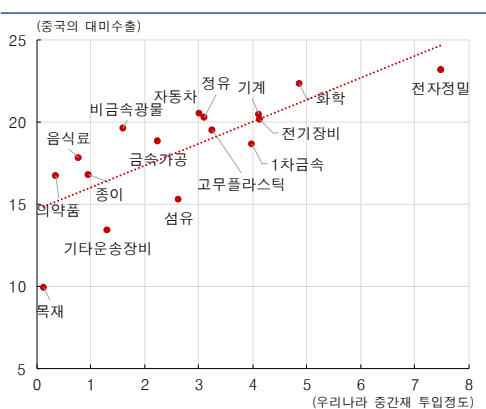
그림 16.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한편 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세 가지 경로 이외에도 중간재 수출 감소 등을 통해 충남 제조업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가령 높은 상호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對美수출이 감소하고,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투입이 줄어들어 충남지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국가 간 투입산출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국 제조업의 對美수출 비중이 낮아질수록 생산과정에서 우리나라 중간재를 투입하는 비중도 대략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중국의 산업별 對美수출, 우리나라 중간재 투입



자료: 중국 해관총서, OECD ICIO

충남지역 GRDP 성장률은 0.2~0.7%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경로와 불확실성 경로는 성장률을 각각 0.3~0.6%p, 0.1~0.5%p 낮추는 요인으로, 가격경쟁력 경로는 성장률을 0.2~0.4%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관세정책이 충남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서비스업 등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V. 평가 및 시사점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은 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고 불확실성도 높은 데다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美中 관세협상 등으로 최근 무역긴장이 다소 완화됐으나 관세율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美 신정부의 관세정책이 무역적자 해소, 자국내 제조업 유치 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관세는 협상을 통해 낮아질 여지가 있더라도 기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비상경제수권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美 통상법원의 판결과 이에 대한 美 행정부의 대응 등으로 향후 관세정책 전개양상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잠재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美 신정부 관세정책은 충남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정부 및 기업이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美 행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시행 시기·방식 등

에 대한 비일관성 등으로 지역기업 입장에서 관세정책 현황 파악도 힘든 상황이므로 지자체 주도로 관세 상담 및 문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세정보·금융정책지원·대체시장개척 등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⁷⁶⁾

아울러 충남지역 수출 기업들은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 충남지역 수출은 IT 및 중공업 제품 등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수요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주요 수출 대상국이 최근의 무역분쟁 및 통상질서 재편의 중심에 있는 G2 국가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수출 기업은 품목과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정부·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은 기존의 주력 시장 외에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여 제조업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 정책당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내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과 제철 기업을 보유한 글로벌 그룹이 최근

76)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외부공동연구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2025.1.20.)을 참조하기 바란다.

미국 관세조치에 대비하여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⁷⁷⁾하였으며 동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충남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공장 이전은 기업 전략상 불가피하겠으나, 이와 같은 추세가 제조업 기반 약화에 따른 인구 유출 등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항공우주, 제약, IT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통 제조업 부문의 축소를 보완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등 충남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1. 기술수준별 제조업 분류¹⁾ 및 충남지역 내 비중

분류	세부산업	비중 (%)
고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2
중고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0
	전기장비 제조업	9.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2
	중위 고무플라스틱, 조선, 비금속광물, 1차금속 등	33.4
중저위	섬유의복, 종이목재, 음식료, 금속제품, 정유, 인쇄복제	3.1

주: 1) Galindo-Rueda&Verger(2016) 기준

자료: OECD, 통계청

77)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조지아주 자동차 공장의 생산능력을 연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충하고,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3.25일)

참고문헌

- 류에리 “중국 WTO 가입의정서의 효력종료에 관한 연구-비시장경제지위 규정을 중심으로”, 2016, 「통상법률」, 제130호
- 백승진, 김부경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7,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송준현, 정혜윤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 2025,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 이택민, 진찬일, 부유신, 주진철, 고민지, 이현아, 김주현 “美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 2025, 한국은행
- 정선영, 정동재, 최준, 안병탁, 이규환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2024, 한국은행
- 정은미, 조철, 김경유, 임태민 “한국 주력산업의 구조 전환 방향과 정책과제”, 2023,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5.2월호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5.5월호
- 한아름, 전윤식 “美, 완화된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조치 발표”, 2025, 한국무역협회
- 허슬비 “수출기업의 2024년 경영환경 전망”, 2025, 한국무역협회
- 현대자동차그룹 “[보도자료] 현대차그룹, 미국에 전략적 투자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집행한다”, 2015.3.25
- Amiti, M., M. Gomez, S. Kong, D. Weinstein “Do Import Tariffs Protect U.S. Firms?”, 2024, Liberty Street Economics
- Amiti, M., S. J. Redding, D. E. Weinstein “The impact of the 2018 tariffs on prices and welfare”, 2019,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 Baker, S. R., N. Bloom, S. J. Davis “Measur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2016,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Bloom, N. “The Impact of Uncertainty Shocks”, 2009, Econometrica
- Bown, C. P. “The US-China trade war and phase one agreement”, 2021, Working Paper 21-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Bown, C. P. “Trump’s Trade War Timeline 2.0: An Up-to-Date Guide”, 2025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ccessed on May 23, 2025

-
- Bown, C. P.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 2025b,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ccessed on May 23, 2025
- Bown, C. P., M. Kolb "Trump's Trade War Timeline: An Up-to-Date Guide" , 2025,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ccessed on May 23, 2025
- Caldara, D., M. Iacoviello, P. Molligo, A. Prestipino, A. Raffo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Policy Uncertainty" , 2020,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 Castelnuovo, E., K. Tuzcuoglu, L. Uzeda "Sectoral Uncertainty" , 2022, Staff Working Paper, Bank of Canada
- Crowley, M., N. Meng, H. Song "Tariff scares: Trade policy uncertainty and foreign market entry by Chinese firms" , 2018,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 Fajgelbaum, P. D., P. K. Goldberg, P. J. Kennedy, A. K. Khandelwal "The return to protectionism" , 202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Fajgelbaum, P. D., A. K. Khandelwal "The economic impacts of the US-China trade war" , 2021, NBER Working Paper
- Flaen, A., and J. Pierce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the 2018-2019 Tariffs on a globally connected U.S. manufacturing sector" , 2019,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9-086,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Furceri, D., S. A. Hannan, J. D. Ostry, A. K. Ros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tariffs" , 2019, IMF Working Paper
- Galindo-Rueda, F., F. Verger "OECD Taxonomy of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R&D Intensity" , 2016,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 Handley, K., N. Limao "Policy Uncertainty, Trade, and Welfare: Theory and Evidence fo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 2017, American Economic Review
-

4.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⁷⁸⁾

요약

대구 지역은 자영업이 지역경제(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자영업자 수익 감소로 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2024년 2/4분기말 기준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는 55.9조원으로, 전국 자영업자 부채 중 5.3%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의 차주 1인당 대출액(3.8억원)은 여타 광역시 평균(3.4억원)을 상회하였다. 대구 지역 자영업자 부채는 비은행권(상호금융 등), 대면서비스업(도소매·음식·숙박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 및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며,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여타 광역시 대비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최근 대구지역 자영업은 역내소비 축소로 인한 영업기반 약화와 높은 경쟁강도 등으로 자영업자간 이익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채무부담이 높은 취약 자영업자(하위소득·고령층 등)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역내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간 양극화 확대로 영세규모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고연령 자영업 차주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 차주의 채무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차주수는 2.2배, 연체차주수는 4.3배 증가하였으며, 2024년 2/4분기말 50대와 60대 이상 차주의 1인당 부채규모(각각 4.3억, 4.6억)도 여타 광역시(3.5억, 4.0억)를 각각 0.8억원, 0.6억원 상회하였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자영업자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구 자영업자의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출발기금⁷⁹⁾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재취업 등이 어려운 취약 자영업자(고령층 등)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환능력과 취약성 평가를 통해 자영업자 신용 관련 지표를 확충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용 절감, 매출 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민과 외지인의 지역내 자영업종에 대한 역내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지역 내수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78)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박나라 과장 nara.prk@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79)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출시되어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의 부실(우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권매입 등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I. 검토배경

대구는 자영업⁸⁰⁾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⁸¹⁾ 지역으로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편이다. 대구는 대구경북권(이하 대경권)의 소비거점으로, 인접 시도로부터 유입되는 소득과 소비를 근간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위주의 자영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대구 지역에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데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많지 않고 임금 등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⁸²⁾한 점에도 기인한다.

대구지역의 자영업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경쟁강도가 높고 수익성이 부진하였으며⁸³⁾,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부실 규모도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정책자금, 보증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였으나 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자금이 저신용 등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를 포함한 보편적 지원 성격으로 공급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되었다.

대구지역 자영업 업황 부진과 이로 인한 부실은 지역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충격기 이전부터 최근 5년⁸⁴⁾(2019~2024년)간 대구지역 자영업자 현황, 부채 및 관련 리스크를 여타 광역시⁸⁵⁾와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제공된 우대금리가 종료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도래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실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부채 리스크를 평가하고 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유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및 연체율 현황

1. 자영업 개황

대구는 자영업이 지역경제(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다. 고용 측면에서도 대구의 자영업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⁸⁶⁾. 매출액 규모 면에서는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고(대구 28.5%, 여타 광역시 26.1%; 23년) 영세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19

80) 자영업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출처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본고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참고〉 자영업자의 출처별 정의 및 자영업자 부채 분석범위'를 참조하기 바란다.

81) 대구지역 내 자영업 비중은 2020년 개인사업자 매출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25.0%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전국 평균(각각 13.6%, 14.8%)을 크게 상회한다.(통계청 경제총조사)

82) 대구지역 상용근로자의 세전 임금은 2023년 월 334만원으로 8개 특광역시 중 8위이며, 대구지역 근로여건 및 소득 만족도도 각각 28.8%, 24.3%로 8개 특광역시 중 8위 수준이다.(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83)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경쟁강도(인구 100명당 자영업자수)는 2019년중 11.6명, 2024.9월중 10.7명으로 여타광역시 평균(각각 9.4명, 9.5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에 반해 대구지역 자영업자 이익은 2016~2019년중 연평균 2.0% 감소, 2020~2022년 중에는 5.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부진이 계속되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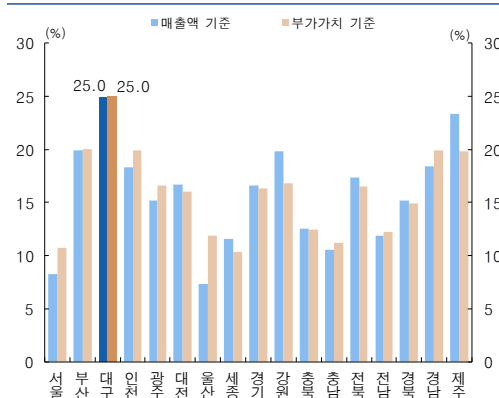
84) 본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은 2019년말 대비 2024.2/4분기말을 의미한다.

85) 여타 광역시는 대구를 제외한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86) 2022년 대구지역의 자영업체(개인사업체) 수 및 관련 종사자 수가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3.9%, 44.1%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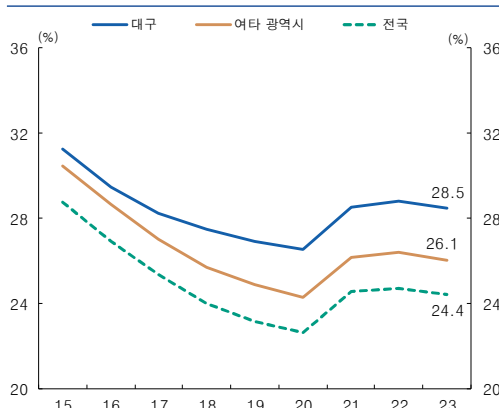
년 26.9%→23년 28.5%). 2023년 기준 대구의 자영업종은 도소매(24.4%), 음식숙박(10.4%) 등 대면서비스업과 제조업(7.7%) 비중이 여타 광역시 대비 높은 반면 부동산업(22.4%) 비중은 낮은 편이다.

그림 1. 지역경제 내 자영업¹⁾ 비중(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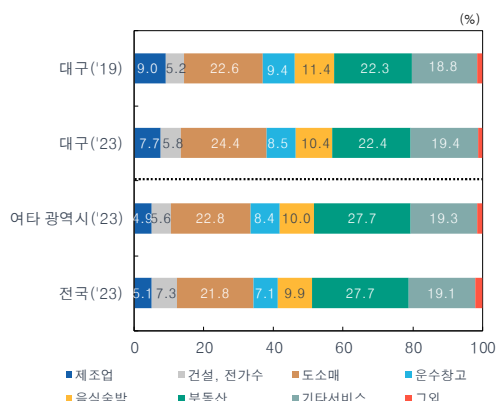
주: 1) 전체 대비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및 부가가치 비중
자료: 통계청(경제총조사)

그림 2. 영세¹⁾ 자영업 비율



주: 1) 가동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대상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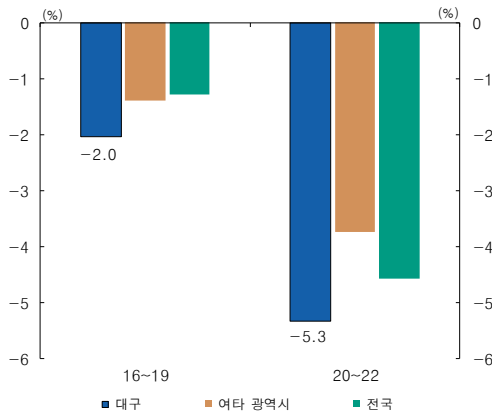
그림 3. 업종별 자영업자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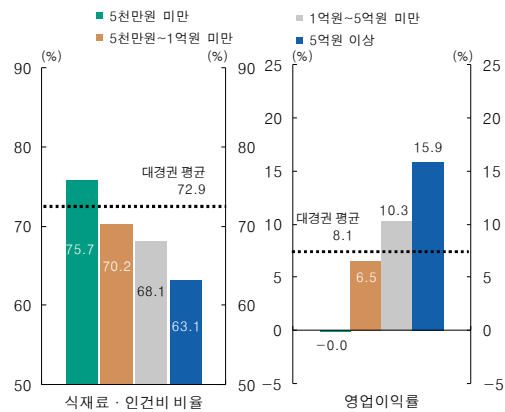
주: 1) 가동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최근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고 매출액 규모에 따른 수익성 격차도 확대되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2016년부터 추세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러한 추세는 여타 지역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역내소비가 여타 도시에 비해 크게 둔화된 데다 영세업자가 많아 물가상승분을 가격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경권 음식점업에서는 식재료·인건비 부담이 타 권역대비 커지고(19년 64.5%→22년 72.9%, 전국 66.9%; 매출액 대비 비율) 영업이익률은 크게 하락하였다(19년 18.4%→22년 8.1%, 전국 11.6%; 매출액 대비 비율).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른 수익성 격차가 확대⁸⁷⁾된 가운데 매출이 적은 영세업자 비중이 높은 대경권에서(5천만원 미만 비중 13.6%, 1억원 미만 38.1%) 타격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87) 전국 외식업체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이 5억원 이상에서는 2019년 14.4%에서 2022년 15.9%(+1.5%p)로 오른 반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5.0%→10.3%(-4.7%p),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6.0%→6.5%(-9.5%p), 5천만원 미만은 19.4%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이전대비 수익성 격차가 매출액 규모에 따라 확대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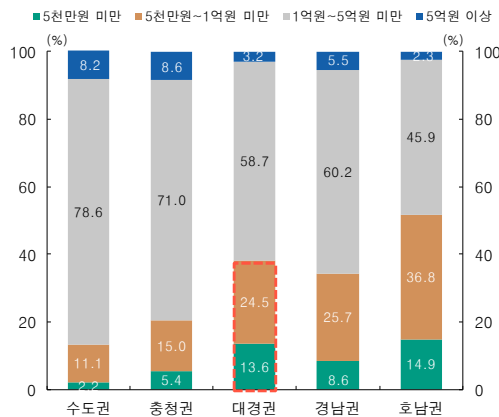
그림 4. 자영업자 이익 증감률¹⁾

주: 1) 개인 영업이익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통계청(지역소득)

그림 6. 외식업 매출규모별 식재료·인건비 비율¹⁾ 및 영업이익률 (2022년)

주: 1) 매출액 대비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외식업체실태조사)

그림 5. 외식업 매출규모별 업체 비중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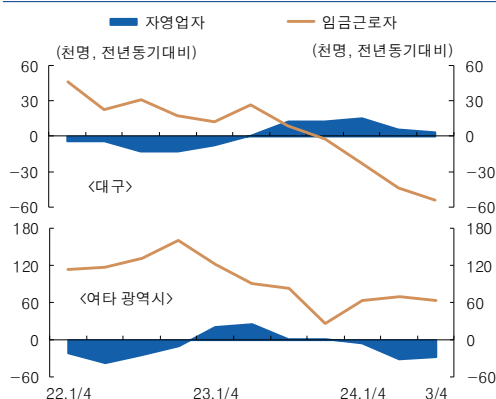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외식업체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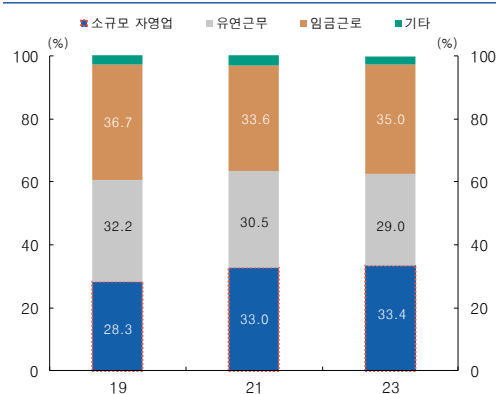
대구에서는 자영업자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 자영업자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는 코로나 19 직후 소폭 감소하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여타 광역시와는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구지역의 임금 수준이 타 지역대비 낮은 데다 지역기업의 상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임금근로자 등이 자영업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대구지역 근로자가 퇴직 이후 소득활동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선택한 비중도 소폭 늘어났다(19년 28.3%→23년 33.4%). 이에 따라 2024년 9월 현재 대구지역의 인구 100명당 자영업자 수는 10.7명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간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순폐업률은 2023년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높아졌으며⁸⁸⁾, 이러한 현상은 부진한 내수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8) 대구 자영업자 순폐업률(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신규사업자 증가 및 폐업자 감소로 줄어들었다가(2020~2022년중 평균 68.2%) 2023년에 83.1%로 늘어나 2019년 수준(78.3%)을 상회하고 있다(국세청 국세통계)

그림 7. 자영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8. 대구 퇴직후 소득활동 유형¹⁾ 비중

주: 1) 소득활동 없음 제외
 자료: 대구광역시(사회조사)

표 1. 인구수대비 자영업자 경쟁도¹⁾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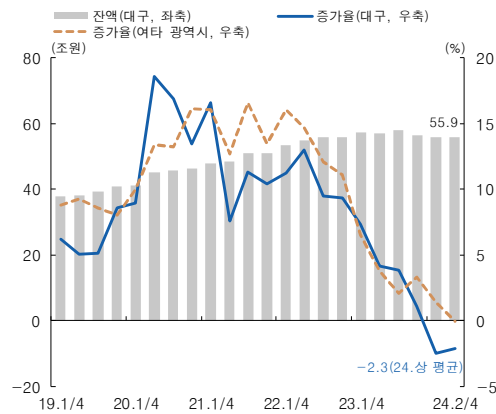
	2019년	2022년	2024년 9월
대구	11.6	10.2	10.7
(여타 광역시)	9.4	9.6	9.5
부산	9.8	10.7	9.5
인천	9.3	9.2	9.5
광주	10.0	10.0	10.6
대전	9.6	9.7	9.6
울산	7.8	7.0	8.0

주: 1) 주민등록인구 100명당 자영업자 수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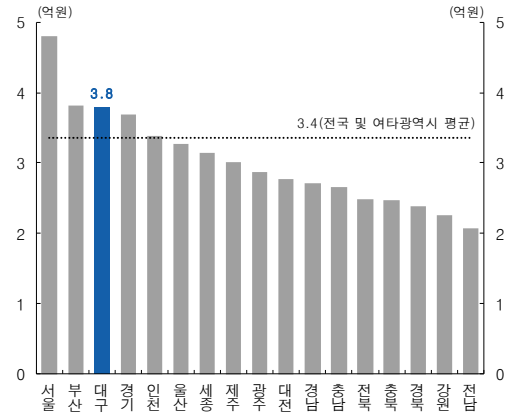
2. 자영업자 부채⁸⁹⁾ 현황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는 2024년 2/4분기말 기준 55.9조원으로, 전국 자영업자 부채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여타 광역시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20.1/4 ~ 21.1/4 분기 평균 14.9%, 여타 광역시 13.7%; 전년동기대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24년 들어 감소 전환하였다(24.상반기 평균 -2.3%).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최근 5년간 부채규모는 1.4배(+15.1조원), 차주수는 1.5배 증가(+4.8만명)하였다. 부채 증가는 주로 사업자대출 중심으로 나타났으며(사업자 +10.9조원, 가계 +4.2조원), 자영업자 중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대출비중은 소폭 하락하였다(85.3% → 84.1%). 2024.2/4 분기말 현재 대구 자영업자의 차주 1인당 대출액은 3.8억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3.4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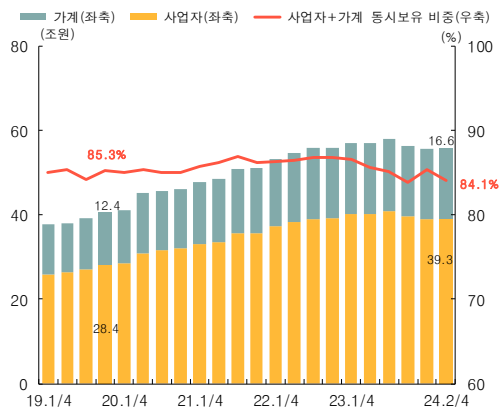
89) 본고의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가계대출 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대출액을 역산하여 추정된 금액으로, 부채 범위는 전체 금융권(대부업권 포함, 단, 연체율 계산시에는 제외)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였다.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는 '〈참고〉 자영업자의 출처별 정의 및 자영업자 부채 분석범위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9. 대구 자영업자 부채 추이⁹⁰⁾

주: 1) 분기말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그림 11. 지역별 자영업자 차주 1인당 부채 수준⁹¹⁾

주: 1) 2024.2/4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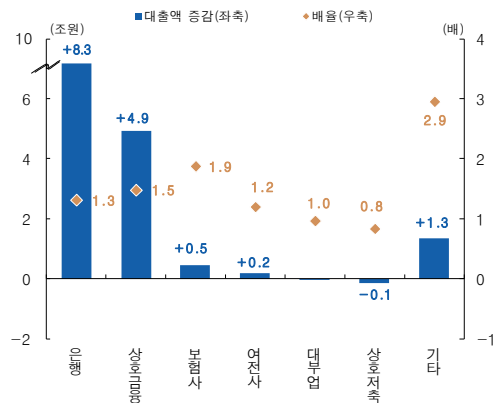
그림 10. 대구 자영업자 부채⁹¹⁾ 구성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최근 5년간 자영업자 부채 증감을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완만하게 늘었으며 비은행권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⁹⁰⁾ 기타 업권(2.9배)⁹¹⁾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보증 및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정책 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시기별로는, 은행권 대출은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 집중되었으며 상호금융 등 비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2021~2022년중 취급이 많았다. 우량차주 감소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은행권을 통한 대출여력이 축소되고 비은행권 차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90) 2024년 2/4분기말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잔액은 2019년말 대비 총 15.1조원 증가하였으며,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8.3조원, 비은행에서 6.8조원 증가하였다. 비은행기관 중에서는 상호금융의 증가규모가 가장 컸다(+4.9조원).

91) 새출발자금(대출보증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2022.10월 출범)이 기타 업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금융권에서 이관된 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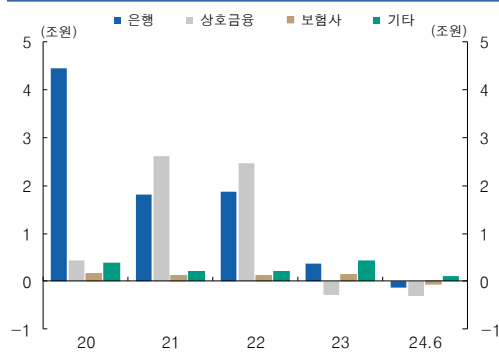
그림 12.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업권¹⁾별 증감²⁾


주: 1) 기타 업권은 대출보증, 새출발기금(22.10월 출범) 등을 포함

2) 대출액 증감은 19.4/4분기-24.2/4분기 말잔의 절대 증감, 배율은 상대 비율임 (19.4/4=1)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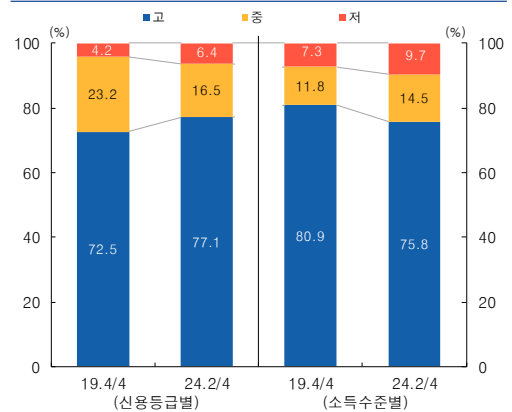
그림 13.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주요 업권별 증감(연중)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신용 및 소득 수준⁹²⁾별로 보면, 저신용이거나 저소득인 자영업 차주에서 부채 증가세가 뚜렷하였다. 최근 5년간 신용등급별로는 중신용 대출 비중은 축소된 반면 저·고신용 비중은 확대되었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 차주 비중은 증가하는 등 전

반적으로 대출차주의 소득수준이 악화된 양상을 보였다(그림 1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저신용 자영업자중 중·고소득 차주, 저소득 자영업자중 고신용 차주에서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그림 15).⁹³⁾ 저신용 또는 저소득 차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거나(중·고소득) 신용이 양호한(중·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부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신용 및 소득 수준별 비중¹⁾


주: 1) 분기말 부채잔액 기준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92) 신용등급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은 고신용, 665점~839점은 중신용, 664점 이하는 저신용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상위 30%는 고소득, 30%~70%는 중소득, 하위 30%는 저소득으로 분류하였다.

93)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서는 저신용이면서 중소득인 차주의 부채규모는 3.9배, 저신용·고소득 차주는 2.1배 증가한 반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 차주의 부채규모는 감소(0.9배)하였다.

그림 15. 자영업자 부채의 신용 및 소득 수준별 변동¹⁾

[대구]					[여타 광역시]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계)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계)				
저소득	0.9	1.9	2.0	1.8	저소득	1.2	1.7	1.8	1.7
중소득	3.9	1.5	1.6	1.7	중소득	1.8	1.2	1.8	1.6
고소득	2.1	0.8	1.4	1.3	고소득	1.2	1.0	1.5	1.4
(계)	2.1	1.0	1.5	1.4	(계)	1.4	1.1	1.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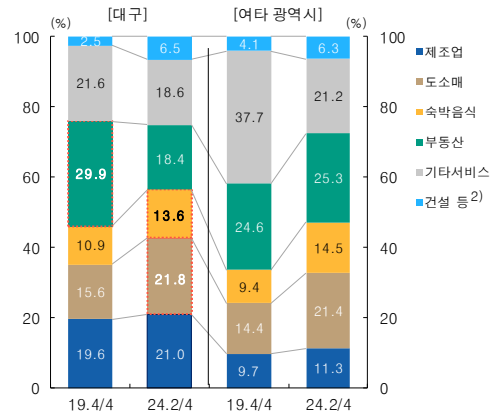
주: 1) 19.4/4분기말 잔액(A) 대비 24.2/4분기말 잔액(B) 기준 (B/A)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도소매, 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지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영업자 부채의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6.2%p; 19년말 대비 24.2/4분기말), 숙박음식(+2.7%p) 및 저신용 차주가 많은 제조업(+1.5%p)에서 여타 광역시와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부동산업의 경우 대구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투자가 급감하면서 부채 비중이 큰 폭 축소(-11.5%p)되어 여타 광역시와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고령층(60대 이상) 대출이 빠르게 확대된 반면 중간연령층(40대)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다. 최근 5년간 50대와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액은 각각 5.4조원, 8.0조원으로 전체 증가액(15.1조원)의 88.7%를 차지하였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나면서⁹⁴⁾ 이들 차주의 부채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40대 1.1배, 50대 1.3배, 60대 이상 2.0배). 이에 따라 대구지역 60

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19년말 19.6% → 24.2/4분기말 28.6%)이 여타 광역시(23.3% → 29.5%)와 유사한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4.2/4분기 현재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비중은 66.6%로 여타 광역시(61.7%) 대비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대구의 40대 자영업자 대출비중은 최근 5년간 여타 광역시(+1.0%p)와 달리 급감(-7.2%p)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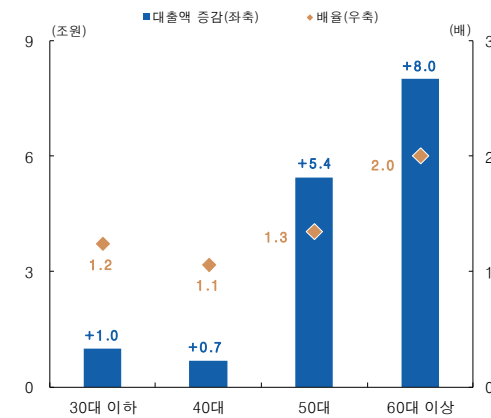
그림 16.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업종별 비중¹⁾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2)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농업 및 광업을 포괄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94) 최근 5년간 대구지역 60대 이상 자영업자수(가동 개인사업자 기준) 및 자영업 차주수 비중은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19년 26.0% → 23년 30.8%, 19년말 15.9% → 24.2/4분기말 23.3%)하였다. (국세청 국세통계, 한국은행 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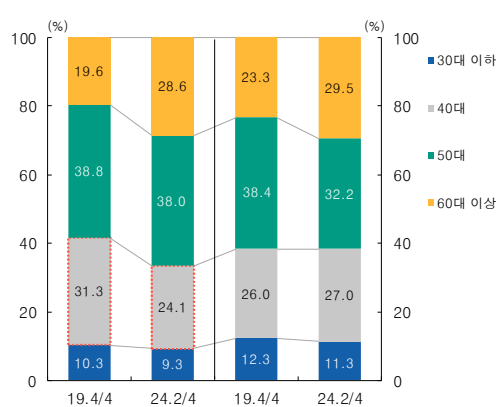
그림 17.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연령별 증감¹⁾



주: 1) 대출액 증감은 19.4/4-24.2/4분기말 잔액의 절대 증감, 비율은 상대 비율임 (19.4/4분기=1)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그림 18. 대구 자영업자 부채의 연령별 비중¹⁾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3. 자영업자 연체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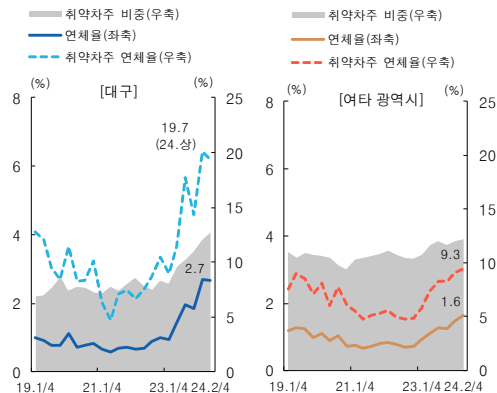
대구지역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⁹⁵⁾은 2024년 상반기 평균 2.7%(금액 기준)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자영업 취약차주⁹⁶⁾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 부진으로 대구지역의 자영업 취약차주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과 코로나19 지원 대출의 우대금리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⁹⁷⁾ 자금사정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자영업 취약차주 비중(19.하 8.1%→23년 9.7%→24.상 12.3%, 기간중 평균)과 이들 취약차주 연체율(9.0%→13.1%→19.7%)은 2023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24.상 19.7%)은 여타 광역시(9.3%)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금액 및 차주수 기준 자영업자 연체율 순위는 대구가 전국 시도 중 3위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하반기(9위)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자영업자 연체차주 1인당 연체규모 역시 대구에서 여타 광역시보다 빠르게 증가⁹⁸⁾하였다.

95) 자영업자 연체율은 분기말 연체액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분기말 연체율의 반기평균(19.하반기 평균 대비 24.상반기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자영업자 부채 현황의 분석시점(19년말 대비 24.2/4분기말)과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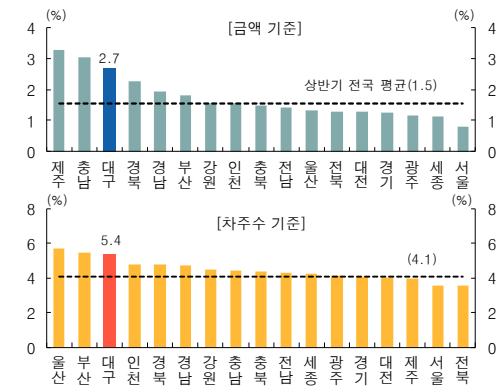
96) 자영업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대출기관수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 차주를 의미한다.

97) 대구지역은 코로나19 이전인 19.하반기 평균 자영업 취약차주 대출비중이 8.1%로 여타 광역시(9.1%) 대비 낮은 수준이었으나, 계속되는 대구지역의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하락, 대출금리 상승 및 금리 우대거치기간 종료 등으로 2023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98) 대구의 자영업자 연체차주 1인당 연체액은 24.상반기 평균 1.9억원으로 19.하반기(평균 1.1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같은 시기 1.1억원에 머무른 여타 광역시와는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그림 19. 대구지역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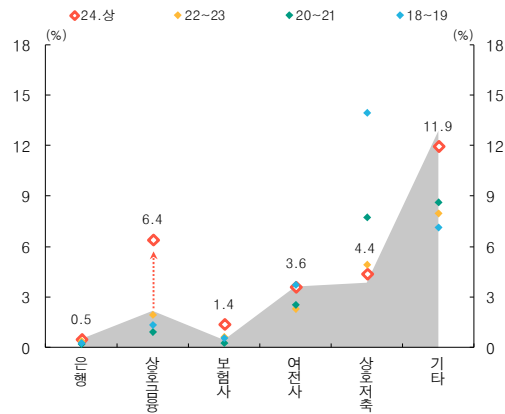
주: 1) 연체율 및 차주 비중은 금액 기준
 2) 연체율 계산시 대부업권 미포함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그림 20. 지역별 연체율(24.상)¹⁾²⁾

주: 1) 연체율 및 차주 비중은 금액 기준
 2) 연체율 계산시 대부업권 미포함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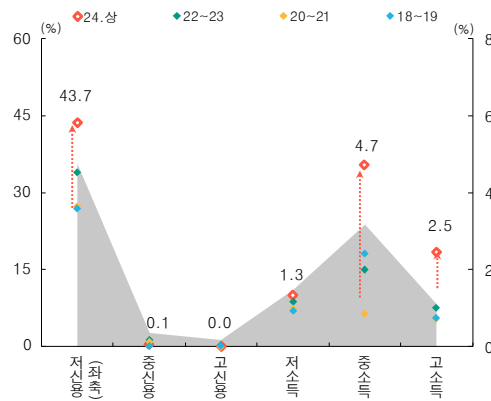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에서, 신용 및 소득 수준별로는 저신용·중고소득 차주에서 주로 상승하였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취급이 많았음에도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24.상 0.5%)을 유지한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상호금융(6.4%)과 기타 업권(11.9%)⁹⁹⁾에서 연체율 상승이 뚜렷하였다.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여타 광역시 대비 대구의 상승폭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23.하 1.4% → 24.상 6.4%, 여타 광역시 1.3% → 2.2%). 신용 및 소득 수준별로는, 저신용 차주와 중고소득 차주의 연체율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다. 저신용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이 확대되었으나 내수회복 지연으로 매출 증가가 제한되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중고소득 자영업 차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상승, 코로나 피해 지원 우대조치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상황 여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대구 자영업자 업권별 부채 연체율¹⁾²⁾

주: 1) 연체율은 분기말잔 연체율의 기간중 평균, 대부업권 미포함
 2) 은행은 여타 광역시 기준 연체율(24.상반기 평균)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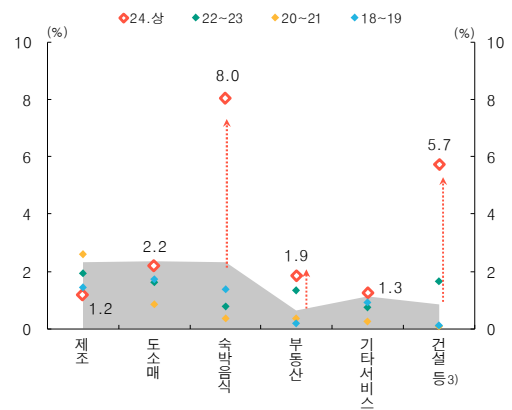
99) 기타 업권은 새출발자금 등이 해당업권으로 분류되고 타 업권의 부실(우려)채권이 편입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그림 22. 대구 자영업자 신용소득 수준별 부채 연체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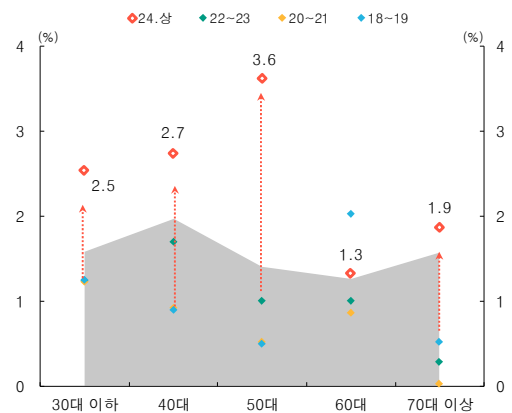
주: 1) 연체율은 분기말잔 연체율의 기간중 평균, 대부업권 미포함
 2) 음영은 여타 광역시 기준 연체율(24.상반기 평균)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과 부동산·건설 등에서, 연령별로는 50대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자영업자 중 숙박음식업의 연체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상승(+7.4%p, 19.하 0.6% → 24.상 8.0%)하여 24년 상반기 현재 여타 광역시 평균(2.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대구 숙박음식업 연체차주의 1인당 연체액은 24년 상반기 기준 여타 광역시의 4.4배¹⁰⁰⁾에 달했다. 부동산, 건설 등의 연체율도 대구지역 건설경기 부진 등이 반영되어 여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대구 자영업 차주 전 연령층에서 연체율이 여타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50대 자영업자에서 연체율 수준(대구 3.6%, 여타 광역시 1.4%; 24.상)과 상승 속도가 가장 두드러졌다. 실제로 2024.2/4분기말 기준 대구지역 숙박음식업 연체액의 83%가 50대 차주에게서 발생하였다. 한편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갈

은 기간중 대출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상반기 현재 연체율은 다른 연대에 비해 여타 광역시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림 23. 대구 자영업자 업종별 부채 연체율¹⁾²⁾

주: 1) 연체율은 분기말잔 연체율의 기간중 평균, 대부업권 미포함
 2) 음영은 여타 광역시 기준 연체율(24.상반기 평균)
 3)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농업 및 광업을 포함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그림 24. 대구 자영업자 연령별 부채 연체율¹⁾²⁾

주: 1) 연체율은 분기말잔 연체율의 기간중 평균, 대부업권 미포함
 2) 음영은 여타 광역시 기준 연체율(24.상반기 평균)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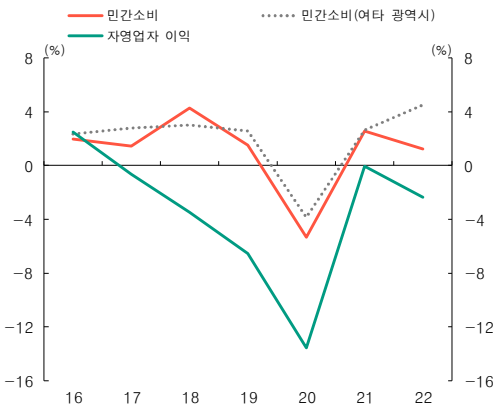
100) 2024년 상반기 평균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대구가 약 1.9억원, 여타 광역시는 1.1억원이었으며, 이중 숙박음식업의 경우 대구는 3.1억원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0.7억원)을 크게 상회하였다.

Ⅲ. 대구지역 자영업자 관련 리스크 점검

1.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인한 영업 기반 약화

대구 지역은 대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민간소비 변화에 따른 업황 변화폭이 큰 지역이다.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자영업자 영업이익은 민간소비가 감소할 때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소비 회복시에도 증가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여 소비 둔화에 따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지역민의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대구지역 소매판매액은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8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백화점 등 대형 유통보다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은 소매점과 잡화점 등에서 소비 축소가 더욱 뚜렷하였으며, 지역 자영업자의 영업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25. 대구 민간소비 및 자영업자 이익¹⁾ 증감률



주: 1) 개인 영업잉여(원천), 2020년 기준년
자료: 통계청(지역소득,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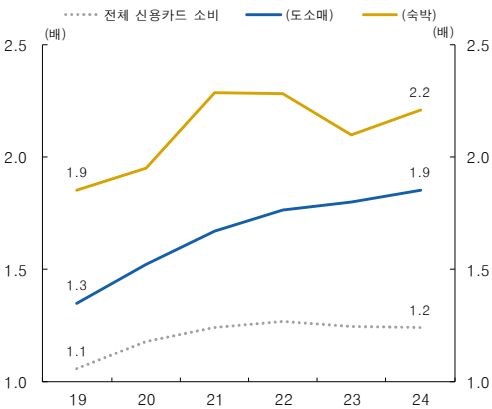
표 2. 소매판매액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022년	2023년	2024.1~9월
대구	-0.6	-3.8	-3.5
(슈퍼마켓, 잡화·편의점)	-0.2	-4.5	-7.6
(전문소매)	-0.7	-4.6	-3.4
(백화점)	3.0	-1.6	-0.2
부산	-0.2	2.0	0.9
인천	2.2	0.0	-4.4
광주	-2.1	-1.8	-3.5
대전	0.5	4.2	-2.4
울산	-1.5	2.5	-3.9

자료: 통계청(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26. 대구 지역민 신용카드 소비 역외순유출률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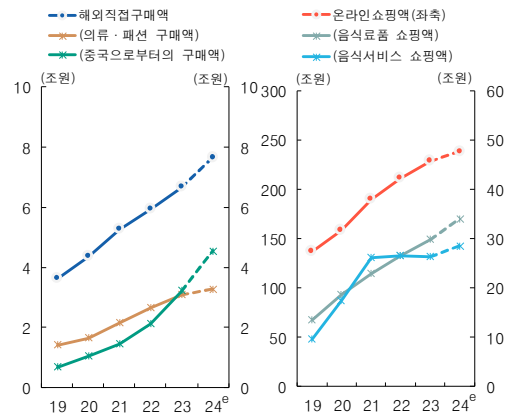


주: 1) 대구지역민(청구지 기준)의 기간중 신용카드 역내소비액 대비 역외소비액(가맹지 기준), 24년은 1~9월중
2) 도소매업 중 백화점과 면세점, 숙박업 중 호텔 대상 지출액은 제외
자료: 신용카드 3사(농협, 하나, 신한)

온라인 및 플랫폼 거래 확산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음식숙박 등 자영업자가 많은 주요 업종에서 소비의 역외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경북 등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소비유입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소비는 2022년 이후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2019~2024년)간 지역민의 역내소비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부진해진 데 크게 기인한다. 신용카드 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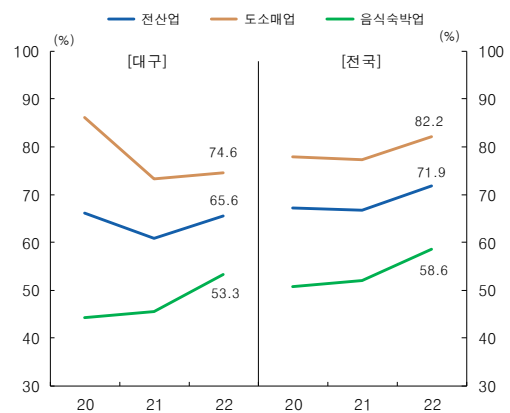
구 지역민 소비의 역외순유출률(역외소비액/역내소비액)은 19년 1.06에서 24년(1~9월중, 이하 동일) 1.24로 상승하였다. 특히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도소매업¹⁰¹⁾의 역외순유출률은 더욱 빠르게 상승하였다(19년 1.35 → 24년 1.85). 이는 온라인·플랫폼 거래의 확산으로 타 지역 기반 비대면 소비가 용이해진 반면, 대구지역에 기반한 오프라인 도소매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의류·패션 관련 분야는 최근 해외직접구매의 증가가 역내 소비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가 상품이 많은 중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구매(60.8%, 24.3분기 기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관련 지역내 도소매 자영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숙박업 중에서도 소비의 역외순유출률¹⁰²⁾이 높아졌으며(19년 1.85 → 24년 2.21), 반면 음식업은 주로 대면으로 소비되는 특성상 역외소비 비중의 변화는 제한적이지만 코로나 이후 역내소비 회복속도는 타 업종에 비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음식료품·음식서비스 구매 증가가 오프라인 음식업 역내소비를 일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지역의 경우, 전자상거래 비중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온라인 소비 흐름에 상대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는 지역 자영업자의 경쟁 범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역외소비 유출을 가속화하고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7. 최근 해외직접구매액 및 온라인쇼핑액 추이¹⁾



주: 1) 24년은 1~9월중 구매액을 연환산한 금액
자료: 통계청(온라인쇼핑동향조사)

그림 28. 지역 및 업종별 전자상거래 기반 매출액 비중¹⁾



주: 1) 전자상거래 실적 있는 사업체 대상
자료: 중소기업벤처부(소상공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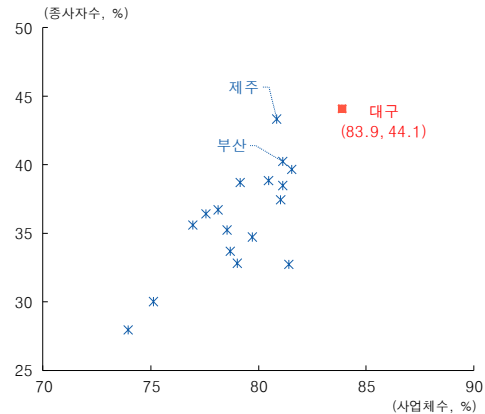
101) 2024년 1~9월중 대구 지역민의 전체 신용카드 소비 지출의 33.4%가 도소매업에서 사용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 역외순유출률 계산시 도소매업 대상 신용카드 소비 지출액 중 거래처가 대기업이나 법인인 백화점, 면세점 대상액은 제외하였다.

102) 숙박업 역외순유출률 계산시 신용카드 소비 지출액 중 거래처가 대기업이나 법인인 호텔 대상액은 제외하였다.

2. 자영업자간 이익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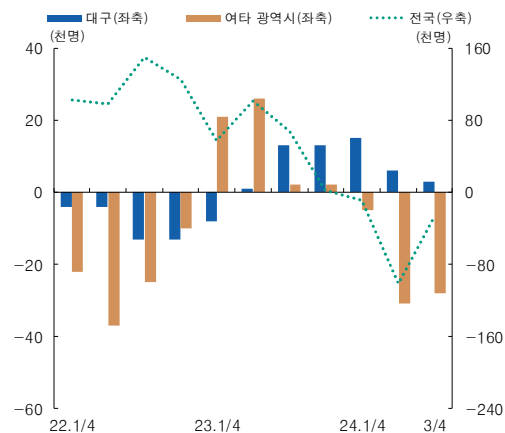
대구지역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최근 재차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경쟁강도 역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개인사업체 종사자 및 사업체 수 기준으로 본 대구의 자영업 비중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각각 44.1%, 83.9%)이다. 2024년 9월 기준 인구 100명당 자영업자 수는 10.7명으로, 여타 광역시 평균(9.5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자영업자간 경쟁강도 역시 광역시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자영업자 수는 2023년 이후 2024년 3/4분기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여타 광역시 및 전국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한편 자영업 순폐업률(신규 대비 폐업 개인사업자 비중)은 폐업자 수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감소하면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78.0%)에서 2020~22년 평균 68.2%로 하락하였다. 이는 금융지원 등으로 퇴출 등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대구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¹⁰³⁾ 그러나 2023년 들어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순폐업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높아졌으며(83.1%), 특히 2020~2022년중 금융지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폐업이 적었던 제조업(115.5%), 도매업(105.0%), 음식업(98.5%)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9. 자영업¹⁾ 비중(사업체·종사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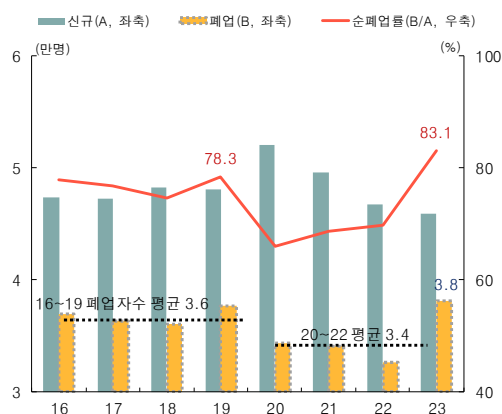
주: 1) 개인사업체 기준(2022년)
자료: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0. 자영업자수 증감¹⁾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03) 2020~2022년중 자영업자(개인사업자) 폐업자 수는 이전(2016~2019년)에 비해 급감하였는데 이는 대구지역에서 더욱 뚜렷했다. (대구 -8.3% 여타 광역시 -2.9% 전국 -2.9% 국세청 국세통계)

그림 31. 대구 자영업¹⁾ 순폐업률

주: 1) 개인사업자 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자영업자간 이익격차 확대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수익성 회복이 어려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자영업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영업비용이 상승하고 비대면·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 확대가 지속적으로 제약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구의 자영업자 간 이익 차별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지니계수¹⁰⁴⁾로 살펴본 대구지역의 자영업자 간 매출액 양극화 정도는 서비스업에서 17개 시도중 상위권인 5위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자영업자의 주요 업종인 도소매업(1위), 음식점업(2위)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에서의 자영업자 간 양극화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22.하 0.714 → 23.하 0.718 → 24.상 0.721, 매출지니계수 기준). 2020년중 지역별 자영업자 상위 20%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으나 소득 격차를 나타

내는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은 서울, 세종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양극화는 실제 폐업사유 통계에서도 확인되는데 대구지역 자영업자가 폐업사유로 사업 부진을 꼽은 비중은 2019년 37.7%에서 2023년 52.9%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서 해당 비율은 더욱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19년 35.9% → 23년 56.6%; 간이과세자 기준). 이는 향후 수익성 회복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3. 자영업자 매출액 격차(24.상)¹⁾

(서비스업)		
(단위: 명)		
순위	지역	매출지니계수
1	경북	0.764
2	울산	0.757
3	경남	0.753
4	충남	0.752
5	대구	0.750
...		
17개 시도(전국) 평균		0.734

(도소매업(유통업))		
(단위: 명)		
순위	지역	매출지니계수
1	대구	0.721
2	울산	0.702
3	광주	0.695
4	제주	0.695
5	경북	0.690
...		
17개 시도(전국) 평균		0.683

104) 매출지니계수는 매출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로렌츠곡선과 완전평등선 사이의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0-1 사이 범위에서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불평등)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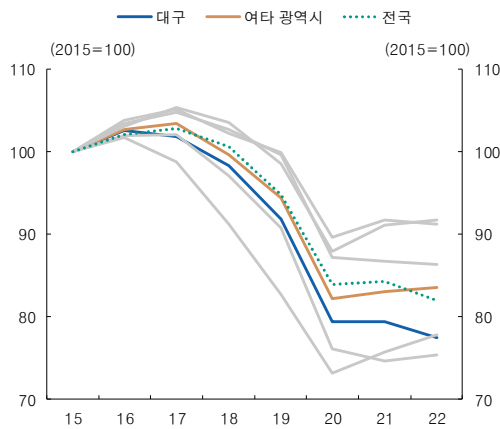
(음식업(외식업))

(단위: 명)

순위	지역	매출지니계수
1	부산	0.590
2	대구	0.587
3	경북	0.567
4	광주	0.565
5	울산	0.554
...		
17개 시도(전국) 평균		0.555

주: 1) 매출지니계수는 사업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0-1 범위중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불평등)되었음을 의미

자료: 한국신용데이터(소상공인동향 리포트)

그림 32. 대구 자영업자 이익¹⁾ 추이²⁾

주: 1) 2020년 기준년 개인 영업이익 기준

2) 회색실선은 5개 여타 광역시의 개별 추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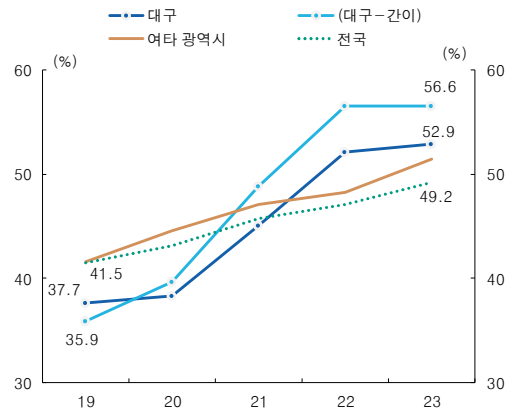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지역소득)

표 4. 자영업자 상위 20% 연평균소득 분포 (2020년)

(단위: 만원, 배)

	상위 20% (A)	하위 20% (B)	5분위 배율 (A/B)
대구	10,120	93	108.9
부산	8,804	90	97.8
인천	6,010	79	76.3
광주	7,722	74	104.4
대전	7,245	71	102.5
울산	7,412	81	91.4
서울	8,674	58	148.8
세종	7,186	56	129.2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그림 33. 자영업¹⁾ 폐업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

주: 1) 개인사업자 기준, 간이는 간이과세자

자료: 국세청(국세통계)

3. 고연령 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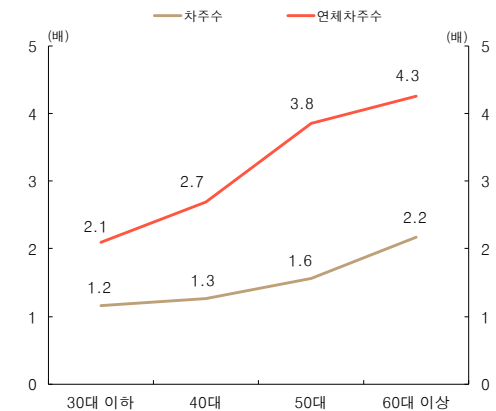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대구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고연령 차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고연령 차주의 채무부담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구의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의 차주수와 연체차주수는 2019년 4/4분기부터 2024년 2/4분기 동안 각각 2.2배, 4.3배 증가하였다. 고연령 차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규모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큰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4년 2/4분기 기준 50대 및 60대 이상 차주의 1인당 부채규모는 각각 각각 4.3억, 4.6억으로 여타 광역시(각각 3.5억, 4.0억)를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자영업자의 업력이 길어지고 고령화¹⁰⁵⁾됨에 따라 상환능력이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소득 차주 비중(24.2/4분기말 기준; 67.1%)이 50대(73.7%)에 이어 높은 수준이지만 동시에 이익 격차 등으로 인해 저소득 차주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19.5%). 이는 고연령 자

영업자 중 업력이 긴 경력 자영업자와 진입 초기의 고연령 자영업자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의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지역 고연령 자영업자는 여타 광역시 대비 차주수 증가 속도, 높은 부채수준으로 실질적인 채무부담과 대출의존도는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연령 차주의 높은 채무부담 수준은 다중채무와 연체 등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대구지역의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은 고연령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여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구지역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였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각각 해당 연령대 차주의 13.6%, 13.2%로 전 연령대 취약차주 비중(12.4%)을 상회하였다. 이는 여타 광역시의 취약차주 비중(전체 12.2%, 50대 9.8%, 60대 이상 12.9%)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지역 고연령 자영업자의 대출 구조가 여타 지역보다 더 취약함을 시사한다. 최근 내수회복 지연과 고금리 등에 따른 원리금 부담 증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금융 축소 등으로 인해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추가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는 저신용-저소득자가 많은 고연령층에서 다중채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업력이 짧은 고연령 취약차주의 경우 내수회복 지연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더욱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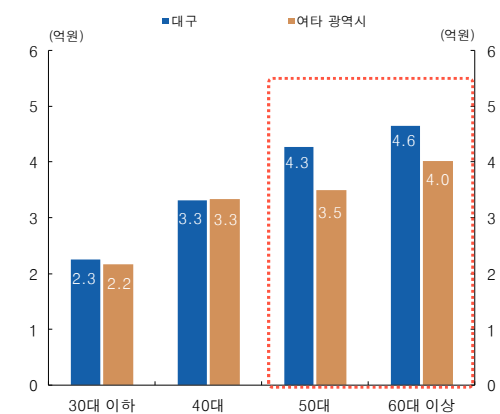
질 수밖에 없으며, 대출의존도 증가로 이어져 향후 자영업 부채 연체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34. 대구 자영업자 연령별 차주수¹⁾ 증가율



주: 1) 19.4/4분기말 대비 24.2/4분기말, 대부업권은 미포함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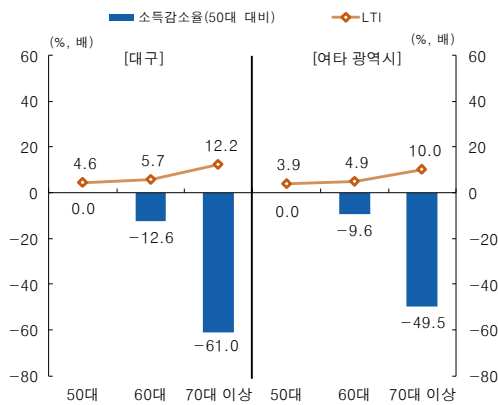
그림 35. 자영업자 연령별 1인당 자영업자 부채 (24.2/4분기)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105) 전국 기준 근속기간이 21년 이상인 자영업자 비중은 2019.8월 17.7%, 2023.8월 19.6%로 자영업자의 업력이 점차 길어지고 고연령화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6. 자영업자 연령별 소득감소율¹⁾ 및 소득 대비 부채(LTI)²⁾(24.2/4분기)



주: 1) 지역별 50대 평균소득 대비 각 연령대 소득
 2) 자영업자의 가계 및 사업자 대출 합산액 기준
 자료: 가계부채DB(한국은행)

고연령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향후 상환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 고연령으로 접어들수록 평균소득은 감소하고 상환여력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연령 간 상환여력 격차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2024년 2/4분기 기준 대구지역의 고연령 자영업 차주의 평균소득은 50대 평균소득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60대 19.4/4 -10.3% → 24.2/4 -12.6%, 70대 이상 -44.3% → -61.0%). 이와 함께 소득대비 부채 수준(LTI)도 고연령층에서 여타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LTI(배): 대구 60대 5.7, 70대 이상 12.2, 여타 광역시 60대 4.9, 70대 이상 10.0). 소득 기반의 상환여력¹⁰⁶⁾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내수부진이 이어질 경우 고연령 자영업자의 부채상환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IV.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 직후 급증하였다가 2023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여타 광역시에 비해 상승 속도도 빠른 편이다. 대구는 여타 지역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피해로 인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등 영향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구지역 소비 개선이 지연되고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 이후 대출금리 상승, 금리우대 및 거치기간 종료 등이 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최근 대구지역 자영업은 역내소비 축소로 인한 영업기반 약화와 높은 경쟁강도 등으로 자영업자간 이익 격차가 확대되고, 채무부담이 높은 취약 자영업자(하위소득·고령층 등)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는 최근 민간소비 및 건설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내수 개선 지연, 대구 및 인근 지역의 상용근로자수 감소, 여타 지역 대비 제한적인 수출증가에 따른 낙수효과 미흡 등으로 영업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지역 자영업 전체의 수익 확대가 구조적으로 제약된 가운데 높은 경쟁강도가 지속되면서 지역 자영업자간 이익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수준이 높은 고령층 및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6) 다만 가계부채DB의 제공자료 제약으로 차주별 보유자산 현황은 파악이 불가하나 통상적으로 고연령층의 보유자산 총액이 높은 경향을 고려할 때 자산을 통한 상환여력은 타 연령대보다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시사점

대구 자영업자의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출발기금¹⁰⁷⁾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채취업 등이 어려운 취약 자영업자(고령층 등)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부실(우려)여신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자금공급 위축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출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금리와 원금 조정 등을 유도하여 지역 자영업자의 잠재부실을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영업자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재창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재교육 확대 등 고용지원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연령 자영업자는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취업이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향¹⁰⁸⁾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 컨설팅, 지역 일자리 연계 등 각종 취업정보 활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환능력과 취약성 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영업자 신용

관련 지표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변동성이 높고 개인 차주인 특성상 대출 취급과 사후관리에 있어 법인 차주의 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LTI, DSR 등의 다양한 심사지표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크고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대출 취급 이후에도 건전성 및 정책금융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는 자산 등 담보가치나 신용도뿐 아니라 LTI 등 자영업자의 영업성을 나타내는 차주단위 소득 기반 지표를 바탕으로 자영업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와 취약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다만 지역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재무지표와 실제 소득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에 대한 고도화된 추정값 산출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은행 등¹⁰⁹⁾이 활용중인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CSS; Credit Scoring System)에서의 금융·비금융(대안) 정보를 자영업자 소득 추정과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한다면 향후 연체 등 신용사건 발생 이전에도 자영업자의 능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데 유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용 절감과 매출 증

107)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도입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의 부실(우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출연기금 등을 재원으로 채권매입 등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원방식으로는 상환기간 조정(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부실차주에 대한 보유채산을 반영한 원금조정(0~80%),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금리조정 등이 있으며, 신청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즉시 중지된다.

108) 한요셉(2020)은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지속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해 50대 이후의 단독자영업자에서 높게 나타남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는 50대 이후 관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109) 최근 인터넷은행 3사, 네이버페이 및 통신3사 등에서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매출정보나 소비패턴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대안적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출에 활용하고 있다.

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물가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적기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비용을 줄이고 비대면·온라인 등 소비패턴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지역 공공 플랫폼인 ‘대구로’ 이용과 디지털 전환 지원 관련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개·결제수수료 절감 등¹¹⁰⁾을 통한 지역 자영업자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 자체적으로는 음식·잡·도소매업 등 자영업 밀집업종을 중심으로 창업 전 상권분석, 운영 컨설팅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방지하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민과 외지인의 지역내 자영업종에 대한 역내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등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지역민의 역내소비 확대 방안으로는 대구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확대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구로페이’는 지역 공공플랫폼 앱인 ‘대구로’와의 연계가 용이하고 지역 자영업자¹¹¹⁾를 대상으로 한 역내소비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는 2023년 4,329억원에서 2024년 2,830억원으로 축소¹¹²⁾되었으며 2025년에는 지역화폐 관련 국비지원의 전액 삭감으로 추가

축소가 예상된다.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의 사용범위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활성화하여 역내소비 증가 및 자영업자의 수익 개선 등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발행 규모 확대나 유지를 위한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사용처를 전통시장, 영세규모 한정 등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타 지역민과 외국인 등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대구지역내 소비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구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¹¹³⁾

110) 현재 대구로는 중개수수료 2%, 결제수수료 2.2%로 민간 플랫폼 대비 약 8~11% 저렴한 수준으로 지역 자영업자의 영업비용 절감과 더불어 결제일 정산에 따른 자금 융통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음식점업, 전통시장 및 택시 등 주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자 지원과 대구 역내소비 활성화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111) 대구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는 온라인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112) 2024년 대구로페이는 매달 발행일에 즉시 소진되는 등 발행규모가 지역수요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인당 한도가 축소되고 10월중 조기 소진되었다.

113) 비수도권 전시관중 관람객이 많은 대구 간송미술관 및 대구미술관과 연계하여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외부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구오페라하우스, DGB파크(대구FC홈구장), 라이온즈파크(삼성라이온즈홈구장), 사육원 등과 같이 대구시에 소재한 문화체육 관련 관광콘텐츠를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영업자의 출처별 정의 및 자영업자 부채 분석범위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출처에 따라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영업자 분석대상으로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포괄하여 서술하였으나 출처 및 용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위는 다소 상이하다.

- (국세청 국세통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일반 및 면세, 간이 과세자로 구분
- (통계청 경제총조사·전국사업체조사) 개인사업체는 개인이 혼자 소유 및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지역별고용조사) 자영업자는 유급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과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합
-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제조건설 및 운수업) 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로 정의

자영업자 부채는 가계부채DB를 이용하여 전체 금융권(대부업 포함) 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개인사업자 대출금액과 해당 차주의 가계대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다만 전체 차주가 아닌 약 100만 차주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체 규모를 추정한 값으로, 실제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구, 여타 광역시 등 지역별 분석시에는 지역구분이 되지 않는 결측치는 제외하고 지역값이 존재하는 차주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김일광	“우리나라 자영업 업체 현황과 재무특성에 관한 연구”, 2018, 지역산업연구 제41권 3호
김현열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2024, 금융브리프 포커스 33권 21호, 한국금융연구원
안군원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2024, 한국노동연구원
어승훈	“강원 영동지역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 2024, 한국은행 강원본부
임용빈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2024, 월간노동리뷰 2024-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조민경	“대구지역의 지역간, 업종별 소비유출입 특징과 시사점”, 2023,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신용데이터	“2024년 1~3분기 소상공인동향 리포트”, 2024
한국은행	“최근 가계자영업자 대출 동향 및 연체율 변동 특징”, 2024, 금융안정보고서(2024.6)
한요셉	“생애주기별 자영업 선택과 동기”, 2020, 이진국 편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제2장, 연구보고서 2020-06, 한국개발연구원
한요셉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2022, KDI FOCUS 통권 제112호, 한국개발연구원

5.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영향 분석¹¹⁴⁾

요약

혼인연령 상승,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1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광주지역의 1인가구 비중은 36.5%(22.9만 가구), 전남은 37.1%(29.5만 가구)로 전국 평균(35.5%)을 상회하며, 향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규모가 작아 주거비, 식비 등 필수재 중심의 소비 성향을 보여, 지역 내 소비 및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광주·전남지역의 가구유형별 소득, 고용, 주거 환경 등을 분석하여 1인가구의 특징을 도출하고, 이들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광주는 청년층(20~30대)과 노년층(60대), 전남은 고령층(60대 이상)을 중심으로 1인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20~40대는 미혼, 50~60대는 이혼, 70대 이상은 사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혼 연령의 상승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경제적 상태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고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의 경우 광주는 월세, 전남은 자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주거 안정성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가구유형간 1인당 평균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1인당 평균소비지출이 많고 식비·주거비 등 필수재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숙박, 부동산, 음식료품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인가구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필수재 외 교육,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의 산업에서도 생산 및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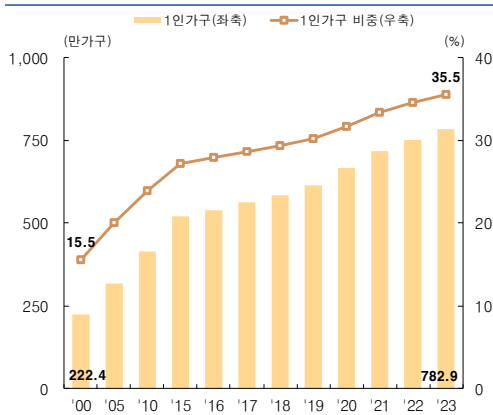
따라서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역 내 소비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 주거, 산업 측면에서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재취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지원 및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특정 부문 소비 집중에 따른 산업구조의 단순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14)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안지연 과장 ahnjy@bok.or.kr, 조진오 조사역 jinojo@bok.or.kr)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I. 검토배경

혼인연령 상승,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1인가구 규모 변화를 보면 2000년 전체가구(1,431.2만 가구) 대비 15.5%(222.4만 가구)였던 1인가구 비중이 2023년 35.5%(782.9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1인가구 비중(2020년 기준, 31.7%)은 영국(31.1%), 캐나다(29.3%), 미국(2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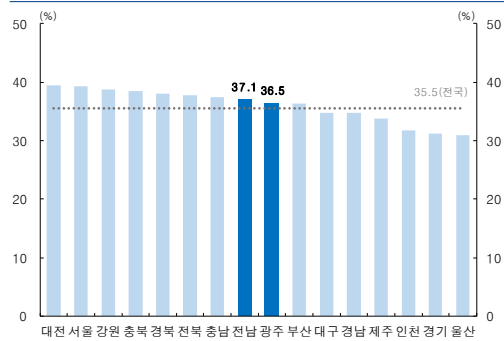
그림 1. 전국 1인가구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광주·전남지역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광주지역 1인가구 비중은 36.5%(22.9만 가구), 전남지역은 37.1%(29.5만 가구)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35.5%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 중 광주지역은 20-30대, 60대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전남지역은 60대 이상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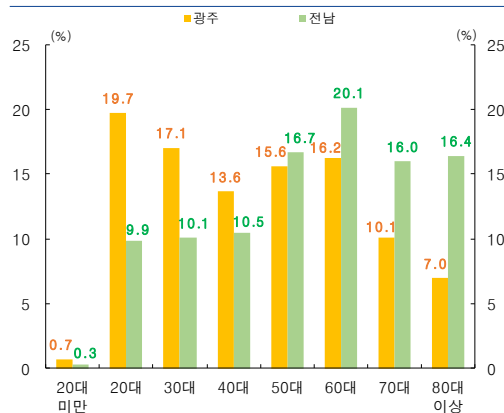
그림 2. 시도별 1인가구 비중¹⁾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3. 광주·전남 1인가구 연령별 비중¹⁾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자체 시산

광주·전남지역 내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광주지역의 1인가구는 24.1만 가구로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전남지역의 1인가구는 32.6만 가구로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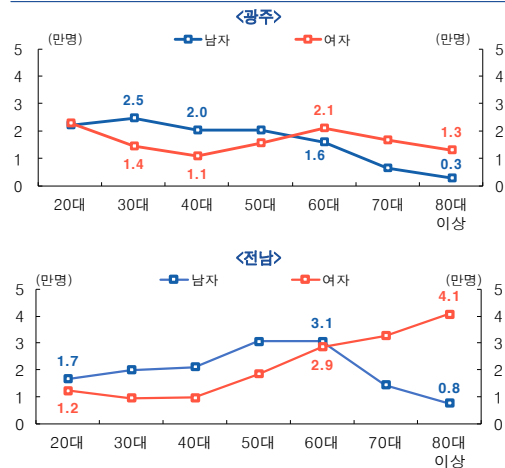
1인가구의 증가는 지역 내 소비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거비, 음식료품 등 필수재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반면 내구재(자동차, 가구 등)와 교육서비스 등은 소비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소비 구조를 변화시켜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후 1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경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가구유형별 소득, 고용 형태, 주거 환경 등을 파악하여 1인가구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향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소비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 및 특징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30-50대,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지역 남성 1인가구는 30-50대가 많으며 여성은 60대 이상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30-50대에서 남성 1인가구수가 많고 70대 이상에서 여성 1인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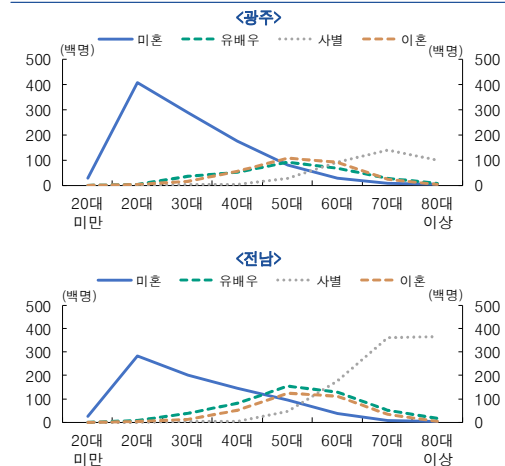
그림 4. 광주·전남 1인가구 성별 및 연령별 분포¹⁾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20-40대는 초혼 연령¹¹⁵⁾ 상승에 따른 미혼, 50-60대는 이혼, 70대 이상은 사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광주·전남 1인가구 혼인상태별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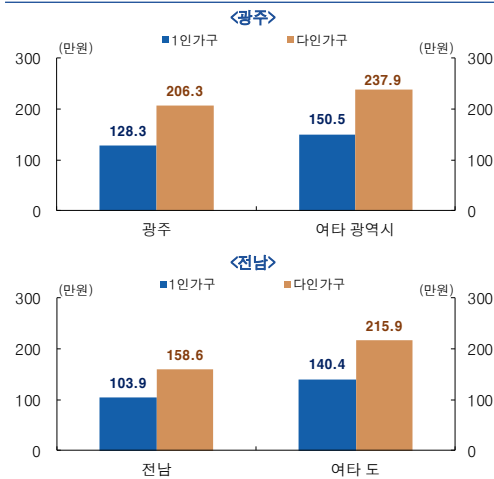


주: 1) 2020년 기준
자료: 통계청

115) 2023년 남성 초혼연령은 33.97세, 여성은 31.45세로 2000년 29.28세, 26.49세와 비교했을 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가구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128.3만원으로 다인가구주 월평균 소득(206.3만원)의 62.2% 수준에 불과하며, 여타 광역시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50.5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103.9만원으로 다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58.6만원)의 65.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도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140.4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광주·전남 가구주 월평균 소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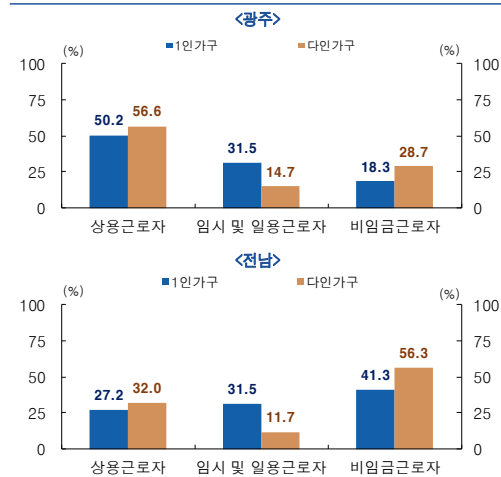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주는 다인가구주에 비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주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50.2%로 다인가구주(56.6%)보다 낮은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31.5%로 다인가구주(14.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광주지역 1인가구주는 여타 광역시(상용근로자 비중 55.8%, 임시·일용근로자 26.4%)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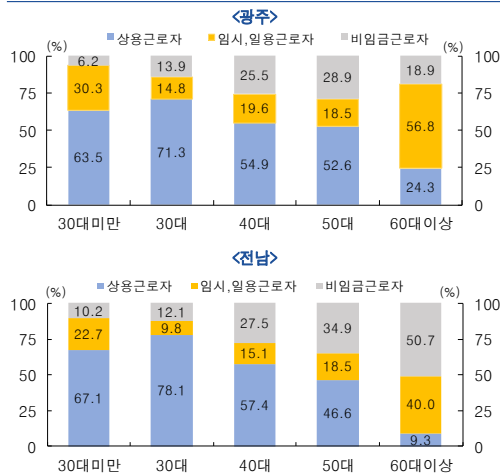
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주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27.2%로 다인가구주(32.0%)보다 낮은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31.5%로 다인가구주(1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1인가구주 비중은 41.3%로 다인가구주(56.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전남지역 1인가구주는 여타 도(상용근로자 비중 38.3%, 임시·일용근로자 30.0%, 비임금근로자 31.7%)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광주·전남 가구유형별 가구주 종사상 지위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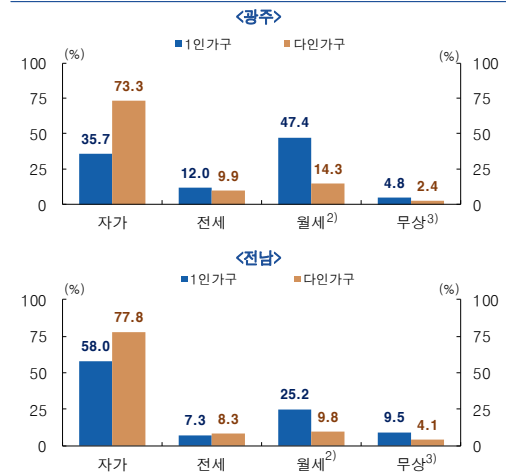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주의 연령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30대 미만 1인가구주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30.3%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에서도 56.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30대 미만 1인가구주의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22.7%로 높은 수준이며, 60대 이상에서도 40.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광주·전남 1인가구주 연령별 종사상 지위 분포¹⁾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통계청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_하반기 C형」 마이크로데이터, 자체 시산

그림 9. 광주·전남 가구유형별 주택 점유형태¹⁾

주: 1)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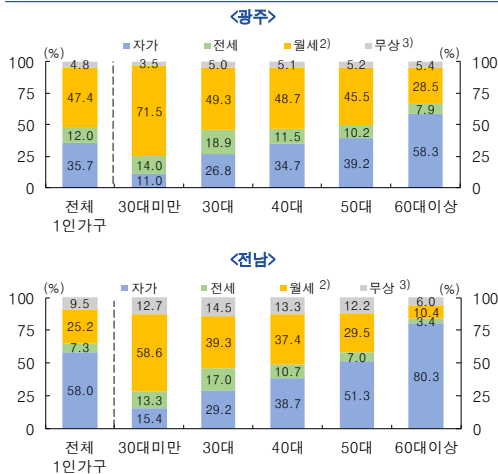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를 포함

3) 관사, 사택 등

자료: 통계청

광주지역 1인가구의 주된 주택 점유형태는 월세, 전남지역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비중은 35.7%로 다인가구(7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반면 월세비중은 47.4%로 다인가구(14.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타 광역시(자가 27.7%, 월세 47.2%)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지역 1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중 자가비중은 58.0%로 다인가구(77.8%)보다 낮은 수준이며, 월세비중은 25.2%로 다인가구(9.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도(자가 39.9%, 월세 38.2%)와 비교하면 전남지역 1인가구는 자가비중이 높고 월세비중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30대 미만에서 월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은 30대 미만 1인가구의 월세비중이 71.5%로 가장 높았으며, 30-50대도 4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월세비중이 낮고 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30대 미만 1인가구의 월세비중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30-50대도 30%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월세비중이 낮고 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광주·전남 1인가구주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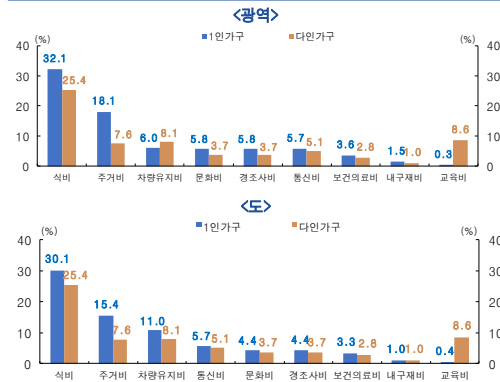
주: 1) 2020년 기준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를 포함
 3) 관사, 사택 등
 자료: 통계청

Ⅲ. 1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분석

1.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¹¹⁶⁾를 바탕으로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특징을 비교한 결과 1인가구는 식비(외식비 포함)와 주거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1인가구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식비(32.1%), 주거비(18.1%)가 전체 소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광역시의 다인가구 소비지출은 식비(25.4%), 교육비(8.6%), 차량유지비(8.1%), 주거비(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의 1인가구와 다인가구 소비지출 구조는 광역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

구와 다인가구의 소비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소비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광역·도 가구유형별 총소비지출 비중¹⁾

주: 1) 2021년 소비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체 산산

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가구유형간 1인당 평균소비지출¹¹⁷⁾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1인당 평균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특성(가구주의 나이, 성별, 교육수준, 근로여부, 결혼상태, 가구 거주형태, 소득수준, 가구 내 자녀유무 등), 연도, 거주지역이 나타내는 효과를 통제했을 때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당 평균소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구유형에 따라 소비지출 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인가구는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에서 다인가구보다 소비가 더 많은 반면, 교육비, 차량유지비, 통신비에서 소비가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16) 1인가구 소비지출 특징 분석을 위해 2000년~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만, 서베이 자료 특성상 소득과 소비 데이터는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조사연도에 맞춰 자료를 조정하였다. 또한 해당 변수들은 소비지출가치수를 사용하여 실질 값으로 조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1인 및 2인 이상 다인가구의 가구주로 제한하였다. 관측치 수 한계로 광주지역은 「광역」(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자료를, 전남지역은 「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17) 가구원 수에 따라 실질적 가구소득과 지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단위로 표준화하는 균등화 작업이 필요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OECD에서 제안한 제곱근 지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1인당 평균소비지출 비교

	광역시	도
1. 총 소비지출		
1인가구 더미	0.127*** (0.0223)	0.130*** (0.0229)
R-squared	0.821	0.830
2. 식비(외식비 포함)		
1인가구 더미	0.153*** (0.0255)	0.125*** (0.0241)
R-squared	0.741	0.753
3. 주거비		
1인가구 더미	0.238*** (0.0267)	0.257*** (0.0285)
R-squared	0.624	0.611
4. 보건의료비		
1인가구 더미	0.173*** (0.0637)	0.0781 (0.0514)
R-squared	0.241	0.251
5. 문화비(취미 및 여가 활동비 등)		
1인가구 더미	0.221*** (0.0389)	0.183*** (0.0412)
R-squared	0.423	0.409
6. 교육비(공교육비와 사교육비)		
1인가구 더미	-0.181*** (0.0619)	-0.0500 (0.0551)
R-squared	0.526	0.549
7. 차량유지비		
1인가구 더미	-0.207 (0.126)	-0.206* (0.111)
R-squared	0.347	0.405
8. 경조사비		
1인가구 더미	0.152** (0.0691)	0.00666 (0.0463)
R-squared	0.392	0.372
9. 내구재(전자제품 및 가구 구입비)		
1인가구 더미	0.0183 (0.0459)	-0.00356 (0.0408)
R-squared	0.075	0.096
10. 통신비		
1인가구 더미	-0.213*** (0.0282)	-0.162*** (0.0256)
R-squared	0.656	0.668
관측치 수	53,438	52,517

주: 1) *** p<0.01, ** p<0.05, * p<0.1을 나타냄

2) 소비 및 소득 변수는 균등화한 값 사용

3) 공간제약 때문에 주요 계수 값만 표시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의 계수 값은 표에서 생략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자체 시산

1인가구 및 다인가구의 소비항목 차이는 지역 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식비·주거비 등 특정 항목에 소비가 편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향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지역 내 소비와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1인가구 소비지출 분석 모형

$$Y_{i,r,t} = \beta_1 + \beta_2 \times 1\text{인가구여부}_{i,r,t} + \beta_3 \times X_{i,r,t} + \mu_r + \rho_t + \epsilon_{i,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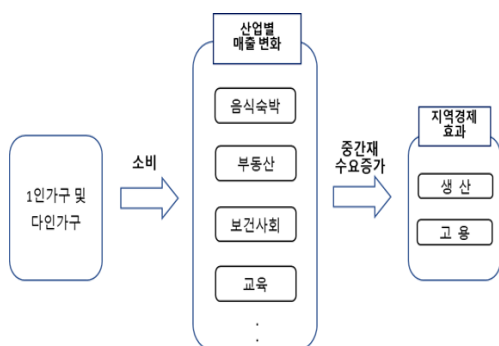
아래첨자 i 는 가구를 나타내며, r 는 거주지역, t 는 시간을 의미한다. Y 는 로그(log)를 취한 1인당 평균소비지출값을 나타내며, 1인가구 여부는 1인가구면 1, 다인가구면 0인 더미변수이다. X 는 가구주 및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가구주의 나이, 성별, 교육수준, 근로여부, 결혼상태 및 가구 거주형태, 자녀유무, 소득수준 변수를 사용한다. μ 는 지역 고정효과, ρ 는 연도 고정효과, 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해당 분석을 통해 얻은 베타값(β_2)은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 1인당 평균소비지출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베타값이 양수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1인당 평균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음수면 1인가구의 소비지출이 다인가구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2. 1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가구유형별 월 평균소비지출자료(통계청)¹¹⁸⁾와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¹¹⁹⁾를 활용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가 음식숙박, 부동산, 보건복지, 교육 등을 소비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연관된 산업들의 중간재 수요를 증가시켜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세부항목별 소비지출 구조를 파악한 후 각각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12.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참고 2

산업연관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표의 개념에 따르면 총투입액(=중간투입+부가가치)과 총산출액(=중간수요+최종수요) 사이에는 항등식이 성립하며,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X + Y = X$$

$$X = (I - A)^{-1}Y$$

(단, A는 투입계수행렬, X는 총산출액벡터, Y는 최종수요벡터)

(I - A)⁻¹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Y)가 1단위 증가할 때 총산출액(=X)이 증가하는 양을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로, 해당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를 합산한 것이다. 생산유발계수에 취업계수를 적용하여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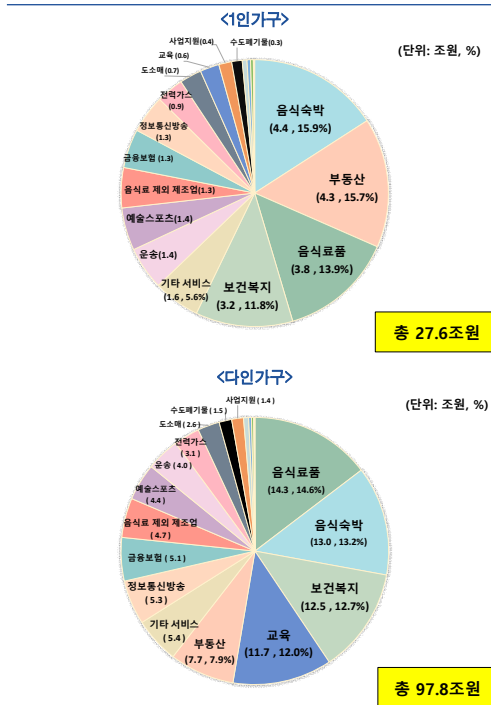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다인가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부동산, 음식료품, 보건복지 부문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크지만 교육,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등에서는 유발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인가구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

118) 2022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의 가구원수별 월 총소비지출 통계자료에 2023년 광주·전남 지역의 1인가구 및 다인가구 수를 곱하여 해당 지역의 가구유형별 총소비지출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119)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별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지역 간 및 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 통계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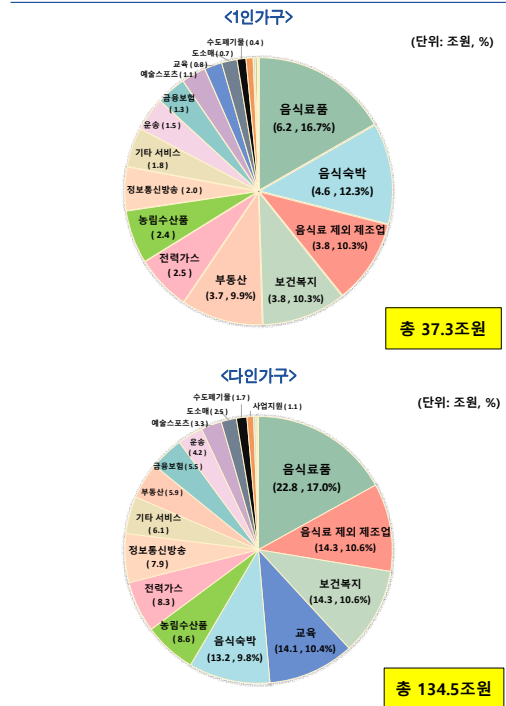
교육,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생산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남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료품, 음식숙박, 제조업(음식료품 제외), 보건복지 부문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크지만 교육 부문에서는 유발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음식료품, 제조업(음식료품 제외), 보건복지, 교육, 음식숙박 등의 산업에서 생산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3. 광주지역 1인 및 다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자료: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자체 시산

그림 14. 전남지역 1인 및 다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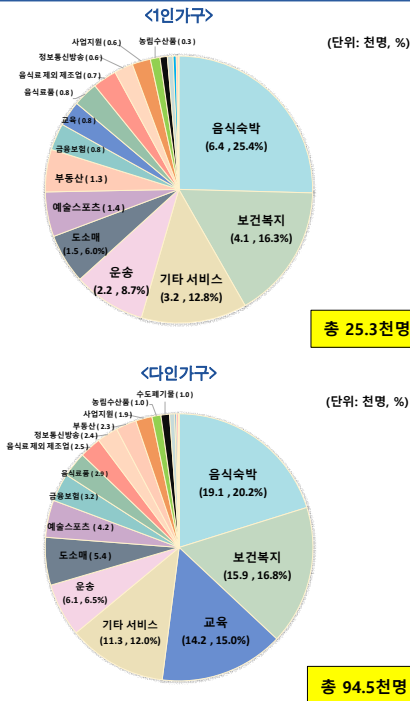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자체 시산

광주·전남지역 1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고용유발효과는 다인가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보건복지, 기타서비스¹²⁰⁾, 운송 부문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크지만 교육 부문에서는 유발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1인가구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음식숙박, 보건복지, 교육, 기타서비스, 운송 등에서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지역 내 음식숙박, 보건복지, 농림수산물, 기타서비스 부문에서 고용효과가 크지만 교육, 금융보

120) 기타서비스업에는 산업 및 전문가 단체, 기타 협회 및 사회단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미분류 자가소비 생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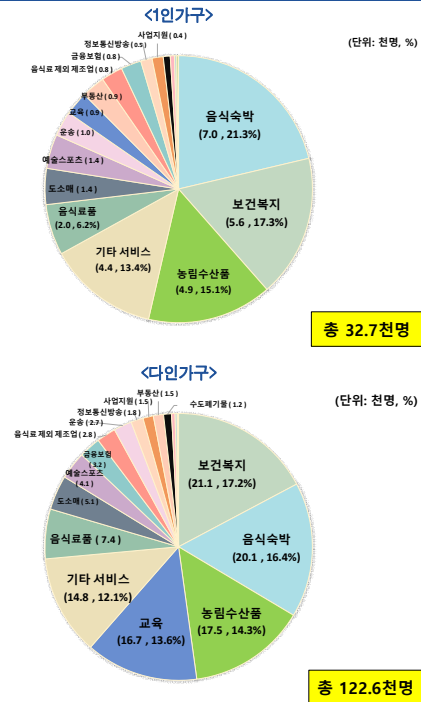
험 부문에서 고용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보건복지, 음식숙박, 농림수산물, 교육, 기타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5. 광주지역 1인 및 다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자료: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자체 시산

그림 16. 전남지역 1인 및 다인가구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내 산업별 고용유발효과



자료: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2), 자체 시산

IV. 결론 및 시사점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혼연령 상승과 인구 고령화로 광주지역은 20-30대와 60대, 전남지역은 60대 이상의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50대,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주로 20-40대는 미혼, 50-60대는 이혼, 70대 이상은 사별로 인해 1인가구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다인가구주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은 다인가구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광주·전남지역 모두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의 주거안정성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가구의 월세 거주 비율은 47.4%로 다인가구(14.3%)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전남지역에서도 1인가구의 월세(25.2%) 비중은 다인가구(9.8%)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은 30대 미만에서 71.5%로 월세 비중이 가장 높고, 30-50대에서도 4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남지역은 30대 미만에서 58.6%로 월세 비중이 높으며, 30-50대에서도 3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유형간 1인당 평균소비지출 차이를 분석

한 결과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이 많고 식비·주거비 등 필수재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소비지출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숙박, 부동산, 음식료품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인가구의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인가구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필수재 외 교육,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의 산업에서도 생산 및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는 지역 내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역 내 음식숙박, 부동산, 보건복지 등 특정 산업이 전체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커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다인가구 중심의 소비구조에서 활성화되던 산업(교육,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소비구조 변화는 산업 구조의 재편과 지역 경제의 성장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1인가구 비중 증가에 따라 특정 산업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일부 산업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구조가 변하고 특정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의 성장과 복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1인가구의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고용 안정 정책이 요구된다. 1인가구의 고용안정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기회 확대,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층 1인가구가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1인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1인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1인가구가 월세에서 자가전세 등의 주거 형태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소비가 특정 산업에 집중될 경우 산업 구조가 단순화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면 교육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고용안정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소형 주거시설 공급 및

공유형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면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부동산·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배준형	“광주지역 1인가구의 특징 및 시사점”, 2018,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행정데이터로 본 1인가구 데이터”, 2023
유진성	“1인가구의 특성 분석과 경제적 영향”, 2020, 한국경제연구원
이재호 · 유지원	“최근 1인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소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2024, 한국은행
이준범 · 원영진	“전남지역 관광 현황 및 경제적 효과”, 2020, 한국은행 목포본부
정혜리	“최근 대구지역 1인가구 주요 현황 및 특징”, 2020,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자료 목록¹⁾

- 강원 영동지역의 사업체 창업 및 생존에 관한 연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경제학과 김민창 교수, 강릉본부 기획조사팀 김경민 과장 (2024/12)
- 강원특별자치도 영동지역 교통 SOC 개선에 대응한 지역경제 성장방안 연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손철 교수, 강릉본부 기획조사팀 배기원 조사역 (2024/12)
- 경북지역 서비스업 현황 및 발전방안
포항본부 기획조사팀 김주완 과장, 이성민 청년인턴 (2024/12)
- 부산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부산본부 기획금융팀 강준영 과장, 조영욱 조사역 (2024/12)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제주지역 관광경기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규호 교수,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이한새 조사역 (2024/12)
- 울산지역 가계소비의 특징 및 시사점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최현정 과장, 안주현 조사역, 오한음 청년인턴 (2024/12)
- 전북지역 부동산PF 유동화증권 현황 및 리스크 점검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박현준 과장, 김재휘 조사역, 김영주 조사역, 노정원 청년인턴 (2024/12)
- 청주공항 항공 물류 기지화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김상미 과장 (2024/12)
- 최근 광주지역 주택시장 부진 요인 및 향후 전망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주문석 과장, 정윤재 조사역, 윤창석 조사역, 오민경 청년인턴 (2024/12)
- 충남지역 지방소멸의 주요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조광래 과장, 최재혁 조사역 (2024/12)
- 강원지역 외국인 관광객 동향 및 대응방안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이승주 조사역 (2025/01)
- 경기도 체류 외국인 인구 구성 변화에 관한 동적 분석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신선호 교수,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김예진 과장 (2025/01)
-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김형준 과장, 노유화 청년인턴 (2025/01)
- 광주·전남지역 경제 주요 이슈 및 전망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선진산 과장, 최열매 조사역, 조진오 조사역 (2025/01)
- 대구지역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현황 및 시사점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 김현웅 과장, 조든찬 조사역, 윤진석 청년인턴 (2025/01)
-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박나라 과장 (2025/01)
- 디지털 노마드 확산배경과 대구지역경제에의 시사점
대구경북본부 경제조사팀 박나라 과장 (2025/01)
- 부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최지영 과장, 위서연 과장 (2025/01)
- 전남 서남부지역의 조선업과 지역경제(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김상욱 과장, 김민수 조사역, 강태검 청년인턴 (2025/01)
- 전북지역 관광산업의 특징 및 활성화 방안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정원석 과장, 김재휘 조사역 (2025/01)
-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대내외 여건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박현준 과장, 김영주 조사역, 이슬빈 조사역 (2025/01)
- 주택시장에서 금융제약이 잠재적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북 지역과 타 지역의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김중희 교수,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김재휘 조사역 (2025/01)
-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탄소세 파급영향 분석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윤동근 교수, 부산본부 기획금융팀 김하영 과장 (2025/01)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이광수 교수, 강원본부 기획금융팀 나용남 조사역 (2025/01)

1)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서 최근(2024.12~2025.6월) 작성·발간한 조사연구자료 목록입니다. 과거 조사연구자료 목록은 기존 발간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분석: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모델링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양성준 교수,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전바울 연구원,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김영주 조사역 (2025/01)
-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 괴리 배경 및 시사점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최재혁 조사역 (2025/01)
- 최근 대전지역 고용 상황의 주요 특징 및 평가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정혜운 과장, 임연빈 조사역 (2025/01)
- 최근 제주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 배경 및 시사점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박으뜸 과장, 이한새 조사역 (2025/01)
-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
동경국제대학 상학부 송준현 교수,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정혜운 과장 (2025/01)
- 충청남도 인구구조와 금융포용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금융팀 이승엽 과장, 박서희 조사역, 허인지 조사역 (2025/01)
-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현황 분석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안지연 과장, 업무팀 조진오 조사역 (2025/03)
- 최근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의 특징 및 대응 방안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정성환 과장 (2025/03)
- 최근 외식산업 수익구조 변화 및 시사점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이재린 과장 (2025/03)
- 지역재정승수와 지역 간 스�필오버 효과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이지영 과장 (2025/04)
- 탈산소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최항미 교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술실용융합학과 임병권 교수,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정혜운 과장 (2025/04)
- 주요국의 메가시티 조성 사례 및 시사점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전수현 과장 (2025/05)
- 강원지역 대학 중심의 혁신성장 방안: 스위스를 중심으로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이지영 과장 (2025/06)
- 美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전영호 과장, 김재휘 조사역 (2025/06)
-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최대한 과장, 정희원 조사역 (2025/06)
- 최근 강원지역 은행권 자금흐름 동향
강원본부 기획금융팀 김동욱 과장, 이시은 조사역 (2025/06)
- 충북지역 노년층 일자리 특징 및 시사점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정혜리 조사역 (2025/06)
- 美 신정부 관세정책이 충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 남현우 과장, 허인지 조사역 (2025/06)

「지역경제보고서」 담당자*

* 작성 당시 소속 부서 기준

부문	담당자			
작성 총괄 ·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조사국	정민수 · 정희완 · 강보민 · 안지민		
Ⅰ. 권역별 경제 동향				
1. 수도권	경기본부	윤동재 · 이채린 · 진승민 · 박은기	인천본부	최대한
2. 동남권	부산본부	최지영 · 곽승주 · 서문주	울산본부	신준식 · 안주현 · 이선우 · 조세영
	경남본부	양정태 · 이동훈		
3. 충청권	대전세종충남본부	김수한 · 남현우 · 정혜윤 · 허인지	충북본부	김상미 · 정혜리
4. 호남권	광주전남본부	허수정 · 안지연 · 정윤재 · 최창원	전북본부	박현준 · 이솔빈
	목포본부	김상욱 · 우민지 · 김현욱		
5. 대경권	대구경북본부	손윤석 · 이진기 · 조든찬 · 정유정	포항본부	허성준 · 박승화 · 이동건
6. 강원권	강원본부	정성환 · 이지영	강릉본부	
7. 제주권	제주본부	이한새 · 양재운 · 김명동		
Ⅱ. 지역경제포커스				
1. 최근 반도체산업 동향 및 전망	경기본부	윤동재 · 진승민		
2. 인천지역의 대미수출 현황 및 이슈	인천본부	최대한		
3. 최근 부산지역 관광산업의 주요 특징 및 향후 과제	부산본부	곽승주		
4.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울산본부	신준식 · 안주현		
5.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경남지역 조선업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	경남본부	양정태 · 이동훈		
6. 최근 디스플레이산업 동향 및 전망	대전세종충남본부	남현우		
7. 충청지역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전망	충북본부	정혜리		
8. 전남지역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광주전남본부	안지연		
9.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과제	전북본부	전영호		
10. 전남지역 어업 현황 및 과제	목포본부	우민지 · 김현욱		
11. 최근 대경권 휴대폰 수출 동향과 주요 요인 점검	대구경북본부	손윤석		
12. 포항지역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	포항본부	허성준		
13. 강원지역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강원본부	정성환		
14. 강원 영동지역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강릉본부	이기태 · 김영웅		
15. 최근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 부진 요인과 과제	제주본부	이한새		

Ⅲ. 지역경제 연구

1. 경기지역 청년층의 “계속거주” 결정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경기본부	김예진·박은기
2.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영향 분석	광주전남본부	안지연·조진오
3. 대구지역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대구경북본부	박나라
4. 美 신정부 관세정책이 충남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전세종충남본부	남현우·허인지
5. 청주공항 항공 물류 기지화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충북본부	김상미
〈부록〉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자료 목록	각 지역본부	

지역경제보고서

발행인 이창용
편집인 이지호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www.bok.or.kr
발행일 2025년 7월 28일
제작 ㈜제일프린테크 / 지경사문화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뉴스/자료 > 간행물 > 지역경제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전화 02-759-4130, 이메일 bokregeco@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ISSN 2288-4386

